

부산 크리스천문학

Busan Christian Literature

제42호 | 2024년 하반기

권두언

송정우 | 문학의 길

초대시

변종환 | 여행

특집 - 2024년 하계세미나

근대 부산 문학예술에 영향을 끼친 선각자와 작가의
시대적 역할

이상규 | 일제 강점기 마라연 부인의 한국학 연구가 부산
문화예술에 끼친 영향

- 제시 맥라렌의 한국학 연구와 『東京雜記』의 번역

박정선 | 김말봉의 문학과 사상

- 장편 『짚레꽃』과 『밀림』을 중심으로

기획특집

안유환 | 수필이 그리는 그림

작품평

시 평 | 양왕용 | 주님께 회개하는
자세의 시적 형상화

올해의 작가

권갑숙 | 가을의 문장

Busan Christian Literature Busan Christian Literature Busan Christian Literature
Busan Christian Literature Busan Christian Literature Busan Christian Literature



함께 뜨는 손가락



- 부산 남구 출생
-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2017년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수필 등단
- 2018년 《문학도시》 수필 등단
- 현) 부산문인협회 회원, 부산수필문인협회 회원
- 현)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남구문인협회 회원
- 전)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사무국장 역임
- 전) 용당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역임
- 저서: 향토지 《용당동의 빛과 어둠》
수필집 《함께 뜨는 손가락》

그의 수필의 제재는 참신하고, 사소하고 평범한 삶에서 그것을 잘 선택하여 작품화하였다. 내용은 그의 성격대로 꼼꼼하게 전개하였고, 글의 서술은 감성적이고 은유적이다. 또한 그의 글은 사람이나 사상을 비판적이거나 날카롭게 평하지 않은 인간적이어서 좋다.

- 공기화 교수의 <해설> 중에서

부산
크리스천문학
Busan Christian Literature

제42호 | 2024년 하반기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여행

변종환

갈 곳을 미리 정하지는 마세요
이 강산 어디를 가도
높고 낮은 산들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계곡 이쪽저쪽
푸른 숲을 따라 고개를 돌리다보면
산자락 끝에서 물소리도 들리겠지요
길 따라 피어있는
산국 몇 송이는 꺾지 마세요
하나님이 꽃아두신 자리에 있어야 하니까요
산과 들과 또 지천으로 깔려있는
들풀과 나무와 돌 자갈-
그 들꽃 하나하나 이름을 모른다고 실망마세요
나도 아직 당신의 이름을 모르니까요
집들과 집들, 마을과 마을 사이
그 비어있는 공간 전부를
하늘이라 여기시고,
산새 몇 마리 날고 있거들랑
그냥 기뻐하세요
그냥 기뻐하세요.





변종환

- 1967년 출판사 기획시집 『水平線 너머』(親學社) 상재. 1971년 문예지 《백지》《자유문학》《문학예술》《문예연구》 등 작품 활동 시작. 현)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회의 회장 · 한국바다문화학회 회장 ·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 · 부산진문화재단 이사 / 부산문인협회 제16대 회장 · 부산시인협회 제10대 회장 · 한국문인협회 ·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등 역임. 시집 『풀잎의 잠』 『송천리에서 쓴 편지』 『풀잎의 고요』 『겨울 운주사에서』 등 8권
* 산문집 『餘滴』 『釜山詩文學史』 등 4권



올해의 작가 _ 권갑숙



- 부산문인협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문학중심작가회 회원
- 수필 <로템나무를 꿈꾸며>
- 소명교회 출석(권사)

권 작가의 글은 비교적 짧다. 글이 짧다는 것은 생각이 짧고 문장에 생동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수필이 되려면 보이지 않는 수필의 특성인 내재적인 유기적 형식을 잘 살려야 한다. 즉, 시적 표현을 능가하는 은유와 상징과 알레고리, 아이러니, 패러독스 등의 표현이 필요하다. 또한 예리한 관찰력에서 우러난 세밀하고 치밀한 묘사, 지적인 비평 정신과 사상, 선명한 주제와 유효적절한 어휘력 구사, 딱 맞아 떨어진 인용, 잘 맞아 떨어진 문장의 호흡(리듬), 거침없는 문장의 흐름이 관건이다. 권 작가의 수필은 이러한 조건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 구구절절 자세한 설명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상징어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전개한다.

- 박정선(평론가, 소설가)해성중에서 -

하반기 월례회



2024년 하계세미나



1. 일제 강점기 마라연 부인의 한국학 연구가 부산 문화예술에 끼친 영향 - 발제자 : 이상규



2. 김말봉의 문학과 사상(장편 『짚레꽃』과 『밀림』을 중심으로) - 발제자 : 박정선

부산크리스천문학 세미나





부산크리스천문학 제41호 출판기념회



해운대 동백섬 시화전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사무실 현판식



부산 크리스천문학

Busan Christian Literature

제42호 | 2024년 하반기

초대시

변종환 | 여행 2

권두언

송정우 | 문학의 길 13

특집 - 2024년 하계세미나

이상규 | 일제 강점기 마라연 부인의 한국학 연구가
부산 문화예술에 끼친 영향 18

- 제시 맥라렌의 한국학 연구와 『東京雜記』의 번역

박정선 | 김말봉의 문학과 사상 43

- 장편 『찔레꽃』과 『밀림』을 중심으로

기획특집

안유환 | 수필이 그리는 그림 102

작품평<시 평>

양왕용 | 주님께 회개하는 자세의 시적 형상화 114

올해의 작가

권갑숙 | 가을의 문장 122

작품 평 박정선 | 사유의 텃밭을 가꾸는 호미질 소리 127

시

감윤옥 | 새벽닭이 울자 외 1편 150

강위석 | 죽림竹林습유 외 1편 152

김경희 | 천로 역정 외 1편 154

김민주 | 깊고 푸른 물 외 1편 158

김복단 | 맹인의 동전 외 1편 161

김숙희 | 다하지 못한 꿈 외 1편 164

김혜영 | 혈당이 오른다 외 1편 166

발행인 : 송정우 / 주간 : 박정신 / 편집장 : 양윤희 / 편집위원 : 공기화, 권갑숙, 명인숙, 송정우, 조현숙, 최방식

류정희 해운대성령 대집회에서 외 1편	168
박인자 자전거를 탄 부부 외 1편	172
배혜숙 벤자민 을 옮기면서 외 1편	175
송정우 옴 아저씨 외 1편	178
신 선 오른손이 왼손에게 외 1편	180
신현숙 순례자 외 1편	184
양윤희 모과나무 외 1편	187
이가연 그 사람은 없다 외 1편	189
이경옥 망 끝 전망대 외 1편	191
이귀선 가시없는 자 외 1편	193
이선화 기도 외 2편	195
이승훈 기도 외 1편	199
이옥순 금남로 흰 피 외 1편	201
이창희 꽃 그늘 외 1편	205
임병주 너는 내 아들이다	208
정명진 기도합니다 외 1편	210
정연원 인생을 좁는 노인 외 1편	213
조의흥 추억 같은 · 34 외 1편	216
조현숙 물의 길 외 1편	218
최귀례 시라기국 외 1편	221
최만공 작은 전등불 외 1편	223

시조

윤현수 잃어버린 세월 외 1편	226
허성욱 우중산책 2 외 1편	228

수필

공기화 그해 여름의 추억	232
김은희 유럽 성지 순례를 마치고	237
김혜용 이스라엘은 대단한 민족	242
노장현 겨울에서 봄 길목	247
명인숙 오늘은 또 어떤 추억으로 남을까	252

박희두 큰외숙모 김종필 권사님 외 1편	258
성윤자 나의 옛집	265
손정란 감정이란 날개	269
이준우 고삐와 복숭아 회초리 외 1편	274
전진경 내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	281
최방식 헤어질 결심	286
한인환 애월哀月 외 1편	291

동시

박경영 무지개 외 1편	306
----------------	-----

동화

김복임 코딱지나물	308
남 순 양화진에 뜬 별	318
이효정 봄을 깨우는 작은 거인	328
정현옥 택배 아저씨	337

소설

강신구 가빌라	346
-----------	-----

부 록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역대 회장 (1989~2023)	378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연혁	379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역대 회원 명단	396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칙	399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2024년 임원조직	407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주소록	409
2024년 회원 게시판 동정	415

송정우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장



얼마 전 충남 서천을 여행한 적이 있다. 서울에 사는 글 친구들로부터 1박2일 기행에 합류해 줄 것을 권유받았을 때 특별히 서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없어서 조금은 망설여졌다. 그러나 친구들을 만나고 어렵게 찾아온 올해의 가을 향취를 색다르게 느끼기 위해 길을 나섰다.

서천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 각 지역의 자연과 향토색, 역사와 문화의 개별성에 대해 내가 무지하였고 근거 없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번 여행을 통해 성경전래지기념관, 아펜젤러 순직기념관 등 기독교 관련 시설과 전시물을 둘러보고, 유네스코 유산의 한산모시짜기와 목은 이색 및 월남 이상재 등 이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을 더 알게 되고 동백정을 비롯하여 낙조가 아름다운 송림산림욕장 해변의 시간을 즐겼다.

무엇보다도 이번 여행의 진수는 문학하는 친구들과 옮겨간 장

소마다 시와 노래로 화답함에 있었다. 금강변 널따란 ‘신성리갈대밭’ 오솔길을 걸으며 신경림 시인의 ‘갈대’를 낭송하고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로 화답하고, 오력도가 내려다보이는 동백정에서는 안성우 시인의 ‘그 섬에 가고 싶다’가 신타래 풀리듯 풀려 나왔다. 또, 국립생태원 나무들 사이에서 자크 프레베르의 시 고엽(枯葉, Les Feuilles Mortes)을 낭독하며 이브 몽땅의 목소리로 노래를 들었다.

누군가, “시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려면 어디서 허락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의 허락도 없이 시의 나라로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우리의 문학하는 시간은 저녁 후에도 이어져 동석한 지역 시인협회장과 더불어 작품을 읽고 감상하며 밤늦은 줄 모르고 문향에 취했다.

작품을 읽고 쓰는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문학을 하는(어떠한 자리에서나 쉽게 시를 낭송, 낭독하고 음미하며, 수필과 소설의 기막힌 한 문장을 풀어내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은 행복하다. 이렇다 할 상을 수상한 적이 없어도, 설혹 등단작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문학을 사랑하고 일상에서 문학을 즐길 수 있고, 그렇게 문학하는 일상을 통해 문학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작가로서 시와 수필, 소설과 희곡 등 자신의 작품을 쓰며 다른 사람의 작품들도 틈틈이 읽는 시간을 가진다. 작가들은 세상

의 외형적인 가치와 물질의 부요를 좇는 사람들이 아니다. 시대의 아픔을 개별적 서사로 녹여내고 인간 존재의 본질에 천착하는 사람들이다. 자연을 보면서(見), 자신만의 감각과 관념의 변주를 풀어내고, 자신의 인생 경험이 축적된 내면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문자를 통해 인류 공통의 가치실현을 하고자 한다.

서천 기행을 마칠 무렵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들었다. 우리나라 사람이 나의 시대에 노벨문학상을 받다니. 그 소식을 듣고는 처음에 믿겨지지 않았지만, 사실임을 알고는 온몸에 전율을 느끼고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들었다. 황석영, 이문열, 고은 등 한국문학의 거장들이 이루지 못한 쾌거를 50대 젊은 여성 작가가 이루다니, 이렇게 한국문학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는구나. 너무도 기쁘고 기쁘다. 또, 30여개국 언어로 번역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파친코』의 작가 이민진이나, 얼마 전 미국에서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받아 국제적으로 유명해진 김혜순 시인과 맨부커상 최종후보에 오른 정보라 소설가를 비롯한 한국의 젊은 작가들이 앞으로 더 주시를 받으리라는 희망찬 생각도 들었다.

다만,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 대해 마냥 기뻐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문학의 본질과 기능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유성호 평론가는 기독교 시인 황금찬에 대해, “시대의 길목마

다 동시대 사람들이 느꼈을 법한 상처와 비애를 노래했고 시대의 울분과 아픔을 형상화”한 시인이라고 하였다.

그런 황금찬은 자신의 글, 『생활 속에서 찾는 시편들』에서 “닭이 새벽이면 울 듯이 시인은 자유에 의하여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한다...어떤 시는 꽃이 피듯이...가을에 낙엽지듯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시는 사회나 국가에 충고의 말이 되기도 하고...마비되어가는 인류의 양심을 일깨우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그렇게 어떤 문학은 “약자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도 있는 것이다.

글을 쓸 때 문학의 예술성에 몰두하느냐 혹은 사회적 기능에 비중을 두느냐는 작가의 성향과 추구하는 이상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는 우리의 신앙 태도와 비슷하다. 마치 구원의 십자가 표상에서 수직선을 붙들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침잠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태도를 견지할 것인가, 수평선도 중시하여 이웃과 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더 내고 행동을 할 것인가의 차이이다. 그렇지만 가로와 세로선을 엮어야 십자가를 이루듯이 우리가 바라보고 고대하는 천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에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크리스천의 본분일 것이다. 이렇듯 문학의 기능이 참어나 순수냐 하는 것도 너무도 해묵은 논제일 뿐이다.

특집

하계 세미나

근대 부산 문학예술에 영향을 끼친 선각자와
작가의 시대적 역할

.....

- 이상규 | 일제강점기 마라연 부인의 한국학 연구가
부산 문화예술에 끼친 영향
- 제시 맥라렌의 한국학 연구와 『東京雜記』의 번역
- 박정선 | 김말봉의 문학과 사상
- 장편 『찔레꽃』과 『밀림』을 중심으로

- 일시 : 2024년 7월 11일(목) 09:30-12:30
- 장소 : 동서대학교 해운대 센텀 캠퍼스 강당 609호

일제강점기 마라연 부인의 한국학 연구가 부산 문화예술에 끼친 영향

- 제시 맥라렌의 한국학 연구와 『東京雜記』의 번역

이 상 규

(고신대학교 명예교수, 백석대학교 석좌교수)

| 국문요약 |

서양인들의 한국학 연구는 정치외교적 동기와 종교적 동기에서 시작되었는데, 종교적 동기란 내한 선교사들의 선교지 연구 차원에서 전개된 한국에 대한 연구였다. 한국학 연구에 관심을 가진 선교사들은 알렌(H. N. Allen), 언더우드(H. G. Underwood), 언더우드(H. H. Underwood), 게일(James Gale), 아펜젤러(H. G. Appenzeller), 올링거(Franklin Ohlinger), 헐버트(Homer B. Hulbert), 존스(George H. Jones), 트롤롭(Mark N. Trollope), 렌디스(Eli B. Landis), 리처드 러트(Richard Rutt), 에드워드 포이트라스(Edward Poitras) 제임스 그레이슨(James H. Grayson) 등이다. 이들은 미국인 혹은 캐나다인들이었고, 교파적으로는 장로교나 감리교 혹은 성공회 인물이었다. 이들 외에도 호주장로교 선교사 가운데서도 한국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이가

있었으나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다. 그가 제시 맥라렌인데, 그는 의사인 남편과 함께 1911년부터 1941년까지 30년간 한국에서 일했다. 이 기간 동안 제시는 진주와 서울에서 사역하면서 한국학 연구에 몰두하여 한국학 관련 자료와 문서, 문화재를 수집하였고, 특히 경주 지리지라고 할 수 있는 한서 ‘동경잡기’를 1931년 번역하였다. 그로부터 55년이 지난 1986년 그의 역본은 딸 레이첼 휴먼에 의해 출판되었으나 한국 학계에 소개되지 않았으므로 이 논문을 통해 이를 학계에 소개하였다. 이런 한국학 연구는 한국과 부산·경남지방의 한국학 연구를 촉진시켰다.

주요어: 한국학, 제시 맥라렌, 호주, 선교사, 찰스 맥라렌

1. 시작하면서: 문제와 과제

서양인들의 한국학 연구는 1890년대 이후 수행되었는데, 주된 동기는 정치·외교적인 동기와 종교적인 동기였다. 정치적인 동기라 함은 국제관계에서 조선을 탐색하려는 동기에서 수행된 국제정치 혹은 외교업무 관련자들의 연구였다. 1884-1892년 제물포 주재 영국 부영사였던 제임스 스콧(James Scott, 1850-1920)이나 1890년 5월부터 1892년 2월까지 프랑스 공사관 서기관으로 일했던 꾸랑(Maurice Courant, 1865-1935) 같은 이들이 여기 속한다.¹⁾

1) 이영미, “한국을 연구한 초기 개신교 선교사 겸 학자들,” 『한국기독교와 역사』 54(1921. 3), 37.

일본 주재 역사학자로 『은둔국 한국, *Corea: The Hermit Nation*』을 썼던 윌리엄 그리피스(William Griffis, 1843-1928)도 이런 부류에 속한다. 특히 꾸랑은 ‘유럽에서의 한국학 연구의 선구자’로 불리는데 한국에서 출판된 모든 책을 파악해 보고자 했고, 한국 책에 파묻혀 그 책을 연구하고, 그 결과로 한국학의 기념비적인 저서로 알려진 『韓國書誌』(Bibliographie Coréenne)를 간행했다.²⁾ 이 책의 본편은 1894-1896년 어간 3권으로 발간되었고, 1901년에는 보편(Supplement)이 추가되었다. 이 4부작에서 꾸랑은 인쇄술이 개발된 이래 1890년대까지 한국에서 출판된 3,821권의 한적(漢籍)과 한국서적의 목록과 그 책 각 권의 해제를 소개하였으니 실로 방대한 작업이었다.³⁾

한국학 연구에 있어서 종교적 동기라 함은 한국에서 일했던 선교사들의 경우인데, 선교적 필요에 의해 한국의 역사 문화 문학을 연구한 경우이다. 여기서 진일보하여 한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한국학 연구에 크게 기여한 선교사들도 없지 않았다. 선교사들 중에 한국학 연구에 관여한 이들로는 미국 북장로교의 알렌(H. N. Allen, 1858-1932), 언더우드(H. G. Underwood, 1859-1916)와 그의 아들 언더우드(H. H. Underwood, 1890-1951), 게일(James Gale, 1863-1937) 등이 있고, 미국 북감리회의 아펜젤러(H. G. Appenzeller, 1858-1902), 올링거(Franklin Ohlinger, 1845-1919),

2) 꾸랑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진명, “꾸랑, 유럽한국학의 선구자” 『한국사시민강좌』 34(2004), 42-53을 참고할 것.

3) 유명익, “서양인에 의한 한국학의 효시” 『한국사시민강좌』 34(2004), 236.

헐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 존스(George H. Jones, 1867-1919), 성공회의 트롤롭(Mark N. Trollope, 1862- 1930), 랜디스(Eli B. Landis, 1865-1898) 등이 있다. 특히 캐나다인 게일은 41년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학을 연구했는데, 1892년부터 한국학 연구에 몰두하여 1927년에는 『한국민족사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그의 주저로 알려져 있다. 그는 “말로 한 것은 사라지지만 글로 쓴 것은 길이 남는다.”(verba viland, scripta manet)는 확신으로 연구했던 한국학 연구의 선구자였다. 또 후기에는 성공회의 리차드 러트(Richard Rutt, 1925-2011)와 감리교의 에드워드 포이트라스(Edward Poitras, 1932-?)와 제임스 그레이슨(James H. Grayson, 1944-) 등이 있다.

서울에 거주하던 아펜젤러, 올링거, 존스, 헐버트, 게일 등 다섯 선교사들은 중국 광둥廣東에서 발간되던 *The Chinese Repository*를 모방하여 1892년 *The Korean Repository*를 창간했다. 1900년에는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가 창립되었는데, 창립회원은 17명이었고 주한 선교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1903년에는 회원이 73명으로 늘어났고, 1941년까지 회원은 200여 명에 달했다.⁴⁾ 아시아왕립학회 한국지부는 창립과 동시에 첫 회보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를 발간했는데 이 회보는 앞의 *The Korean Repository*와 함께 한국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보급에 크게 기여

4) 유명익, 249.

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처럼 한국학을 연구했던 주한 선교사들은 국적으로는 미국과 캐나다인들이었고, 교파적으로는 장로교와 감리교 그리고 성공회 인물들이었다. 그렇다면 호주 출신, 그리고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 가운데서는 한국학을 연구한 이가 없었을까? 이 글에서는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1889년 10월 호주 빅토리아장로교 첫 선교사로 내한한 헨리 데이비스를 비롯하여 해방 전까지 78명의 선교사가 내한했는데, 이 중 찰스 맥라렌 의사(Dr Charles McLaren)의 아내였던 제시 리브 맥라렌(Jessie Reeve McLaren, 1883-1968)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학계에 제대로 소개된 바 없으므로⁵⁾ 이 지면을 통해 호주 장로교 출신 한국학 연구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의 한국학 연구, 특히 『동경잡기』東京雜記의 번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제시의 내한과 한국학 연구, 그리고 동경잡기의 번역 순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한국학 연구가 후일 한국과 부산·경남 지방 한국학 연구를 자극하고 촉진 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5) 필자는 제시 맥라렌의 동경잡기의 번역에 대해 「크리스찬신문」 1993년 9월 4일자, 「국민일보」 1993년 10월 7일자, 「경주신문」 1993년 8월 28일자에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다.

2. 제시와 찰스 맥라렌의 내한과 활동

제시는 남편 찰스 맥라렌(Charles McLaren, MD, 1882-1957)⁶⁾과 함께 호주장로교 선교부 파송으로 1911년 내한하여 일제에 의해 1942년 강제로 추방되기까지 만 30년간 한국의 진주와 서울에서 활동했다. 남편 찰스는 마라연(馬羅連)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⁷⁾ 한국에서의 최초의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경남지역의 유일한 근대 병원이었던 진주 배돈병원 의사 혹은 원장(1915-1918, 1920-1923, 1939)으로 봉사하였고, 1923년부터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로 활동하면서 한국에서의 신경학 개척자로 활동했다. 1930년대부터는 일제의 식민통치의 부당성을 간파하고 일제의 군국주의의 본질을 비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35년 이후 신사참배가 강요될 때는 종교의 자유와 신앙 양심을 위해 싸웠고,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의료 활동과 더불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던 남편을 따라 제시는 진주와 서울에서 체류하면서 한국학 연구에 몰두하였다.

제시는 호주 원주민선교단체인 ‘푸나와 인디언촌 선교회’(Poona

6) 마라연에 대한 전기적 기록으로는 마라연의 동료로서 주한 호주선교사였던 유영완(Esmond New)의 46쪽의 짧은 기록, *A Doctor in Korea* (Australian Presbyterian Board of Missions, 1958)가 유일하다.

7) 찰스 맥라렌, 곧 마라연 선교사에 대한 논문으로는, 이상규, “마라연 선교사,” 『내한 선교사연구』 (대한기독교서회, 2011), 147-176을 참고할 것. 의사로서의 마라연에 대해서는 민성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맥라렌 교수의 생애와 사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이 있다.

and Indian Village Mission)를 설립했던 찰스 리브(Charles F. Reeve, 1859-1941)⁸⁾의 7남매 중 둘째로 1883년 3월 22일 타스마니아 주 호바트(Hobart)에서 태어났다. 선교사의 딸로 태어난 그 또한 어릴 때부터 선교사의 길을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7살 때 부모를 따라 멜버른으로 이주한 제시는 멜버른의 명문 여학교인 장로교여자학교(PLC: Presbyterian Ladies' College)에서 수학했다. 수학 기간 중 영어와 역사는 항상 최고 성적이었다고 한다.

1901년 SCM 헬스빌대회(Healeville conference)에서 학생자원 선언에 서명하고 선교사의 길을 결단했다. 아버지를 따라 인도로 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귀국하여 1906년 멜버른대학교에 입학하여 철학을 전공했다. 이 기간 철학만이 아니라 문학과 역사 언어도 공부했다. 대학 졸업 후 SCM의 순회 총무로 일하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순회 총무로 일하던 찰스 맥라렌을 만나게 된다. 찰스는 이 젊은 여성에게서 호감과 애정을 가지게 되어 1911년 8월 22일 결혼하게 된다. 학구적이었던 제시는 이런 활동 중에서도 계속 공부하여 1911년에는 문학석사(MA) 학위를 받았다.

남편 찰스는 1882년 8월 23일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파송 일본 주재 선교사였던 사무엘 맥라렌(Samuel Gilfillan McLaren)⁹⁾과

8) 찰스 리브(Charles Reeve)는 호주 타스마니아로 이민 온 영국인으로 1880년 그의 나이 21세 때 유대인 법률가의 딸 애니 피라니(Annie Pirani)와 결혼하였다. 그가 타스마니아(Tasmania)에서 허드슨 테일러의 영향을 받고, 1894년 ‘푸나와 인디언촌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조직하고, 40년간 사역하였다.

9) 스코틀랜드 출신인 사무엘 맥라렌은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문과(Arts)를 공부한 후

마조리(Marjory) 사이의 5남매 중 차남으로 일본 동경의 쓰키지(築地, Tsukiji)에서 태어났는데, 4살 때인 1886년 아버지를 따라 호주 멜버른으로 이주하였다. 장로교회가 설립한 명문학교인 스캇치 칼리지(Scotch College)에서 수학한 찰스는 아홉 살 때 빅토리아의 포트 알링톤(Port Alrington)에서 개최된 유명한 전도자 존 맥닐(John McNeil)의 선교집회에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했고, 14세 때인 1896년 3월 존 모트(John R. Mott)¹⁰)가 호주를 방문했을 때 조직된 ‘오스트랄라시안 기독교학생연합’(Australasian Student Christian Union) 모임에서 감명을 받고 선교사의 길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그 후 찰스는 멜버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수학하고 1906년 의대를 졸업하였고, 이듬해에는 멜버른병원(Melbourne Hospital)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 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받았다. 당시 교장으로 있던 존 케언스 박사(Dr. John Cairns)는 그를 “현재까지 내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최고의 학생”이라고 격찬했을 만큼 우수한 학생이었다. 그는 법률, 성경언어와 라틴어에 능했으며 수학, 논리학 등에도 깊은 식견을 가진 인물이었다. 신학교육을 마친 그는 목사가 되었고, 그의 아내와 함께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Scotland)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1875년 9월 일본 동경 쓰키지(築地)에 도착하였고, 명치학원의 ‘연합신학교’(Union Theological Seminary, Meiji Gakuin)의 교수로 활동했다. 사무엘은 일본에서 9년간 교수 선교사로 사역하고, 1884년 안식년으로 스코틀랜드로 돌아다. 1886년에는 호주 멜버른으로 이주하여 빅토리아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of Victoria) 목사가 되었다. 그는 다른 16명의 교단 지도자들과 함께 호주 장로교회가 데이비스(J. H. Davies)를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해 줄 것을 청원했다. 1889년에는 장로교여자학교(Presbyterian Ladies College) 교장으로 임명되어 1912년 은퇴할 때까지 23년간 교장으로 봉직했다. 제시 리브는 이 학교에서 공부하였고, 후일 교장의 며느리가 된다. 이상의 중요한 정보는 E. New, A Doctor in Korea (Sydney: The Australian Presbyterian Board of Missions, 1958), 2-5에 근거함.

- 10) 존 모트는 선교동원가로서 세계복음화라는 이 시대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영어권 나라들을 순방하고 학생선교단체를 조직하도록 격려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1908년에는 멜버른의 아동병원(Children's Hospital)에서 연수하였다. 이런 의사로서의 수련기간 동안에도 학생 선교단체에서 활동했고, 1910년에는 순회 총무로 일하게 된다.

선교사로서의 준비, 전문의로서의 의료적 자격, 제시와의 결혼 등 모든 준비를 갖춘 그는 1911년 9월 초 멜버른의 스캇츠 교회당에서 모인 선교사 파송예배에서 호주장로교 한국 선교사로 공식 임명을 받았다. 그로부터 3주 후인 9월 말 멜버른을 떠나 한국으로 향했다

이들 부부가 일본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1911년 10월 30일 월요일이었다. 부산항 부두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멘지스(Belle Menzes) 일행의 영접을 받았고, 곧 진주의 배돈병원(Paton Memorial Hospital)에 배속하였다. 그래서 제시와 찰스는, 1910년 3월 내한 이래로 배돈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가볼란서(Miss Frances Clerke)와 1910년 11월 내한한 대마가레(Margaret Davies)의 인솔로 진주로 향했다. 경상남도의 도청소재지였던 진주는 부산으로부터 약 145km(90마일) 떨어진 곳이었으나 이동하는데 3일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찰스가 부임할 당시 25개 병상에 지나지 않았으나 외래환자는 연 7,000건에 달했다고 한다.¹¹⁾ 진주에 배속된 제시와 찰스 부부는 지금의 진주시 봉래동의 배돈병원 뒤에 위치한 선교사관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우선 한국어 공부에 열중하였다. 이때부터 제시는 한국의 언어와 역사,

11) 이만열, 『한국기독교의료사』(서울: 아카넷, 2003), 451.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의 고유한 정서를 익히고자 힘썼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한국학 연구는 후일 서울로 이거한 이후 본격화 되었다. 제시와 찰스는 진주에서 6년여 활동했다. 이 기간 동안 제시는 남편을 도와 주일학교 운영, 유치원에서의 봉사, 야학교에서의 성경 교수 등을 감당하였다.

그러다가 찰스는 제1차 대전에 참여하게 된다. 전쟁은 1914년 발발하여 1918년까지 계속되었는데, 모두 27개국이 참전하였다. 영연방으로 실질적으로 영국의 우산 아래 있던 호주도 이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호주군의 참전이 결정되었고, 영국에서 교수로 있던 찰스의 형 부르스는 1916년 8월 아베빌(Abbeville)에서 전사하였다. 찰스는 형의 전사 소식을 듣고 영국군에 의무 장교로 참전하기로 결심하였고, 1917년 12월 입영이 허락되었다. 이때부터 1920년 4월까지 군의관으로 활동했다.

찰스가 한국을 떠나 있는 동안 배돈병원은 테일러 의사(Dr William Taylor)와 진 데이비스(Dr. E. Jean Davies) 의사가 진료를 담당했다. 1920년 찰스는 제시와 함께 다시 한국 진주로 돌아왔고, 1923년 2월 찰스의 가정에는 첫 아이 레이첼(Rachel Reeve)이 태어났다. 이때 찰스의 가정에서는 이미 세 사람의 한국 여자 아이를 양녀로 보양하고 있었다. 찰스는 진주에서 1923년 초까지 일하고, 서울로 이동했다. 세브란스의전과 병원에서 그를 교수로 초빙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한국의 인구는 약 2천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신경과 전문의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또 한국의 유일한 의료 교육기관이자 진료병원이었던 세브란스에서는 신경정신과가 설치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현실에서 찰스를 초빙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제시도 남편을 따라 서울로 이동했다.

이때부터 찰스는 1938년까지 15년간 신경학을 담당하면서 한국 신경정신과의 초석을 놓았다.¹²⁾ 찰스의 의료 활동, 인간 이해, 의료 사역에 대한 신학적 이해, 혹은 영혼과 육체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해서는 그가 남긴 소책자, *Some Medical and Scientific Implications of the Christian Faith*¹³⁾ 외에도 *Medical Journal of Australia*,¹⁴⁾와 *Korea Mission Field*에 기고한 선교보고서가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그의 질병 이해는 인간 이해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철학적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¹⁵⁾ 서울에서의 체류는 제시의 한국학 연구에 큰 유익을 주었다. 당시의 타 선교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학 관련 자료의 수집도 용이했기 때문이다.

12) 연세대학교백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백년사,3』(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367. 맥라렌은 진주에 체류하던 1913년부터 세브란스에 출강하기 시작했고, 세브란스에 신경정신과교실이 설치된 때는 1917년이였다. 따라서 맥라렌이 신경정신학을 가르친 기간은 25년에 달한다.

13) Occasional Leaflet, No 3 of the Council on Medical Missions, Chinese Medical Association (February, 1934).

14) 마라연의 대표적인 논문은 1940년 5월호에 기고한 “Australian Medical Work in Korea”이다.

15) 이 점에 대해서는 McLaren, “Christianity and Disease,” *The Australian Inter-Collegian* (September 1, 1944), 104-6을 참고할 것. 동일한 내용이 *The Messenger* (29, June, 1945), 616에 게재되어 있음.

3. 제시의 한국학 연구

찰스가 세브란스의전에서 봉사하는 기간 제시는 이화여전에서 성경과 역사를 가르쳤다. 또 이화여전 캠퍼스의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는 일과 조경 사업에도 기여하였다. 이 또한 그의 관심 영역이었기 때문이었다. 제시는 호주 멜버른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였지만 문학과 예술, 역사 분야에도 깊은 관심과 소양을 지니고 있었다. 언어에도 조예가 깊어 대학 재학 중 헬라어와 라틴어를 습득하였는데, 이런 고전어에 대한 이해는 한국학 연구에 유용한 자원이었다. 그는 한국 문화와 역사, 언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문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한학과 일본어까지 공부하였다. 적어도 한문에 대한 실력은 상당한 수준이었고, 이런 배경에서 후론하게 될 『東京雜記』를 번역하게 된다.

제의의 수학 배경 때문에 한국학 연구 영역도 다양했다. 한국학 연구의 1차 단계는 한국학 관련 자료의 수집이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의 역사, 문학(시), 언어와 예술, 법과 제도, 그리고 자연과 동·식물학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관심을 표명하였고, 유관 도서를 수집했다. 그는 도서만이 아니라 서첩이나 서화, 골동품 등 다양한 문화재를 수집했다. 필자가 1987년 그가 살던 집을 방문했을 때 그의 딸 레이첼이 보여준 제시의 수집품에는 민속자료, 병풍 등 진기한 골동품이 적지 않았다. 제시가 남긴 장서를 보면 이상의 분야에 관한 문헌들 외에도 건축, 전기, 불교학, 유학, 예술, 곤충학, 그리고 각종 동양의 요리서 등 실로 다양했다. 이것만 보아도 제시

의 관심의 폭과 한국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사실 제시는 남편 찰스보다 한국어가 능통했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 깊었다.

제시가 한국에서 은퇴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동안 수집해 온 우리말과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로 된 각종 도서를 가져갔는데, 1968년 제시가 사망한 후 그의 딸인 레이첼 휴먼 여사가 1985년 이 장서 136권을 캔바라(Canberra)에 있는 호주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에 기증하였다.¹⁶⁾ 호주 국립도서관에서는 이 책들을 동양언어부(Orientalia) 학국어과에 비치 보관하고 이 도서들을 ‘맥라렌 휴먼 장서’(McLaren-Human Collection)로 호칭하고 있다. 또 기증된 이 책들에는 ‘제시 맥라렌의 장서로부터’(Ex Libris Jessie McLaren)라는 장서표를 해 두었다.

기증된 문서 가운데, 문헌집으로는 鄭元容 編 『文獻撮要』(朝鮮古書刊行會, 1911), 유교 관련서로는 偈循 撰 『三綱行實圖』(1490), 예술분야 서적으로는 『列聖御筆帖, 太祖-景宗』(18세기), 지역 사료로는 『新增東國輿地勝覽』(1906), 역사서로는 金富軾의 『三國史記』(1909) 『東國通鑑』(1911), 언어 관련서로는 戒일의 『辭課指南』(1894), James Scott, *English-Korean Dictionary*(Church of England Mission Press, 1891), 문학 관련서로는 李滉, 『陶山記』(1572), 尹以明 編 『三節遺稿』(1672), 문학 혹은 시집으로는 崔理煥 彙選, 『性靈集』(1854-1858), 철학서로는 莊子の 『南華真經』(1680), 정치 관련서로는 李肯翊 編 『燃藜室記述別集』(1913) 등이

16) 기증한 도서 목록은 호주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뉴스레터 Issue No. 9 (March, 1985)와 June, 1990를 참고할 것,

있다.

제시의 이런 한국학에 대한 애정과 연구 때문에 1924년 이후 아시아 왕립학회 정회원이었고,¹⁷⁾ 이미 1936년부터 아시아 왕립학회 한국지부 도서관에서 자료 정리와 도서 구입 등에 도움을 주었는데,¹⁸⁾ 1938년부터는 사서로,¹⁹⁾ 그리고 기독교서회의 사서로 활동했다.

4. 『동경잡기』의 번역

한국학 연구자로서 제시가 남긴 가장 중요한 공헌은 한국의 고전인 『동경잡기』東京雜記를 영역한 일이었다. 이 영역본은 수기 혹은 타자본으로 남아 있어 사장될 뻔했으나 그의 딸 레이첼이 기록을 다시 정리하고 타자하여 *Kyung Ju (now Kyongju), Korea's Ancient Capital, An Historical Miscellany, 57 BC - 1669 AD* 이란 이름으로 편집하였고, 1986년 2월 출판되었다. 초판으로 꼭 20권을 출판했다. 독자층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20권만 인쇄한 것이다. 이 책이 번역된 지 55년이 지난 후였다. 제시가 이 『동경잡기』를 번역하고 역자 서문을 썼을 때가 1931년 1월 29일이었다. 그로부터 55년이 지나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이다.

필자는 레이첼로부터 이 역본 3권을 인수하였는데, 한 권은 필

17)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xv (1924), 86.

18)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xxvi (1936), 53.

19)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xxviii (1938), 232.

자가 소장하고 다른 한 권은 고신대학교 국문학 교수인 김권호 교수에게, 다른 한 권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보냈다. 그리고 이 역본에 대해 1993년 한국 교계에 보고한 바 있다.²⁰⁾

『동경잡기』(규장각 도서번호는 1255,1375,3275,5314, 5458)는 57 BC부터 AD 1669년까지의 동쪽(東)의 수도(京), 곧 옛 경주慶州에 대한 역사, 풍물 지리지인데 동경지東京誌 혹은 동경통지東京通誌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 책 속에는 경주의 풍속, 명신名臣, 충의忠義, 효우孝友, 열녀烈女 문학과 시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이 책은 1669년(현종10년) 민주면閔周冕(1629-1670)에 의해 목판본木版本 3권 3책으로 간행되었고, 1711년에는 부윤 남지훈이 동경잡기 증간본增刊本을 발행했다. 그 후 1845년 현종 11년 다시 간행되었고(책 크기 33.2 X 22.4), 1909년(명치 42년)에는 다시 유득모柳得慕에 의해 선간選刊 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大正 2년(1913) 12월에는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에 의해 4x6 배판 크기의 서책으로 출판되었다. 편수 겸 발행인은 최남선이었다. 이 책이 1989년 9월 민속원民俗苑에 의해 반포되었다.

이 책은 전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권卷之一에서는, 동국통감에서 발췌한 진한에 대한 기록인 진한기辰韓紀를 비롯하여, 시조 박혁거세부터 경순왕까지 역대 왕의 즉위와 사망에 기사 등을 포함한 신라기新羅紀, 그리고 경주지계慶州地界, 건치연혁建置沿革, 호연혁官號沿革, 속현屬縣, 진관鎮管, 속임屬任, 인리노비人吏奴婢, 읍명邑名,

20) 각주 5) 참고할 것.

성씨姓氏, 풍속風俗, 산천山川, 승지勝地, 토산土産, 성곽城郭, 관방關防, 봉수烽燧, 궁실宮室, 창고倉庫, 학교學校, 역원驛院, 교량橋梁, 사묘祠廟, 능묘陵墓, 기우소祈雨所 등을 취급하고 있다.

제2권卷之二에서는, 불우佛宇, 고적古蹟, 수藪, 호구戶口, 군액軍額, 전결田結, 제언堤堰, 각방各坊, 각동各同, 명환名宦, 인물人物을 다루고 있다. 특히 호구에서는, 삼국유사에 언급된 신라 전성기의 인구에 대해 기술한 후 1669년의 경주 지역 인구에 대해 기술하고 있고, 각 동에서는 경주를 33 개 동同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은 경주가 중소도시이나 당시에는 경상도의 으뜸가는 도시였고, 1789년 호구 조사에서 경주는 서울, 평양, 충주와 더불어 조선의 5째 안에 드는 인구 밀집 도시였다.

제3권卷之三에서는, 우거寓居, 과목科目, 음사蔭仕, 효행孝行, 우애愛, 충의忠義, 정렬貞烈, 기예伎藝, 서적書籍, 제영題詠, 잡저보유雜著補遺, 이문異聞으로 구성되어 있고, 권말卷末에는 남지훈南至薰과 성원묵成原熱의 발문이 더해져 있다.

이처럼 동경잡기는 17세기 중반 경주 지역의 통치 구조는 물론 향촌 사회상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경주 사회의 구조, 구역, 각종 기관, 제도, 인물 등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책에 소개된 인물들의 행적을 통해서 경주 지역의 인물사뿐 아니라 이 책 편찬 당시 사족士族들의 동향과 경주 부민의 동태를 엿볼 수 있다. 또한 고적古蹟·불우佛宇·궁실宮室·학교學校·능묘陵墓 등에는 17세기 중반까지 경주 지역에 있던 문화 유적의 현황과 위치가 생생하게 남아 있다. 현재 소실된 여러 유물이나 유적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경주의

시·공간적 역사 복원에도 유용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의 내용은 17세기 중엽 이전까지의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사회상을 보여주는데, 서양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인에게 신비로운 책으로 이해되었다. 제시가 이 책을 번역했을 때는 1931년인데 한국에 온 지 20년이 지난 후였다. 이 책의 번역본 서문에서는 한국인 김원근(Kim Wun Kun)과 방신영(Pang Sin Yung)의 도움이 컸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김원근은 영어에 익숙하지 못한 인물이었고, 방신영과는 자구적으로 번역하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했다고 말하고 있다.

위에서 소개한 『동경 잡기』 목차의 제목만 보더라도 이를 영역하기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짐작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책 전반에 흩어진 시를 번역하기 어려웠고, 서양인의 시각이나 편견 없이 번역하기가 어려워 거의 포기할 정도였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방신영 씨 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이 시대의 관직이나 왕조의 부침에 대한 기록을 적절한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 난제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제시가 이 책을 영역하게 된 것은, 1911년 내한했을 당시 경주에 대한 영문 안내서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아시아 왕립학회 한국지부장을 역임한 마크 트롤립의 소개로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번역과 번역의 정확성의 관하여는 후일 별도로 소개하고자 한다.

제시는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학 연구 외에도 초기 한국의

여성 지도자였던 김필례(金弼禮) 여사와도 교분이 깊었고, 그와 함께 1922년 한국에서 여자기독교청년회(YWCA)를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²¹⁾ YWCA는 1922년 6월 65명의 여성이 모인 가운데 정식 조직되었는데, 부산에서는 1946년 과거 부산시장을 지냈던 양성봉 장로의 누이인 양한나에 의해 시작되었다.

5. 신사참배 반대와 한국에서의 추방

1930년대 한국 사회는 암울한 시기였다. 1931년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득세하자 극동의 운명은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제사와 찰스는 이 변화하는 동양, 특히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의 신도 이데올로기를 보면서 그 파장이 가져올 조선의 운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예견했던 것처럼 1935년부터는 신사참배가 강요되기 시작하였고, 1936년부터는 교회와 교회 기관에도 조직적으로 강요되기 시작하였다. 이 문제는 선교부와 한국교회, 그리고 선교부가 운영하는 선교학교의 장래에 심각한 문제를 안겨주었다. 신사참배를 용인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학교를 폐쇄하든지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문제는 선교부 간의 공동전선을 수립하지 못했고, 호주장로교 선교부 내에도 일관된 입장이 없었다. 대체로 학교 교육에 종사하는 선교사들 예컨대, 멩호은(F. J. L.

21) 한국YWCA 편찬위원회, 『한국 YWCA 반백년』(서울: 대한YWCA 연합회, 1976), 16, 18, 24.

Macrae), 대마가레(M. Davies), 서오성(S. Scott) 등은 학교 교육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신사참배 요구를 수용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들 외에도 대표적인 신사참배론자로는 한국에서 40년 가까이 일했던 매견시(J. N. Mackenzie)였다. 그는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신사참배 반대자가 구속된 것은 일본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지역 경찰의 과잉반응이라며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선교사들은 내한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임 선교사들로서 이 나라 언어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철부지들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하였다.²²⁾

매견시 등과는 반대로 호주 선교부 내에서 신사참배를 강하게 반대했던 이들로는 부오란(F. Borland), 서덕기(J. Stuckey), 나레인(H. Lane), 고도열(A. Cottell), 그리고 여선교사들인 허대시(D. Hocking), 태매시(M. Tate) 등이었지만 지도적 인물은 찰스 맥라렌이었다.²³⁾ 그는 1936년 2월의 호주장로교 선교부가 발표한 신사참배 거부 결의안을 추진하고 제안했던 인물이다. 그는 신사참배 건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그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군국주의적 국가주의(nationalism)의 위험성을 보고 있었다.²⁴⁾ 그의 영향으로 호주 선교부는, 1939년 진주에서 모인 회의에서 신사참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

22) Mackenzie, "The Shrine Question," *Messenger* (March 17, 1939), 608.

23) C. I. McLaren, "The Pagan State and the Christian Church in Japan," *Th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May, 1943), 16-27.

24) McLaren, *They Kept the Faith*, 8.

명하였다. 그러나 그가 일하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속한 연희전문학교 교장 원한경(H. H. Underwood)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으로 수용하고 학교 교육을 계속하여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므로 찰스는 1938년 세브란스를 떠나 호주 선교부 병원인 진주 배돈병원으로 돌아왔다. 찰스와 제시는 다시 진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일본제국은 소위 ‘대동아 공영권’을 꿈꾸며 전쟁정책을 지향하여 조선의 하늘에는 전운이 감돌았고, 1940년 당시 주한 미공사관인 게이로드 마쉬(Gaylord Marsh)는 모든 미국인은 한국에서 떠날 것을 종용하고 있었다. 결국 1940년 11월 16일, 미국 선교사 219명은 특별철수선 마리포사(S. S. Mariposa)호로 귀국길에 올랐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함으로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제 호주 선교사들도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한국을 떠났다. 제시도 1941년 4월 호주로 귀환하였다. 그 후에도 한국 진주에 남아있던 찰스는 부산의 예원배(A. Wright) 선교사 부부, 그리고 통영의 나레인(H. Lane) 선교사와 함께 가택연금되었고, 찰스는 진주에서 11주 동안 투옥되어 있었다. 이때의 경험은 후일 『일본 감옥에서 보낸 11주』(*Eleven Weeks in a Japanese Cell*, 1943)라는 제목의 소책자로 출판되었다. 11주(77일)간 투옥되었던 찰스는 1942년 2월 23일 부산으로 이송되어 예원배 목사 집에서 3개월간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그 후 포로 교환선 타츠타 마루(Tatsuta Maru)로 동아프리카의 포르투갈까지 갔고, 그곳에서 다시 호주로 돌아갔다. 이때가 1942년 11월 16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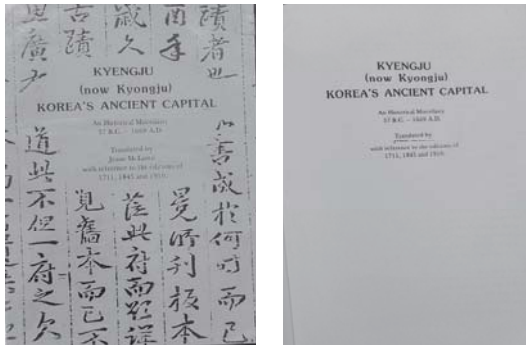
이렇게 되어 꼭 1년 7개월 만에 제시는 남편 찰스와 재회하게 되었다. 이들은 멜버른 교외 큐에 있는 자택(4 Barry St., Kew)에서 생활하던 중 찰스는 1957년 10월 9일, 수요일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고, 제시는 이로부터 11년 후인 1968년 3월 28일 사망하여 남편 옆에 묻혔다. 그 후 고명딸인 레이첼 휴먼 여사가 1985년 제시가 남긴 한국학에 대한 장서를 캔버라에 있는 호주국립도서관에 기증한 것이다. 제시의 한국학 연구는 후일 한국과 부산·경남지역에서 한국학 연구를 자극하고 촉진하였다.

제시가 사망하고 꼭 20년 후 필자가 큐의 배리 4번지, 곧 제시와 찰스 맥라렌이 살던 집으로 찾아갔을 때 딸 레이첼 휴먼 여사는 남편 피터와 함께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정원에는 은행나무 두 그루가 조선의 정취를 드러내고 있었다. 정원 곳곳에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이 뒹굴고 있었다. 제시가 호주로 돌아올 때 가져온 묘목이 46년을 보내고 아름드리나무로 변해 있었다. 제시가 사용했던 공부방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예술품들이 이국의 여성이 걸어갔던 수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첨부 사진〉



1. 東京雜記 표지



2. 동경잡기 번역본 사진



3. 호주국립도서관의 맥라렌-휴먼 장서 안내 문 표지

Korean Studies by the foreigner were conducted by two motives, political or diplomatic motives and religious motives. Religiously motivated studies by the early missionaries were undertaken to enrich suitable knowledge in the mission field. Those who were interested in Korean studies were: H. N. Allen, H. G. Underwood, H. H. Underwood, James Gale, H. G. Appenzeller, Franklin Ohlinger, Homer B. Hulbert, George H. Jones, Mark N. Trollope, Eli B. Landis, Richard Rutt, Edward Poitras, and James H. Grayson. All these missionaries were either Americans or Canadians and were affiliated to Presbyterian, Methodist or the Anglican Churches. Then, was there any Australian who devoted to Korean studies? In this paper the writer presented Mrs. Jessie McLaren, an Australian lady missionary who dedicated her entire life to Korean studies. She, during 30 years from 1911 to 1941, collected various documents materials and artwork to research on Korea and focuses on the studying Korean language as an academic discipline. She mastered Japanese and Chinese as well, and finally translated 東京雜記 written in old Chinese in 18th century, and published in 1986 by her daughter Mrs. Rachel Human. Nevertheless, such works have yet been reported. This paper designed to report this meaningful endeavor to the academia.

Key words: Korean studies, Jessie McLaren, Australia, Missionary, Charles McLaren

참고문헌

- 민성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맥라렌 교수의 생애와 사상』.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 연세대학교 백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백년사3』.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 유영의. “서양인에 의한 한국학의 효시,” 『한국사시민강좌』 34(2004): 236-255.
- 이만열. 『한국기독교의료사』. 서울: 아카넷, 2003.
- 이상규. “마라연 선교사,” 『내한선교사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 이영미. “한국을 연구한 초기 개신교 선교사 겸 학자들,” 『한국기독교와 역사』 54(1921. 3): 37-66.
- 이진명. “꾸랑, 유럽 한국학의 선구자” 『한국사 시민강좌』 34(2004): 42-53.
- 한국YWCA 편찬위원회. 『한국 YWCA 반백년』. 서울: 대한YWCA 연합회, 1976.
- New, Esmond. *A Doctor in Korea*. Sydney: Australian Presbyterian Board of Missions, 1958.
- Mackenzie, N. "The Shrine Question," *Messenger* (March 17, 1939).
- McLaren, C. I. "Christianity and Disease," *The Australian Inter-Collegian* (September 1, 1944): 104-6.
- _____ "The Pagan State and the Christian Church in

Japan," *Th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May, 1943):
16-27.

Occasional Leaflet, No 3 of the Council on Medical Missions,
Chinese Medical Association (February, 1934)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xv (1924).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xxvi (1936).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xxviii (1938).

김말봉의 문학과 사상

- 장편 『짚레꽃』과 『밀림』을 중심으로

박 정 선

| 국문 초록 |

1930년대는 대중소설 시대였다. 대중소설은 말 그대로 대중의 흥미를 목적으로 하는 소설로 신문연재와 잡지를 통해 독자층을 형성했다. 대중의 흥미를 끌자면 소설은 반드시 연애소설이어야 하고 연애 서사는 중첩된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이는 독자 확보를 위한 매체(신문, 잡지)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상업성과 직결되었다. 따라서 이것을 대중연애소설, 또는 통속소설이라 불렀고, 김말봉은 대중소설 통속작가의 첫머리에 놓일 만큼 유명세를 떨쳤다. 그리고 장편 『짚레꽃』은 그를 단숨에 유명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결



| 박정선 |

소설가, 시인, 문학평론가, 소설로 심훈문학상 당선, 영남일보 신춘문예 당선, 대표작 장편 『백년동안의 침묵』(문광부 우수 도서), 『순국』외 9권, 소설집 『청춘에 찬시대는 끝났다』(우수출판콘텐츠선정)외 4권, 평론집 『고독의 경지』, 『존재와 사유』, 『타고르의 문학과 사상』외 5권, 소설로 영남일보 문학상, 심훈문학상, 한국해양문학대상, 아라홍련문학대상, 부산문학대상, 김만중문학상, 부산시문학상 외 다수. 현재 문학중심작가회 공동대표.

정적인 작품이다.

그러나 당시 문단은 순수문학(본격문학)을 우위에 두었고, 대중소설은 저급한 문학으로 취급하는 풍토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남성 위주의 작가들은 대중소설(통속소설)을 쓰면서도 대중작가라는 말은 듣지 않으려는 이중성을 보였다. 즉 유명세와 고료를 위해서는 대중소설을 써야 하고, 명예를 위해서는 순수문학 작가로 불리기를 원했던 것이다. 아울러 그들은 유명세를 날리는 김말봉을 통속작가라고 비판하면서 폄훼하기에 바빴다. 그런데 김말봉은 거침없이 “나는 대중소설가”라고 선언하면서 “순수 귀신은 물러가라”고 외쳤다. 당시에는 남성 엘리트 문인들이 문단을 주도했고, 여성 작가의 위치가 취약한 현실에서 ‘대중작가’라고 천명한 것이나 ‘순수 귀신 물러가라’는 외침은 일대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용기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와같이 김말봉은 남성 중심의 문단 권력에 대한 항거를 서슴지 않았고 남다른 그의 신념은 일본어로 글을 쓰라는 권고(강요)를 거부하는 용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즉 유명 작가 김말봉은 일제에 대한 항거로 절필을 실행했고, 절필로 인하여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해방이 될 때까지 절필을 고수한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김말봉의 『절레꽃』을 젠더성, 섹슈얼리티, 또는 멜로드라마적인 연애의 흥미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중소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를 살아야 했던 작가 정신, 곧 절필로 보여준 조국애의 시대정신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행 연구자들이 간과한 작가의 조국애와 강자의 약자 지배에 대한 배경과 기독교와 아나키즘 사상에 의한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 인권, 나눔등을 포괄한 작가 정신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김말봉의 연애소설 『질레꽃』은 단순한 연애소설이 아닌, 흥미 위주의 연애소설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이다. 남성 위주의 문단 권력에 대한 항거와 일본어로 글을 쓰라는 강요를 거부하고 펜을 꺾어버린 용기는 '비록 작가는 사회의 부도덕과 불의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실행할 수 없는 고귀한 신념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적 비평 차원에서 김말봉의 태생, 초등에서 일본 유학까지의 학업과정, 세 번의 결혼에 대한 아픔, 평탄치 않았던 교회 생활, 부산에서 태어나 해방이 될 때까지 부산에서의 작가 생활, 한국기독교 역사상 최초 여성 장로 피선 등등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았다. 작가의 삶은 작품과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편 『질레꽃』을 통해 보여준 김말봉의 사상은 지나간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다가올 미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키워드 : 통속소설, 순수문학, 신문연재, 김말봉, 문단 권력, 일제강점기, 조국애, 절필, 결혼, 작가 정신, 젠더, 섹슈얼리티, 기독교, 아나키즘, 민주주의

1. 서론

우리나라 근대문학은 1919년 삼일 만세운동 이후부터의 문학을 말한다. 그리고 1919년부터 1944년까지를 근대문학의 제1기로 본다. 근대문학에 이르러 우리 문학은 세계적인 서구 문학의 영향을 받아 범위가 확장되면서 이전의 교술 문학을 몰락시켰다. 시는 오로지 서정시라야 한다는 주장으로 교술 시를 버렸고, 교술 산문은 문학의 범위 밖으로 밀려나가거나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특히 소설은 근대문학의 꽃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이전의 비영리 출판으로 유통되던 소설이 영리적 출판으로 유통되는 시대가 열렸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문 연재 소설이다. 신문은 당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탓에 1920년대와 1930년대는 그야말로 신문 연재 소설이 문학판을 주도했다. 그리고 신문 연재 소설은 어떤 소재이든 남녀 간의 연애를 테마로 한 탓에 대중 연애소설, 또는 통속소설로 치부되었다. 통속소설이란, 임화의 통속소설론 이후 통속소설과 순수문학의 갈래가 정착되면서 엘리트 남성 문인들이 통속문학(대중문학)의 우위에 있는 순수문학론을 내세웠다. 그리고 임화는 당시 문단의 최고 지식인으로 통했던 평론가로 그의 말은 곧 문학을 규정짓는 기준이었다. 따라서 임화가 언급한 문학판은 오늘날까지 문학 연구의 중심축이 되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1920년대 초기부터 이광수, 염상섭, 방인근 등 주로 남성 작가들이 연재소설을 독점하면서 명성을 날렸다. 여성 작가는 1930년대

에 가서야 신문 연재소설 작가가 출현하기 시작했고 김말봉은 선배 작가 강경애와 함께 그 첫머리에 놓이는 작가이다.

그리고 김말봉의 첫 장편 『밀림』과 『짚레꽃』은 신문 연재소설로 김말봉을 일약 스타작가로 만들어낸 작품이다. 장편 『밀림』은 1935년 9월 26일부터 1938년 2월, 7일까지 동아일보에 2년 2개월 동안 연재되었고, 장편 『짚레꽃』은 1937년 3월 31일부터 당해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다. 김말봉은 30여 년 동안 작가 생활을 하면서 시, 평론, 수필, 소설, 동화 등 다 장르를 섭렵한 폭넓은 작가로 알려졌는데 맨 처음 시로 문학을 시작했다. 1922년 6월 『신생활』에 시 「암흑을 깨뜨리고」, 「비 오는 빈춘」, 「광야에 누워」, 「머리 둘 곳은 어디?」(1922. 7.)를 발표했다. 다음으로 평론 「이상향의 남녀생활」(1922. 8.)을 발표했고, 수필은 「일기 중에서」(1922. 9.)를 같은 잡지에 발표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시작한 소설은 1925년 4월 단편소설 「시집살이」가 <동아일보> 가정소설 공모에서 3등으로 당선되었고, 7년 후 1932년 1월 단편 「망명녀」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소설가로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문단에 나오자마자 신문 연재소설 작가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김말봉은 창작 생활 30여 년 동안 단편 20편, 장편 30편 동화 8편, 시 6편, 수필 47편, 평론 2편, 잡문 3편을 남겼으나 지금까지 대부분 연구는 『짚레꽃』으로 한정되어왔고, 통속소설이라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 분야도 천편일률적으로 젠더, 페미니즘, 섹슈얼리티 등 통속적인 대중성에 집중되어왔으며 멜로드라마적

성격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연애소설, 대중소설을 쓰는 일명 통속작가라는 관념 아래 당대에도 김말봉은 문단의 남성 엘리트 계층으로부터 이단자(통속소설가) 취급을 받아야 했는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당시 사회문화적 젠더 양상은 말할 것도 없이 남성 위주였다. 그러나 김말봉은 “나는 대중소설가이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면서 남성 위주의 거센 물살과 정면으로 맞섰다. 김말봉은 그것도 모자라 기라성 같은 대선배들 앞에서 “순수 귀신을 버리라!”고 소리쳤다. 당시 통속문학, 즉 대중문학이라는 말은 순수문학에 비해 격이 떨어진 것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스스로 통속작가임을 선언한 것은 어떤 확신에 찬 자신감과 대담성이 아니면 감히 시도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처럼 김말봉이 자신을 일러 대중소설가임을 스스로 천명한 이 대담한 사실은 일종의 선언서처럼 고전화되었고, 많은 연구자에 의해 고착되면서 김말봉에 대한 이미지로 굳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정자를¹⁾ 비롯하여 몇몇 연구자들²⁾ 통속소설론의 키워드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해보려는 시

-
- 1) 서정자, 「김말봉의 대중소설 『짚레꽃』의 사상」—「휘트먼과 아리시마 다케오, 그리고 아나키즘」 『한국여성문학연구』 51면, 2020.
 _____, 「김말봉의 『밀림』 재론」, —「아나키즘과 기독교 정신 구현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학연구』 49면, 2020.
 _____, 「삶의 비극적 인식과 행동형 인물의 창조」—「김말봉의 『밀림』과 『짚레꽃』 연구」 『한국여성문학연구』 190면, 2002.
- 2) 안서현, 「젠더, 서사, 지도」-김말봉의 초기 장편소설에 대한 ‘지도 그리기’의 시도, 서울대학교, 2023.
 박종홍, 「김말봉 『밀림』의 통속성 고찰」, 『어문학』, 76, 2002.
 김미영, 「김말봉의 ‘밀림’과 ‘짚레꽃’의 독자수용과정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고찰」, 『어문학』 107, 2010.
 장두영, 「김말봉 『밀림』의 통속성」, 『한국현대문학연구』 39, 2013.

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유의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말봉에 대해 가장 심층적으로 연구해온 서정자는 김말봉 문학이 지닌 진정한 가치를 기독교와 아나키즘 사상에서 찾고 있다. 즉 젠더로 대표되는 섹슈얼리티와 연애소설의 통속성에 감추어져 있는 작가 정신과 사상을 해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그리고 서정자는 연구자들이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장편 『밀림』을 『찔레꽃』과 아울러 연구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³⁾ 이 두 작품은 연재 시기가 겹치거나 이어져 있으면서 작가의 사상이 가장 잘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37년 3월 31일부터 그해 10월 31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된 『찔레꽃』은 김말봉의 두 번째 소설이기도 하고 첫 번째 소설이기도 하다. 이유는 『찔레꽃』이 첫 번째 연재소설 『밀림』의 중간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1935년 9월 26일부터 <동아일보>에 연재하던 『밀림』은 일제로부터 <동아일보>가 강제정간(일장기 말살 사건으로)을 당하자 기약 없이 중단되고 말았다. 그때 <조선일보>편집국장 노산 이은상으로부터 소설 연재를 청탁받게 된다.⁴⁾ 그렇게 하여 조선일보에 『찔레꽃』을 연재하게 되었고, 『찔레꽃』 연재를 마친 다음 동아일보가 복간되어 다시 『밀림』을 연재하게 되었다. 따라서 『찔레꽃』

3) 동아일보에 연재되던 『밀림』은 동아일보가 4번째 정간되자 연재가 중단되었다. 그때 조선일보에서 김말봉에게 자기네 신문에 다른 작품을 연재 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때 『찔레꽃』이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다. 그리고 『찔레꽃』 연재가 끝난 후 동아일보가 다시 복간되자 중단되었던 『밀림』을 다시 연재했다. 따라서 연구자 서정자는 이 두 작품을 연계하여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서정자, 앞의 논문 『김말봉의 대중소설 『찔레꽃』의 사상』, 174면.

을 먼저 완성했으므로 오히려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해야 옳다.

이렇게 같은 시기에 연재된 두 작품은 김말봉의 사상을 이해하기가 합리적인 편인데, 서정자는 김말봉이 ‘여성 작가이고 대중소설가라는 점’ 때문에 그의 문학이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김말봉 연구에서 느낀 것은 김말봉이라는 작가의 거인적 풍모”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⁵⁾ 거인적 풍모란 물론 텍스트를 통해 드러나게 마련이지만 작가의 생애를 통해서 발견되는 일이기도 하는 바, 서정자는 김말봉의 생애 연구가 너무 미비하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정자의 논점(기독교와 아나키즘 사상에 동의하면서 장편 『짚레꽃』을 바탕으로 김말봉 작가의 생애와 대중 연애소설의 통속성과 통속소설에 숨어있는 그의 진면목(사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김말봉의 생애에 대한 연구도 미비한 편이지만 『짚레꽃』은 당시 연애소설이라는 거센 물결에 그의 사상과 커다란 작가의 면모가 휩쓸려버린 면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짚레꽃』에 나타난 김말봉의 사상은 서정자가 본 기독교 사상과 상호부조와 협동 사상인 아나키즘에 이르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자유와 평등, 나눔과 배려라는 거대 담론을 거쳐 조국애와 민족애에 닿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제에 항거한 애국, 애족 사상이 숨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녀의 보편적인 연애를 통해 작가는 시대의 불의와 부도덕을 고발하는 장치를 빌려 민

5) 서정자, 앞의 논문 『삶의 비극적 인식과 행동형 인물의 창조-김말봉의 『밀림』과 『짚레꽃』 연구, 194면.

족의 미래를 예시하는 글을 쓴 것이다.

따라서 김말봉의 사상은 크게 분배와 나눔, 인권,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조국애로 볼 수 있다. 그는 너무 확실하게 일제에게 압박받는 자기 민족을 위해 『밀림』과 『짚레꽃』을 썼기 때문이다. 일본어로 글을 쓸 것을 강요받자 절필한⁶⁾ 김말봉은 통속소설이라는 작품 『짚레꽃』으로 일제에게 항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문마다 표제 『짚레꽃』을 여성이 꺾어야 하는 고통과 한恨의 정서, 설움의 정서로 보는 것은 소극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김말봉의 애국 행위를 살펴보면, 1919년 삼일운동 당시 주모자로 투옥되어 고문으로 한쪽 귀가 멀었다.⁷⁾ 또한 일어로 글을 쓰라는 강요를 끝까지 물리치고 해방이 될 때까지 절필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 연재하던 『밀림』 후편은 1938년 12월 25일까지 연재한 후 중단되어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잘나가는 소설가가 모국을 버리고 남의 말로 글을 써야 하는 것은 의식이 있는 작가로서는 모욕적인 일이며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 문인이 일본어로 글을 썼을 뿐만 아니라 앞다투어 일본어를 모국어로 받들어 상찬하면서 영광으로 알았다. 그런 와중에 펜을 꺾는다는 것, 가난으로 고통받으면서도 해방이 막연한 상태에서 절필을 선언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던지는 강렬한 의지가 아니고는 엄두조차 내지 못할 일이다. 그러므로 『짚레꽃』에는 김말봉의 애국

6) 김말봉이 직접 절필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 또 절필 이유를 밝힐 수도 없는 현실이었음을 감안하면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다.

7) 한무숙, 『아아, 김말봉 선생』,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서정자,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애민사상이 잘 드러나게 마련이며 작품과 함께 그의 생애를 연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명한다는 것은 작가 개인은 물론 소설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뜻깊은 의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2. ‘그 나무에 그 열매’론적 김말봉 – 태생, 결혼, 교회

일찍이 역사, 전기적 비평가 생트뵈브(Charles Augustin Sainte-Beuve, 1804-1869)는 그 유명한 말 “그 나무에 그 열매”를 강조하면서 위대한 작품은 그것을 낳은 위대한 작가의 창조력에서 기인함을 중요시했다. 그리고 생트뵈브의 이론을 체계화한 비평가 텐(Hppolyte Adolphe Taine, 1829-1893)은 “화석이 된 조개 껍질 뒤에는 생물이 있었고 문서 뒤에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서, 전기적 비평에 있어서 작가의 전 생애의 문맥을 통해 작품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텐은 문학을 결정하는 요소를 “인종, 환경, 시대” 등 세 가지로 보는 일명 3요소설을 내세워 작가의 생애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해명해야 한다면서 작가의 개성, 사상, 작가의 정신적 자세, 평판과 영향, 교육, 종교, 연애, 결혼, 심지어 교우관계까지도 세밀하게 파악해야만 비로소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말봉의 생애부터 살펴보면, 김말봉은 1901년 4월 3일 부산에서 다섯 딸 중 막내로 출생했다.

여러 논문 가운데 밀양에서 출생했다거나 3녀 중 막내로 표기하고 있으나 말봉은 수필 『나의 少年時節』에서 밝히기를 “나는 경남

부산 시내의 영주동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계속해 딸만 다섯을 낳았는데 나는 막내딸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더 딸을 낳지 말자는 생각에서였던지 내 이름을 끝봉이라 하였다.”라고 쓰고 있다.⁸⁾ 막내라는 뜻으로 끝봉이라는 이름을 지었으나 호적에는 말봉으로 기록되어 있다. 딸만 무려 다섯이나 낳은 그의 부모는 아들이기를 바랐던 아쉬움을 달래는 심정이었는지 말봉에게 남자 옷을 입혀 키웠다고 한다.⁹⁾ 부산 영주동에서 태어난 말봉은 초량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기록이 있는데 『초량교회 100년사』에 “김끝봉(말봉), 영주동, 김윤중의 딸, 1902년 12월 5일 문답하여 성찬 참여”¹⁰⁾ 라는 당회록을 참고해 보면 말봉이 1901년 4월생이므로 한국 나이로 2세쯤에 유아세례를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 말봉의 생애 연구의 일인자로 알려져 있는 서정자는 논문 『김말봉의 대중소설 『질레꽃』의 사상』에서 “다섯 살 된 김말봉의 손을 잡고 밀양을 떠나 부산으로 온 작가의 아버지 김윤중은 안질을 앓아 삼십 년간 의원을 따라다니는 등 지병과 싸우고 있었기에”¹¹⁾ 라고 썼으나, 초량교회 당회록은 물론 김말봉이 수필을 통해 직접 밝힌 것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다.

그 후 말봉은 미국 선교사 어을빈 부인 베르타(Bertha K. Irving)가 영주동 선교센터 근처에 세운 야학교(여자)에서 초등과정을 마

8) 김용성, 『한국현대문학사 탐방』, 현암사, 1984. 337면.

9) 김용성, 위의 책 같은 면.

10) 『초량교회 100년사』, 1994. 115면.

11) 서정자, 앞의 논문 『김말봉의 대중소설 『질레꽃』의 사상』—휘트먼과 아리시마 다케오, 그리고 아나키즘, 188면.

치고, 역시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부산 일신여학교에 입학(1914)했다. 일신여학교 3년을 수료한 다음 서울로 상경하여 다시 기독교계 학교인 정신여학교 4년에 편입하여 1919년 3월에 졸업한다. 정신여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1919년부터 황해도 재령 명신여학교에서 3년여 동안 교편생활을 하다가 1922년 11월 도쿄에 있는 송영고등여학교 4학년에 편입하여 다음 해(1923)에 5학년을 마치고 졸업한다. 어떤 논문에는 ‘고근여숙’에 다시 입학하여 졸업했다고 되어있으나 이는 오류다. 서정자가 조사한 바로는 학적부에 속소가 고근여숙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송영고등여학교를 졸업한 말봉은 1924년 4월 11일 교토 동지사 여자전문학부 영문과에 입학하여 1927년 3월 21일 졸업한다. 그리고 1929년 수주 변영로의 추천으로 변영로가 편집장을 맡고 있는 중외일보 기자로 활동하던 중 문학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필명으로 김보옥(步玉), 아호는 끝뫼, 노초(路草), 노엽(露葉) 등을 사용하면서 문학의 길을 가게 된다.

이와같이 말봉의 학업은 초등부터 일본 유학까지 계속하여 기독교계 학교로 이어졌는데 이는 초등시절 스승인 선교사 어을빈 부인 베르타의 영향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베르타는 선교사 어을빈의 아내로 통상 ‘어을빈 부인’으로 불린다. 『초량교회 100년사』에 “1893년 11월 9일 한국에 온 의사 어을빈(Irvin) 가족이 이듬해 3월 부산에 부임하여 1911년까지 선교사로 일하다가 그 해 4월 1일 자로 선교사직을 사임했다”¹²⁾는 기록이 있다. 미국 북

12) 『초량교회 100년사』, 59면.

장로교 소속인 어을빈 부부가 선교사직을 사임한 것은 1911년 선교지 분할 정책에 따라 부산이 호주선교지역으로 재편된 탓이었다. 따라서 부산에서 더 이상 선교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인데, 최근 <국제신문>기사(2024. 3. 18.) 『수장고에서 찾아낸 유물이야기 (93) 어을빈과 만병통치약 만병수』 편을 보면 어을빈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있다. “근대의 만병통치약 만병수’ 홍보책자, 엄청난 판매고, 독립자금으로 기부”라는 부제와 함께 책 표지가 실려있는 기사를 참고하면, 미국 의료 선교사로 부산에 온 찰스 어빈(Charles H. Irvin, 1862-1933)은 어을빈漁乙彬이라는 이름으로 의료 선교 활동을 하면서 ‘메리 콜린스 휘팅 시약소’를 열어 운영했다. 이곳은 미국 북장로교의 부산 의료선교 중심지가 되었고 1903년 전킨병원(초량)으로 확장되었다. 이 병원은 부산과 경남지역에 세워진 최초 근대식 병원으로 8년간 존속하면서 연평균 6만 명에서 최고 1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이 외에도 어을빈은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부산에 최초 한센병 환자 전용시설인 상애원(감만동)을 세웠다. 그 후 1911년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어을빈 병원’을 열어 각종 약품을 제조해 팔았다. 이때 만든 게 만병수(소화제)인데 이 약은 1900년대 초기 만병통치약으로 유명세를 떨친 약이었다.

그런데 1911년 선교지 분할 정책에 따라 부산이 호주선교지역으로 재편된 탓에 미국 북장로교 소속인 어을빈 부부는 부산에서 더 이상 선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들 부부는 여기서부터 각자 삶을 살기 시작한다. 어을빈이 간호사와 스캔들로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어을빈 부인은 일본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

떠난 것이다. 그리고 어을빈은 계속 부산에 남아 병원(어을빈 의원, 부산 중구)을 운영하면서 지역에 봉사했고 만병수 사업을 하면서 거금 30만 원을 독립운동 자금을 내기도 했다.¹³⁾ 서정자 논문에 의하면 “김말봉은 일본으로 간 어을빈 부인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 일신여학교를 다니다가 서울 정신 여학교로 전학을 한 것도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 소속학교로 이동하여 일본 유학에 지장이 없게 하려던 것일 수 있고 도쿄의 송영고등 여학교 편입도 어을빈 부인의 안내였을 수 있다.”¹⁴⁾는 것이다. 말봉이 동지사(도시사) 여자전문부 영문과에 입학할 무렵 어을빈 부인이 동지사 여자전문부에서 음악을 강의하고 있었다는 기록에 의해서다.

이와같이 말봉의 학업은 순조롭게 흘러갔으나 교회 생활은 순탄하지 못했다. 당시 초량교회는 교인들의 사생활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교회법을 어길 경우 징계를 내렸는데, 징계에는 ‘책벌’과 ‘출교’ 두 가지가 있었다. 책벌의 기간은 무기한, 1년, 6개월 단위로 구분했고 책벌 방법은 교인 앞에 책벌 됄을 광고하는 경우와 본인에게만 통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책벌이 되면 성찬, 성례 식에 참석할 수 없고 공동처리회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 간통을 한 경우는 무기 책벌이 주어졌고, 불신자와 혼인할 경우는 1년간 책벌을 내렸다. 다만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경우에는 6

13) KBS 부산 재발견 제작팀, 『그때 그 사람들』, 『TV로 보는 부산의 역사 부산 재발견』, 도서출판 우진, 2012. 참고.

14) 서정자, 앞의 논문 『김말봉의 『밀림』 재론』(아나키즘과 기독교 정신 구현방식을 중심으로), 179면.

개월 책벌로 감해주었다. 징계 가운데 출교(교인 자격 박탈)는 최고의 징계로서 제명 처분되었다. 경우에 따라서 학습 세례가 무효화 되기도 했다. 해벌은 책벌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 기간이 경과되면 해벌이 되는데 이것도 공식적으로 공고했다. 무기의 경우는 일정한 절차가 있었다. 그리고 말봉은 초량교회에서 세 번의 책벌을 받은 기록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1921년 : “김말봉 씨(20세, 인용자, 이하 동일)는 덕성스럽지 못해 1년간 책벌하는데 본인에게만 알리고 교회에 광고는 하지 않는다.(1921. 2. 2.) - 『초량교회 100년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1994. 107면
- ② 1926년 : 김말봉 씨(25세)는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년간 책벌하여 두기로 오는 주일에 광고하기로 한다.(1926. 9. 5.) / 위의 책, 143면
- ③ 1927년 : 불신자와 혼인한 죄로 1년 동안 책벌 아래 있던 김말봉 씨는 기한이 되었으므로 해벌한다.(84회 당회 1927. 8. 6.) / 위의 책 143면
- ④ 1930년 : 김말봉 씨(29세)는 제7계명(간음)을 범하고로 무기 책벌키로 한다.(106회 당회, 1930. 12. 20.) / 위의 책 144면

말봉이 세 번이나 책벌을 받은 것은 결혼문제로 인한 것이었다. 말봉은 결혼을 세 번 했다. 서정자 논문과¹⁵⁾ 『김말봉 전집 3, 찔레꽃』의¹⁶⁾ 연보에 의하면 첫 번째 결혼은 1924년 동지사 대학에 재학 중일 때 이의현(이의형)과¹⁷⁾ 동거한 것으로 나와 있다. 동지사

15) 서정자, 앞의 논문 「삶의 비극적 인식과 행동형 인물의 창조」(김말봉의 『밀림』과 『찔레꽃』 연구, 224면.

16) 김말봉, 진선영 편, 『김말봉 전집 3, 찔레꽃』, 소명 출판, 2014. 533면.

17) 첫째 남편에 대한 이름은 이의현, 이석현 등으로 여러 자료에 나와 있으나, 서정자가 새로 밝혀낸 바로는 이의형이다. 서정자도 2002년 첫 번째 논문에서 이의현으로 쓴 바가 있었으며 2020년 논문 「김말봉의 대중소설 『찔레꽃』의 사상」에서 이를

여자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28년 첫딸 매매(재금)을 낳았다. 증언 자들에 의하면 유학비도 처음에는 하와이로 간 큰언니(보배)의 조력이 있었으나 첫째 남편 이의형 씨가 조달해주었다고 한다.¹⁸⁾ 그러나 딸을 낳은 후 곧 첫 결혼을 정리하고(혼인신고 안 된 상태) 1930년 전상범과 두 번째 결혼하여 부산(동구 좌천동)에서 거주하면서 쌍둥이 남매 ‘영’(아들)과 ‘보옥’(딸), 그리고 재옥(딸) 등 아이 셋을 낳는다. ①의 책별은 이유를 알 수 없으나 ②의 책별은 첫 번째 남편 이의형이 불신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논문이나 기타 자료에서는 첫 결혼을 전상범으로 보고 있는데 전상범과의 결혼은 1930년이므로 전혀 맞지 않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전상범은 두 번째 남편이다. 따라서 1926년 9월 5일 초량교회 당회에서 책별을 결정했으므로 말봉은 1926년에 첫 결혼을 했다는 게 증명이 된다.

③은 앞의 책별에 대한 해별이다. ④의 책별은 두 번째 남편 전상범과의 결혼이며 ”제7 계명(간음)을 범한고로“라는 책별 이유는 전상범이 유부남이었던 탓으로 보인다. 말봉이 전상범과 재혼을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독교 신문>에 실린 내용에 의하면, 말봉은 전상범이 청년 시절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로 말봉이 전상범을 좋아했다. 그러나 전상범은 김경순이라는 여성과 결혼한다. 김경순 역시 말봉이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바로 잡았음을 밝혔다.

18) 서정자, 위의 논문 「삶의 비극적 인식과 행동형 인물의 창조」(김말봉의 『밀림』과 『찔레꽃』 연구), 196면. 서정자는 이 논문에서 박노석 시인과 김선목이라는 두 사람이 증언하기를 김말봉의 유학비는 하와이에 있는 큰언니(보배)와 첫 남편 이 씨가 대주어 학업을 마칠 수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순은 전상범과 사이에 아들 ‘홍’이와 딸 ‘해금’을¹⁹⁾ 낳고 사망하게 된다. 전상범은 다시 초등학교 교사 여운영과 재혼한다. 이때 말봉은 일본 유학 중이었고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하여 딸 매매(재금)를 낳은 시기였다. 그리고 말봉이 중외일보 기자로 있을 때 우연한 기회에 다시 전상범을 만나 살림을 차리게 되자, 여운영은 전상범의 전처 김경순이 낳은 큰아들을 데리고(여운영은 자식을 낳지 못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인근에 방을 얻어 자취 생활을 하면서 남편 전상범이 돌아오기를 바랐다.²⁰⁾ 그러나 말봉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첫 번째 남편에게 이별을 통고하게 된다.²¹⁾ 그리고 전상범과 서울에서 살림을 차렸다가 기자를 그만두고 부산 영주동으로 내려와 동거하면서 친지들에게 청첩장을 냈는데 청첩 내용이 1930년 중외일보 『별건곤』 「풍문첩」에 실려 있다.

『중외일보』 여기자 었던 金末峰씨는 미국 하와이로 유학을 간다고 부산 고향으로 도라가더니 유학은커녕 當地 전尙範군과 결혼을 하고 左語와 가튼 조선 추용의 최신식 청첩-안이 포고문을 그의 친지들에

-
- 19) 전상범의 전처 김경순이 낳은 딸 전해금은 김말봉의 시 「그네」를 작곡한 금수현의 아내다. 그리고 금난새는 금수현의 아들이다. 따라서 김말봉의 친딸은 아니지만 금수현은 김말봉의 사위이며 금난새는 김말봉의 외손자인 셈이다.
- 20) 기독교 신문, 「기독교 정신과 사회상의 변증법적 통합(3), (영천의 한국기독교 소설 산책), 2022. 5. 26.
- 21) 서정자는 2020년에 발표한 논문 「김말봉의 대중소설 『질레꽃』의 사상(휘트먼과 아리시마 다케오, 그리고 야나키즈), 『여성문학연구』 51, 185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제주 사람 이의형 씨에게 여러 자녀가 있었고 김말봉은 이 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사실이 밝혀진 다음 이씨와 헤어져 서울로 올라왔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게 發하였다. 미구에 또 生女生子 통고문이 잇기를 바라거니와 미국은 신혼여행으로 가시라는지 또한 궁금.

敬啓生等이 去 11월 26일 上午 11시에 瀛州洞 525번지 자택에서 결혼시글 거향 얏삽기 茲以仰告하옵나이다. 1930년 11월 29일 全尙範 金末峰“「1930년 11월 26일 부산시 영주동 26일 부산시 영주동 525번지에서 전상범과 결혼」, 『별건곤』 제36호, 1931. 1. 1. 22)

중외일보 별건곤 풍문첩에 실린 내용을 보면 미국 하와이로 유학을 간다고 신문사에 사표를 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뜻밖에 신문사로 결혼 청첩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말봉은 두 번째 남편과도 이별死別하게 된다. 1936년 1월 전상범이 사망한다. 전상범과 5년 정도를 살고 사별한 말봉은 다음 해 1937년 이종하와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해 1937년 6월 딸(정옥)을 낳았고 1941년 4월 4일 아들(무. 성우)을 낳았다. 이렇게 하여 말봉은 세 번의 결혼 끝에 총 6명의 자녀를 두게 된다.²³⁾ 이종하는 밀양사람으로 재산가였고 신문화운동가였고 아나키스트였다.²⁴⁾ 사실 말봉과 세 번의 결혼을 서정자는 신문화 활동과 아나키스트 관계로 본다. 말봉의 첫째 남편 이의형, 두 번째 전상범, 세 번째 이종하는 모두 아나키스트로 신문화 활동을 했고 말봉도 함께했기 때문이

22) 서정자, 『김말봉의 『밀림』 재론』(아나키즘과 기독교 정신 구현방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9, 181면, 2020. 재인용.

23) 전상범과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는 어려서 사망했다고 한다.

24) 말봉이 밀양에서 태어났다거나 원적이 밀양이라는 다수의 논문은 말봉이 밀양사람과 혼인을 했고, 또 말봉의 부모가 밀양이 원적 본적이었으므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시는 크로포트킨(1842-1921)의 『청년에게 호소함』이라는 글로 세계를 강타한 아나키즘이 진정한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배려와 나눔과 상부상조의 협동을 가장 인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상으로 세계적으로 유행한 시대였고, 이들은 모두 아나키스트였기 때문이다.

독립운동가 가운데 촌철살인의 논설로 시대를 질타했던 단재 신채호(1880-1936), 영남의 대표적인 유림 심산 김창숙(1879-1962), 독립운동에 가문의 모든 것을 바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현한 우당 이회영(1867-1932) 등이 모두 아나키즘에 매료된 인물이었다. 특히 신채호는 한일병합 이후 중국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 노신과 함께 활동하면서 김창숙과 이회영에게 차례로 아나키즘을 전파한 인물이다. 부산에서 활동하던 아나키스트 박노석(본명 박영환, 1913-1995?)²⁵⁾ 시인의 증언(1989. 1.)에 의하면 “말봉은 아나키즘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 첫 번째 남편 전상범은 삼화고무 본사에 근무했고 박노석 시인은 재료공장에 근무했는데

25) 일명 백운산 뼈꾸기라고 불렀던 박노석은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같은 고향 사람 하기락과 함께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다. 15세 무렵부터 아나키즘에 매료됐다. 해방 전까지 고향 함양에서 조선일보 지국장을 하면서 민족계몽운동, 독립지원운동에 참여했다. 일제 말기에는 조선 근로자 청년동맹 비밀결사에 가담했다. 해방이 되자 부산으로 갔다. 1946년 ‘자유민보’ 창간 동인으로 논설위원을 했다. 하기락과 함께 경상남북도 아나키스트 연맹 기관지 ‘자유연합’을 발행했다. 1957년 ‘경남일보’ 편집국장을 지냈다. 영남문화회를 만들어 동인지 ‘영문’의 주간을 지냈다. 부산에서는 이주홍, 유지환 등과 교류하면서 시작 활동을 하다가 1971년 문인들이 잠들어 있는 양산 백운산 공원묘지의 묘지기로 들어가 세상과 멀리하면서 살다가 백운산에 묻혔다. 사망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 데 ‘내’ 기억으로는 1995년? 쯤 일 것으로 기억된다. *(자신의 글에서 ‘필자’라는 표현은 자신을 높이는 말일 뿐만 아니라 일제가 남긴 유산이므로, ‘나’로 표기함)

두 사람 모두 아나키즘에 공감했다. 박노석은 크로포트킨의 『청년에게 호소함』을 읽고 피가 끓어올라 민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고향(함양)으로 내려가 조선일보 지국장을 맡았다. 그리고 박노석은 김말봉의 중매로 세 번째 남편 이종하의 여동생과 결혼하여 김말봉의 시누이 남편이 된 사람이다. 박노석 시인은 말봉의 일본 유학도 첫째 남편 이의형의 권고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초기에는 언니(보배)가 도와주었으나 유학 학비는 이의형이 전담했다고 한다. 그리고 졸업하자 부산 초량교회에서 결혼식을 했고 목포로 내려가 잠시 살았다고 했다. 그리고 말봉은 해방 이후 아나키스트 유림이 이끄는 독립노동당의 부녀부장으로 세 번째 남편 이종하는 농민부장으로 피선되었는데 이와 같은 증언은 박노석이 쓴 『끝뫼 아주머니와 나』라는 글에²⁶⁾ 나와 있다. 말봉은 이종하와 결혼한 후에도 계속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작품을 창작하다가 해방이 되자 서울로 이주했다.

그리고 1954년 세 번째 남편 이종하가 사망한다.²⁷⁾ 교회 생활은 기존 교회에 가지 않고 개척교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역에서 가까운 성남교회(동자동)에 출석하게 되는데 당시 성남교회는 예배드릴 건물이 없어 조선신학교(현재 한신대학교)에서 수업

26) 정하은 편저,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종로서적, 1989, 37면 참고. 서정자, 「김말봉의 『밀림』 재론」(아나키즘과 기독교 정신 구현방식을 중심으로), 178면 재인용.

27) 이종하의 전처가 낳은 아들 이현우는 김관식, 천상병 시인 그리고 소설가 천승세와 더불어 기인으로 불렸는데 이현우는 1980년 이후 행적이 끊어지고 말았다. 제5공화국이 실시한 사회정화라는 이름 아래 불량자들을 교화한다는 삼청교육대로 잡혀가 거기서 사라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없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다. 『서울 성남교회 50년사』를 보면 “1945년 12월 2일, 12월 첫 주일 당시 조선신학교 강단에서 송창근 목사의 인도로 첫 예배를 드림. 성 바울교회로 창립, 교회창립 7인 위원회가 조직됨(정진홍, 박여호수아, 전상철, 정문영, 최성율, 남연이, 김말봉)”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남교회는 1945년 12월 2일이 교회 창립일이고 김말봉은 성남교회 창립위원회 위원이 된 것이다. 그 후 성남교회는 교회 건물을 세우게 되었고(1961), 『성남교회 50년사』에 “1957년 12월 8일 성남교회 장로(한광태, 김말봉)로 被選되었다.”²⁸⁾는 기록이 보인다. 여성 제1호 장로가 탄생한 것이다. 말봉은 장로 피택을 받고 4년 만인 1961년 2월 9일 폐암으로 사망했다. 향년 60세였다. 그는 지금 망우리 공동묘지를 터 잡아 남편 이종하와 나란히 잠들어 있다. 그 후 성남교회는 1965년 7월 26일 헌당기념예배를 드렸으나 성남교회 창립위원인 김말봉 장로는 안타깝게도 헌당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다. 다음은 성남교회 50년사에 나와 있는 그의 흔적이다.

- 1945. 12. 2. : 12월 첫 주일 당시 조선신학교 강단에서 송창근 목사의 인도로 첫 예배를(밧줄 인용자, 이하 동일)드림, 성 바울 교회로 창립, 교회창립 7인 위원회가 조직됨(정진홍, 박여호수아, 전상철, 정문영, 최성율, 남연이, 김말봉)
- 1947.5. : 송창근 목사 위임(초대 당회장)과 당회 조직(송창근 목사, 박여호수아, 정문영, 정진홍 장로)
- 1948.4. : 조선신학교 교정에 80평 성전을 신축 입당
- 1951.4. : 부활주일에 부산에서 피난교회 설립(중앙교회당)

28) 『서울 성남교회 50년사』 가운데 1945년 12월 2일부터 2015년까지 활동 사항 참조.

- 1953.4. : 부산에서 임시 교회당 구입(대청동)
- 1953.8. : 서울수복과 부산의 성남교회가 서울로 복귀
- 1955.10.23. : 성전 머릿돌 놓음
- 1955.12. : 성전건축 제1차 공사(1층) 완료 입당
- 1957.8. : 한국신학 대학으로부터 교회부지 매입
- 1957.12.8. : 한광태, 김말봉 장로 장립
- 1959.8. : 교회당 2층 공사 착공
- 1961.11. : 성전건축 제3차 공사(2층 내부) 및 제1단계 완료 2층 입당
- 1965.7.26. : 송장근 목사 순교기념 예배당 헌당식 겸 추모예배

- 성남교회 50년사 연혁 중에서(밑줄 인용자)

3. 연애소설의 통속성과 『찔레꽃』의 서사

1930년대는 연애 서사가 아니면 신문에 연재할 대상이 되지 못할 정도로 연애소설 시대였다. 그리고 연애소설을 주로 통속소설로 취급했다. 연애소설의 특징은 남자들과 여자들의 삼각관계가 여러 층으로 중첩되면서 복잡하게 얽히는 구조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애 서사가 만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상업주의의 속성으로 치닫는 신문과 잡지들이 대중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연애 테마를 겨냥했기 때문이다. 이를 일러 조동일은 “통속소설이 아니고서는 업주는 들인 밑천을, 작가는 쏟은 노력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²⁹⁾고 했는데 연애소설이 아니고서는 흥미를 유발할 수 없으므로 역사소설이든 사회소설이든 장편이라면 그런 성향을 다분히 지녀야 했다.

한편으로는 일제로부터 해방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

29) 조동일, 『통속 연애소설의 기본형』, 『한국문학통사』 5권, 지식산업사, 1994. 353면.

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임화는 “일제 말 억압적 정치 상황에 따른 도피주의적 태도와 신문의 상업주의에 편승한 처세에 따라 통속소설은 선정성예의 몰두, 도식적 구조, 우연의 남발에 침윤하게 되었다.”³⁰⁾고 지적할 정도로 당시 정치 상황은 극도에 달했다. 1930년대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도한 ‘황국신민화’ 정책은 조선을 일본과 하나로 동화시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일본을 진정한 조국으로 인식시켜 물적 인적 자원에 있어 당시 전쟁(만주사변에 이어 중일전쟁)을 위한 수탈을 용이하게 하고, 독립정신을 통제하려는 극도의 압박정책이었다. 즉 “나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학생용). … / 우리는 황국 신민이며 충성으로써 군국(君國(임금과 나라)에 보답하자(성인용). …)를 전 국민이 다 외워야 하는 ‘황국 신민 서사’ 제정(1937. 10. 1.)은 조선 민족의 혼을 빼앗아버리면서 더 이상의 광복에 대한 희망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리고 말았다. 이런 현실에서 흥미 위주 연애소설은 어찌면 당대 우리 민족이 숨 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920년대 초기부터 신문에 연재될 기회가 많아진 통속소설은 단행본으로도 매우 성행했다. 『망월루』(1924), 『경포대』(1926), 『열정』(1926), 『월미도』(1928), 『애루몽』(1930), 『짜사랑』(1928), 『청춘의 화몽』(1934), 『그 여자의 눈물』(1937) 등이 대표적인 작품인데, 연애소설의 통속성 때문에 작자들은 필명을 사용하거나 아예 작자를 밝히지 않기도 했다. 반면 문단에 정식으로 나와 활동하면

30) 임 화, 『통속소설론』, 학예사, 1940. 387-410면 참조.

서 가장 먼저 연애소설을 연재한 작가는 최독견(崔獨鵬)(1901-1970)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표작으로 꼽히는 『승방비곡』을 1929년 <조선일보>(1929. 5. 10.-9. 11.)에 연재하여 크게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작가들은 연애소설은 곧 통속성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연애소설을 쓰면서도 통속작가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예는 동아일보 연재소설(1932. 11. 5.-1933. 6. 12.) 『마도의 향불』로 유명한 방인근(1898-1975)이 그 현실을 잘 보여준다. 방인근은 자비로 『조선문단』을 내면서 나름대로 고급 문학을 육성하려다가 지탱하지 못해 결국 통속소설 작가로 나섰기 때문이다.³¹⁾

이와 같은 풍토에서 통속소설가라는 범주에 들지 않으려면 애욕과 욕망을 비판하면서 오로지 지고지순한 순정만을 부각시켜야 했다. 1930년대 연애소설을 주도한 이광수가 쓴 『유정』, 『사랑』이 좋은 본보기이다. 이 두 작품은 유부남과 미혼 여성 간의 부도덕한 연애임에도 이광수는 성적 관계가 배제되어 있다는 이유로 윤리적인 주제를 지닌 작품은 통속소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애욕을 느끼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오로지 순정만으로 일관하는 사랑을 그리면 통속소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김말봉은 예외였다. 그는 장편 『밀림』과 『찔레꽃』을 연재할 때 대중소설가라는 선언과 함께 ‘대중소설’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면서 대중소설이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자 임화는 그의 패기에 찬 선언을 두고 “우리 문단에서

31) 조동일, 위의 책, 354면.

씨처럼 최초부터 통속소설을 들고나온 작가도 없고 그 길에 철저한 이가 없었다.”고 했는데³²⁾ 임화의 말은 결코 칭찬 같지는 않아 보인다. 더욱이 ‘최초부터’와 ‘그 길에 철저한’이라는 말은 신념에 찬 소신으로 보기보다는 완벽한 통속작가라는 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짚레꽃』이 연재될 때 김남천은 『조선 인기 여인 예술가 군상』이라는 글을 통해 김말봉을 평하면서 일본의 菊池寛³³⁾을 능가할 만하다니 사실인지, 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남천 역시 칭찬이라기보다는 비아냥거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평가는 점잖고 후한 편에 속한다.

또 한 사람의 평론가 김문집은 김말봉을 노골적으로 비하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김문집은 당시 ‘조선문인협회’ 간사로 있을 때였고 창씨개명에 대한 글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고대古代 때 우리의 조상이며 우리는 일본과 피를 나눈 형제로 메이지 천황은 조선의 아버지라고 한 인물이다. 김문집은 김말봉뿐만 아니라 여성 작가를 반쪽이라고 불렀다. 그는 『조선판 여류 구미론-김말봉을 평함』이라는 글에서 자신은 김말봉과 일면식도 없어서 평할 자격은 없지만 “하나 나무될 것은 잎새부터 안다는 속담이 있고 또 어미가 딸자식을 꾸지람 할 때에 전제적으로 잘 사용해서 탄압적 효과를 보이는 속어에 『이년! 하나를 보문 열 가지를 알지!』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나는 어릴 때의 기억으로 잘 알고 있기에” 김말봉을 평

32) 임 화, 『통속문학의 대두와 예술문학의 비극-통속소설에 대하여, 동아일보, 1938. 11.17.-11.27.

33) 菊池寛(기쿠치 간, 1888-1948)은 도덕적인 주제를 명확한 문제로 사실적으로 표현했는데 소설 『다다나오쿄교조키(忠直卿行尙記)』로 일본에서 유명세를 떨쳤다.

할 수 있다고³⁴⁾ 밝혔다. 여성 작가를 평할 수 있다는 이유부터 악의적이다. 김문집은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에 올라 있는 친일파 문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일제를 위해 많은 글을 썼는데 그 가운데 『‘내선일체론’과 ‘황민화론’ 지지』라는 주제로 창씨개명을 권장하는 글은 친일의 속성을 잘 말해 준다. 그가 쓴 글 가운데 몇 줄만 옮기면 아래와 같다.(조금 더 긴 내용은 이글 맨 끝에 부록으로 붙였다.)

“개벽 이래 조선이 오늘날만큼 행복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 지금부터 30년(한일병합, 인용자) 전에, 영명하고 자애로우신 우리 메이지(明治) 천황폐하하는 친히 당신의 양팔을 벌리시고 고생 끝에 병을 얻어 거의 주검에 가까웠던 조선이라는 자식을 끌어안아서, 곧바로 당신의 집에 데리고 돌아와서는 친자식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키워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 원래 우리들의 아버님이신 천황폐하께서는 이를 몹시 불쌍히 여기시고, 누더기를 걸친 채 굶주리고 병든 우리 2천 3백만의 ”조선“이라는 당신의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약과 떡을 것을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내지(일본, 인용자)에서 다정하게 키워진 7천만의 자식들과 똑같이 복스럽고 행복한 형제로 키워 뛰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힘을 다하셨습니다. (…)

- ‘합리적 발전적 귀환을 논하는 말, 씨 설정을 주제로, 반도풍습의 그 조국에로의 것」 중에서³⁵⁾

조선문인협회 간사

출전 : 김문집 『總動員』, 1940년 3월호, 36-47면

34) 김문집 『비평문학』(청색지사, 1938), P.366. 서정자, 『삶의 비극적 인식과 행동형 인물 창조』, 194면, 에서 재인용.

35)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XV, 도서출판 선인, 598-607면.

그런데 소설은 인간의 이야기이며 인간의 서사는 연애로 시작 된다고 할 수 있다. 연애로부터 인간이 탄생하고 나라와 인류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애소설 그 자체를 두고 통속성이라는 비판은 무리가 따른다. 이광수의 주장대로 다만 연애가 돈과 권력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정욕의 욕망을 위해 순수한 인간성을 훼손하거나 상실할 때 그것을 통속성이라고 말해야 옳다. 그렇다면 『쫄레꽃』의 통속성은 어떤 성격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장편 『쫄레꽃』의 서사는 미모가 뛰어나고 청순가련한 25세 안정순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유치원 교사인 정순은 밀양의 한실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중 유치원이 문을 닫자 서울로 상경하여 모 은행장 조만호의 집 가정교사로 들어간다. 가난한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는 정순은 더욱이 아버지가 정신병(미치)으로 정신병원 생활을 하고 있어 한시도 놀수가 없다. 조만호에게는 장남 경구, 장녀 경애 등 4남 3녀가 있다. 장남 경구는 부잣집 장남이라는 배경과 일본 유학을 마치고 미국 등 유럽 여행을 하고 돌아온 전도유망한 청년이다. 경애 역시 일본 유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있는데 재벌 3세인 윤영환의 애절한 구애를 받지만 거부한다. 경애는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탓이다.

정순은 유치원생인 쌍둥이 형제를 맡는다. 조만호는 와세다 대학을 나와 경상도 최고 부호의 딸과 결혼하여 오늘의 부를 이룬 인물이다. 조만호라는 인물은 파렴치하기 짝이 없도록 부도덕하며 그의 부도덕성은 이 작품의 핵심을 이룬다. 작품을 이끌어가는 인

물은 주인공 정순과 조만호의 가족 외에 정순의 애인 이민수, 조만호의 애첩 백옥란(기생), 백옥란의 동거남 최근호, 경애에게 구애하는 재벌 3세 윤희환, 조만호 집 침모 박 씨 등이 있다. 이들은 정순을 중심으로 삼각관계가 형성된다. 정순과 조만호와 조만호의 아들 경구가 얽히고, 정순과 이민수와 경애, 그리고 윤희환과 얽힌다. 그리고 조만호는 다시 기생 백옥란과 백옥란의 동거남 최근호와 얽힌다. 정순의 애인 이민수는 밀양에서 올라온 대학생이다. 이민수 아버지는 밀양에서 땅 마지기개나 가진 지주임에도 구시대 제사 관습과 과도한 징세로 인하여 여기저기 빚을 지게 되자 조만호의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처지가 되어 결국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이민수는 하숙비도 제때 못 낼 정도로 힘겹게 고학한다.

본래 호색가인 조만호는 정순이 입주하자마자 정순의 모습을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병든 아내가 죽자 부를 내세워 정순을 후처로 삼고 싶어 정순 몰래 침모와 음모를 꾸민다. 경구는 순수한 정순에게 반해 사랑을 고백한다. 정순은 이민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정을 알지 못한 경구는 정순에게 휘트먼의 시집 『풀잎』과 성모상을 선물하면서 계속 노력한다. 경구도 경애도 정순의 애인이 이민수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이므로 그들 남매는 비판할 대상이 못 된다. 또 경구와 경애 남매는 아버지 조만호와 달리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인물들이다. 조만호는 아들 경구가 정순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서둘러 정순을 차지할 계획을 세운다. 물론

경구를 재벌 집 딸과 결혼시키려는 욕망 때문이기도 하다. 조만호는 침모를 시켜 정순에게 자기의 뜻을 전하게 한다. 그러자 침모는 정순이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많은 빚을 지고 있으니 그 빚을 갚아 주자고 제안하여 3백 환의 거액을 받아 챙긴다. 돈을 주면서도 조만호는 침모에게 “죄우간 이편에서 돈을 주면 받거나 받을까요? 하도 위인이 대쪽같이 청렴해 봉이니까 원.”(370면), “성격이 참대를 쪼개 놓는 것 같으니 말요.”(390면)라며 정순을 쉽지 않은 상대로 여긴다. 돈을 슬쩍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린 침모는 정순이 워낙에 올곧은 성미에 자존심이 강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한가지 음모를 제안한다.

정순이 잠을 잘 때 방 전깃불을 꺼놓을 테니 몰래 들어가서 범해 버리라는 것이다. 그래야 꼼짝없이 조만호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하자 조만호는 무릎을 친다. 그러나 침모는 조만호보다 한술 더 뜬 교활한 음모꾼이다. 침모는 정순이 어머니를 보러 집에 다녀오기로 한 날을 작전 날로 잡고 함부로 살아온 자신의 딸을 정순의 방으로 들여보내 조만호가 범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한다. 조만호는 드디어 뜻을 이루었다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침모는 밤마다 자기 딸을 조만호의 침실로 들여보낸다. 그런데 조만호가 계속 침모 딸을 범하면서 정순으로 아는 것은, 침모가 정순의 자존심을 위해 침실을 반드시 불을 꺼, 깜깜하게 해놓아야 하고 정순에게 일체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일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서 말없이 침모 딸과 성행위를 하면서 대상을 정순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한편 경애는 말을 타다가 기차길을 침범하게 되고 기차가 달려 오는 위기에서 민수가 구해주게 된다. 이때 남자에 대해 부정적인 경애는 민수에게 첫눈에 반한다. 경애가 민수를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정순은 고민하는데 민수가 정순의 사촌 오빠로 알고 있는 경구가 동생 경애를 돕기 위해 정순에게 “경애가 민수 씨와 결혼을 하게 되면 민수 씨 졸업 후에는 곧 독일이나 영국이나 유학을 시키겠고요. 물론 이것은 저와 경애의 생각입니다만 (...) 그리고... 실례입니다만 민수 씨 본택의 생활비쯤이야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310면)³⁶⁾ 라고 한다. 정순은 순간 가난한 민수가 부잣집 딸 경애와 맺어지면 가난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민수의 행복을 깨트릴 권리가 있느냐? 민수가 나와 결혼하는 것보다 경애와 혼인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311면)며 고민한다. 한편 민수는 민수대로 “민수 씨 그러니까 말예요 오빠(경구, 인용자)는 정순 씨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312면)라는 경애의 말을 듣고 가난한 정순이 부잣집 장남 경구와 결혼하면 가난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 고민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조만호의 음모로 정순은 조만호의 돈에 팔려가는 천박한 여인으로 이민수와 경구에게 인식된다. 두 남자는 정순에게 크게 실망하게 되고 민수는 조만호에 대한 복수심으로, 또 정순에 대한 배신감으로 경애를 선택하기로 한다. 그러나 조만

36) 김말봉, 진선영 편, 김말봉 전집 3, 『짚레킷』, 소명, 2.14.

호는 기생 옥란이 벌이는 칼부림 사건을 통해 음모가 드러나게 된다. 조만호가 옥란에게 가정교사 정순을 아내로 맞이할 것이며 옥란에게는 지금처럼 애인으로 관계를 이어가자는 말에 옥란이 정순을 해치기로 작정하고 조만호 침실로 동침하러 온 침모의 딸을 정순으로 알고 찌른 것이다. 조만호가 옥란에게 아내가 죽으면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민수와 경구는 정순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된다. 모든 것을 알게 된 민수는 “정순 씨 나는 경애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순 씨의 결백이 증명된 이상 나는 지금 새로이 당신의 선고를 기다립니다. 경애 씨와 약혼을 파기하라 하면 저는 즐거이 그 명령을 쫓겠습니다.”라고 하며 정순에게 선택권을 준다. 정순은 “이미 한 여자를 울렸으니 또다시 한 여자를 울리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라며 경애와 행복하기를 빌면서 작품은 끝을 맺는다.

이 작품은 우선 유산자와 무산자의 대결, 약자와 강자의 대결, 선과 악의 대결을 보여준다. 정순을 선으로 조만호를 악으로 배치해 선과 악의 명암대비를 극명하게 하여 긴장과 흥미를 유발시킨다. 독자는 가련한 정순을 동정하는 만큼 조만호에 대한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 조만호가 장차 병든 아내가 죽으면 안방으로 들어앉히겠다며 농락한 기생 옥란을 끝내 멸시한 대가로 옥란으로 하여 칼부림을 일으키게 하고, 그 결과 부도덕한 조만호가 몰락하는 최후는 독자의 분노에 대한 대리 복수를 함의한다. 즉 인과응보적, 악의 징벌로서의 권선징악은 통쾌함을 안겨준 것이다. 그리고 경구가 가난한 정순을, 경애가 가난한 민수를 선택하려는 것은 독자

에게 대리만족을 안겨준다.

그러나 이런 설정은 소설의 흥미를 위한 표피적 장치에 불과하다. 정작 작가가 말하고자 한 것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중심주의와 평등주의를 넘어 일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가난한 조선 민족을 향한 애족 사상이며 애국 사상이다. 작가는 경구와 경애 남매를 통해 작가의 사상을 보여준 것이다. 정순에게 반한 경구가 정순에게 선물한 휘트먼의 시집 『풀잎』은 작가의 사상을 함축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휘트먼의 사상은 더 넓은 세계를 지향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인공 정순이 사랑하는 민수를 경애에게 보내준 것은 양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잘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과 같은 모성애를 상징한다. 그것은 곧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이타적인 사랑으로 경구가 정순에게 성모상 그림을 선물한 것에서 더욱 확실해진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희생과 헌신의 상징이라면 그리스도를 낳은 성모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 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처로운 정순의 모습은 곧 일제의 지배 아래 있는 애처로운 조국을 대신한다.

한편 『짚레꽃』은 김말봉의 자전적 요소가 매우 농후한 작품이다. 조만호의 쌍둥이들은 김말봉이 두 번째 남편 전상범과 결혼하여 낳은 쌍둥이를 연상케 한다. 그리고 주인공 정순의 아버지가 미처가는 병을 앓는 것은 김말봉의 아버지가 평생 안질을 앓아 의원을 30년간 따라다녔다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밀양을 이민수의 고향으로 배치한 것은 김말봉과 연관이 깊은 밀양과 부산을 떠올리

게 한다. 밀양은 아버지 김윤중의 고향으로 말봉의 원적이 되며 세 번째 남편 이종하의 원적이며, 본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삶이 소설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처음 장편소설을 쓰는 작가들에게서 더러 나타나는 것으로 작품창작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소설의 리얼리즘이나 묘사에 대한 치밀성을 높여주는 장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4. 통속성에 감추어져 있는 조국과 민족애의 페이지스

소설에서 남녀 인물들의 삼각관계가 중첩되어 얽히는 것이 1930년대식 연애 통속소설이었다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짚레꽃』은 통속소설의 구성요건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행된 많은 연구자의 관점대로 『짚레꽃』은 표면적으로는 젠더와 페미니즘, 섹슈얼리티, 사랑과 돈, 돈과 사랑 등 멜로드라마틱한 통속성도 충분히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작가가 말하고자 한 것은 통속성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런 면을 두고 볼 때 김말봉을 통속작가로 규정한 것은 서정자의 지적대로 여성작가라는 편견과 치밀한 연구 부족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심지어 연구자 박종홍은 “애정 문제뿐만 아니라 이념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밀림』을 1930년대 후반의 새로운 통속소설로 다루기 어려워 『밀림』 연구가 부진할 수 있다.”³⁷⁾고 하면서 통속소설 이론이 『밀림』

37) 박종홍, 『김말봉 『밀림』의 통속성 고찰』, 『어문학』, 제76호, 한국어문학회, 2002. 342면.

에 적중하지 않는 것을 김말봉이 기독교인인 탓으로 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정자는 당시 김말봉 통속소설을 논한 평론가들 가운데 『밀림』을 모두 정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밀림』은 무려 2년 2개월 동안 연재되었고 400여 회를 이어간 적지 않은 분량인 탓이다.(이 글에서도 시간 제약으로 인하여 『밀림』을 제대로 읽지 못했음을 밝힌다.)

통속소설 이론이 『밀림』에 적중하지 않는 이유를 박종홍은 김말봉이 기독교인인 탓으로 보는데, 물론 유아세례를 받은 김말봉은 당연히 기독교 사상이 골수 깊숙이 흐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타고난 작가적 소양과 작가적 의식에서 연유한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밀림』과 함께 태어난 『짚레꽃』에서도 똑같은 사상이 표출되는 것이 그 증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는 경구와 경애를 통해 분배와 배려, 포용과 나눔 사상을 드러낸다. 즉 부잣집 장남 경구가 부잣집 딸 대신 가난한 정순을 선택하는 것, 부잣집 딸 경애가 재벌 3세 대신 가난한 민수를 선택하는 것은 분배와 나눔의 정신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가는 크리스천답게 부자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는지를 신약성서 야보고서(5장 1-4절)의 부자에 대한 경고를 차용하여 작가의 사상을 표출한다.

“넌 아무것도 모른다. 너와 내가 선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 것을 너는 아직도 모른다. 나는 크리스천은 아니다만 신약성서(상서는 오자가 아님, 인용자)에 야보고의 말이 부자들아 슬피 울고 애통하라. 너의 돈은 동록이 슬고 너희 비단은 좁이 먹고... 너희가 품꾼을 속이고 샅을 주지 아니한 그 애달픈 소리가 만유의 주제자의 귀에 상달하

였나니… 이런 말은 확실히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향락만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던진 저주요 심판이다.”

- 김말봉, 진선영 편, 김말봉 전집 3, 『짚레꽃』, 2014. 302면.

인용한 내용은 경구가 여동생 경애에게 하는 말이다. 신약성서의 야고보는 “부한 자들이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고 경고한다. 작가는 이를 바탕으로 경구의 입을 통해 유산자가 소유한 재물은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향락만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던진 저주요 심판”이라 했는데, 이는 심오한 철학의 경지를 보여준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야보고의 경고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야보고서, 4장 17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가난한 정순이 부자 조만호나 경구에게 기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민수의 장래를 위해 경애에게 양보하는 태도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이타적 유전자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적 사상 탓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광수의 논리대로 『짚레꽃』은 통속성에 그치는 소설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김말봉의 나눔 사상은 작품 전반에 걸쳐 나열된다. 그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경구가 동생 경애에게 “돈을 가진 영환(재벌 3세, 인용자)이 보다 가난한 민수를 생각하는 것을 볼 때 나는 네가 내 누이라는 것보다 내 지기知己 같이 생각이 되는구나.”(303면)라는 말과 함께 가난한 정순에게 구애하는 이유에서 드러난다.

“경애야, 내가 정순을 택한 것도 물론 그의 미모라든지 그의 인격(인품이라고 해야 옳은 표현임-인용자)이라든지 모두 충분히 내 맘을

끝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내맘을 사로잡은 것은 그가 가난한 처녀라는 까닭이었다. 맨 처음 가정교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난한 처녀여! 하고 부르짖었던 것이다.”

- 김말봉, 위의 책, 303면.

작가의 이와 같은 철학은 마치 독립운동가들이 비밀문서를 숨기기 위해 겉을 하찮은 것으로 위장하듯 한 면모를 보여준다. 즉 통속성이라는 표피 속에 조국애와 민족애를 감춘 것이다. 특히 “조선을 구해줄” 것이라는 미래형과 “그들이 배고프고 그들이 헐벗고 그들이 근심과 불행에서 울고 있을 동안 조선 천지에는 영원히 광명이 없을 것”이라는 언사는 의미심장하다. 당시 원고 검열이 심한 상황에서, 조국애나 민족애를 표현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서, 비록 우회적 표현이라 할지라도 과감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작가는 이를 위해 경구에게 농촌진흥운동을 하는 역할을 배정했고 경구를 통해 작가는 자신의 사상을 더욱 깊숙이 보여준 것이다.

① ‘조선을 먹여주는 사람, 조선을 입혀주는 사람 그리고 조선을 구원해줄 사람은(밑줄, 인용자) 오직 농부뿐이다. 그들의 손에 쥐인 호미와 괭이야말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하던 모세의 거룩한 지팡이가 아니고 무어냐... 그들이 배고프고 그들이 헐벗고 그들이 근심과 불행에서 울고 있을 동안 조선 천지에는 영원히 광명이 없을 것이다’(224면)

② ‘오라 뜻이 같은 젊은이들이여! 우리는 이제까지 생각하고 번민만 하는 시절은 지나갔다. 산과 들은 바야흐로 우리들의 계획을 손들어 부르고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이샤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돌려보내라 부르짖던 그리스도의 음성은 오늘도 조선 하늘에서 들리고 있다. 넓은 들은 임자를 기다려 메마르고 있건만 땅의 주인인 농부는 자기들의 무기요 전장이요 생명인 농장으로 안심하고 돌아가지는 못한다, 아니 이미 거기서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늙고 자기 몸이 나서 자란 그 땅 그 들에서 쫓겨 어도회로만 몰려가고 있다. (...) 아아 동무여! 우리는 그들을 늙은 어머니의 품으로 기다리는 아내와 어린 아들의 집으로 그리하여 그들이 쫓겨나온 그들의 눈과 발으로 돌려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26면)

- ③ 제가 ‘밀림’을 쓸 때 제 판에는 힘을 다하여 썼습니다. 그러나 조선 사람이라는 것, 또는 신문소설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의 작품의 코도 깎고 손도 잘라버렸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밀림’의 상처는 실로 참담합니다. 나도 예술가적 양심이 있다면 마땅히 ‘밀림’의 원고지를 죽죽 찢어버려야만 옳은 것입니다. (...) 잘리고 깎인 대로 밀림에 부탁한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앞에서 ‘밀림’이 묵숨게 부르는 나의 서투른 곡조에 행여 귀를 기울여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밀림’은 용감스럽게 노래를 계속하겠습니다. 38)

①의 내용은 표면상 땅을 버리고 도회지로 떠나는 조선 청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땅을 지키기를 추구하고 있다. 그래야 일제의 검열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③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말봉은 이미 『밀림』을 <동아일보>에 연재하기 시작하여 1개월이 되었을 때, 가혹할 정도로 삭제당했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작가는 농부를 조선 민족으로 은유하여 장차 나라를 구할

38) 서정자, 『김말봉의 『밀림』 재론』에서 재인용. 김말봉, 『십만 애독자에게 보내는 작가의 편지-조각사의 태도로 『밀림』(동아일보)의 작자로서』, 삼천리, 1935. 11. 71면.

사람은 조선 민족 스스로임을 암시하고 있다. ‘농부의 손에 쥐인’ 호미와 괭이를 광야에서 자기 민족을 인도하는 모세의 지팡이로 상징한 것은 절묘한 비유이다. 구약성서의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즉 자기 민족을 조상의 나라 이스라엘로 이끌어내는 인물이며, 모세의 지팡이는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무리를 치려는 지경에서 보호해주는 성령의 힘이기 때문이다. 또한 호미와 괭이는 농사를 짓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나라의 주권을 찾고자 하는 수단을 상징할 수 있다. 그리고 농촌을 버리고 도회로 떠나는 조선 청년들은 장차 나라의 주권을 되찾아야 할 미래 세대들이다.

1930년대 조선은 이미 황국신민화 즉 일본화가 되어있었고 일본은 만주와 중국 등 대동아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조선 사람들, 즉 기성세대들은 독립운동가들을 제외하고는 해방을 체념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친일하기에 바빴다. 그렇다면 의식이 있는 작가는 미래로 가는 청년들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작가는 “오라, 뜻이 같은 젊은이들이여!”라고 소리친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로 돌려보내라 부르짖던 그리스도의 음성은 오늘도 조선 하늘에서 들리고 있다.”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신약성서 마가복음(1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예수를 해치려고 갖가지 방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가이샤(로마 황제 시저, 인용자)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마가, 12장 14절 중에서)라며 예수에게 질문

하는 부분이다. 그러자 예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한 것이다. 예수의 대답은 세금
문제를 넘어 소속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그리스도
에 속하며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의 이 메시
지가 “오늘도 조선 하늘에서 들리고 있다”는 것은 청년들로 하여
금 미래에 대한 꿈을 갖기를 바라는 강렬한 촉구에 다름아니다.
“거기서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늙고 자기 몸이 나서 자란 그
땅 그 들에서 쫓기어 도회로만 몰려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넓은 들은 임자를 기다려 메마르고 있건만 땅의 주인인 농부는
자기들의 무기요, 전장이요 생명인 농장으로 안심하고 돌아가지
는 못한다.”고 한탄한다.

이와같이 작가는 젊은 세대와 농촌과 호미와 팽이를 차용하여
애국 애민사상을 펼쳐 보인 것인데 『밀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
상이 감지된다. 『밀림』의 주인공 동섭은 일본 구주 의대를 졸업하
고 박사 논문 학기를 보내는 가운데 여름을 맞아 별장이 있는 월미
도로 휴가를 간다. 월미도에서는 양부(養父)가 세운 인천 축항 회사
의 매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동섭은 공사장에 들른다. 동섭은
그곳에서 폭약으로 돌산을 깨는 위험한 노동현장을 직접 목격하
게 된다. 노동자들은 모두 조선사람들이다. 조선인 노동자들을 감
독하는 감독관도 조선사람이다. 조선인 감독관들은 일본사람인
것처럼 조선말을 서툴게 하면서 조선 노동자들을 필요 이상 혹독
하게 감독한다. 노동자들은 한여름 태양 아래 일사병으로 쓰러지
기도 하고 산이 무너지면서 구르는 바위에 깔려 죽어 나가기도 한

다. 사람이 죽어도 작업은 쉬지 않고 계속된다. 아이를 등에 업은 부녀자들, 노인들, 아이들은 사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돌을 깨 자갈을 만드는 일을 한다. 점심시간에 숟가락을 전당포에 잡히고 나뭇가지로 밥을 먹는 사람, 조밥을 먹는 사람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클로버 잎 나물로 점심을 때우는 사람 등등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현실을 목도한다. 부잣집에서 유학까지 해가면서 풍요롭게 살아온 동섭은 비로소 우리 민족이 일제에게 수탈당하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현실에 화들짝 놀란다. 민족의 고통을 목격한 동섭은 공사에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야학으로 빈민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리고 진행 중인 의학박사 논문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공사장 인근에 실비병원을 설립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 민족과 함께한다. 그러므로 『밀림』의 동섭은 『짚레꽃』의 경구와 동질을 이룬다.

5. 김말봉의 ‘짚레꽃’과 휘트먼의 ‘풀잎’ 사상의 동질성

경구를 통한 작가의 애국 애민사상은 분배와 나눔, 평등을 통해 나타난다. 경구가 부자인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은 제가 열일곱 살 때 백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 한 구 년 동안에 또다시 백만 원이 늘었다는 것은 적은 일입니까? 구 년 동안에 백만 원이면 일 년 동안에 십일 만이 훨씬 더 느는 셈인즉 아버지의 일 년 수입만 사회를 위하여 내놓으시란 것이 잘못입니까?”(359면)라며 많은 재산의 극히 일부만이라도 사회를 위해 사용하라는 충고 역시 작가 김

말봉의 목소리이다.

또한 경구가 6개월 동안 구미여행 때 체험했던 인종차별 문제도 일제강점기 압박받는 조선사람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경구는 미국 여행 중 일류 여관으로 가고 싶었으나 “손님은 백색인에 한하여 받습니다.”(207면)라는 안내판을 보게 된다. 경구는 분노를 참지 못해 어느 YMCA 회원을 만나 “이것이 청교도의 아메리카냐?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고 오월호(메이플러워호-인용자)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온 너의 조상들은 지금 무덤 아래서 울고 있으려다.”(208면)라고 흥분한다.

작가는 경구를 통해 사상을 피력하는데 경구가 정순에게 휘트먼의 시집 『풀잎』(1855)을 선물한 것은 작가의 사상을 가장 집약시켜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구는 휘트먼의 시집을 선물하면서 “다른 시인들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착한 것... 이런 것을 전부 구가(謳歌)하고 예찬하였지만 휘트먼은(...) 좌우간 휘트먼의 가슴은 우주의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를 다 용납하고 받아들인 것이 다른 시인이 도저히 흉내 내지 못할 위대한 시인이니까요...”(309면)라고 한 것은 곧 휘트먼의 사상을 작가의 사상과 동일시 한 것이다. 그러니까 휘트먼의 시집을 배치한 것은 곧 사람 중심주의를 위한 사상 때문이다. 우리보다 서구 문물이 30여 년이나 앞선 일본의 문화권에서 공부했고, 또한 영문학을 공부한 말봉은 19세기 미국 시인 휘트먼의 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휘트먼의 사상에 공감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윌트 휘트먼(Walter Whitman, 1819-1892)은 19세기 자유시의

창시자로 자유시의 아버지로 불린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등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휘트먼은 커다란 기동과 같은 존재로 당시 시인들에게 넘어야 할 커다란 산맥이었다. 그는 기존의 전통적인 시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 쓰기를 시도했다. 이전까지의 서정시는 일정한 운율을 지닌 정형화된 형식을 지니고 있었으나 휘트먼의 시는 성서의 산문형식을 취한 그야말로 자유로운 언어로 통한다. 그의 언어는 서민을 향한 희망을 자유롭게 노래한다. 미국의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격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의 대표시집 『풀잎』은 말 그대로 풀잎 같은 서민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상징한다. “권력을 지닌 지배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그에게 이전 시대의 이데올로기”³⁹⁾로 치부된다. 그가 주장하고 표현하고자 한 인간의 의미는 그 어떤 구속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하며 모두가 평등한 존재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풀잎』은 개인에 대한 존중과 자유의지, 평등의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휘트먼은 「나 자신의 노래」라는 길고 긴 시, 1부에서 52부까지 108면으로 이어지는 시의 첫 행에서 ‘나는 나 자신을 찬양한다’로 시작한다.

1

나는 나 자신을 찬양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생각할 터,

(…)

6

39) 윌트 휘트먼, 허현숙 옮김, 『풀잎』, 열린책들, 2011. 253면.

한 아이가 물었다. 풀잎이 뭐예요? 두 손 가득 풀을 들고 와 내밀면서
내가 그 아이에게 무어라 답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무엇인지 나도 알
지 못하는데

// 나는 그것이 내 기분의 깃발, 희망한 초록 뭉치들로 직조된 깃발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수건이나, 하느님이 일부러 떨어뜨린 향
기로운 기념품일 테이고, 소유자의 이름이 어느 구석에 적혀 있어, 우
리가 보고서 “누구의 것”이라 알 수 있는 것이다. (...) / 아니면 나는
그 풀잎은 아이 그 자체라고... 식물로 만들어진 아이라고 생각한다.

(...)

아니면 나는 그것이 불변의 상형문자라고 여긴다. (...) 40)

- 『풀잎』 『나 자신의 노래』 6부 중에서

어떤 사상은 어떤 영향으로부터 흡수되게 마련이다. 말뚝은 앞
에서 열거한 휘트먼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휘트먼의 인간 존중에 대한 사상은 신에 대한 믿음에서 연
유한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자존과 그 존재적 근원에 대한 믿음
은, 인간은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억압받
지 않아야 하는 소중한 생명의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휘트먼은
“나는 풀잎은 아이 그 자체라고... 식물로 만들어진 아이라고 생각
한다. (...) 그리고 그것은, 넓은 곳에서든 좁은 곳에서든 똑같이
피어나며, / 흑인들 사이에서, 마치 백인들 사이에서처럼, 프랑스
계 캐나다인, 버지니아 사람, 하원의원들, 아프리카 출신 미국인들
사이에서처럼 자라난다는 것, 내가 그들에게 똑같이 주고 똑같이

40) 윌트 휘트먼, 위의 책. 43-51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풀잎』, 51면)고 노래한다.

따라서 휘트먼의 풀잎과 말봉의 짙레꽃은 상통한다. 말봉은 풀잎에서 짙레꽃을 본 것이다. 풀잎도 짙레꽃도 산과 들에 자유롭게 존재한 생명이다. 그리고 이들은 민족성을 상징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기존 연구자들 대부분이 말봉의 짙레꽃을 여성의 고통스러운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즉 가장으로서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는 주인공 정순의 삶으로 보는 것은 짙레꽃을 한정된 틀에 가두는 다소 소극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말봉의 짙레꽃은 조선의 혼을 말살하려는 일제의 강압적 통치로 고통받는 조선사람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경구가 정순에게 휘트먼의 시집 『풀잎』을 준 것은 말봉이 휘트먼의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자유와 인권, 평등사상에 매우 경도傾倒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와같이 휘트먼의 사상에 깊이 심취해 있는 말봉은 해방 이후 실질적으로 사회 운동에 앞장섰는데 이는 같은 일신여학교 출신 박순천(1898-1983)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나는 그때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나 약간 견해를 달리하고 있었다. 어쨌든 그가 앞장선 이 운동에 나도 가담하여 YMCA에서 강연회를 갖고 연사로 나가기도 했다. 필동 근처 창녀촌을 밤마다 조사하고 그들의 태도와 반응을 알아보기도 했다. 그러나 미군이 주둔하는 동안 전적으로 없앤다는 데는 일반 여성들의 희생이 클 것 같아 조사만 하는 정도였다. 결국 수년 후에 폐지되기는 했다.⁴¹⁾

41) 김용성, 앞의 책, 339면.

돈으로 거래되는 성매매야말로 인간의 존엄성과 영혼을 부정한 세계로 전락시키는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렇더라도 인권과 평등사상을 가슴에 품은 자로서 말봉은 그녀들을 소중한 인간중심주의로 바라본 것이다. 『찔레꽃』의 조만호가 기생 옥란을 후처로 맞아들이겠다고 하는 부분에서도 작가는 옥란 자신의 독백을 통해 인권과 인간의 평등을 강조한다. “왜 옥란이가 어때서? 야소교 목사 가운데도 옥란이 같은 부인을 가진 분이 한둘이 아닌데… 그나 그뿐인가 일본서도 우수한 실업가 가운데서 기생을 버젓이 아내로 삼은 사람이 얼마인데…”(113면)라는 것은 비록 옥란이 기생일망정 조만호가 함부로 농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문화의 한 축으로써 비단 성을 돈으로 사고파는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여성은 약자로서 위치를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항거인 것이다. 그리고 말봉은 경애를 통해 남성지배를 거부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연구자 안서현은 “여성이 가정이라는 공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의 장소들을 누비는 활발한 이동성을 가진 존재로 서사 속에서 묘사된다는 것은 분명 젠더 지리학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근대 서사의 징후”⁴²⁾라고 했다. 즉 작품에 흔히 등장하는 백화점, 영화관, 카페의 등장은 신여성들과 걸맞는 문화공간으로서 비교적 비활동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경애가 말을 타고 경성 거리를 누비는 것은 1930년대의 모던걸이라

42) 안서현, 앞의 논문 112면.

할지라도 대담한 활보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경애에게 구애하는 재벌 3세 윤영환의 “경성에서 말 타는 여성을 본 적이 없다.”라는 일침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경애의 “내 좋아하는 운동을 누구 무서워 못 해?”(99면)라는 독백을 작가는 “그가 세상을 향하여 아니 자기 앞에 오고 가는 모든 사나이의 얼굴을 향하여 쏘는 조롱과 반항의 화살이었다”라고 설명을 붙인다. 말봉은 경애를 통해 남녀평등을 주장한 것인데, 여성이 남성들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벨 훅스(bell hooks)는 피식민지국 여성들이 지배국에 의해, 또 같은 종족의 남성들에 의해 이중으로 식민화된다고 강조했다.⁴³⁾ 이는 “피식민지 남성들이 훼손된 자신들의 남성성을 회복하기 위해 식민지 지배국의 입장을 모방하려는 심리로 이들은 여성적 주체성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족인 여성을 억압하려는”⁴⁴⁾ 심리에 다름아니다.

휘트먼은 『풀잎』의 서문에서 남자와 여자, 지구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그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탐구하는 것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완전히 솔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시는 여러 세월에 대해 모든 계층과 피부색, 모든 부문과 분파에 대해, 남자와 마

43) 벨 훅스(bell hooks, 1952-2021),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문학동네, 2017. 참조. 미국인 벨 훅스는 작가, 사회학자, 사회운동가, 페미니스트로 활동했다. 벨 훅스는 필명이며 자신의 이름을 언제나 소문자로 썼다. 본명은 글로리아 진 왓킨스(Gloria Jean Watkins)였다. 40여 권의 책을 남겼다.

44) 김혜경, 「김말봉의 『질레꽃』과 대중작가 선언의 젠더 정치 연구」, 2024. 동국대 석사논문, 35면.

찬가지로 여자에 대해, 여자와 마찬가지로 남자에 대해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이와 같이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자인 휘트먼이 시집 『풀잎』에서 개인에 대한 존중과 자유에의 의지와 만민 평등을 주장한다는 것은 당대의 사회가 억압적이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어떤 구속으로부터도 자유로운 휘트먼은 거침없는 어조로 시를 썼고, 이것이 곧 어떤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자유시이다.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것은 자유와 희망이었으며 식민지 시대를 살아야 하는 지식인 김말봉에게 그대로 흡수된 것이다. 그러므로 “혼자만 잘 되고 혼자만 배부르고 그리고 혼자만 즐거워하려는 사람들 틈에 끼어 사는 자기 자신이 갑자기 쓸쓸하여졌다.”(204면)는 정순의 독백은 곧 작가 김말봉의 독백이라고 할 수 있다.

6. 결론 : 김말봉이 남긴 것

생트뵈브가 주장한 ‘그 나무의 그 열매’론 대로 작가는 어떤 글을 쓰든 자신의 본질을 숨기지 못한다. 작가를 떠나 한 여성으로서 말봉은 남달리 파격적인 삶을 살았다. 신약성서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고전 10장 13절)라는 내용은 흔히 말하는 감당해 낼 범위 내에서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이르는 연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쇠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거쳐야 한다. 즉 대장장이가 쇠를 천도의 불 속에 집어넣어 달군 다음 모르데 위에

올려놓고 센메로 치는 과정이 그것이다. 교회로부터 남녀 문제로 책벌을 세 번이나 받는다든 것, 1901년에 태어난 구한말 여성으로서 결혼을 세 번이나 한다는 것은 남다른 연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연단은 말봉을 과감하고 대담한 작가, 큰 작가로 몰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말봉이 대담하고 과감했던 것은 남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모의 서운함으로 하여 남장을 입혀 키워졌고 그런 영향으로 남성적 기질이 길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랜 유학 생활을 통해 개인주의적 서구 문물을 흡수했고 기독교와 아나키즘 사상의 바탕 위에 휘트먼의 개방적인 자유와 민주주의의 사상이 덧입혀진 탓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문단의 주류로 군림하고 있는 기라성 같은 남성 엘리트들의 ‘순수문학’ 우월주의에 대하여 이제 막 소설가로 등장한 신인이 감히 “순수 귀신을 버려라!”고 외친 기백氣魄은 전장의 장군을 능가한다 할 것이다. 그런 대담한 기질은 애국자의 기질을 담지하기 마련이며 말봉은 애국자였다. 1919년 삼일운동 당시 주모자로 투옥되어 고문으로 한쪽 귀의 청력을 잃었다. 일본어로 글을 쓰라는 권유(사실은 강요였다)를 끝까지 물리치고 해방이 될 때까지 절필했다. 잘나가는 소설가가 펜을 쥐는 것은 반 목숨을 잃은 것에 다름 아니다. 당시 대부분 문인들이 일본어로 글을 썼을 뿐만 아니라 일본어를 모국어(한국어)로 받들어 상찬하면서 영광으로 알았던 상황에서 혼자 외롭게 펜을 쥐는다는 것, 고료가 끊어져 가

난으로 고통받으면서도, 해방을 체념해야 하는 막막한 현실에서
기약 없이 절필을 선언한 것은 지구를 들어 올릴 만큼이나 견고한
의지가 아니고는 엄두조차 내지 못할 일이다.

이와같이 대범하고 통이 큰 작가 김말봉은 일상생활의 소소한
이야기, 아기자기한 이야기로는 그의 포부에 차지 않는다. 다만 통
속소설이라는 이름을 빌려 그 속에 분배와 평등, 자유와 민주주의,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 주의를 담아낸 것이다. 마치 독립운동
가들이 비밀문서를 숨기기 위해 겉을 하찮은 것으로 위장하듯 통
속성이라는 표피 속에 조국애와 민족애를 감춘 것이다. 따라서 말
봉은 일제강점기라는 통제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애
국 사상을 보여준 것이다. 장편 『찔레꽃』은 여성의 고난을 상징하
는 소극적인 틀을 벗어나 한민족의 정서를 보여준 것이다. 사실 일
제강점기 만주로 떠난 한인들을 주제로 쓴 소설들을 보면 대부분
찔레꽃이 고국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찔레
꽃은 그만큼 우리 민족과 가까운 꽃이기 때문이다.

찔레꽃은 화단에서 가꿈을 받으며 호사스럽게 피는 꽃이 아니
라 들이나 산에서 높다란 하늘을 향해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자기
스스로 성장하는 꽃이다. 그리고 몸에는 가시가 돌아있다. 그것은
시대의 고난을 상징할 수 있으며 함부로 꺾을 수 없는 지조(혼)를
상징하기도 한다. 가냘프면서도 순수한 하얀 꽃잎은 흰옷 입은 조
선 민족을, 가시는 조선 민족의 혼을 상징한 것이다. 그러므로 찔
레꽃은 주인공 정순과 동질성을 이룬다. 정순은 가냘프지만 올곧
은 정신, 강인한 자존(自存)을 보여준 탓이며 정순의 그것은 곧 조국

의 혼을 잃지 않겠다는 신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작가는 이 작품을 구상할 때 일제강점기의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민족의 힘겨운 삶을 그리고 싶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주인공 정순의 애처로운 모습은 곧 애처로운 조국의 모습이며 정순의 지조는 조국의 혼으로 상징된 것이다. 일제의 감시를 피해 경구를 통해 보여준 애국 애족 사상, 휘트먼으로부터 이어받은 자유와 민주주의와 평등과 인권사상은 조용히 빛난다. 부잣집 아들 경구가 가난한 정순을 선택하는 것, 부잣집 딸 경애가 가난한 민수를 선택하는 것은 분배와 나눔에 대한 추구이다. 정순이 사랑하는 사람을 경애에게 보내준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한 모성애적인 헌신이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부자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는지를 신약성서 야보고서를 차용하여 부각시킨 메시지이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지상에 영원히 존재해야 할 존귀한 정신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작가는 사회적 부도덕이나 불의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식인이다. 그리고 김말봉은 과감하게 그것을 실행한 것이다. 희생과 사랑의 기독교와 상호협력의 아나키즘과 휘트먼의 자유 진보사상이 그의 가슴에 조국과 민족에 대한 애착의 불꽃을 피워 올린 것이다. 이것이 『짚레꽃』에 숨어 있는 김말봉의 진면목이다.

참고자료

1. 단행본 기본자료

김말봉, 진선영 편, 김말봉 전집 3, 『짚레꽃』, 소담출판사, 2014..

김말봉, 진선영 편, 김말봉 전집 1, 『밀림』 상, 소담출판사, 2014.

2. 단행본

정하은 편저,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종로서적, 1989.

윌트 휘트먼, 허현숙 옮김, 『풀잎』, 열린책들, 2011.

벨 훅스,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문학동네, 2017.

임 화, 『통속소설론』, 학예사, 1940.

3. 논문 및 기타

서정자, 「김말봉의 대중소설 『짚레꽃』의 사상」

-휘트먼과 아리시마 다케오, 그리고 아나키즘, 『여성문학연구』 51, 연도

_____, 「김말봉의 『밀림』 재론」-아나키즘과 기독교 정신 구현방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9, 2020.

_____, 「삶의 비극적 인식과 행동형 인물의 창조」-김말봉의 『밀림』과 『짚레꽃』 『여성문학연구』 190, 2002.

임 화, 「통속문학의 대두와 예술문학의 비극-통속소설에 대하여, 동아일보, 1938. 11.17.-11.27.

박종홍, 「김말봉 『밀림』의 통속성 고찰」, 『어문학』, 76, 2002.

안서현, 「젠더, 서사, 지도」 김말봉의 초기 장편소설에 대한 ‘지도 그리기’의 시도, 서울대학교, 2023.

- 김혜경, 『김말봉의 『찔레꽃』과 대중작가 선언의 젠더정치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 논문, 2024.
- 김미영, 『김말봉의 ‘밀림’과 ‘찔레꽃’의 독자수용과정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고찰』, 『어문학』 107, 2010.
- 장두영, 『김말봉 『밀림』의 통속성』, 『한국현대문학연구』 39, 2013.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지식산업사, 2005.
- 김용성, 『한국현대문학사 탐방』, 현암사, 1984.
- 기독교신문, 『기독교신과 사회상의 변증법적 통합(3), (한국기독교 소설 산책)』, 2022.
- KBS 부산 재발전 제작팀, 『그때 그 사람들』, 『TV로 보는 부산의 역사 부산 재발전』, 도서출판 우진, 2012.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량교회 100년사』, 1994.
- 한국기독교 장로회, 『성남교회 50년사』, 2015.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V(15)권, 2009.

부록

▶ 합리적 발전적 귀환을 논하는 말, 씨 설정을 주제로, 반도풍습의 그 조국에로의 것

金文輯

(조선문인협회 간사)

개벽 이래 조선이 오늘날만큼 행복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중략, ………)

낳아준 아버지를 떨어져 남의 집—아니 의붓아버지 집에서 “행랑방살이”를 해 온 그 자식의 비참함은 듣는 것만으로도 딱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지나(支那, 중국, 인용자)라고 하는 나라를 의붓아버지로 받아들여, 고집스럽고 탐욕스런 의붓아버지를 섬기듯 섬겨왔던 것입니다. 이 불쌍한 아이의 모습을 확인하고도 편안하게 발을 뺀고 쉬고 있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영명하고 자애로우신 우리 메이지(明治) 천황폐하는 친히 당신의 양팔을 벌리시고 고생 끝에 병을 얻어 거의 주검에 가까웠던 조선이라는 자식을 끌어안아서, 곧바로 당신의 집에 데리고 돌아와서는 친자식으로 서 우리를 새롭게 키워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중략, ………)

원래 우리들의 아버님이신 천황폐하께서는 이를 몹시 불쌍히 여기시고, 누더기를 걸친 채 굶주리고 병든 우리 2천 3백만의 “조선”이라는 당신의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약과 먹을 것을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내지에서 다정하게 키워진 7천만의 자식들과 똑같이 복스럽고 행복한 형제로 키워 뛰어놀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힘을 다하셨습니다.(중략, ………) 저는 신라 경순왕의 후예 즉 경주 김씨라고 족보에 쓰여 있으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제야 우리는 우리의 조상 집에 돌아와서 내지의 동포와 피를 나누는 형제가 되어 우리나라의 종가인 황실을 위로 받들고 희망에 찬 안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중략, ………), 2천 3백만 동포여! 우리가 언제까지 지나(支那)의 행랑방 살이를 하던 시대에 습득하고 익힌 인정, 풍습, 인습을 그대로 연장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조상의 나라인 대일본제국의 진실한 국민이 되지 않았습니까? 피를 나누고 태어난 자신의 아버지 집에 돌아온 이상 친형제와 일심일체가 되어 하나의 풍속으로 살아가야 아버지 된 자의 마음이 편할 수 있겠지요.

(중략, ………), 우리는 상고(上古) 때 우리 선조의 나라였던 일본으로 돌아와서 이제야 완전한 황국신민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시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황국신민이 자나식의 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 그러면 왜 이름을 고칠 필요가 있는가 하면 그 이유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양복 윗도리에 조선바지를 입고 돌아다

니는 것은 거지꼴 같아서 꼴볼견입니다. (중략, ………) 이제 제 씨 명을 밝힐 단계가 되었습니다. (중략, ………)

보시다시피 제 씨는 오에(大江)이며 이름은 류노스케(龍之助)입니다. 참고삼아 오에 류노스케(大江龍之助)의 유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대구(大邱)에서 태어나서 도쿄 즉 에도(江戸)에서 성장하고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언제였던가 작년 11월의 어떤 밤의 일입니다. 용산역 앞에서 나라에 목숨을 바치고 백골이 되어 돌아오는 수백의 황군 장병의 명령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저는 몹시 감격해서 주위도 신경 쓰지 않고 사나이 울음에 눈이 툭툭 부은 일이 있습니다. 눈물에 흠뻑 젖은 채로 그 자리에서 결심한 것은, (중략, ………), 뒤에 나의 일생을 우리 조선의 조국인 일본과 이 일본의 주인이고 종가(宗家)이며 또한 부군(父君)이신 만세일계의 천황폐하께 받들어 바치자! 고 하는 것을 천지신명에게 굳게 맹세한 사나이입니다.

그래서 대구(大邱) 대(大)자와 에도(江戸)의 강(江)자를 따서 오에(大江)라는 씨를 만들고, 용산(龍山) 역 앞에서 결심한 사나이라고 하는 뜻으로 용(龍)자 하나를 따고 조(助)를 보태서 류노스케(龍之助)라고 하는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중략,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를 해 두자면, 이제부터는 제국신민인 자는 누구든지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씨를 설정할 때 제령(制令) 제20호에도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역대 천황의 휘명(諱名)이나 어명(御名)은 씨로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궁호(宮號) 등도 씨 명에 쓰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황국신민의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황실과 관계가 깊은 집안의 씨를 흉내 내는
것도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하락, ………))

출전 : 金文輯 『總動員』 1940년 3월호, 36-47면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V(15권), 598-607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V(15)권, 2009.

▶ 총동원 권두언

金文輯

(조선문인협회 간사)

막대한 비용을 들여 - 예를 들어 가뭄 대책의 하나인 이 총동원 식량문제 특집호이다. 세간에는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는 부모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일개 조선을 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자신의 몸을 깎아내고 있는 부모 마음을 갖고 있는 이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다른 누구도 아니다. 입에 담는 일조차 황송하기 그지없다. 한 분(御一方)이 저 신(천황, 인용자)이 시기 때문이다.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큰 이 은혜를 우리는 몇 대에 걸쳐 그 1만분의 1을 갚는다 말인가?

내선일체는 이상도 이론도 아닌, 생생한 자기 현실이다. 문화적으로 혈액적으로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 국체에 융합(溶合)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가상(假想) 하에서도 우리 조선은 존재할 수 없다.

위대하도다! 미천한 이 몸으로 하여금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세계 지배자이게끔 하신 능위(稜威) 또한 위대하도다. 성스럽도다! 그저 멀리서 엿드려 감읍낙루(感泣落淚)할 따름이다. 쌀 기근 따위가 어쨌단 말이나! 국체는 무진장하다. 천하(六合)를 먹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은 『고사기(古事記)』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1집은

우리 고전의 한 구절을 여러 각도로 바꾸어 부연한 데 지나지 않는다. 고마운 미즈호노쿠니(일본을 이름, 인용자)여! 또 다시 흐르는 이 눈물을 어찌할꼬?

출전: 金文輯『卷頭言集』, 『總動員』, 1939년 11월호, 1면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V(15권), 597-598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V(15)권, 2009.

기획특집

■ 안유환 | 수필이 그리는 그림

Christian Literature 2024

수필이 그리는 그림

안 유 환

수필은 내게 ‘죽마고우’처럼 다가왔다. 어릴 적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는 격식도 예절도 순서도 꾸밈도 없다. 누가 보든 말든 그 옛날 ‘고향 사투리’를 그대로 늘어놓으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산자락이나 풀밭에 제멋대로 자라는 야생화처럼, 길가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코스모스처럼—. 고상한 지식이나 정치적인 얘기는 끼어들 자리가 없다. 지난날 어떤 아이는 여자친구들의 고무줄놀이를 방해했고, 딱지치기, 땅따먹기 놀이를 하며 서로 싸우기도 했다. 그러나 자고 나면 모든 ‘원한’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나의 살던 고향은~’ 노래를 함께 불렀던 시절이 그림처럼 되



| 안유환 |

소설가 · 시인 · 수필가. 부산문인협회 · 부산소설인협회 · 수필문학부산작가회 회원, 금정구문인협회 자문위원,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고문, 소설집 『동근별』 『그는 언제나 맨발이었다』 『하이네 자서전』, 장편소설 『주네브행 열차』, 수필집 『매미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건드리는 노래』, 시집 『천사들의 휴양지』 『서설』 『그림자의 귀향』, 에세이집 『발틱해의 일출』 등. 광나루문학상, 부산문학상, 한 국해양문학상, 부산크리스천문학상 수상, 예장통합목사.

살아난다. 어릴 적 얘기를 하다가 금방 사춘기로 넘어가고, 그리고 학업으로, 직장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날들을 돌아본다. 함께 뛰놀던 친구들이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친구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그리워하며, 슬픔에 젖는다. 내가 수필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그러했다.

제멋에 겨워 써놓고 보면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할 때는 그야말로 ‘수필’이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수필이란 따로 형식을 취할 필요도 없이 붓 가는 대로 쓰는 글이다. 틀에 잡힌 형식이나 딱딱하게 규격화된 것은 재미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것도 없고, 성형의사의 손이 가지 않은 얼굴보다 더 매력적인 미인도 없다. 그야말로 제멋대로 얼마간 ‘수필’이란 것을 끼적였다. 글을 쓴다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제멋에 겨워 써놓고 보면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재미도 있었다. 그즈음 부산에서도 크리스천 문인협회가 태동하고 모임이 조금씩 활동을 시작했다.

30~40년 전에는 요즘처럼 글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따라서 회원확보도 어려웠을 것이다. 부산 크리스천 문인협회에 서는 등단도 하지 않은 나를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지난날 신문 기사를 쓰던 문화부 기자라는 나의 이력을 등단으로 간주한 것이다. 당시 목회자였던 나는 ‘무면허’로 수필의 운전대를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주눅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문학’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면 문학이 되는 줄 알았다. 막연히 글 쓰는 것을 동경하여 기자가 되었지만 사실 기사를 취재할 때는 문학을 깊이 공부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그러나 동인들의 글을 읽고 이름있는 수필가들의 작품을 접하면서 나의 무면허에 대해 조금씩 자괴감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필작법’ 같은 책을 사보거나 특별히 공부를 따로 한 기억은 없다. 등단을 작심하고 두 편의 수필—「雅號 이야기」, 「無隻山」—을 차례로 써서 1997년 월간 『수필문학』의 추천을 완료했다. 첫 수필집 『매미 소리를 들으며』를 선보인 것은 1999년이었다. 그리고 15년 후 두 번째 수필집 『마음을 건드리는 노래』를 펴냈다. 그동안 목회에서 은퇴하고 출석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문예교실>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문학이란 무엇인가?’ ‘수필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가르치며 배운다’는 말처럼 비로소 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글쓰기 지도에서 윤오영(1907~1976)의 『수필문학입문』을 텍스트로 하며 2~3권의 ‘수필창작론’을 참고했다.

윤오영은 수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필은 자유로운 산문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문학작품으로서의 자유로운 산문이다.……세간에 흔히 수필이라면 신변잡기에 불과한 사소한 문장이라 경시하며 시사 평론적, 문화 평론적인 도도한 문장을 에세이 문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문학적 성격을 몰각하는 말이다.……수필이란 가장 오래된 문학 형태인 동시에 가장 새로운 문학 형태요, 아직도 미래의 문학 형태이다.”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하버드 리드(H. E. Read) 다음과 같

이 정의했다. “수필은 단순한 기성의 언어에 의한 건축물이 아니다. 시나 희곡처럼 탁마되고 정선되어 이루어진 글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 가지고 있는 언어에 의하여 이루어진 산문이 수필이다.” 강범우 평론가는 “수필은 소설처럼 허구로 꾸며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현시(顯示)의 글이다. 수필은 체험을 토대로 하는 주관적, 개인적, 심경적인 것들이 그 본바탕을 이룬다. 그러므로 수필은 다른 글보다 독자에게 더 친근감을 주고 있다.”

피천득(1910~2007)은 그의 『수필』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수필은 청춘의 글은 아니요, 서른다섯 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며, 정열이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요, 그저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이다.……수필은 한가하면서도 나태하지 아니하고, 속박을 벗어나고서도 산만하지 않으며, 찬란하지 않고 우아하며, 날카롭지 않으나 산뜻한 문학이다.” 이런 말들을 살펴보면 ‘수필’은 어찌면 모든 사람에게 ‘죽마고우’처럼 다가서는 글인지도 모른다.

무언가 남기고 싶은 마음

“왜 글을 쓰는가?”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내놓는 답은 대체로 “쓰고 싶어서,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라는 말이다. 틀리지 않은 답이지만 올바른 답이라 할 수는 없다. 어떤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뜻이 있기 마련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이 없는 소리는 없다”(고전14:10)고 말했다. 온갖 소리가 다 뜻이 있다면

마음을 펼치는 글쓰기에 의미가 없을 수 없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물이 많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다 알아보는 참으로 어렵다.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다 표현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참 좋다!” “아름답다!” “멋있다!” 한마디로 평가해버린다면 아마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유를 찾으려면 답이 보인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현미경으로 찾아보고, 알 수 없는 것은 배우고 연구해야 한다. 우주의 수많은 별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천체망원경이 필요하다. 글을 쓰는데도 분명히 소중한 이유가 있다.

글을 쓰는 이유는 무언가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귀중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여 메모를 하는 것처럼. 글을 쓰는 사람은 먼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여행지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렌즈에 담은 사람처럼 보고 들은 좋은 생각을 메모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어진다. 그대로 흘려버리기는 아쉬운 자기 생각이 붓을 따라 글로 모습을 바꾼다. 아무런 형식이나 계획도 없었다. 생각나는 대로 옮기다 보니 한 페이지의 글이 되었다. 그 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글은 그에게로 와서 한편의 ‘수필’이 되었다.

살다 보면 어렵고 답답한 마음이나 감동적인 느낌을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어도 그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나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도 있다.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살면서도 그런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럴 때 우리는 한 장의 종이를 앞에 놓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듯

지면에 자기 모습을 그려낸다. 그 모습은 외출하려고 얼굴을 씻고 옷매무새를 고친 것이 아니다. 나들이에서 돌아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몸을 던진 모습이다. 그럴 때 글을 쓰는 사람은 해방감을 맛보고 자기가 쓴 글에 위로를 받는다. 그것은 치유와 ‘구원’으로 이어진다. 그 남겨진 글—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던 이야기—을 읽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작가의 모습을 대하는 것처럼 그 진솔함에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문예지에 수필을 발표하거나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낼 때는 그 모습도 매만지고 단장도 하며 퇴고를 해야 한다. 나의 첫 수필집 서문은 “수필은 정돈된 마음의 행로이다……”로 시작되고 있다. “……때로는 해수욕장이나 휴양지에서 별거벗거나 아무렇게나 차린 모습들을 스냅으로 카메라에 담기도 하지만 정식으로 인물사진을 찍을 때는 대체로 머리모양도 손질하고, 화장도 하고, 정장을 하게 된다. 이것을 두고 아무도 가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수필을 쓰는 것도 이런 일들과 흡사하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마음의 정장을 하고 그 표현도 화장을 하는 셈이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제하며 가장 아름다운 마음들을 정리한 것이 한 편의 수필로 완성된다. 그러기에 수필을 읽으면 그 안에 예절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감격과 기쁨을 발견한다.”

생활 속에 널려있는 소재들

어떻게 한 편의 수필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시인이 한 편의 시를 쓰려면 우선 시상이 떠올라야 하고 은유와 직유 등을 적용할 방법

을 고안하고 흙 속에서 보석을 찾아내듯 오래도록 고심하며 알맞은 시어詩語를 발굴해야 한다. 시를 쓰는 장소는 외딴곳이나 골방이 적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설가가 한 편의 소설을 쓰려면 플롯을 구상하고 소재를 관찰하고 묘사하여 주제를 살려내기까지 한동안 일상생활과는 담을 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필가는 삶의 현장을 떠날 수 없다. 소재가 생활 속에 널려있기 때문이다. 수필의 소재는 외파로 있는 것이 아니며 특별한 주제를 미리 설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 계획된 주제로 글을 쓴다면 그것은 수필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논설문이 되고 말 것이다.

수필은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자기가 태어난 자리와 유년, 소년, 청년 시절의 성장 과정,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미래의 꿈 등 그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이 수필의 소재가 된다. 영국의 비평가이며 수필가인 페이터(Walter Pater)는 “만 가지의 경험을 함께 끌어모으면 영원한 생명체가 된다”고 말했다. 수필은 소설처럼 꾸며낸 서사가 아니라 진솔한 자기 이야기이다. 누구에게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기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다. 글(수필)을 쓴다는 것은 잊어버린 자기를 되불러내는 것이며, 달아나는 기억을 붙잡아두는 일이다. 우리의 삶은 곧 이야기이다. 서로가 만나면, 앉으면 온갖 이야기를 꺼낸다. 그 이야기를 골라서 잘 정리하면 한 편의 수필이 될 수 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글을 쓰면서— 자기가 쓴 글을 읽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역지사지하

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한다.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의무와 책임도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찾지 못하고 마침내는 소중한 자유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글을 쓰면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주제를 알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다. 글을 쓰며 생각하는 것은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것이며, 어디서나 자기 좌표를 확인하면 방향 감각을 되찾고 나아갈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는 자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궁극적인 질문을 하는 자리에 이른다. 이러한 질문의 답을 얻으면 흐트러진 삶은 바로잡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글 쓰는 방법을 배우는 이유는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탐욕과 질투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 경탄과 애착을 가지기 위해서다.” 미국의 작가 나타리 골드버그의 말이다.

그윽한 정에서 피는 향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좋은 수필은 문학성이 있어야 한다. 귀한 교훈이 가득한 경전을 두고 문학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내용이 좋다고 다 문학작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학이란 아름다움을 창조하거나 발견하는 예술적 언어의 구조를 말한다. 그리고 모든 예술적 표현은 우리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미국의 바바라 애버크롬비(Barbara Abercrombie)는 그의 『글 잘 쓰는 기술』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로 봄

비는 출근길 지하철 입구에 맹인 두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표지를 목에 걸고 있는 사람의 깡통에는 각박한 인심을 반영이라도 하듯 동전 몇 개만 덩그러니 담겨있었다. 그러나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저는 봄이 와도 꽃을 볼 수 없습니다’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앉아있는 맹인의 깡통에는 동전이 가득했다. 이 사람의 단 한 줄 팻말이 행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수필은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피천득은 ‘수필’을 차를 마시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수필의 재료는 생활 경험, 자연 관찰 또는 사회현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 등 무엇이든 다 좋을 것이다. 그 제재(題材)가 무엇이든지 간에 쓰이는 이의 특성과 그때의 무드에 따라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액이 고치를 만들 듯이’ 수필은 씌어지는 것이다. 수필은 플롯이나 클라이맥스가 필요하지 않다.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것이 수필의 행로이다. 그러나 차를 마시는 것과 같은 문학이 그 방향(芳香)을 갖지 아니할 때는 수돗물같이 무미(無味)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한 편의 수필은 마음을 끄는 향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오영은 문장의 품위를 두고 “마음이 담담하게 가라앉아야 그윽한 정이 고이고, 그윽한 정이 있어야 문장이 방향을 머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필가 김용준(1904~1967)은 그의 『예술에 대한 소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예술이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과 같은 다반사에 불과하다. 식탁 앞에 앉

은 사람이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밥술을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 곧 예술창작의 이론과 실제이다. 점잖게 먹느냐 알밋게 먹느냐, 조출하게 먹느냐 지저분하게 먹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다. 모든 위대한 예술은 결국 완성된 인격의 반영일 수밖에 없다. 인간이 되기 전에 예술이 나올 수 없다.” 참으로 수필가다운 정의이다. 내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P 학장은 첫 강의 시간에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고 하시던 말씀을 기억한다. 인간이 되려면 누구에게서나 배워야 한다.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공자는 논어에서 “삼인행 필유아사 三人行 必有我師”라 말했다. 이 말은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의미만은 아닐 것이다. 좋든지 나쁘든지, 어쩌면 세상 만물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수필을 쓰려면 좋은 글을 많이 읽어야 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 아무도 수필에 부끄럽고 끔찍한 이야기들을 적어넣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잊지 못할 사람, 머무르고 싶었던 추억,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지역과 그런 마음들을 정리하면 한 편, 한 편의 수필이 된다. 글의 서두는 열리는 꽃봉오리처럼 아름다워야 한다. 피천득은 그의 『수필』의 서두를 “수필은 청자靑瓷 연적이다. 수필은 난蘭이요, 학鶴이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로 시작한다.

아름다움과 새로움은 문학의 본질이다. 윤오영은 “평범한 생활 속에 묻혀있으면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찾아내면 참신한

수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예술가의 참된 작업이란 이미 있는 아름다움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말했다. 반드시 새로운 사물이 아니라도 진부한 문자를 그대로 쓰지 않고 표현을 새롭게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붓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한 편의 수필이 되는 것이니까. 붓이 가는 길을 알려면 지난날 붓이 걸어난 길을 걸어보아야 한다. 그 길은 수많은 책—고전 속에 있다. 자칫 직설적인 자기 자랑이나 변명, 남을 비난하는 내용은 글의 품위를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글 쓰는 이의 인품을 훼손할 수도 있다.

수필의 매력은 제멋대로 걸어가던 붓이 마침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데 있다. 돌아보면 수필을 쓸 때는 즐겁고 감사할 일이 많았다. 수필이 그리는 그림은 작가의 가장 순수하고 고운 마음이다. 나는 좋은 글을 쓰며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 이태준도 이러한 마음을 그의 수필집 『무서록』을 통해 들려주고 있다. “오래 살고 싶다. 좋은 글을 쓰려면 공부도 공부려니와 오래 살아야 될 것 같다. 적어도 천명天命을 안다는 50에서부터 60, 70, 100에 이르기까지 그 총명, 고담枯淡의 노경老境 속에서 오래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인생의 깊은 가을을 지나 농익은 능금처럼 인생으로 한번 흠뻑 익어보고 싶은 것이다.” 이것은 아마 수필을 쓰는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바람이리라!

작품평

부산크리스천문학 2024년 상반기 41호에서

〈시 평〉

양왕용 | 주님께 회개하는 자세의 시적 형상화

주님께 회개하는 자세의 시적 형상화

양 왕 용

부산크리스천문학 41호(2024년 상반기)에 수록된 시편들 가운데에는 유독 주님께 시적화자들의 잘못을 참회 혹은 회개하는 작품들이 많았다. 사실 회개는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도 이루어지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도 자기 자신의 신앙의 자세나 삶의 태도를 되돌아 보면서 회개할 경우도 있다. 문제는 회개라는 심리적 행위를 시로 형상화할 경우 자칫하면 시적 형상화에 실패하면서 자기 고백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

| 양왕용 |



1943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도 출신. 진주고, 경북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동 대학원 국문과 졸업(문학박사), 1966년 김춘수 시인 3회 천료(월간 시문학)로 데뷔. 시집 『천사의 도시, 그리고 눈의 나라』외 8권, 연구논저 및 비평서 『정지용시연구』, 『한국현대시와 디아스포라』 『김춘수평전』외 8 권. 시문학상 본상, 부산시 문화상(문학부문), 한국크리스천문학상(시 부문), 부산시인협회상 본상, 한국현대시인협회 국제교류 대상 등 수상. 부산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 회장,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역임. 현재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한국현대시인협회 명예이사장, 동북아기독교작가회의의 한국 측 회장

기 위해 어떠한 시적 장치를 하는가 하는 것은 시인 개인의 역량과
개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오늘
사람을 죽였다

정당방위라 애써 변명하지만
그를 죽였으니
나는 명백한 살인범이다

그가 먼저 찢렸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내가 그에게 쏜 화살은
독 묻은 화살

내 입술이 겨누 그의 심장에
붉은 피가 흐를 때

뚝, 십자가 위에서 목이 꺾이는
슬픈 주님

아, 오늘도 나는
나대신
그를 못 박고 말았다

— 조현숙 「참회」 전문

조현숙 시인의 「참회」는 시의 제목 속에 ‘참회’라는 심리적 행위가 직접 노출되어 있다. 주제 또한 직접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밖

에 없다. 그렇게 되면 시를 읽어 가면서 상상을 하거나 내포된 의미나 의도 등을 파악하여 주제 파악에 이르는 즐거움은 없다.

그런데 조 시인은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시 첫째 연부터 ‘오늘/사람을 죽였다’라는 과격한 표현이 등장하여 시적 긴장감을 조성한다. 그리고 시적화자 ‘나’가 죽인 대상이 누구인지도 궁금하게 만든다. 사실 이 작품에서 실제 살인행위가 벌어진 공간이 시적공간이라고 여기는 독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비유적 행위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연부터 시적화자의 살인행위가 어떤 것을 비유한 것이라고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모호하다. 넷째 연에서 시적화자가 겨누는 화살은 입술 즉, 말로써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러다가 다섯째 연에서 드디어 죽인 상대가 ‘주님’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너무 급격하고 당돌하다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다.

물론 시적화자의 크리스천답지 않게 날카롭거나 자기 자신만을 위한 언행으로 인하여 주위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주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연에서 죽어야 할 이는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회개의 언사로 끝맺는 점에서는 시적 완성도를 발견할 수는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급격하고 단호한 표현보다 유연하면서 깊은 상징성을 가진 표현을 구사하는 것이 조 시인에게 부과된 과제이다.

오늘 예배는 웬지 모르게 마음이 뜨겁다

내친김에 오후 예배까지 보고 가야지
 멘 뒷자리에 앉아 마음을 모으는데
 앞자리 사람들의 뒤통가 슬슬 보이기 시작한다
 머리숱이 탐스러운 가발
 갑옷을 닮은 잠바
 목사님 설교는 귀에 쟁쟁거리는데
 구닥다리 스크루테이프*의 수법에 말려들어
 눈은 가물가물
 고개는 왔다아∞갔다아∞
 그런 나를 목사님께서 알아채신 건지
 어린 양의 피라는 설교 대목에서 목청을 높인다
 줄행랑치는 스크루테이프 일당을 보며
 호탕하게 웃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나를 쿡 찌른다

*C.S 루이스(1898-1963)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악마

— 이가연 『에피소드』 전문

이가연 시인의 작품『에피소드』는 예배 시간에 졸음을 쫓아내면서 일어난 헤프닝이 시적 제재로 등장하고 있다. 사실 예배 도중에 조는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많은 신자들이 경험한 바일 것이다. 이 작품에서 시적화자는 전반부에서 오전예배에서 많은 은혜를 받아 내친 김에 오후예배까지 드리고 가기로 걱정하고 참석했으나 예배에 집중되지 않는 심리상태로 인하여 주위의 사람들에게 대한 지나치게 살펴보게 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 상태를 이

시의 주에서 밝힌 C.S 루이스의 저서에 나오는 악마 스크루테이프의 유혹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시적화자의 졸음을 눈치 챈 목사님의 목청 높임으로 악마는 줄행랑친다는 유머러스한 표현이 등장하고 줄행랑치는 악마가 통쾌하게 느껴져 호탕하게 웃자 옆 사람이 시적화자를 쿡 치른다는 것으로 시는 끝난다. 이 시에 등장하는 시적화자의 행위를 회개라고 규정짓기는 힘들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머라는 시적 장치를 등장시켜 독자들의 공감을 유도하는 것은 충분히 시적형상화에 다다랐다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다만 좀 더 응축된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유도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모두 미동도 않고
그리 바쁘던 몸들이
한 시간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배추 절이는 시간
강단의 설교는 한 주간 세상에서
나 잘 났다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폭 절이는 시간이다

감정싸움으로 서로 외면하는 분
교인에게 오래된 빛 안 갠고 있는 분
좀체로 바뀌지 않는 교인들
말씀 속에 절여져서
원 위치로 돌아오면 좋으련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절여졌던 배추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
언제 내가 말뚝소금에 절여졌었나는 듯이
뺏뺏하게
안타깝게도 나도 그렇다

— 이귀선 『설교시간』 전문

이귀선 시인의 『설교시간』은 예배에 참석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는 것이 제재가 되어 있다. 이 시인이 이 작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적인 장치는 비유라고 볼 수 있다. 즉 설교를 수용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배추 절이는 시간’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러한 비유를 등장 시킨 까닭은 교인들의 일상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우들 사이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감정싸움으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경우와 빛 진 것을 안 값는 행위 등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겸손과는 거리가 먼 교만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청산하라는 설교말씀은 마치 뺏뺏한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겸손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 본성대로 감정도 발산하고 교만한 자세로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시의 말미에서 시적화자인 ‘나’ 역시 그렇다고 안타까워한다. 이렇게 반성하는 어조로 이 시는 쓰여 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적 형상화에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을 이원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태도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단적으로 보여준 곳이 산상수훈 가운데 8복 다음에 나오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마태복음5장13-14절의 말씀임은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 시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시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물을 기독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시적 장치를 잘 선택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감하는 시를 쓰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의 세 시인들은 어느 정도 성공적인 시를 썼다고 볼 수 있다.

올해의 작가

권갑숙 | 가을의 문장
작품평

Christian Literature 2024

가을의 문장

권갑숙

길을 나섰다. 가을 햇살의 유혹에 잠시 점심시간을 틈 타 사무실을 나왔다. 하늘은 어쩔 이렇게도 푸를까. 누가 지구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 푸른 호수가 하늘에 펼쳐져 있는 걸 보면. 중간중간 새하얀 솜털 구름도 호수 위에 떠 있다. 한 움큼 걷어다 밀봉이라도 해 두고 싶다. 한낮의 온도가 꽤 뜨거운 걸 보면 아직 영글지 못한 열매들에게 마지막 햇살을 퍼붓는 모양이다. 살랑살랑 바람도 겨울채비를 독려한다. 최소한의 수액으로 추운 겨울을 준비하려면 어서 서둘러야 한다고 동네 이장님처럼 외고 다닌다.

사무실 건너 내동으로 가는 길 입구에 들어섰다. 멀리 계곡마다 단풍들은 우르르 달려올 것처럼 출발선에서 호흡을 가다듬는다.



| 권갑숙 |

- 〈부산크리스천문학〉 수필 등단(2011)
- 부산문인협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문학중심작가회 회원
- 수필 〈로렘나무를 꿈꾸며〉

이제 곧 가을은 산의 정수리부터 알록달록 멋 내기 염색을 하느라 바쁘고 들판은 각자 맡은 제 소임을 다하느라 분주하다. 자박자박 크는 소리가 달콤한 가을배추들이 벌써 제 몸을 말아서 집 짓기에 바쁘고 훌쩍 커버린 무가 허연 배를 내놓고도 골목대장처럼 푸르다. 길 옆 한 무더기 코스모스와 억새들도 바람결에 젖은 몸을 말리느라 열심히 하늘거린다.

소정리 안동네를 막 지나는데 저 멀리 감나무 한 그루가 익숙한 풍경으로 서 있다. 그 많던 이파리들을 어느새 다 비워내고 붉은 열매를 위해 혼신을 다하는 모습이 눈물겹다. 자연은 이렇게 주어진 환경 탓하지 않고 언제나 말없이 묵묵히 제 할 일을 다 하건만 우리 인간들은 힘들 때는 언제나 남 탓으로 돌린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나의 열매들은 잘 익어 가는지 새삼 뒤돌아본다.

지난 시간들이 함께 걷자 한다. 묵묵히 들어줄 모양이다. 나름 참 열심히 살았다 자부하는데 뒤돌아보면 해 놓은 것은 없고 부끄러운 후회만 가득하다. 20여 년을 한결같이 사무실과 집과 교회를 오가며 살았다. 때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소리치고 싶었고 때론 그 모든 과정들이 감사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며 행복해할 때도 있었다. 나의 신앙은 왜 이렇게 제자리걸음일까? 나의 문학은 왜 이렇게 설익었을까. 나의 자녀들은 조금만 더 힘내면 될 텐데. 이러다가 다시 모래시계를 뒤집는다. 아니지, 여기까지 무탈하게 온 게 얼마나 감사한가. 늘 제자리걸음 같은 나의 신앙이 비추 지금의 삶도 이만하면 감사하지. 두 아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제

갈길 바르게 가는 것도 어디 혼한 일인가. 다시 욕심을 버리고 바라보면 한 순간도 눈이 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지. 동전의 양면성 같은 이 생각의 매력은 도대체 언제까지 널뛰기할는지…….

언젠가 월화 드라마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에서 들은 대사가 떠오른다.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날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의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 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참 감동적이었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새벽의 쨍한 공기, 꽃이 피기 전 달콤한 바람, 해 질 무렵 노을의 냄새가 눈이 부셨다고 말하다니.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니,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같은 것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감사하게 살라는 메시지가 극히 진부하면서도 당연한데 왜 이렇게 가슴을 흔들었는지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대사였다.

인간은 누구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불안함과 때론 헛헛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불안과 공허함을 항상 내면에 간직하고 사는 것이다. 불안하다는 것은 그만큼 결핍이 내재한 내면에 안식이 없어서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으면서도 후회를 반복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미련한가.

성경의 어느 한 구절에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한다. 하나님은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했다. 매 순간 아름답지 않은 때가 없다는 뜻이니 매 순간 감사하며 살라는 뜻일 게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있을까? 비록 길 가 가로 수 뱃나무 잎이 수분이 부족한 내 피부처럼 푸석푸석하고 검버섯이 듬성듬성 돌아난 구멍 뚫린 이파리이지만 긍정의 프리즘으로 바라보면 이 또한 아름다운 때가 아닌가 말하고 싶다. 질 때가 되면 아름답게 떠나는 모습도 아름다운 법이거늘 그저 더 가지려고 더 젊어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내 모습을 자연 앞에 감추고 싶어진다.

길 옆 초록색 철제 울타리 사이로 새빨간 장미 한 송이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 오월에 피어야 할 장미가 이 늦가을이 제철처럼 새빨갳게 피었다. 때를 구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충분히 아름다운 때라고 말하는 듯하다. 그 옆 한 무리 억새도 맞는 말이라고 고개를 흔들어준다. 바람도 빛바랜 뱃나무 한 잎을 공 굴리기하며

따라오면서 거든다. 당신의 삶은 아름답지 않은 때가 없었다고.

어느새 안적사 올라가기 전 입구까지 걸었다. 산책하기 좋게 친 환경 코르크 길이 끝나는 지점을 유턴 장소로 정해 났던 곳이 전환 점이다.

수집한 가을의 문장들을 감사함으로 빼곡히 적으며 되돌아 걷는다.

사유의 텃밭을 가꾸는 호미질 소리

박정선 | 문학평론가

1

글쓰기는 사유하는 방법이다. 성찰하는 방법이다. 더욱이 수필이 그렇다. 수필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내면과 사상을 펼쳐 보이는 행위, 자신의 사상을 통해 사물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행위이다. 그래서 한 권의 수필집을 발표한다는 것은 ‘나’를 펼쳐 보임이며, 한 권의 수필을 읽는다는 것은 그 작가의 철학을 읽는 일이다.

권 작가의 사유와 성찰은 『가을의 문장』에서 빛난다. 가을의 문장은 가을이 표현하는 풍경을 상징하는 말이다. 가을의 문장은 인간의 삶을 은유한다. 삶을 은유하되 삶의 일부가 아닌 인생의 어느 고개에 다다라 아래를 내려다보며 회고하는 부분이다. “나는 지금 어떤 때를 지나고 있을까?”(『가을의 문장』)라는 의문은 권 작가의 생각만은 아니다. 사람은 가끔 어느 시기에 어느 지점에 서서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발자취를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살아온 날

을 회고하며 대부분 아쉬워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한다. 그런데 작가는 말한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니…”라는 사유는 뜻깊은 의미를 함의한다. 사실 삶의 하루하루는 특별한 일만 없다면 어제와 오늘이 별다른 게 없어 보인다. 그렇게 흘러가는 하루가 쌓여 오늘을 이룬다. 그리고 인간은 하루하루 사는 게 늘 별것 아닌 듯하기도 하는데, 작가는 그다음을 잇는다. “여기까지 무탈하게 온 게 얼마나 감사한가, 늘 제자리걸음 같은 나의 삶도 이만하면 감사하지 않은가, 두 아이 제 갈 길 바르게 가는 것도…”라고,

그렇다. 무탈하게 여기까지 와준 삶이야말로 기적이다. 남의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함의 지속, 크게 염려할 일도 크게 부러움을 살 일도 없는 일상의 연속, 오늘이 늘 어제와 같은 변함없는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작가는 다음과 같은 어마어마한 철학을 발설한다.

“욕심을 버리고 바라보면 한순간도 눈이 부시지 않는 날이 없지.”

— 「가을의 문장」 중에서

2

수필을 곧잘 무형식의 문학이라고 이른다. 아무런 형식이 따르지 않으므로 흔히 붓 가는 대로 쓰는 글, 마음 가는 대로 쓰는 글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수필의 시초를 이룬 편지글에

서 유래한다.

한국문학통사를 살펴보면 수필의 역사는 서간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한글로 쓴 편지를 언간(諺簡)이라 했고 한글이 발달하면서 편지 쓰기가 유행했다. 그리고 근대로 들어오면서 우편제도가 정착하게 되자 편지쓰기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과의 인간관계를 연결하고 소통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편지를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고, 편지 작법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서간문법류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광수가 쓴 『춘원서간문법』(1939)이 가장 유명했다. 이광수 외에 노자영이 쓴 『나의 회환: 문예민문서간집』(1939)과 이태준의 『문장강화』와 『서간문강화』(1943)도 꽤나 유명세를 떨쳤다.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 시대를 사로잡은 『렌의 애가』, 1937년 모운숙이 펴낸 『렌의 애가』는 서간체의 문학을 화려하게 꽃피운 편지글 모음집이다. “시몬, 이렇게 밤이 깊었는데 나는 홀로 작은 책상을 마주 앉아 밤을 새웁니다.”(제1신)로 시작되는 렌의 애가는 떨어져 있는 연인을 대상으로 한 연서(戀書)로 초판부터 시작하여 1970년대까지 무려 4만 부가 팔렸고, 1990년 절판이 될 때까지 무려 90쇄를 기록했다(렌은 아프리카 밀림에서 일생 동안 짝을 부르며 울다 쓸쓸히 죽어가는 새로 모운숙을 대신한다).

이와같이 수필의 유래가 편지글에서 비롯되었듯이 수필은 가족과 주변인들 그리고 자신의 일상을 비롯하여 다양한 제재를 취하는 문학으로 자기 발견, 자기 고백, 자기표현의 문학이다. 몽테뉴

는 “나 자신이 바로 내 글의 재료가 된다”했고 이태준은 『문장강화』에서 “그 사람의 자연관, 인생관, 습성, 취미, 지식과 이상이 재료가 되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김진섭은 『수필의 문학적 영역』에서 “수필은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용기라고 볼 수 있다.”했고, 현대로 들어와 한국의 대표적인 수필가로 호명된 피천득은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다. 수필은 독백이다. 자기를 솔직하게 나타내는 형식이다. 수필은 난이요, 학이요, 비둘기 빛이거나 진줏빛이요, 번쩍거리지 않는 비단.”이라고 했다. 그들의 생각은 생트뢰브의 “그 나무의 그 열매”와 성서의 잠언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나”(잠언 12장)라는 내용으로 귀결된다.

결국 인간이 산다는 문제는 사유와 성찰이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자신을 가르치고 반성하는 길이 있다. 혹여 종교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종교는 사유와 성찰의 대지로 안내해줄 뿐이다. 거기에 생각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일은 스스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유^{思惟}와 성찰^{省察}은 뿌린 대로 나는 법, 권 작가의 수필은 생각의 텃밭 가꾸기이다. 저 먼 곳 드넓은 대지가 아니라 집 가까이 있는 아담한 터에 생각의 씨를 뿌리고 날마다 들락거리며 호미질을 하는 따뜻한 텃밭이다.

권 작가의 첫 작품집 『로댐나무를 꿈꾸며』는 가족끼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텃밭을 가꾸는 것 같은 정겨움을 보여준다. 일찍이 피천득이 “비둘기 빛이거나 진줏빛이요, 번쩍거리지 않는 비단.”이라고 했듯이 권 작가의 수필은 현란하지 않다. 화려한 수식

어 대신 소박하고 전혀 꾸밈이 없이 솔직하다. 그래서 잔잔한 호수 같기도 하고 졸졸 흐르는 냇물 같기도 하고 바람에 풀잎이 서로 몸을 비비며 쓸어안는 다정다감한 풍경 같기도 하다.

한편 권 작가의 글은 비교적 짧다. 글이 짧다는 것은 생각이 짧고 문장에 생동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수필이 되자면 보이지 않는 수필의 특성인 내재적인 유기적 형식을 잘 살려야 한다. 즉, 시적 표현을 능가하는 은유와 상징과 알레고리, 아이러니, 패러독스 등의 표현이 필요하다. 또한 예리한 관찰력에서 우러난 세밀하고 치밀한 묘사, 지적인 비평 정신과 사상, 선명한 주제와 유효적절한 어휘력 구사, 딱 맞아 떨어진 인용, 잘 맞아 떨어진 문장의 호흡(리듬), 거침없는 문장의 흐름이 관건이다. 권 작가의 수필은 이러한 조건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 구구절절 자세한 설명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상징어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전개한다.

따라서 권 작가의 수필은 추억을 소환하는 정서도 산뜻하다. 제 1부의 오월에 대한 추억부터 보면, 「그해 오월 1」은 결혼 전 금융기관(농협) 직원으로 근무할 때 체험했던 일로 한 폭의 수채화를 떠올리게 한다. 화자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저축문제로 K초등학교를 드나드는데 화자에게 마음이 끌린 총각 선생님이 서류를 조작해가면서 화자를 만나는 방법을 연구해낸 깜찍한 발상은 웃음을 머금게 하는 추억이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해 오월 2」는 아들이 군에 입소하는 첫날 함께 갔던 일이다. 전자의 오월은 나의 청춘 시절을, 후자는 중년의 어머니로서 아들을 군에 보내는 모성을 보여주는데 이 두 가지 추억은 작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추억으로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권 작가는 추억을 소환하는 일보다 오늘을 사유하고 성찰하는데 몰입한다. 권 작가의 사유와 성찰은 「해 아래 영원한 것은 없나니」,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봄날의 우수」,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나」, 「열매」, 「가을의 문장」 등에 응집되어 있다. 먼저 「해 아래 영원한 것은 없나니」는 구약성서 가운데 솔로몬 왕의 사유와 성찰로 유명한 전도서를 배경으로 한다. 전체 12장으로 되어 있는 전도서의 키워드는 “해 아래서, 헛되도다”로 요약된다. 제1장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로 시작된 ‘해 아래서’는 12회를 거듭한다.

제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시작하여 전체적으로 이어진 헛됨은 해 아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와 그 결과를 가리킨다. 수고는 곧 욕망이며 작가는 어린 시절 또래 친구들과 땅파먹기 놀이를 하던 일에 비유한다. 어린아이들은 땅파먹기 놀이를 하면서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해가 지면 엄마들의 부름에 손을 털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 따라서 땅을 많이 차지한 아이나 그렇지 못한 아이나 마지막엔 다를 게 없다. 애써 수고하여 쌓아 올린 욕망은 해가 집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작가는 열심히 놀이를 하다 해가 지자 엄마들의 부름에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처럼 “언제 어디서든 하늘이 부르면 하던 일을 그만두고 돌아가야 한다.”는 인간의 한계를 부각시킨다. 이

작품은 톨스토이의 소설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중의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와 유사하다. 본래 땅 욕심이 많은 농부 파흠은 어느 날 유목민들이 넓은 땅을 1000루블(한화로 13,730원)만 받고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걸어서 돌아온 만큼의 땅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 다음날 농부는 해가 뜨자마자 출발하여 열심히 걷는다. 갈수록 기름진 땅이 이어지고 농부는 땅을 한 뼘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신발과 옷까지 벗어 던진 채 있는 힘을 다해 달린다. 그렇게 하여 출발점으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해는 이미 쬐고 탈진한 농부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만다. 농부의 하인은 주인을 묻어줄 땅을 파기 시작한다. 결국 농부는 그가 묻힌 3아르신(약 2미터)의 땅을 가졌을 뿐이다.

3

앞에서 소개한 「해 아래 영원한 것은 없나니」가 인간의 욕망과 허무를 관조했다면 「벗나무집 간이역」과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 보다는」 두 작품은 작가의 직장, 회사를 제재로 하고 있다. 권 작가는 D전기공사의 부사장(사장은 남편)으로 근무하고 있다. 흔히 회사 부사장이라고 하면 명함만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권 작가는 국문학 학사에 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직접 업무를 진행한다. 전국적인 전기공사 입찰을 통해 몇만대 일의 경쟁을 뚫고 작게는 몇

역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입찰을 따내는 실력가이다. 그러므로 회사는 권 작가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가운데 권 작가는 글을 쓰고, 사진을 찍는 두 가지 예술을 병행하고 있다.

아무튼 회사 정문 앞에는 장년의 벚나무가 서 있고 벚나무는 회사를 찾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안내 역할을 하면서 4월이면 백설 같은 꽃을 화들짝 피워놓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회사는 도시 외곽에 있는 전원회사이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전원회사라는 말은 들어보기 힘든, 그의 사무실은 부산 도심에 훨씬 벗어나 있다. 기장으로 가는 곳 어느 한적한 마을 초입에 나지막한 산을 등지고 있다. 코발트 빛 하늘에는 흰 구름이 떠 있고 바람이 산을 타고 불어오는 곳, 거기 널따란 땅에 회사를 짓고 마당에는 꽃을 가꾸고 뒷면은 텃밭을 일구어 채소를 심고 닭을 키운다. 회사 앞쪽으로는 동해남부선 철도가 놓인 거대한 다리가 뻗어있고 그 아래 널따란 공터는 권 작가네 회사 D전기공사를 방문한 사람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작가는 이곳을 벚나무집 간이역으로 명명하는데, 가끔 완행열차가 지나가면서 잠시 산속의 고요를 흔들어 깨우기도 하지만 회사 사무실 창문에는 도시의 회색빛 대신 사계절의 풍경화가 그려지게 마련이다. 이런 자연 풍취 때문에 사장(남편)은 사업을 하는 본업을 잊어버릴 정도로 텃밭에 나가 농사짓는데 빠져버린다. 그래서 늘 작업복 차림이고, 거래처 손님들이 찾아오면 작업복을 입고 나타난 사장을 앞에 두고도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벚나무 간이역』)라고 묻기 일쑤다.

그런데 전원사무실 내부에는 아담한 게스트룸이 있다. 작가는 “누군가 지친 영혼이 맑은 햇살과 푸른 바람이 일렁이는 이곳에서 쉬어가면 좋겠다 싶어”(「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게스트룸을 지었고 이름도 쉬어가는 의미를 상징하는 로렘나무라 지었다고 한다(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권유에 따라). 로렘나무는 성서에 네 번 정도 등장하는 나무로 대표적인 경우는 선지자 엘리야의 사연이다.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쫓겨 달아나다 지친 나머지 로렘나무 아래 앉아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왕상, 19: 4))라고 죽기를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린다. 따라서 로렘나무는 지친 자를 쉬게 해주는 의미를 상징하며 로렘나무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게스트룸은 말 그대로 객들이 묵어가는 공간이다. 주로 선교사들이 대상이다.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귀국하여 며칠에서 길게는 한두 달씩 체류하는 선교사들이 그들이다. 권 작가는 게스트룸 로렘나무에서 쉬다 떠나는 선교사들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힌다.

“수십 년 크리스천으로 살아온 나는 이웃사랑도 제대로 실천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웠다. 평생 허리를 졸라매도 삶은 모래시계처럼 쉽게 빠져버리다가 다시 채워지기를 반복하는 터라 남에게 베푸는 게 힘들었다. (...), 나도 섬김을 해보고 싶었다. 누군가 며칠을 묵고 가면 청소와 세탁을 해야 하고 음식물이며 여러 가지 쓰레기를 치워야 하지만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충만해 짐을 느낀다.”

—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중에서

‘수십 년 크리스천으로 살아온 나는 이웃사랑도 제대로 실천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웠다’는 고백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권 작가는 크게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베푸는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품었고 크리스천으로서 그것을 늘 부채처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유대광야에 자생하는 로렘나무는 그늘을 드리우는 우람한 나무가 아니라 뿌리에서 가지가 나는 불품없는 나무로 우리나라 싸리나무를 닮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잘 것 없는 로렘나무가 지친 자를 쉬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즉 로렘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가진 게 많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게스트룸 로렘나무는 권 작가의 소박한 꿈을 이루어주는 아름다운 공간, 축복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으면서도 누군가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배려와 나눔에 대한 영적 인성이 남달리 넉넉한 탓이다. 작가는 그것을 일명 ‘오지랴’으로 표현하는데 작품 『오지랴』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길을 가다가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어느 날 폭우 속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돌아서다가 창문이 열린 채로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발견한다. 열린 창문으로 빗물이 마구 흘러 들어가 차 내부는 이미 엉망이 되어 있는 상황, 그대로 두었다가는 차가 성할 리 없다. 하필이면 차에는 전화번호도 없다. 다만 동 스티커만 붙어있다. 그것도 희망이다. 그는 경비실, 관리실을 찾아다니며 차 주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관리

실에서 다행히 차주인을 찾아 조치를 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 날 차 주인이 감사 케익을 보내온다.

여기에 좋은 예는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와 신약성서 누가복음 10장(25-37) 편을 들 수 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가난한 구두세공인 시몬은 내일 아침 당장 먹을 빵이 떨어지고, 빵을 사기 위해 아내가 내준 마지막 털 외투를 팔러 시내로 간다. 가는 길에 교회 모퉁이에서 발가벗은 채 떨고 있는 거지(천사 미하일)를 발견한다. 시몬은 망설이지만, ‘거지를 돕는 것은 나 같은 가난뱅이가 아니라 부자들이 할 일’이라면서 애써 외면한다. 그러나 몇 걸음 못가 되돌아와 거지에게 털 외투를 입혀 집으로 데려간다. 누가복음 10장 편은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옷이 다 벗겨진 채로 피를 흘리며 거의 죽은 상태로 버려져 있다. 한 제사장이 그를 피해 간다. 레위인도 피해 간다. 그런데 여행 중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자기 숙소로 데리고 가 보살펴 준다.

누구나 일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무관심한 사람과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 나뉜다. 더욱이 현대사회가 그렇다. 내일 아침 먹을 빵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시몬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사마라인처럼 내 앞에 나타난 어떤 상황은 나에게 주어진 일이다. 남에 대한 배려는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 영적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시몬은 되돌아와 거지를 구하고, 이방인이라고 홀대받는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작가는 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자동차를 구해준 것이다.

『봄날의 우수』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다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현실을 묘사한 내용이다. 고등학생 엄마인 작가는 어느 날 학부모 시험감독으로 선정되어 고등학교 시험날 감독으로 참여한다. “물속 같은 고요 속에 40명 고교생들의 눈빛만이 고광도 불빛처럼 반짝였다. 학기 초 중간고사답게 의지에 불타는 눈빛이 오히려 처연했다.”고 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의 현장인 고등학교 교실은 숨막힌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시험이 시작되고, 작가는 역시 고교생 엄마로서 경쟁의 틀에 매인 아이들이 처연하게 보인 것이다. 그러나 정작 처연한 것은 경쟁의 틀에서 이탈한 아이들이다. 두 명이 책상에 엎드려 있다. 시험을 포기한 것이다. “시간이 촉박하게 흘러가는데 두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창가 쪽에 앉아있는 아이가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본다. 그때 작가는 “슬픈 듯한 시선에 가슴이 짝 막혀왔다. 콧등이 시큰거리며 몇 번인가 침을 꿀꺽 삼켰다. 중학교 때 엄마와 헤어져 늘 쓸쓸한 표정으로 자라야 했던 조카 생각이 떠오른 탓”이었는데, 작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40명 아이들 가운데 경쟁을 포기한 두 명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양 100마리 가운데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예수님을 떠올린다.(마태 : 18, 13)

오직 일등을 최고로 인정하는 세상에서 이 작품은 소설가 박완서의 수필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와 공감대를 이룬다. 박완서 소설가는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는 것을

보게 된다. 마라톤 때문에 잠시 버스가 정체되자 박완서는 차에서 내려 마라톤을 구경한다. 사람들은 모두 일등에게 관심이 쏠리고 박완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박완서는 꼴찌로 달리는 선수를 보게 된다. 그리고 꼴찌의 얼굴에서 엄청난 고통과 고독을 읽으면서 그가 주저앉지 않도록, 그에게 힘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차도로 뛰어든다.

“(전략), 나는 그의 표정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런 표정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느꼈다. 여지껏 그렇게 정직하게 고통스러운 얼굴을, 그렇게 정직하게 고독한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가슴이 뭉클하더니 심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20등, 30등을 초월해서 위대해 보였다. 지금 모든 환호의 영광은 우승자에게 있고 그는 환호 없이 달릴 수 있기에 위대해 보였다. 나는 그를 위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 나는 용감하게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내려 그를 향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환성을 질렀다. 나는 그가 주저 않는 걸 보면 안 되었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봄으로써 내가 주저앉고 말 듯 한 어떤 미신적인 연대감마저 느끼며 실로 열렬하고도 우렁찬 환영을 했다. (하략).”

— 박완서,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중에서

박완서도 처음에는 일등을 보기 위해 버스에서 내렸다. 그런데 아무도 봐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 고독하게 달리는 꼴찌의 고통을 발견하게 되고. 꼭 주저앉을 것만 같은 꼴찌에게 박완서는 희망을 주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박수갈채를 보낸 것이다. 박완서의 행동은 반드시 마라톤만의 일이 아니다. 시험을 포기한 채 책상에 엎드려버린 아이나, 멀거니 창문

밖을 바라보는 쓸쓸한 아이나, 달리기에서 꼴찌를 한 선수나, 길 잃은 한 마리 양은 모두 사회적 약자들이거나 소외된 자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작가나. 달리기에서 꼴찌를 한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는 소설가 박완서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예수님의 행위를 실현한 것이다.(물론 성서의 길 잃은 양은 구원의 문제이다.)

권 작가의 사유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어진다. 작가는 남편과 함께 해운대 동백섬을 산책하면서 앞에 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에서 인간의 갖가지 모습을 포착한다. ‘모습’은 느낌 즉 이미지를 말하며 사람의 앞모습은 뒷모습으로 투영되는 이미지이다. 그리고 작가는 작품 서두에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앞모습이 궁금할 때가 많다. 그를 앞질러 슬쩍 뒤돌아보고 싶어진다.”는 것은 의미 있는 고백이다. 뒤통거리는 걸음걸이 아이를 앞세우고 걸어가는 젊은 엄마와 유모차를 끌고 가는 아빠의 뒷모습에서는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행복”을 읽는다(느낀다). 다리를 끌며 힘겹게 걸어가는 노인과 옆에서 함께 보조를 맞추며 걸어가는 할머니를 통해서도 인간의 허무와 측은함을 느낀다. 입대를 앞두고 머리를 깎은 채 엄마와 함께 걸어가며 대화를 나누는 모자母子를 바라보면서 몇 주 전 입대한 아들을 떠올린다.

그다음, 군살 하나 없이 시원하게 빠진 이십 대 청춘남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는 남편 뒤로 슬쩍 처져 걸으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남편은 청춘남녀들과 대조를 이룬다. 뱃살이 많이 붙어 있고 목둘레도 굵다. 함께 살아온 배우자인 작가는 붙어난 뱃살과 굵

어진 목둘레를 “옆으로 불룩하게 퍼져나온 배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삶의 무게일까? 굽어진 목둘레는 하고 싶은 말이 목에 가득 찬 탓일까?”라고 남편에 대한 측은함을 피력한다. 그러면서도 “양쪽으로 부지런히 흔들며 걷는 두 팔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뜻을 달아 힘차게 나아가려는” 것으로 풀이한다. 작가는 앞서 노인 부부를 바라볼 때처럼 남편의 뒷모습에서 측은지심을 느끼면서도 가족으로서 남편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보여준다. 그리고 다음의 기막힌 알레고리 한 줄은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가슴 깊숙이 느끼게 하는 아포리즘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힘든 삶은 뱃살을 불리고 하고 싶은 말은 목둘레를 늘릴 수 있다”

—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중에서

5

수필은 작가의 생활권뿐만 아니라 성장배경까지 모든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내 생의 화양연화』를 보면 그의 성장과 그의 인성과 그의 글쓰기를 알 수 있다. 그는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과수원집 소녀였다. 과수원은 마을 한복판에 있을 수 없는 일, 따라서 그는 들녘의 자연 속에서 과수원 나무에 열리는 열매들의 성장을 바라보며 성장했다. “계절마다 피어나는 들꽃이 친구였고 들로 일하러 간 식구들을 기다리며 혼자 지킨 빈집이 친구였고 내가 학교에 다녀오기만을 기다리는 우리 집 암소가 친구였다.”는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외로울 정도로 자연을 친구삼아 성장했고 정서가 형성됐다. 넓은 들녘이 펼쳐진 곳에 홀로 서 있는 외딴집에서 자란 소녀는 조용한 정서, 순수한 정서를 형성하게 마련이다. 작품 『시어머니가 되었다구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며느리를 봤으므로 그는 지금 중년을 넘어선 나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시절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로 기억한다. 지금 대도시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작가는 자연과 함께 성장했던 시절을 생애 가장 행복했던 날로 기억하는 것이다.

또한 『벚나무집 간이역』, 『가을의 문장』 등을 통해서도 그의 생활권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는 “수십 년을 한결같이 집과 사무실과 교회를 오가며 살았다.”(『가을의 문장』)고 고백한 대로 그의 생활권은 집과 직장과 교회가 전부이다. 이것을 삼각형으로 표현하자면 정삼각형 형태를 이룬다. 그런데 삼각형의 무게중심 법칙에서 세 변의 꼭짓점에서 선을 그으면 모두 삼각형의 중앙을 통과하게 되고 세 개의 선은 모두 중앙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따라서 권 작가 삶의 무게중심은 이 세 가지 변으로 무게중심을 잡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며 집, 직장, 교회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세 개 변은 잘 닦여 있어 마치 트라이앵글처럼 붐으로 땡그랑, 치면 맑은 소리가 울릴 것 같다.

가족 이야기 가운데 『오래된 비밀』은 가족끼리 저마다 감추어온 비밀을 실토하는 것으로 유머와 함께 가족에 대한 잔잔한 행복감이 깃들여 있다. 어느 날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마다 사기를 당한 일화를 털어놓는다. ‘나’는 생선 장수에게 당한 것을, 남

편은 청년 시절 백화점에서만 판매하는 물건이라는 말에 속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몽땅 날린 것을, 큰아들은 길을 걷다가 낮토른 청년이 골목 안에 있는 여자 친구네 집 대문 초인종을 좀 눌러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려다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강도로 변한 놈에게 돈을 털린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던 둘째 아들이 “쫓쫓 다들 별수 없네요. 나한테는 늘 빈틈없는 것처럼 잘난 척 하시드만.”이라는 핀잔을 날린다. 둘째 아들의 핀잔에서 우리는 겉으로는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인간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가족은 모두 한 번씩 사기를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한 것은, 오히려 당한 사람이 부끄럽게 여긴 탓에, 차마 말하지 못한 채 품고 살다가 우연히 발설하게 된 것이지만 이것은 가족들의 유사한 공통점으로 발견되는 현상을 엿보게 한다. 흔히 가족들은 이렇게 유사한 공통점이 존재하는 것이고, 가족 간의 유머는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와 화목을 더욱 깊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소가 된다. 가족에 대한 제재는 『두 남자 이야기』, 『공칠과삼의 정신』으로 이어지면서 작가는 남편과 아들을 케어해야 하는 입장을 고백한다. 아들과 남편이 서로 의견충돌이 생길 때는 남편도 아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공칠과삼의 정신』에서는 남편의 성실한 교회 생활을 엿볼 수 있고, 『열매』에서는 친정엄마에 대한 애절함을 전개한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엄마가 있다.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는 모태가 존재하게 마련이다. 6남매를 키워낸 엄마는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가문과 전

통을 숭상하는 안동 권씨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사느라 18세기 조선 여인에 다름아닌 고된 삶을 살았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초기 증상 치매를 앓는 어머니는 어느 날 경북 군위에서 딸(권 작가)이 사는 부산으로 치료를 받으러 온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사준 옷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입는 고무줄 치마에 풀물이 베인 상의를 입고 있다. 딸은 병원장과 잘 아는 사이라 당황하게 되고, 미리 준비해온(그런 경험이 있는 탓) 옷으로 후다닥 갈아 입힌다. 노산 이은상의 수필 『한 눈 없는 어머니』를 떠올리게 한다.

『한 눈 없는 어머니』는 1975년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작품으로 노산은 어느 날 제자인 김 군(당시 교수)을 만나게 되고, 김 군은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을 노산에게 보여준다. 그런데 어머니는 눈이 하나가 잘못되어 없는 상태다. 노산은 그런 어머니 사진을 보여준 김 군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김 군은 어머니 초상화를 그리고 싶다면서 유명한 화가 이름을 대면서 그 화가를 아느냐고 묻고 노산이 잘 안다고 하자 부탁 좀 해달라고 한다. 노산은 기쁜 마음으로 승낙을 하게 되는데, 김 군은 멧쩍은 표정으로 “두 눈이 있는 어머니로 그려달라”고 부탁한다. 그 말을 들은 노산은 그만 슬퍼지고 만다. 노산은 생각다 못해 김 군에게 편지를 쓴다.

“(전략) 김 군, 순간 내 가슴은 떨리었소. (...), 그대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 한눈 상하신 그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나 원망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소. (...), 한눈을 상하신 까닭으로 평생을 학대 속에 사셨는지도 모를 그 어머니, 애답소. (...), 지식인 그대마저 어찌 차마 그대 어머니의 상하신 한눈을 업신여겨 저버

런단 말시오(…), 온 세상이 다 불구라 비웃는데도 그대에겐 그분보다 더 고우신 분이 또 누구이겠소(…),”

— 이은상, 『한 눈 없는 어머니』 중에서

물론 『열매』에서 권 작가는 치매를 앓고 있는 엄마, 차림새가 허름한 엄마를 부끄러워한 것은 아니지만 “집에서 입던 검정색 고무줄 치마에 풀물이 여기저기 묻은 회색 블라우스를 입은 엄마의 모습에 서러움인지 속상함인지 모르는 그 무언가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는 고백은 잘 아는 의사에게 누추하게 차려입은 엄마를 보여주기 싫은 것이 분명하다. 김 군이 눈이 하나 없는 어머니 초상화를 두 눈을 모두 그려주고 싶은 것은 어머니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평생 두 눈을 갖기를 소망했던 자식의 심정이라고 보는 게 옳다.

뿐만 아니라 엄마는 며칠만이라도 딸의 집에 머물며 쉬었다 가실 것을 권하지만 “고추를 따야 하고 참깨도 제 때에 털어야 하고 아버지의 식사도 챙겨야 한다.”면서 그냥 떠버리고 만다. 엄마는 걸음도 겨우 떼는 몸으로 일을 걱정하며 떠나게 되고, 그런 엄마를 바라보며 작가는 “엄마의 자리는 그 자리에 계실 때 마음이 편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자신도 엄마를 닮아간다는 것을 의식한다.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가 짊어진 것, 가족을 위해 헌신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엄마와 자신을 통해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지구가 하나이듯 오직 ‘나’로 존재한다. 나는 그 누구,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엄마는 언

제나 엄마의 자리를 지키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무조건 행복하지만 ‘나’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인간임을 작가는 『나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지?』를 통해 보여준다. 어느 날 은퇴하고 유유자적하게 노는 지인 N씨가 사무실을 방문하게 된다. N씨는 환갑을 넘기자 미련 없이 일에서 떠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유인이다. N씨는 말한다. “사람들은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일에 매달리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몸은 망가져 있다”면서 적당한 시기에 일을 놓을 줄 아는 게 현명한 삶이라며 은퇴를 강조한다, 작가는 N씨의 말에 백 퍼센트 동의한다. 그래서 “평생 엄마, 아내, 딸 역할을 하느라 단 한 번도 나만을 위해 시간을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잠시 한탄을 해보지만,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몸이면서 가족을 위해 엄마 자리를 떠나지 못한 친정엄마 처럼 자신도 엄마 자리를 한시도 비울 수 없다는 것을 의식한다.

흔히 ‘나’가 아닌 일, 타자를 위해 일하는 것, 헌신하는 것을 주로 봉사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봉사는 ‘나’를 잘 이끌어가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나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 하나가 바르면 주변이 바르고, 나 하나가 행복하면 주변이 모두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타자를 위한 봉사는 결국 ‘나’를 위한 행위에 다름아니다.

6

재질과 질감, 어떤 천을 만져봤을 때 촉감을 느끼게 된다. 삼베

를 만져보면 거칠다. 비단을 만져보면 매끄럽다. 삼베는 거친 대마에서, 비단은 고운 누에 실이 재질인 실타이다. 수필의 재질도 마찬가지다. 생트뢰브의 ‘그 나무에 그 열매’라는 말대로 작가의 바탕이 재질이 된다. 권 작가의 재질은 부드러운 순면 같은 촉감을 준다. 첫째는 외딴 과수원집에서 태어나 자연을 몸으로 체득하며 몸으로 익힌 바탕이 꾸밈없이 순수한 질량(質量)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성실한 신앙생활 때문이다. 세 번째는 타자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일본 하이쿠(일본 시조) 시인 바쇼의 작품 “눈여겨 살펴보니/ 울타리 곁에 냉이꽃이 피어 있는 것이 보이누나”라는 시는 관심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시인 안도현의 작품 “그래, 허리를 낮출 줄 아는 사람에게만 / 보이는 거야 자줏빛이지”(『제비꽃에 대하여』)도 관심이다. 봄이면 들에 가장 낮게 피는 냉이꽃이나 제비꽃 같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에는 진리가 숨어있다. 그런데 누구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오직 몸을 낮추고 사유하는 자만이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권 작가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그런 것이다. 사실 “제비꽃을 알아도 봄은 오고, 제비꽃을 몰라도 봄은 간다”(안도현)는 시인의 말처럼 글을 쓰지 않아도 책을 읽지 않아도, 사유와 성찰을 하지 않아도 사람은 살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은 조금 더 사람답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 조금 더 갖추어진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것은 인생의 멋이다. 인생의 멋을 즐기는 길은 사유하고 성찰하는 것이다.

다시 부연하여 글쓰기는 사유하는 방법, 성찰하는 방법이다. 그

리고 사유하기, 성찰하기는 생각하기의 씨앗이다. 그런데 씨앗들은 왜 그렇게도 작을까, 작을수록 왜 그렇게도 우람할까, 성서에서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크게 번성하는 것을 겨자씨에 비유한다. 거대한 낙락장송 솔 씨도 쌀의 오분의 일쯤이고, 아름드리 느티나무는 씨앗이 나뭇잎 뒤에 붙어있는데 너무 작아 아예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씨앗들이 우거진 덩굴을 만들고 우람한 소나무로 자라고 느티나무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생각하기도 사유함에 따라 성찰함에 따라 우거진 덩굴을 만들고 우람한 소나무와 느티나무를 만든다. 생각하기의 씨앗은 곧 그런 것이다.

권 작가의 사유와 성찰, 즉 생각하기도 우람한 소나무와 느티나무로 자라기를 기대한다. 로렘나무 그늘에서 더 많은 객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로렘나무가 더욱 무성해지기를 기원한다. 계속 꿈꾸는 작가가 되기를 기원하며 첫 작품집 발간을 무한 축하한다.

시

- 감윤옥 | 국수 먹는 날 외 1편
강위석 | 죽림竹林습유 외 1편
김경희 | 천로 역정 외 1편
김민주 | 깊고 푸른 물 외 1편
김복단 | 맹인의 동전 외 1편
김숙희 | 다하지 못한 꿈 외 1편
김혜영 | 혈당이 오른다 외 1편
류정희 | 해운대성령 대집회에서 외 1편
박인자 | 자전거를 탄 부부 외 1편
배혜숙 | 벤자민 을 읊기면서 외 1편
송정우 | 읊 아저씨 외 1편
신 선 | 오른손이 왼손에게 외 1편
신현숙 | 순례자 외 1편
양윤형 | 모과나무 외 1편
이가연 | 그 사람은 없다 외 1편
이경옥 | 망 끝 전망대 외 1편
이귀선 | 가시없는 자 외 1편
이선화 | 기도 외 2편
이승훈 | 기도 외 1편
이옥순 | 금남로 흰 피 외 1편
이창희 | 꽃 그늘 외 1편
임병주 | 너는 내 아들이다
정명진 | 기도합니다 외 1편
정연원 | 인생을 줌은 노인 외 1편
조의홍 | 추억 같은 · 34 외 1편
조현숙 | 물의 길 외 1편
최귀례 | 시라기국 외 1편
최만공 | 작은 전등불 외 1편

새벽답이 올자 외 1편

감 윤 옥

검은 밤
무심한 듯
결불 곁에 앉아 있는
베드로
새벽답이 올자
황망히 도망가다
젖은 담벼락에
바람처럼 기대어
한 줌의 눈물을 만지작거리다
절망의 끝으로 걸어간다.



| 감윤옥 |

- 2009년 기독교 문예로 등단
- 수영로교회 은퇴전도사
- 인생의 길동무(유튜브)운영

나오미의 눈물

산그늘
길게 늘어져

붉은 해
넘어가고

황혼과 함께
깊은 밤
개울가에 앉아
울음을 떠나려 보낸다.

구부러진 주름살
핏빛 가슴
새벽별 가득 따
눈물을 훔친다.

죽림_{竹林} 습유 외 1편

강 위 석

초록윤기 빗질하며
가담가담 살풀이 춤을 춘다
담양에서 나고 자란
햇볕 한광주리 끼고 온 바람이
푸른 시간을 밟고 우듬지로 오를 때 마다
휘어질망정 지절은 부러트리지 않는다
적막했던 귀를 세우면 아득히
뿌리쪽에서 피어오르는 청아한 해금_{奚琴}소리
하얗게 흔들리는 허공을 향하여
해포넌게 화엄 수행기로 생념한 믿음이다
예조리 목청도 떨어지고
귀뚜라미가 고선번 울어준들 무슨 소용이되랴
단풍색 물소리에든 눈 귀 달은 눈썹이 아니던가
죽순때부터 개화병_{開花病}을 앓으며 저물어 마른 가슴
갈맷빛 열매를 베고 눕기까지
마디마디 해탈 중이다



| 강위석 |

- 월간모던포엠 시 등단
- 새부산시인협회이사, 부산문인협회회원, 사) 부산시협회회원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감사, 청마문학회회원, 남부문학회회원
- 제7회 청마문학제 심사장, 부산시단 17호 작가상, 월간 문학도시 2019 작품상, 부산시단 26호 작품상, 제36회 시의날 부산문인협회장상, 부산시단 35호 작가상
- 시집 『나는 강가로 나선다』 『길을 버리며』 『산속의 어부』

채석강

부안 격포항 닭이봉
이태백이 눈에 묻은 수만 권 늙은 책들이
굳어져 켜켜이 포개진 층리위에
붓으로 그은 흘림체 같은 후박나무 잔가지에도
내소사 범종소리가 하얗게 흔들린다

저리도 그윽한 은유가 내게는 없어도
단애 아래 영원보다 더 검은 적막을 열고
몸매를 푸르게 틀 것 같은
흐르지 않는 시간을 보았다
마른강에 범람하는 물소리만 둥글어지고,

그렇다 그렇다
채석강에 흐르지 않는 것은 물 뿐이 아니었다
휘모리장단 같은 남도 파도
껍질이 말라붙은 편마암 틈새마다
노오란 달 내음이 칠랑거리는 彩石江
변산반도를 품고 명상중이다

천로 역정 외 1편

김 경 희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그리고 제가 그 의를 믿지 않으면 저는 멸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비는 하늘 같아서 저 같은 죄인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셨지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제 영혼을 구하시어 당신의 크신 은혜를 보여 주십시오 아멘”

전하지 못한 내 마음속에 뜨거운 불 부친다
수은등 가로등 불빛에
영글지 못한 내 모습이 수전증 앓는 바람잡이가 되어
시간 속 여린 통증으로 남는다
내가 가는 길에 가득했던 덧과 구덩이



| 김경희 |

- 2008년 《새시대문학》(시, 수필) 등단, 경성대 평생교육원 겸임교수
- 현대문학작가연대 부이사장, 한국 PEN문학 부산지회 부회장
- 부산시사위 문화예술협의회 회장, 대통령상 수상
- 시집 『시는 멜로디를 타고』, 『꽃물 손 끝에 지던 날』 『그대 입술에서 꽃이라 불리던 내 이름』 외 다수

함정 그물이 어리석고 무가치한 나를 가두고
떨어져야 하는 벌을 받아야만 마땅하나
오늘도 가을 산을 향하여
순수 향기 건져 올리니 이 아니 은혜가 아니리오
세상은 말라가고 궁한 내 오늘의 오아시스인가
그대는
어깨에 걸친 새벽에 하나님 빛이 선명히 드러난다
그 이름 천로 역정이어

풍성한 생명 빛을 보라

우리는 안다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만물이 어떻게 지구 위에 존재하는지

이제 하나님의 창작물인 가을 속으로 들어가 본다

빨강 노랑 갈색으로 저마다 색을 내는

애기 같은 깨끗함을 갈아입은 산들

그 속에는 음악이 흐르고

그림이 그려져 있다.

꽃 피고 지는 바람 일렁임에도

계절은 흔들린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계절속에서 숨을 쉬며 만난다

30일 여정을 마다하고

하나님은 시나이 반도를 한참이나 돌아

서리 깊은 기러기 죽지위로 핏물을 보였으나

긴 여정 애움길 돌아온 40년 시간

“만나”의 양식을 거절하고

고기를 달라고 모세를 원망한 부르짖음위에

메추라기 고기는 그믐밤에도 춤추면서 내 입에 내린다

훗날

목마름 뒤에 배고픔 뒤에 얻은 진리 애굽의 노예가 아닌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멋진 양식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푸른 숨결 풀어놓은
저 높은 가을하늘 위에 풍성하게 빛날
긴 고통 속에서 얻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걸

깊고 푸른 물 외 1편

김민주

작은 도랑물들이 조잘대며 달려와 큰 붓물 이루어도
시냇물은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살랑이며 따라붙는 꽃샘바람의 끝없는 유혹에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강물은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어둠 몰고 돌아온 폭풍우 밤이 가도
회색빛 구름 비껴가는 느낌조차 알지 못한 채
큰 바다는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작은 이파리 하나 유유히 띄워 보내는
영혼의 물이 되어 침묵으로 지켜 온
당신은
소리 내지 않는 깊고 푸른 물이었습니다.



| 김민주 |

- 1999년 경남문학 시 부분, 시조문학 시조등단
- 작품집: 그리움은 바다가 된 다. 그 사랑은 걸작 품 외
- 현: 무지개 연구소 운영 (상담, 치유, 교육)경영학 박사&칼라테라피

엎드린 산

바닥이 보이는 개울 건너
야트막한 등성이 하나 엎드려 있다.
거슬러 부는 매운바람에
혈벋은 나뭇가지 소름으로 떨고
햇살은 이내 바위산 저편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따금씩
널편한 등짝 가늘게 떨림은
돌아누우려는 게 아니다.
온기를 추슬러 끌어안으려는 힘겨운 몸짓이다.
그 때마다 겨드랑이 가까운 옆구리에
푸성귀 떡잎 마른버짐으로 돋았다가
바람에 할퀴어 재빨리 스러지고
열은 얼룩은 남는다.

마침내
꺼칠한 살갓 툭툭 터져
얼룩진 자리마다 잎은 돋고 꽃은 피나니
송곳 같은 뿌리 더듬더듬
유선 따라 젖가슴 바닥까지 파고들어
봄을 끌어올려도

허기진 등성은
돌아누워 봄꽃을 차지하는 법이 없다
다만 손 모아 엮드린 소망의 손끝너머
온기를 담은 축복의 두레박질 가득
보석으로 영글어준 입의 사랑 넘쳐날 따름이다.

맹인의 동전 외 1편

김복단

연산 8번 출구 계단에
승복 입은 맹인이 앉아있다
목탁소리로 행인을 부르고
발자국 소리만 빈 대답을 한다

계단아래
벗어놓은 모자에 동전소리만 땡그랑 거리고
지폐 몇 장 예시로 구겨져 있다
오 분 만에 울릴까
아니면 십분 만에 지폐 한 장 떨어질까

기다림 끝에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동공이 구르고
한여름 땀방울은
굽은 무릎을 적신다



| 김복단 |

- 문장 21 불호 시 등단
- 부산문인협회 회원
- 부산 시인협회 회원
- 그림나무회원

지하철 울음 떠난 퇴근길에
구겨진 지폐 몇 장 더듬어 헤아리고
떨어진 동전소리는
맹인의 빈 동공에 구른다

새벽빛

어둠이 무거워질수록 더디오는 새벽
오늘 밤 그대이름 부르며
만날 날을 기다리는 가슴에
설렘이 큼니다.

행여 날 찾아올 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리며
뿌연 안개 덮인 십자가 위에 내린 새벽
꿈길에서도 부르는 그 목소리
하늘 저편에 홀로 젖어있습니다

당신이 날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면서도
나는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서고
불어오는 바람에도
당신의 온기를 느끼며

지난밤 그 뜰에는 달빛 고운 설레임 내리고
별들의 미소에 아침을 기다리는 이슬처럼
두 손 모아 드린 기도
노을빛 새벽바람에 영근다

다하지 못한 꿈 외 1편

김 속 희

스무살 용기가
선살 꿈을 끈다
서른이 넘어 갈 때는
눈길 주지 않고
불혹이 눈앞에 왔을 때도
아직 십년이 남았으니까 했다
아침마다 담아내는 책가방 숙제는
어미 심장을 치고
네 개 책가방이 스무살을 삼켜버린다
아이들이 받아오는 졸업장에
스무살 꿈이 다가온다
졸업장 네 개를 품에 안았지만
선살 꿈은 저만치서 눈을 내리깔고
입안에서 돌고있는
스무살을 향해
미처 짜깁기 못한
꿈을 쏟는다



| 김 속 희 |

- 시인 수필가 (문예사조2013시등단) (부산크리스천문협2020수필등단)
- 대전지방법원근무 동화구연가
- 부산문인협 새시협 외성문학 사하문협 회원
- 시집 『오래된 사랑읽기』, 『푸른처방전』

에어컨 바람

눈이 서늘하다
아기는 갖다 버리고 태만 키운게야
“어찌 그리 민하네“
평안도댁은 첫애가
영 시원찮아 보였고
보는 이마다 딸애는 순하다고만 했다
안태 고향 떠난 어미는 오지랖을 넓힌다
고향에서 여학교 다닐 때는
진주강씨는 절대 이등은 않는다고
낮설고 물선 객지에선 여간
넘어서기 곤한 고집이 안되니
첫애에게 강씨 뼈대를 심느라
눈만 마주치면 ‘이 에미나이’를 쏘아내고
태만 키웠다는 딸은
책상머리에 묶여 울고 있다
아이는 그 때 에미보다 나이가 많다
지금 그 에미나이를 보는 평안도댁은
어떤 말로 지청구를 할까
돌아보면 에어컨 바람보다 더 서늘하던
어머니 목소리
귀 속을 후비며 손을 잡는다

혈당이 오른다 외 1편

김혜영

호기심 반

지팡이 거느리고 간

커넥트H 백화점

줄서서 기다리는

고디바 초코릿 매장 앞

혈당이 오른다.



| 김혜영 |

- 계간 『문예시대』 시, 수필 등단
- 부산크리스천 문인협회 부회장
- 문예시대 작가상
- 제6시집 『영사기를 돌리는 배꼽시계』(2023)외 5

담양 기행

가사 문화관 뜰

타지에서 온 참새 떼
쪼르르 날아든다.

싱숭생숭
오월 붉은 장미의 설렘

남도 들녘에 익어가는
토하젓

시의 꽃물에 물든
담양 기행

해운대성령 대집회에서 외 1편

- 202499일

류 정 희

해운대 넓은 백사장이 온통 노래였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바다는 찬송을 따라 부르며
파도쳤지

모여든 천국 백성들
예수이름 높이높이
불꽃처럼 타올랐지

나는 들었지
예수 예수 목 터져라
예수예수 한없이 부르니
꺼져 가던 목숨들 생기 올라
모래밭이 꽃이던 것을

세상 모든 육체가 모래로 서서
바다보다 높음같이 파도 되어
출렁거리던 것을



| 류정희 |

- 경남 거제 출생
- 91년 월간문학 신인상
- 시선집 『당신은 지금도 오고 있다』 외 다수
- 현 한국시인협회 회원,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상임고문
- 부산 사직동교회 출석

온단다 몰려 오고 있단다
세기의 기쁜 소식이어
나는 보았지
성령의 불길 억수같이 쏟아지던 것을

더러는 모래구렁이에 퍼질고 앉아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파래지고 있었던 것을

바람구멍 땀구멍
바다에 실려 둥둥 춤추던
수수만년
이어 오던 겨레의 넓이던 것을

내 서러운 눈물 닦아 내며
나는 알았네
성령에 이끌려 손잡고 따라온
자자손손 어린 영혼들
저 하얀 발자욱 소리 들리던 것을

고 이은숙권사 친구를 보내며

- 2024624새벽2시 하나님께서 데려 가셨다

천사처럼

흰옷 갈아 입고 하늘나라

간 친구야

멀지 않더냐

가는 길 험하지 않더냐

세상 근심 내려 놓고

떠난 친구야

늘 꿈꾸어 오던 그 곳

눈 떴다 감으니 환하게 열리는 하늘나라

지척이라며 해맑게 웃는 너의 모습 보인다

무서운 병을 안고서도 침대에 누워

평안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 준

사랑이 많던 나의 친구야

살아온 세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때

너의 얼굴은 반짝였지

우리가 늘 주고 받았던

오늘이 마지막처럼 눈부시게

살자던 말

그러나 그것이 진짜 오늘이 될 줄이야

슬프다 친구야

육신의 죽음은 관을 만들어

잿가루 허공으로 날려 보냈지만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 정원을 거닐고

아릿다운 너는 벌써부터 천국의 별이던 것을

천국 소망 한 명이라도 전할려 절절했던

너가 걸었던 지상의 발자욱 위에

친구야

오늘은 눈물처럼 비가 내린다

자전거를 탄 부부 외 1편

- 티비에서 복면 라이더 부부를 보고

박인자

아예 까만 복면을 쓰고
자전거 페달을 밟는 남편
남편의 옷깃을 잡고 뒤에 탄 아내
아내는 남편의 눈이 되고
남편은 아내를 믿고
서로의 믿음이 30년을
함께 두 바퀴로 달린다
꽃길도 험한 산길도
장애물이 있는 굽은 길도
서로의 믿음이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었음을
사랑은 어떤 장애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도 사랑과 믿음이 만드는
희망이라는 아름다운 빛을 본다

티비에서 복면 라이더 부부를 보고



| 박인자 |

- 《시와수필》 (2013 가을호 수필 등단)
- 《문학도시》 (2023 2월호 시 등단)
- 시집 『내 마음의 창』 (2021)
- 부산문인협회, 신서정문학회, 부산문학인협회, 부산크리스천문협 회원

날씨의 주인

창밖을 보니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잎새들의 수런거리는 소리
희미하게 꺾전을 스치고 지나간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사람 사는 세상은 시끄럽고
남의 아픔을 즐기는 사람들
조롱과 비난으로 빠져나가고

2천년 전 척박한 땅
유대 땅에서 외치던 탄식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온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지 못하여
이웃의 아픔도 공감 못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이름으로
나와 다른 사람은 저주하고
자기만 옳고 나와 다르면 틀린
선악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다는
법과 원칙

나뭇잎의 수런거리는 소리 속에
2천년 전에 하늘의 아들로 왔지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 없다던
그 고독한 목소리
그 탄식 소리가 들려온다

벤자민 을 읊기면서 외 1편

배 혜 숙

무심히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길 모퉁이
이름도 아슴푸레 한 모습뿐인 친구들
때론, 아름다운 날도 있었으련만
늘 바람처럼 스산했던 옛 기억들이
잠시 잠시 마음을 머물게 합니다.
그리워함도 없이...

늦가을

싸늘한 바람이 부는 오후에
추위에 약한 벤자민을 읊기면서
문득 옛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스치는 추억들이
늘 아픔처럼 다가오는 것은
그 세월들이 쓸쓸하게 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 배혜숙 |

- 희망의 교회 목사
- 부산크리스찬문인협회 회원
- 시집 『울고 있음은』의 2집(규장문화사)

주님을 알지 못했던 나날들
마냥 춥고 메말랐던 영혼 탓인가 봅니다.
그 서성임 속에
나를 바라보시고 불러주셨던
그 눈빛,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축복
따사로운 햇살 속으로 안아 옮기시어
푸른 생명으로 가꾸어주신
감격스러운 생의 의미!

겨울 추위가 시작되던 날
벤자민 을 옮기면서 생각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희열로 꽃피게 하신 그 아픔들을....

겨울 새

겨울새는
차가운 강가에서
잘도 산다

양증스러운 작은 몸을
얼음 같은 강물에 담그고
춥지도 않은지
동 동 떠다닌다.

참
신기하고 감사한 솜씨.

행여
겨울 강가에
외로움만 싸일까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예쁜 선물.

차가운 물속에 작은 궁둥이를 담그고
차지도 않은지
동 동 잘도 논다.

옴 아저씨 외 1편

송 정 우

의로운 사람 고난받나니
세상이 의롭지못함이라
모든 것 가졌다 다 내주어도
시작보다 나중에 창대한 사람
그리하여 빈궁한 자 여유롭나니
세상 어디에 감사가 없어도
작은 벌레에까지 이르러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손길
전능자 경외할 때
하늘에서 눈물비 쏟아져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병든 벼랑 끝에서도
흔들리면서
꺼지지않는 촛불을 들면
굽이치는 샬론 골짜기 지나
돌아오는
구원의 메아리 불멸함이라



| 송정우 |

〈문학도시〉 등단.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장, 부산문인협회 이사, 국제PEN한국본부 재정위원,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 해운대문인협회 교문, 시집 『계절풍이 분다』 외 2권, 산문집 『길에 창을 내다』, 국영문시화집 『꽃피운 한 걸음』 등

상수리나무 합창

상수리나무 잎사귀가 말라
상수리나무 부끄러움을 몰라
일찍이 발걸음 돌린 군중은 행복하여라
여름 무성한 잎사귀 속살거림에
고개 똑바로 들고
상을 받은 손과 기름 발린 머리로
으스대는 숲의 왕
상수리나무 밑에서
잔이 넘치도록 복을 받는 신하들
어리석어, 어리석어
누가 어느 쪽으로 가든지 상관할 것이 없다 하여
참나무, 감람나무
기름진 흙을 메고 다 떠나
가시나무 호위하고 있어
택함을 받은 동산이 수치를 당하고 있어라

오른손이 왼손에게 외 1편

신 선

이제야말로 너는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설 때다
너는 길 밖에서 외눈박이 사마귀에 쫓긴다

몽상에 젖은 강물이 실눈을 뜨는 사이
물푸레나무의 문양이 갑골문자를 읽는다

부풀어 오르는 안개는 별판을 잠식하고
그늘이 자아낸 자리는 언제나 젖어 있다
낮은 담장 사이로
얼굴을 가린 바람이 옷자락을 펼럭인다

겨울이 와서
앞이 지고 왼손이 부어오른다
붉은 손등은 시린 추억을 떠올리고
별들이 빈 가지에 매달려 촉수를 높인다



| 신 선 |

- 〈봄의 현상학〉 외 다수
- 부산시인협회 본상 수상, 부산크리스천 문학상

나는 미완의 악보를 펼치고 팔분음표를 오려 넣는다

풍경을 쓸어 담은 손가락이 게네사렛을 직시하고
너는 어깨 치솟은 허공을 따라 돌진한다
피곤한 저녁이 적요를 말아 올리자
하현달이 구름을 토해낸다
계곡을 벗어난 그림자가 목조계단을 오르면
들판에 서 있는 향나무 뒷덜미가 흐릿하다

달려오는 자리에서
오른손이 왼손에게 바통 터치를 하자
뒤엎킨 실타레가 매듭을 풀어낸다

자폐아

걸어 잠근 문이 덜컹거린다
불안한 하루가 시동을 걸고 날개를 펴득인다
고유어를 습득하지 못한 나는
해독할 수 없는 들판에 풍경을 걸어두고
소통이 단절된 유리창에서 눈빛을 풀어낸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나의 몸짓,
고성을 지르며 어둠을 찢는다

너덜거리는 소음이 뜨락을 통과하는 동안
닫힌 문의 틈새로 자벌레들이 기어다니고
고래의 뱃속으로 들어간 바다가 입을 벌린다

문들이 귀를 열고 뒤돌아보자
나는 부어오른 손등을 훑는다

가파른 언덕이 뛰어내릴 즈
젖은 아랫도리가 줄기를 감아 올린다
눈부신 지상은 나를 뒤흔든다
찬란한 고통을 껴안은

나의 영토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나는 시린 상처를 훈장처럼 내걸고
끝없는 길을 내다본다
에드바르 뭉크가 귀를 닫고 소리를 지른다

순례자 외 1편

신 현 숙

광야를 걷는다
마른 햇볕 마시며 걷는다
이 세상 오아시스
머물 곳 아니기에
생명수 흐르는
영원한 곳 바라본다

무거운 한 걸음이 하루 같고
가벼운 천리 길이 한 걸음 같을 때
가까운가 하면 멀리 있고
멀리 있는가 하면 가까운 본향
눈앞에 있네

뜨거운 인생길 눈물 고일 때
구름기둥 아니면 어이 견뎠을까
시리도록 째깍한 사막의 밤
불기둥 아니면 어이 견뎠을까



| 신현숙 |

- 창조문에 등단
- 창조문인협회 회원, 부산시인협회 회원, 부산 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 시집 『상처는 향기가 난다』

너를 사랑하노라
너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 사랑은 하늘 두르고
마르지 않는 바다와 같아라
나무를 심으면 새가 날아오고
꽃을 심으면 벌 나비 찾아오듯
사랑을 심으니 사람이 다가오네

아직도 남은 길

고단한 몸은 쉬라 하지만
십자가 그늘 아래 모든 짐 내려놓고
빛을 따라 걷는다
주와 함께 걷는다

즐거운 맘으로
본향을 향하여

폼페이

베수비오산 울음 울 때
애끓는 속마음 들었더라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모래시계처럼 감지했다면

가진 것 미련 없어
두고 떠날 줄 알았다면

재로 덮인 하늘은 빛 잃고
뜨거운 불 속에 아비규환
무덤 된 폼페이

세월은 말하네
이 땅에 영원한 것 없으니
잠깐 있다 사라지는
부귀영화 자랑 말고
창조주 기억하라

무덤에서 일어나
가슴 헤집는 폼페이

모과나무 외 1편

양윤형

천년의 세월
아직 달거리를 하는 그는
여자다
어느 생에서 만났을 바람이
그녀의 몸을 열었을까

푸른 입김
푸른 목소리
푸른 울음
옹이진 가슴을
바람에 내어주고
햇빛에 몸을 말리는
모과 몇 알



| 양윤형 |

- 2001년 《한국시》 등단
- 시집 『숲으로 가는 길』 외 4권
- 야생초 연구가, 산야초 효소원 운영
- 2017년 문화예술부문 부산시장상
- 2017년 영호남 문학작품상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부회장

어느 하루

저녁을 먹고 설거지하는 남자의 등 뒤에서

타는 노을

창밖 주홍빛 물결을 바라보며

노래방 기기에 전원을 넣고

연인들의 이야기를

석양 값으로 지불 한다

커피를 타고 있는 남자의 손등위로

탱고의 음률이 퐁퐁 튀고 있다

석양은

바다 깊은 입 속으로 찾아들고

멀리 삼천포 즙 일까

외등이 하나 둘

꿈결 같이 깜빡이고 있다

이제 곧

별들이 파도를 탈 것이다

삶이 온통 오늘 같아라.

그 사람은 없다 외 1편

이 가 언

이제 그 사람은 없다
별 빛 하나 없던 시절
이끼 낀 옥상에 올라가 하늘 보고 울던
덕지덕지 기운 삶을 온 몸으로 살아내던

그 사람은 없다
그 사람 온데 간데 없고
늘고 병들어 했던 말 하고 또 하는
낮선 사람만 누워 있다

나는 그 옛적 낡은 기와집에서
칠이 벗겨진 기다란 거울을 끌고 와
이토록 낮선 이 앞에서
자꾸만 이리 비추고 저리 비춘다

아무리 비추어도
목욕물 데워 내 몸 닦아주던
그 사람은 보이지 않고



| 이가언 |

- 경북 경산 출생, 2024년 월간 《문학도시》 시 등단
- 부산문인협회, 문학중심작가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명예교수

바다로 갑니다

지난 삼월 강원도에 사람 허리만큼 눈이 내리던 날
십년 만에 만난 친구를 따라 양양의 작은 바다로 갔습니다
좀처럼 바다에 가지 않습니다만
하얗게 눈이 쌓인 바다가 보고 싶어 바다로 갔지요
나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이층 숙소에서
눈이 내리는 바다를 한참이나 지켜보았습니다
그 고요한 바다는 눈이 닿자마자 곧장 녹여버렸습니다
정말이지 손톱만큼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녹여버렸습니다
그때 내 안의 슬픔이 눈이 되어 바다에 녹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키만큼 쌓인 슬픔이 바다에 녹아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는 그 많은 눈을, 그 응어리진 슬픔을 녹이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쌓으려 해도 쌓아두지 않는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바다
나는 이제 바다로 갑니다
삼월의 그 눈 내리는 바다로

망 끝 전망대 외 1편

이 경 옥

보길도 서쪽 끝자락
무심히 바라보는 수평선에는
하나 둘 지나치는 고기잡이 배
다시 고요해지는 즈음에는
이념의 한 바가지 속에 담아지는
고운 노래 한 자락
숨소리 썩썩 썩썩
잠이 드는 아기 마냥
나 또한 가다듬는 숨
한 무리의 구름이 지나가면
평온의 마당이 펼쳐지고
잔잔한 파도 타고 넘실거리는
한 잔의 술이 타누나
희미하게 선을 그으며
하늘, 파도 가르는데
여기 망 끝이라네



| 이경옥 |

- 월간 '한맥문학' 시 부문 신인상 등단(2008.1)
- 서정문인협회회원, 부산사하문인협회 편집장, 부산크리스찬문학회회원
- 부산알바트로스시낭송회회원
- 2009년 서정문인협회 대상 수상

그 골목끝에 그리움이 서성거린다

무심코 지나쳐 온 그 골목길
어릴 적 깔깔 거리던 웃음소리가
아련히 머물러 있는 곳
다시금 돌아 온 발걸음 속에
동무들의 그림자도 남아 있지를 않네

해 질 녘 들려오던 엄마의 목소리
이제 그만 집으로 오라던 그 소리도
이젠 낫가의 쟁쟁함으로 남아 있지만
희미해져 가는 그 기억은
가슴속의 울림으로 파고드네

발걸음 재촉하던 골목길 끝에
아른거리는 추억 속을 한참이나 돌고 돌아
그림자로 남아 있을 그리움 하나
담장에서 떨어지는 능소화 한 잎
애절한 그리움 속을 헤매 인다

가시없는 자 외 1편

이 귀 선

가시없는 자 있으리
가시없다고 말할 자 있으리
가시 박힌 아픔 속에 있어 본 자 있으리

가시로 인해 멍든 가슴안고
가시때문에 뜨거운 눈물 흘리며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인도한다네

가시를 사랑으로 빼주시는 이
가시를 꽃으로 피워주시는 이
가시를 감사로 돌리게 하시는 이
그 주님도 가시관을 쓰셨었네

오! 나도 그 주님을 닮기 원하네



| 이귀선 |

- 2019 《부산문학》 시 부문 등단
- 시집 『나를 연주하는 이』
- 현, 하나인교회 협동 전도사
- 부산 크리스찬 문인협회 회원

여름 아침에

기차소리 요란하게 내더니
압력밥솥은 멈추고
밥 냄새 구수하다

남비에 달그락 달그락
콩콩 튀면서 익는 계란
하루 단백질 보충시킨다

햇볕은 벌써 따끈한데
빨갛감은 하나도 없는
부담없는 아침

저 멀리 파란 하늘은
몽게구름과 어깨동무하고
매미는 아직도 내 때가 남았다고
신나게 노래를 한다

아직도 뜨거운 여름은 남아 있어
오늘도 부채와 선풍기 그리고 죽부인과
온종일 사이좋게 지내야겠네

기도 외 2편

이 선 화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나그네
가로 막힌 담을 돌고 돌며
터널 속으로 들어 갑니다

앞을 보아도
그가 보이지 않고
뒤를 돌아 보아도
그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늘 문은 열려
깊은 밤 십자가 불빛아래
목놓아 부르짖는 눈물을
그 분은 보고 듣고 계시었습니다

부드러운 음성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 이선화 |

- 경남 사천 삼천포 출생, 시낭송가
- 가림문학회, 부산문인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영도문인회 회원
- 한국가림문학상 수상
- 시집 『인생은 바다』

무거운 짐을 실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였다
터널을 지나면 밝은 태양은 떠올라
영광의 새 날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위대한 섭리

당신은
천년이 하루 같이 지나가고
어둠의 한순간도
등불을 밝히며 살아가라고
험난한 인생길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잎에 꽃이 되어
시간은 지나간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우주를 다스리시며
줄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인생들을 굽어보고 계십니다

위대한 섭리 앞에 누가 서리요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니
흠도 티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이사 갈 준비

지구란 동그란 나무에
빈손으로 소풍을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인생길에서
이제 이사 갈 준비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
몸부림치다가 때가 이르매
가야할 곳은 죄를 가지고 못가는 나라
재물을 가지고 못 가는 나라

오직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분을 믿는 믿음 하나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나라 사모 합니다

믿음 보자기를 펴놓고
아홉 가지 열매를 차곡차곡 담아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네 영혼 그릇에 담아 본향을 바라보며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 1편

이 승 훈

농약에 찌든
쌀과 잡곡들을
깨끗한 물에 씻어
재워두었다

압력 취사를 누르면
서서히 온도가 올라간다

온 힘을 다해
칙칙 소리를 내며
보글보글 끓을 즈음

하얀 연기
하늘을 향해 오르고

침묵의 뜸 시간이 지나면
맛있는 밥이 되었다



| 이승훈 |

- 경남 함안 출생
- 부산가야교회 안수집사
- 前 법무부 교정공무원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신인상 수상(2020년)

새벽이슬

어두운 땅
고통이 극심하여
기도하였더니
뻘뻘 마른 텃밭에
만나를 내려 주셨다

보석처럼 영롱한 방울들
바람만 불어도 떨어질 것 같아
앞새 끝을 부여잡고 매달려 있다

이른 아침
농부의 밭길에 채이기도 하고
배고픈 누군가에게
맛있는 밥이 되어 주기도 하지

햇살과 입맞춤할 즈음
떠나는 너를 붙잡지 못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눈물의 설레임이다

금남로 흰 피 외 1편

이 옥 순

수조에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는 낙지를 떼어
도마 위에 패대기를 친다
“이것 봐라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어디 해 보자”

횃집 주인이 칼을 내리 친다
도망가긴 비겁하다
두려움에 떠다
바다를 다 토해 버린다

“어디 한 번 해 봐”
이차돈 순교처럼 흰 피를 뿜어 올린다

난도질당한 만신창이
흰 접시에 흠반을 내려 꽃송이로 피어오른다
그대들 얼굴에 겹친 내 청년



| 이옥순 |

- 2006년 청조문학 신인상
- 2022년 심상 재 등단 신인상
- 시집 『어느 행성을 건너가는 시간』 외

우리 작았으나
빠져드는 개펄에도
도도한 파도처럼 달렸어

바다는 맥 푸른빛이야
잠자고 있는 청춘이 이리서고 있어, 지금.

옆사람 옆 사람이 손을 잡고
또 옆 사람이 내 손을
꽉

쥐었어

파격 세일

아니,
그리 피가 나서 아파도 말 못해?
말하면 큰 일 나?
넌 바보야?
제발 말 좀 해 봐
울기라도 해 봐

바젠세일 물건 마구 던지듯 쏟아 붓는다

별 선 아이처럼 엄마 눈을 피해서 이는 손여덟

백화점 지하 진열대
골라골라 무조건 만원 골라골라 이런 가격 이 생에 없어요 마지막
만원
스포츠 단체복 날개를 펴고 팔려나간다
헝가리산 구스 이불은 그래도 골라골라 아니겠지
파격세일예요

육박지른 소리 한쪽 귀를 막고
엄마 손 꼭 붙잡는다

물건이라면 억만금짜리라도 쓰레기통에 확 던져 버리고 싶어요

“바겐세일 이라도 안 가져가요”

“바겐세일로 달라해도 안 줘요, 아무리 웃돈을 줘도 안 팔아요”

아들 손을 다시 꼭 잡고
손가락으로 조물조물 간지럼을 태우며

“한 번 울기라도 해 봐”

꽃 그늘 외 1편

이창희

고갯마루 넘어가다
설 곳을 찾아 서성거리네

영취산 인적 없는 길
산도화 몇 그루의 꽃 그늘

첫사랑 그 마을에도
복숭아꽃 피었을랑가

둘이서 앉았던 자리
제비꽃 피었을랑가

산새들 우는 소리
봄 하늘 아득한데

내 마음 꽃그늘 찾아서
한 구비 두 구비 고개를 넘네



| 이창희 |

- 월간 문학 등단
- 부산문화방송 신인 문예상
- 시집 『고맙다』외 4권

너를 살리려고

내가 죽는다

짜짓기 사랑후에
사마귀는
어미가 될 암컷에게
제몸을 제물로 내어준다

너를 살리려고
내 목숨을 주는 것이다

환하게 핀 호박꽃이 움츠리다
제 모가지를 툭 하고 놓아버린다
파릇파릇 젖니처럼 돌아나는
애호박 때문 이었다

천둥소리 까지 받아들여서
청동호박이 금빛으로 영글었다

가슴속에 저마다
씨앗을 품고

가을 들판은 비로소
자신의 계절을 완성한다

너가 죽어서 내가 살있다
내년 봄
너를 살리려고 나는 죽는다

너는 내 아들이다

- 학수 고대

임 병 주

너는 내 아들이다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아닌
모든 피를 다 흘려 낳은 아들이다
생명을 바쳐 낳은 생명의 분신 말이다

하늘에서 낳은 하늘의 아들
영원에서 낳은 영원의 아들
진리와 사랑과 자유의 아들

오너라 오너라 날마다 오너라
오라 오라 시간마다 오이라
와라 와라 분초마다 오거라

안겨라 안겨라 내 품에 안겨다오
나의 영원한 사랑의 가슴팍에



| 임병주 |

- 경북 달성 출생
- 대구 계명대학교 철학과 졸업,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우리글 문학 신인상 수상 등단 (시부문)
- 부산크리스찬문인협회 회원 (현)
- 해운대 새생명교회 담임목사(현)

그리고 평안하여라
내 가슴의 안식과 자유와 사랑
영원히 흐르는 생명을 마시고
무궁히 싱싱한 생명으로 자라다오

너도 나처럼 온 세상을 품고 사는
생명 가득한 아들이 되어다오
네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분신 말이다

기도합니다 외 1편

정 명 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보디밭의 집으로 간 요셉은 복을 받고
야곱은 축복을 도적질하니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향해 빛 따라 움직여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면서 예수님의 보혈보다는 개인의 자존심 세상 명예를 더 쫓지는
않았나
회개합니다
더운 온도 한소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엔
모처럼 선선한 저녁 맞아
볶게 잘 우려낸 장국밥으로 하나님전에
예배드리며 찬양 합니다
주여



| 정명진 |

- 2018년 부산문협 문학도시로 시 등단
- 부산문인협회 회원,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시사위 문화예술회 회원
- 시낭송가
- OCEAN JADE SHIPPING 실장

내 꿈에 촛불 밝혀 드릴테니
꿈속에서 저를 어루만져 성령을 주시옵기를 빌면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단짚습니다

하얀달밤

어릴 적

엄마 찾아 한잠 자고 일어나 길거리에

나가 앉은 생각이 난다

그때 하늘에는 하얀 달이 걸렸었지

가을 따라 순수 향기 건져 올려

내 어릴 적 얘기 가슴에 인다

문턱에 걸려 자빠진 가을이

한참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 해보지만

내 기도는 가을바람 따라 선선한 곳으로

외출했는지

오늘 아침엔 추워서 두꺼운 겹옷을 걸쳤던 갑작스런 추위에

어릴 적 그 얘기가 그리워

그리워 가슴이 아픈 가을도

벌써 가려는지

창 모서리에 내려 앉는 햇별이 어려워 온다

인생을 좁는 노인 외 1편

정연원

해질녘

편의점 앞에 뒹구는
노인의 삶처럼
다 마셔버린 맥주깡통

굽은 허리 더 굽혀서
나를 좁는 마음으로
속이 텅빈 깡통을 좁는다

인생 말년을 채우려고
차가운 눈물 머금고
텅빈 콜라캔도 좁는다

끼니 건너뛰고
한자루 주워 담아도
고물상 주인이 주는
천원짜리 지폐 몇 장



| 정연원 |

- 『문학도시』(2016) 시 등단
-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상담 석사
- 부산문인협회 회원, 부산크리천문인협회 회원
- (사)자살예방전국학교연합회 부산시 부회장(생명존중 전문강사)

빈 깡통 안에서
겨울바람이 울고
내 맘 속에선
세월이 야속해 운다

해질녘 황혼이
텅빈 인생을 좁는
노인의 등 위에
희망인양 내려앉는다

인연의 강

일흔 고개 넘고보니
인연의 강을 따라서
인생이 유유히 흐른다

터지는 성공의 환호
실패의 피눈물마저도
인연의 강에서 발원해
바다로 흘러간다

명심하시라
잠시 스쳐가는 인연도
금쪽같이 여기시라
언젠가는
기회의 꽃으로 피어나리라

좋은 인연 만나는 것보다
더 큰 행운은 없나니
삶의 희노애락마저도
인연의 강을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이리라
오늘도 유유히

추억 같은 · 34 외 1편

조 의 흥

꽃이 피는 세상은 그리워라, 돌아 올 수 없는 것들이 만발하는 세상이네 바람이 나무들을 흔들고 세상의 그리운 일들은 멀수록 그림네 꽃들이 피어 씨앗을 만들고 바람에 날리며 들려주는 세상 소식들.

비가 내리는 세상은 만발하네 가난한 정들은 물처럼 흘러 세상은 안타까워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일들을 어찌 몰랐을까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서럽네.



| 조의흥 |

- 1981년 『심상』 단
- 부산시인협회 회장 역임
- 저서 『인간예수 그리스도』, 『꿈 · 2408』 외 다수

추억 같은 · 35

꿈이라야 가는 서산리 별판, 바람 속으로 흩날리는 꽃들은 피어
무얼하나 나무 마다에는 미망의 열매 열리어 꿈보다 빠르게 사라지
고 약속도 없는 꽃들은 만발되어 서산리 별판 어찌갈까 그래도 아
득한 일들이 수만가지로 열리는 서산리 별판 어찌 할까.

물의 길 외 1편

조 현 숙

누가 물이 아래로 흐른다 했나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건
물의 위장술
그 태생은 처음부터
하늘이었으므로

지상에서 너는
매일 조금씩 더럽혀진다
수천 마리 개구리가 울어대는
진흙탕 심장 속에서
피가 되었다가
고름이 되었다가
마침내는 오물로 쏟아지는

탕자처럼 너는 날마다
고향에서 멀어진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모든 바닥을 어루만지며
모든 어두움의 뿌리를 더듬으며



| 조현숙 |

2017 《시선》 등단. 부산문인협회, 부산여류문인협회 회원,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부회장, 새부산시인협회 편집장, 부산문학상 우수상, 《문학도시》 작품상, 《부산시단》 작가상 등 수상. 시집 『미로역에서』 『상처가 상처에게』

더는 내려갈 수 없는 심연 속
울어도 들키지 않는 곳에서
비로소 풀어내는 슬픈 몸
눈물만이 네 죄를 씻는 방식이므로

수면 위로 떠 오르는 기포가
지상의 옷을 벗은
네 마지막 인사라 믿어도 좋을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사코 낮은 곳으로 흐르던 네 몸짓

반짝이는 수면 위에서
투명한 영혼으로 날아오르며
오랜 위장술을 완성하고 있다

누더기와 백합

비 온 뒤
도서관 화단에
백합꽃 활짝 피었다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 한 송이만 못하다던
주님 말씀 생각나
발길을 멈춘다

때 묻은 눈으로는
꽃이 입은 향기 보이지 않아
나는 자주
번쩍이는 옷에 시선을 뺏긴다

자정이면
누더기로 변할 동화 속 드레스처럼
내게도 자정이 오면
이 땅에서 탐내던 것
그때서야 누더기로 보일까

비 갠 뒤 화단에서
흰옷 입은 백합이
누더기 걸친 나를
가여운 듯 바라본다

시라기국 외 1편

최귀례

고음과 저음으로
들끓는 시라기국 소리 우렁차다

저녁을 기다리는 왁자지껄한 식탁
드럼 치는 냄비뚜껑은
급물살을 타고
고요 속의 반란은 소용돌이다

파문은 번져나가고
흠칠 수 없는 물결의 범람이 흥건하다

주방 뒤흔드는 혼성 뚜엣
환풍기 소리를 혼절시킨다

허물어지는 난전에
굽 높은 사발 한 점 동그마니
시선을 끈다



| 최귀례 |

- 2003년 『문예한국』 등단. 2021년 『창조문예』 등단
- 시집 『풀 세잔느의 여행』 『타인들의 마을』 외

수술실에서

의사는 태초의 눈을 뒤집어
묵은 날을 세척한다

하늘 즙음에서 속눈썹을 잘려내고
소독포를 덮는다

눈알 키우는 물약을 점안하고
거즈를 재단하는 가위소리가
복부에 팽창한다

나는 수세식 개수대 앞에 누워
출렁거리는 파문의 끈을 조절한다

부싯돌에 갈리는 녹슨 내장이 창백하다

무용등 조명이 비춰주는
청명한 하늘은 봄날이다

허공 어디쯤 새날이 뜬다

작은 전등불 외 1편

최 만 공

새벽녘 어둠 속 처마 아래 작은 전구의 불빛은
어두운 골목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앞길을 비추는
하나님의 손전등과 같다

참새들과 닭들과 개들도
어둠의 장막 속에서 잠잠하게 하고
전구 하나 그 작은 전등불은 빛보라를 반짝이며
마지막 안식을 선물하고 있다

암본* 섬의 한낮을 달구었던 열대의 햇살이
시골 마을로 내려와 이 밤길을 밝히는
꺼지지 않는 하얀 희망의 열매로 열려 있다

*암본(Ambon)은 인도네시아 말루쿠 주의 수도인 인구 30만명이 사는 말 발굽 모양의 만(bay)으로 된 작은 섬임



| 최만공 |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 청옥문인협회 이사
- 부산문인협회 회원
- 시집 『신비한 성좌』 『들꽃처럼 뭇별처럼』

밤비

밤새 반다Bada해*의 비구름이 지나가니
말갱게 세수를 한 암본Ambon의 아침엔
참새들도 나뭇잎 가지로 날아다닌다

구름에 실려온 적도의 무슨 신호음들
밤새 비 속에서 잠들지 못한 나무들이 오롯이
녹색 생명의 부호로 저장되어 아침 햇살에 빛난다

나도 잠결에 떠나면 인도양에서 올라와
높은 하늘을 지나 지붕을 때렸든 모르스 부호음
그 장단의 수수께끼를 아침 빛으로 해독하려 한다

*반다(Banda) 해(海)는 인도네시아 동부의 술라웨시 섬, 티모르 섬, 스람 섬과 뉴기니 섬에 둘러 싸인 바다이다. 암본 섬의 기상은 이 바다의 영향을 받는다.

시조

윤현수 | 잃어버린 세월 외 1편

허성욱 | 우중산책 2 외 1편

잃어버린 세월 외 1편

多才 윤현수

천년을 살 것처럼
앞 보며 무한질주

잡다한 생활 속에
휘달린 삶의 굴레

되돌아
곱씹어보니
주님사랑 받았네



| 윤현수 |

- 아오 다재多才
- 광안생명교회 은퇴장로, 현재 (주)영남교통 전무이사
- 2018년 11월 계간(청옥문학) 시.시조 등단
- 청옥문학협회 시조분과 회장, 석교시조문학 이사,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
- 저서 : 시조집 『마음에 담은 세월』, 석교시조22인 선집 외 다수
- 수상 : 2021년 석교시조 우수상 수상

디카시조

옥구슬

속 훤히 보여주는
너만의 자랑거리

조금의 흠도 없는
안팎의 아름다움

남의 흠 쓰다듬으니
하나님의 심부름



비온 뒤 풀잎에 얹은 투명한 물방울을 보면서

우중산책 2 외 1편

허성욱

우산을 들고 나선 초가을이 하산하며
화지로, 종합운동장으로, 사직로를 따라 걷다
겨냥한 국민시장*에게
이거 얼마냐고 말을 건다.

아 됐어. 네가 새삼 거울 봐서 뭐 할 건데?
채들은 편하게 입는데 나는 이게 뭐냐면서
비닐을 뒤집어쓴 과일
입을 삐죽거린다.

아니야 개들도 너만 할 땐 그렇게 입고 다녔어.
길가의 썩부쟁이 얼굴 빛이 고운 오후
가쁜 숨 몰아쉬는 신호등
눈을 깜빡거린다.



| 허성욱 |

1984년 시조문학 천료, 시조집 "월포리 사설" 외 3권, 산문집 "하나님의 증력장" 외, 성지교회 교사 정년(녹조근정훈장), 크리스천문학상(2021), 삼일교회 출석(은퇴목사), 허성욱심리상담클리닉 원장

백 팩을 올려 매고 우산을 접은 날씨
비 그친 횡단보도 바람처럼 건너가서
1단지 옆길을 따라
다시 산을 오른다.

* 사직동에 있는 시장 가운데 하나.

창조신앙 종말 신앙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님이셨던 분이
창조주를 부인하고 유물론에 심취하여
저렇게 밀어붙이는 담대함이 가상하다.

“속죄는 받을 수 있어 창고에 죄를 쌓는”*
우리네 어리석은 창세기 3장 행태
잠시인 세상 삶에 취해 마지막 날 깜빡 잊네.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이 뒤따를 것인데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각성이 없는 인생
정치엔 대책이 없으니 구속주를 영접하세.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믿음 잘 지켜가는 나그네길 지나갈 때
에녹이 걸어갔었던 그 길을 따라 가세.

* 박윤기 시인의 시집 “구정리”에서 빌려옴.

수필

공기화 | 그해 여름의 추억

김은희 | 유럽 성지 순례를 마치고

김혜용 | 이스라엘은 대단한 민족

노장현 | 겨울에서 봄 길목

명인숙 | 오늘은 또 어떤 추억으로 남을까

박희두 | 큰외숙모 김종필 권사님 외 1편

성윤자 | 나의 옛집

손정란 | 감정이란 날개

이준우 | 고삐와 복숭아 회초리 외 1편

전진경 | 내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

최방식 | 헤어질 결심

한인환 | 애월(哀月) 외 1편

그해 여름의 추억

공기화

삼십 대의 여름방학은 강의 준비하느라고 바빴다. 논문과 강의 자료를 정리하고 새로운 교재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휴가를 즐길 엄두가 나지 않았다. 더구나 아내까지 별다른 요구가 없자 여름휴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대학 시절 자취생활을 함께 했던 이대인이 “어이, 우리도 아이들 데리고 어디에 놀러 갔다 오자.”라고 꾀듯 말해야 마지못해 내원사 계곡이나 일광해수욕장에 갔던 게 고작이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잘 놀아주지 못했다. 아이와 놀아주는 게 당연히 해야 할 일과인 미국의 아빠다. 그들은 일과를 마치고



| 공기화 |

땅끝교회, 은퇴장로, 월간문학21에서 수필 신인상(2001), 문학도시에서 시 신인상(2016),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고문), 부산문인협회, 한국장로문인협회, 부산수필문인협회, 부산남구문인협회 회원, 수필집 : 『뒷모습을 그리다』 외, 시집 : 『흔들리며 산다』 외

고 아이를 학교에서 픽업하여 공원에서 아이와 축구나 야구를 하며 함께 놀아주어야 한다. 처남의 초청으로 미국에 이민 갈 기회가 있었으나 신고를 늦게 하는 통에 취소되었다. 만일 내가 그곳에 갔다면 빵점짜리 아빠였을 것이다.

어느 해였던가, 감림산기도원에 갔다가 아름다운 그곳 주변의 풍경에 끌려 가족과 함께 왔으면 했다. 마침 기도원에 특별집회가 있다고 하여 캠핑할 준비하여 길을 떠났다. 준비라 해야 식량과 반찬, 텐트, 버너와 코펠, 연료, 작은 야전삽 그리고 뱀이나 해충 퇴치용으로 텐트 주변에 뿌릴 담배 몇 개가 전부였다.

버스에서 내리면 산 중턱에 교회 2곳이 보인다. 멀리서도 침탑이 아름답게 보이는 교회가 기도원이다. 버스에서 내려 맑은 물이 흐르고 내를 지나 산길로 오르면 쉬 닿을 수 있었다. 기도원 아래의 내와 푸른 송림은 수채화처럼 아름다웠고, 냇가에 꽤 넓은 송림이 있어 캠핑하기에 적격이었다.

아내는 바로 기도원에 갔고, 나는 아들과 함께 송림에 텐트를 치고 캠핑 준비하였다. 아침에 가족끼리 피서를 즐기다가 집회 시간이 되면 아내는 4살짜리 성경이를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간 후에 장난이 심한 시기였던 경민이는 텐트에 머물거나 송림과 시내에서 곤충을 잡거나 냇물에서 물장구치며 하루해를 보냈으니 그에겐 낙원이었다.

바닥까지 보이는 냇물이 그리 깊지 않아 아이를 그냥 두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거기에는 피라미, 송사리, 기름쟁이와 같은 민물고기가 놀고 있었다. 그곳은 인적이 뜸한 고즈넉한 곳인지

라 처음 보는 나비나 잠자리들이 날아왔다. 풀밭에는 개구리와 메뚜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 남자아이가 놀기에는 그저 그만이었다. 아들의 하루는 분주하였다. 이리저리 덩빙대며 뛰어다니다가 개구리나 메뚜기를 잡으면 의기양양하여 나에게 가지고 와서 자랑하였다.

호기심은 많은 아들은 예쁜 잠자리나 나비가 보이면 잡아 달라고 떼를 썼다. 곤충을 잡을 채집망을 미처 준비하지 않아 나비나 잠자리를 잡기 위하여 키가 큰 수생식물을 꺾어 빗자루처럼 엮더니 곤충을 채집할 도구가 되었다.

그곳에 날아오는 나비와 잠자리의 종류도 많았다. 호랑나비, 부전나비, 모시나비, 긴꼬리제비나비가 있었고, 보기 드문 멧노랑나비도 날아왔다. 줄잠자리, 고추잠자리, 밀잠자리, 실잠자리, 장수잠자리가 보였고, 금빛 나는 커다란 왕잠자리도 날아왔다. 그곳에서 나는 나비와 잠자리는 여유 있게 날며 그들이 하는 일만 하며 자연의 법칙에 따르고 있었다. 책을 보다 심심할 때 잡은 곤충들을 급조한 채집망에 집어넣어서 소나무에 걸어두었다. 아침에 살펴보니, 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 귀신 곡할 노릇이었다. 가만히 생각하니 밤새 개미들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 망에 든 곤충들을 물고간 것이었다. 이 작은 송림에서도 약육강식 법칙이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매미가 울다 지쳤는지 조용해진 저녁에 아내와 성경이가 내려와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고 잠시 쉬다가 다시 저녁 집회에 참석했다. 풀벌레가 시끄럽게 우는 밤이면 아들과 함께 텐트에서 누워 하

늘에 가득한 별과 별자리를 찾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종일 덤벙대며 놀았던 아들은 지쳤는지 금방 잠들었다. 초저녁에 텐트 주변을 점검하고 주위에 담뱃가루를 뿌려 두었다. 놀라운 일은 연사흘 동안 밤 12시경이면 어김없이 한 30분간 소나기가 내렸다. 첫날 낮에, 햇별이 짹짹 쪼어서 텐트 가에 배수로를 파지 않았더니 한밤에 내리는 비에 놀라 일어나 급하게 배수로부터 왔다. 매일 일정한 사이클을 그리며 자정이면 소나기가 어김없이 내리는 통에 이튿날부터 텐트와 배수로를 철저히 점검한 후에야 잠자리에 들었다. 비가 제시간에 어김없이 한바탕 퍼붓다가 그치면 하늘 끝까지 가득 찬 영롱한 별이 빛났던 신비로움에 가슴이 벅찼다.

매일 소나기를 맞이하다 보니, 소년 소녀가 소나기를 맞아 전개되는 순진무구한 사랑을 그린 황순원의 『소나기』와 알퐁소 도테의 『별』이 떠올랐다. 밤하늘에 가득한 수많은 별을 보니, 주인 아가씨는 산록에 있는 양치기 목동에게 물품을 전하고서 내려가다가 소나기를 맞아 다시 돌아와 밤하늘을 바라보며 목동에게 별자리와 별들끼리 사랑한다는 전설을 듣다가 그의 곁에서 잠든 그녀의 모습을 그려보고픈 밤이었다.

12시경에 소나기가 내려 밤마다 몇 번이고 일어나야 했던 그해의 캠핑이 가족과 함께 한 마지막 여름 나들이였던 것 같다. 이후 아이들은 학교에서 여름방학이면 스카우트 활동 등으로 바쁘고, 나 역시 초등학교 교사 연수 등 대학의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 함께 밖에 나가 여름휴가를 즐겼던 적이 거의 없었다.

요즘도 고속도로에서 감림산기도원 쪽을 멀리서 바라보니, 그

곳의 경치가 그리 많이 변한 것 같지 않다. 경민이가 침병대며 나비와 잠자리를 잡았던 송림과 넓은 개울도 거의 예전과 다름없는 듯하다. 생각으로는 뻘한데도 이젠 캠핑 도구를 지니고 그곳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때와 같은 낭만적인 여름을 맞을 것 같지 않다.

올여름에 폭염과 열대야로 많이 시달렸다. 뉴욕에 사는 경민이가 추석 쇠러 집에 와 42년 전에 경험했던 캠핑 이야기하였다. 그때의 추억을 잊지 않고 또 꺼냈다. 아마 그만큼 재미난 여름은 없었나 보다. 그리고 보니 유년 시절에 아빠와 놀았던 유일한 추억거리여서 그런가 보다.

맑은 냇물, 푸른 소나무와 솔잎의 노랫소리, 12시경에 어김없이 내렸던 소나기, 별이 가득 펼쳐졌던 밤하늘이 그림다. 그해의 여름은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 같다.

유럽 성지 순례를 마치고

김은희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이다. 올해 10월 초 생애 첫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12박 14일의 일정 동안 7개국을 다니며 종교개혁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

첫 일정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웨슬리의 무덤과 웨슬리 기념교회를 둘러봤다. 그의 헌신적인 성경 번역과 개혁 사상은 당시 교회의 부패에 강한 저항을 일으켰다. 또한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다. 웨슬리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느꼈다.

프랑스에서는 존 칼뱅의 개혁 사역을 기억하며 은혜를 경험했



| 김은희 |

- 부산문학인협회 시부문 작품상 (2023)
- 부산문학인협회 수필부문 신인상 (2024)
- 마음 심리상담연구소 소장

다. 칼뱅의 하숙집과 칼뱅이 다녔던 대학교를 방문하며 그의 흔적을 상상해보았다. 프랑스는 존 칼뱅의 업적에 대해 크게 기리는 것 같지는 않았다.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칼뱅의 집, 칼뱅의 거리를 순례하며 그가 남긴 신학적 유산을 음미했다. 그의 <기독교강요>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신학의 시초가 시작된 현장을 보았다. 제네바의 바스티옹 공원에 설치된 종교개혁 기념비에는 기욤 파렐, 장 칼뱅, 칼뱅의 후계자인 테오도르 베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씨앗을 뿌린 존 녹스가 나란히 서 있었다. 이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상황이 시공을 초월하여 생생하게 상상되는 듯 했다. 프랑스는 칼뱅을 내 쫓고 개혁에 뒤처져서 그런지 영적 분위기가 무질서해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길거리에서 마약일지도 모르는 흡연을 하며 흐느적거리는 일부 청년들의 모습에서 그런 인상을 받았다.

철저하게 반성하여 더욱 번성한 독일에서는 규율을 잘 지키는 반듯한 독일인들의 정신을 읽어낼 수 있었다. 독일의 마틴 루터가 교황청에 맞서 목숨을 걸고 95개 조항을 발표했던 비텐베르크성 교회에 가 보았다. 당대 교황의 위엄 앞에서 사도가 났을 용기가 얼마나 컸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전에는 잘 몰랐던 ‘멜란히톤’이라는 동역자도 루터 곁에서 큰 힘이 되고 협력하여 종교개혁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루터가 설교했던 교회도 둘러보았다. 루터의 무덤이 있는 비텐베르크성 교회의 꼭대기 부근에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글

씨가 새겨져 있다. 그 글을 볼 때 어떠한 핍박에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루터의 믿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수녀 출신이었던 루터의 아내 ‘카트린 드 보르’의 동상을 보며 아내의 헌신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지도 짐작했다. 종교개혁 이전에 성당 옆에는 항상 고아원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루터는 개신교 목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루터의 수고와 주변의 수많은 동역자의 헌신이 함께 했기에 위대한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역자 루터와 멜란히톤의 묘비가 나란히 안장된 성전 안에서 우리는 묵념했다.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에 감사했다. 그들의 종교개혁이 어떠한 파문을 가져올지 당시에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인쇄술이 발달한 시대의 흐름과 함께 종교개혁에 대한 민중의 갈망이 더해졌을 것이다. 루터의 결단과 헌신이 있었기에 개신교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체코에서는 루터보다 시대를 앞서 종교개혁에 몸을 던진 안 후스를 만날 수 있었다.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종교개혁에 관한 책을 한 권 사보았는데 그 때 처음으로 접한 생소한 이름이었다. 후스는 처음에는 왕실의 보호를 받아 종교개혁을 진행했지만 후에는 왕실의 배신을 당해 끝내 화형에 처해졌다. 그의 신앙은 이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후스가 순교한 뒤 그의 뜻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많이 생겨났고 개혁의 시발점이 마련되었다. 그는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강력히 비판하고, 오직 성경의 권위를 강조한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잘츠부르크 대성당을 돌아보았다. 이 고장에서 모차르트가 태어났고 이 성당에서 연주했다니 신기했다. 모차르트가 자주 갔다는 당구장도 가보았다. 지금은 모차르트 초콜릿으로 그를 기념하고 있었다. 대성당 앞의 오른쪽에는 사도바울이, 왼쪽에는 천국열쇠를 든 베드로가, 그 위에는 제자들이 있고 가장 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있는 석상이 인상 깊었다. 이 광장에서 오른쪽 위를 향해 보면 ‘호엔잘츠부르크’ 성이 있는데 그곳은 절벽 위에 지어진 성으로 천혜의 요새였다. 마을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모두가 이 성에 올라가 힘을 합쳐 싸웠다고 한다.

마지막 순례지인,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사도바울 참수터와 바울 기념교회부터 갔다. 사도바울이 마지막으로 갇혀있었던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장면이 상상되었다.

디모데후서 4장 6~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마지막 편지를 뒤로한 채 사도바울은 참수터로 향했다. 로마 병사의 단칼에 떨어진 사도바울의 머리는 바닥에 세 번 크게 튀었다. 떨어진 그 자리에는 이후에 샘물이 솟았다고 해서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 스승의 편지를 받고 옷을 가져다드리는 길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 디모데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하고 슬펐을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내가 누리는 복음이 많은 분들의 값진 희생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복음이 중세 암흑기를 뚫고 내 삶에 와 닿아 ‘만인 제사장 시대’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저 가슴이 뭉클하다.

이스라엘은 대단한 민족

김 해 용

유다(이스라엘)는 B.C 586년에는 바벨론에 망했고, A.D 70년에는 로마에 패망하면서 130만 넘는 사람이 죽으면서 예루살렘은 완전 폐허가 되었다. 그때부터 유대인은 유랑민이 되어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다. 1차 대전이 끝나자 영국은 유엔의 인준을 받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다시피 하자 각국에서 유랑하던 유대인들은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금 미국의 부자들 가운데 유대인이 많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무역과 다이아몬드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조국을 위한 것이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투자했다.



| 김해용 |

- 두리원 대표(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SINCE 1987년)
- 저서 : 『프로플리스의 위력』, 『토양의 병은 육체의 병』 외 10권
- 수필가, 교회 은퇴 장로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

그 당시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는 시온을 생각하며 고국을 그리워하는 시온니즘(Zionism)주의자들이 많았다. 이런 자들을 모아 팔레스타인으로 이주케 하였고, 이들이 곳곳의 땅을 매입하면서 정착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들었던 유대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31%나 되었고, 매입한 토지도 전 국토의 5.6%나 되었다. 이렇게 많은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 재벌들은 개인이 호식하는 것보다 민족을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소련에 있던 유대인이 미국으로 가면 유대인 단체에서는 경비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주거지와 직장까지 마련해주었다. 이러다 보니 조국에 대한 생각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달랐다

1947년에는 팔레스타인 땅의 50%나 점유하게 되었고, 다음 해인 1948년 5월 14일에는 우리나라보다 3개월 앞서 독립을 선언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슬람국가에 큰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이집트가 중심이 되어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이 동맹국이 되어 이스라엘을 침공했지만, 도리어 패하면서 이스라엘의 영토는 더욱 확대되어 갔다.

막강한 아랍동맹국이 침공했지만 패하게 된 것은 침공하다 동료 하나가 총에 맞으면 돌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동료의 눈치만 보다 도망가기 바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죽을 동 살동 모르게 싸우다 실탄이 떨어지면, 죽은 동료의 실탄을 주워가면서 싸우다 보니 아랍에 이길 수 있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2007년에 실권을 잡은 하마스가 2023년 10월 8일 이스라엘에 선제공격을 가하자 이스라엘은 예비군 소집령을 내렸다. 내린 지 48시간 만에 배치할 수 있는 병력이 36만 명이나 되었다. 이중 6만명은 외국에서 온 거주자였다.

이스라엘의 거주 인구는 960만 명인데 예비군 소집에 36만 명이 모였다. 이 숫자는 전 국민의 3.75%에 해당된다. 이것은 대단한 민족이라는 말밖에는 달리할 수 없는 말이다.

1967년 6월 5~10일에 있었던 6일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이 연합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함으로써 팔레스타인의 영토 78% 점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안지구의 영토까지 더 점유하자 처음 이스라엘이 점유하였던 5.6%보다 낮은 5%만이 점유할 정도로 팔레스타인은 모든 영토를 거의 잃게 되었다.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남단에 있고, 해안 따라 길쭉한 면적은 565km²로 부산시 면적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곳에 인구는 220만 명이나 밀집되어 있다. 좁은 면적에 인구는 많다 보니 절반은 실업자이고, 식량자급률도 65%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 호전적인 하마스가 실권을 잡자 이스라엘은 경계가 되는 65km 거리에 14만 톤의 철근을 들어 6m높이의 담장을 세웠다. 그렇다 보니 이웃 나라에 갈 수도 없다. 동쪽은 지중해이고 남쪽만이 시나이반도와 이집트가 연결되어 있지만, 이집트에서는 입국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원망은 클 수밖에 없었다.

호전적인 하마스도 언제까지나 이를 외면할 수 없었고, 이웃 나

라의 반유대단체들이 도와주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하마스가 먼저 선제공격을 했다.

이스라엘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정보망을 갖고 있는 모사드가
이 모든 정보를 놓치므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세계의 모든 방
송과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전쟁이 났을 때 바로 대항을 하게 되면 이웃 나라들로부터 동정
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큰 피해를 당했을 때는 많은 동정심을 얻
을 수 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면 우리는 거기에 10배
이상의 보복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에 알면서도 선제공격을 당했
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받은 것에 몇 배나 더 강한 공
격을 가하고 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공항에는 내 조국을 지키겠
다는 각오를 갖고 입국하는 유학생들로 붐볐다. 이들은 휴학계를
내고 입국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아랍계 공항에는 입국자들 보다
출국하는 젊은이들이 더 많았다. 그 이유는 징집영장이 나오지 않
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외국으로 도피하는 자들이었다. 이것만
보아도 전쟁의 승패는 바로 알 수 있다.

전쟁이 났을 때는 언제나 승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패전국이 되었다면 오늘과 같은 부는 누리지 못하고 대신
가난에서 허덕이어야 했을 것이다. 북한은 추운지역이지만 석탄
등 지하자원은 많아도 운송할 기쁨이 없다 보니 떨감은 나무밖에
없어 산들이 벌거숭이가 된 지 오래이다. 그렇다 보니 적은 비에도

산사태가 잦고, 도랑은 길보다 높은 상태다. 그래서 논둑은 자주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식량은 매년 20% 부족상태에 있다. 토양은 유기질 부족으로 모든 토양이 산성화된 지 오래이므로 생산량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북한은 핵에만 치중하다 보니 모든 산업이 낙후되었고, 경제는 남한의 35대 1로 뒤떨어진 상태이다. 그렇다 보니 영양부실로 신장은 남한보다 10cm나 작다. 그런데도 북한을 동경하는 자들이 남한에 많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경제력이 월등히 높아야 그들의 호전好戰성을 언제든 막을 수 있다.

겨울에서 봄 길목

노 장 현

비스듬히 해가 넘어간다. 겨울 찬바람이 나뭇을 훑치는 소리가 요란하다. 청산에는 옛 꿈만 가득 차 있고 창문 밖에는 사방으로 날리는 백설이 춘삼월 나비 같다.

올해는 유달리 폭설이 심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극심한 한 해가 되었다. 대체로 나이든 사람들은 겨울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나기를 바란다. 어린이들은 오히려 눈 내리는 겨울이 즐겁고 기쁘다. 어릴 때는 체온이 높아서인지 추위를 모르고 혈기 왕성하게 뛰어 놀았다.

나는 학교에 오가는 길이 20리길이라 무논과 보리논을 가로질



| 노장현 |

- 《에세이문예》 수필 등단.
- 뉴에이지문학, 효원수필문인회, 부산수필문예, 한국에세이문인협회.
- 부산문인협회회원,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 〈부산시단〉 신인상 등단.
- 시집 『아직 길은 손바닥에 있다』 『시월노을』

러 길을 내어 가며 먼지 나는 논두렁길을 다녔다. 한겨울에는 들녘의 기운이 크게 떨어져 손이 아리고 코끝이 붉게 변하면 손으로 입감을 내어 녹이며 다녔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썰매 타기와 연날리기, 자치기, 공차기 등을 하고 놀았다. 개구쟁이였던 우리는 놀기에 정신이 자지러져 해넘이도 모르고 놀았던 때가 기억이 난다. 초가집 지붕 위 굴뚝에는 쇠죽 술 연기가 피어오르고 뒷산 소나무는 서릿발을 뒤집어 쓴 탓에 푸른 숲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신한다. 폭설이 내린 마을 앞길을 걸으면 밝히는 눈 소리가 오뉴월 개구리 우는 소리 같다.

추운 겨울 눈바람 몰아치는 때에 집을 떠난 동토에서 외롭게 어찌할 수 없는 배움의 길은 시린 가슴을 움켜잡고 해낼 때 창밖의 가로등까지 보이지 않는 나의 생각과 삶의 깊이가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었다. 그것 때문에 작고 투명한 눈물이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형상으로 그 빛이 나를 끈기 있게 밝혀주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자연은 언제나 나의 마음과 생각을 현혹 시킨다. 오늘 따라 겨울 숲속에 숨어 있던 장기는 날갯짓하며 햇빛을 받으며 아름다운 깃털을 펼쳐 나는 모습이 감명 깊었다.

누구에게나 바람처럼 왔다 가는 인생은 계절과 같이 순회하는 것, 움츠렸던 몸은 생기를 얻어 불현듯 가을 뜰에는 바람이 추위를 떨어뜨리고 수양버들 언덕에는 봄빛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나는 천천히 황혼에 물들어 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면서 목상을 한다. 들녘에 흐린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마음이 자연스레 우울해지기도 했다. 그것은 마음속이 어쩐지 불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증오의 대상이 바로 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자연과 동화되어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며 채색된 나무는 더욱 달콤하게 느끼며, 내가 품는 공기는 은혜롭게 흐르는 것으로. 햇빛은 더욱 부드럽게 느끼며, 이 모든 현실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 것이다.

황금빛 태양이 변함없이 매일 같이 산봉우리를 넘어 환하게 솟아 찬바람을 열기로 씻어 따뜻하게 하는 것 같이 내 흐트러진 늙음의 불꽃 변하지 않는 나의 것으로. 내 가슴에 활활 높이 타오르게 한다. 그 혈기로 인하여 죽음은 나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값진 삶을 누릴 것이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영원한 노래가 내 가슴에 가득 차 있으리라.

어느 사이에 기후는 변하여 푸른 잎들은 채색되었고 잎은 낙엽되어 발길을 덮는다. 찬란하게 빛나던 잎들은 이내 발밑에 시든 잎들로 쌓여만 간다. 메말라 뻗뻗하게 죽어 바람이 불면 마른 풀과 나뭇잎은 서로 거칠게 부딪쳐 소리를 낸다. 바람에 나뭇가지는 여전히 휘파람 소리를 낸다. 겨울 동안 침묵하던 이들은 새싹이 트고 새로운 삶을 누릴 것이다. 사막에서 놀던 제비는 온 하늘을 누비며 보금자리를 찾아 든다. 두견이는 깃에 시원한 바람 스치니 잠에서 깨어나 시끄러이 봄꽃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다. 솟아 오른 해로 산 빛은 맑아 새들은 본성을 따라 재잘거리며, 산기슭에 있는 연못의 그림자는 나의 마음을 비우게 한다. 습지에는 봄꽃들이 고개를 든 채 피어있고, 민들레는 지천으로 들녘에 피어 눈빛을 시원케 하고, 산기슭에 노란 개나리와 붉은 철쭉은 힘껏 혈기를 발산한다. 언덕

에 매실나무는 꽃눈이 햇빛 바라보며 봄맞이 채비를 한다. 산천에 붉은 색으로 물들어 가는 이 광경을 까치 한 마리가 나무 끝에 앉아 사색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둠 속 저 너머에서 있는 산들이 서서히 무겁게 보이고 아직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연녹색의 하늘에서 제비들이 날개를 펴고 나타나서 산책을 한다. 나는 현실을 바라보며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다. 인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때로는 망각 속에서 침울했던 것을 덧없는 삶의 길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때로는 침몰하거나 불안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덧없는 삶의 길에서 다시 긍정적인 것에 남아 있는 걸음을 찾아 가기 위한 것이다. 우리 주위에 연초록 새순이 돋고 물안개 피어나며 갯버들이 꽃을 피워 나비들이 찾아드는 삶의 형상은 누구나 바라는 희망이 아닐까 생각한다. 얼마나 생동감이 넘쳤으며 사람들의 눈망울들이 사랑스러움으로 얼마나 자주 보아 왔던가?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는 지금 이 순간도 기쁘기만 하다.

이제 계절의 변화 속에서 노년에 이른 내 자신이 살아가면서 내면에 여러 충돌의 억압된 감정과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은 외부 세계에서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내 주위에서 번지는 사회적 현황들이 나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현실을 피할 수 없는 복잡한 도시생활을 여러 사람들 틈에서 생존 경쟁을 극복하며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스쳐 가는 바람처럼 덧없는 세월의 기억 속에서 현실이란 냉엄한 깨달음이 내 가슴 속에 혈관처럼 흐

르고 있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 드릴 것이다.

나는 바람처럼 왔다 가는 나그네 길에 이루지 못한 생각과 일들
봄맞이에 후회와 아쉬움을 떨어버리고 가벼운 가슴으로 옷깃에
묻어 있던 분진까지 털어버리고 밝은 빛으로 봄맞이하리라.

오늘은 또 어떤 추억으로 남을까

명인숙

부고를 받았다. 시댁 숙부님의 부고였다. 숙부님은 뻗속까지 유교적인 분이셨다. 시아버님의 유일한 동생이고 시댁 어른들 가운데 가장 큰 어른이셨다. 2024년 올해 93세이지만 불과 두 달 전 요양병원에서 났 때는 걸음이 불편한 것 말고는 너무도 건강해 백세까지는 무난히 사실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폐렴이 와 사흘 만에 운명하셨다는 소식이었다.

45년 전 내가 결혼하던 그해가 떠올랐다. 결혼하고 한 달여 만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오랜 지병으로 고생을 하셨고 결혼식 당일에는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예식장에 오셨다. 우리가 신혼여행



| 명인숙 |

- 2014년 <문학도시> 수필등단.
- 부산문인협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문학중심작가회 회원.
- 한국해양문학상 최우수상.
- 수필집 『가벼움으로 가는길』, 시집 『오래된 길을 걸으며』 출간

을 다녀온 다음 날 큰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제 갓 결혼한 막내며느리인 내가 간병을 맡아야 할 형편이었다. 아버님은 72세였고 간암 말기였다. 약이 더 이상 반응이 없다며 수술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수술을 했지만 열흘 만에 돌아가셨다. 입원한 지 한 달만이었다.

내가 결혼하여 아버님을 모신 것은 한 달간의 병원 생활이 전부였다. 생전 처음 경험하는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이기도 했다. 병실에서 날마다 가까이 대면해야 하는 아버님이 어렵기도 했지만 병원의 각종 냄새 때문에 처음 며칠간은 음식을 먹지 못했고 잠도 잘 수가 없었다. 그런 데다 경상도 사투리가 심한 아버님의 말씀을 충청도 출신인 나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해 찢찢떨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옆에 계신 환자분들이 통역을 해주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나가자 병원 냄새와 병원 생활에 적응이 되어갔다. 밥도 잘 먹기 시작하고 침대 옆에서 잠도 잘 잤다. 어렵기만 했던 아버님과도 가까워졌다. 친정아버지를 대하듯, 아버님의 얼굴, 몸을 닦아드리고 침대 곁에 앉아 농담을 할 정도로 친해져 있었다.

의사들은 자극적인 음식을 먹이지 말라고 했지만 평생 짭조름하고 매콤한 음식들을 드신 아버님은 식사 때마다 반찬이며 국이 싱거워 못 먹겠다며 고추장이 먹고 싶다고 했다. 나는 식사를 잘해야 수술을 해도 회복이 빠를 것 같아 매점에서 고추장을 사다가 사물함에 숨겨놓고 식사 때마다 간호사들 몰래 밥상에 올려 드렸다. 그런데 수술 후에는 미음만 겨우 드시다가 돌아가셨다. 결혼하자마자 절박한 인간의 최후를 경험한 나는 장례를 치르는 동안 허전

함과 허무함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너무나 일찍 인간의 종말을 봐 버린 것이다.

일 년 후, 추운 겨울 정월 초여드렛날 아버님 첫 기일이 되었다. 아버님의 고향인 청도에서 아버님 동생 숙부님이 오셨다. 목소리며 말씨가 아버님과 흡사했다. 아버님을 뵈는 것만 같았다. 숙부님과 아버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나절을 보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밤 11시쯤이 되자 숙부님은 준비해 오신 검정 두루마기를 갖춰 입으시고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 큰방으로 오셨다. 손에는 검정 두건이 들려 있었다.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들 놓는 위치를 어육동서니 홍동백서니 하시면서 일일이 지도하시고 제주인 시숙과 남편에게 잘 봐 두라고 일렀다.

자정이 되자 향을 피우고 시숙과 남편이 숙부님과 함께 왕골 돛 자리를 깬 제사상 앞에 나란히 섰다. 시숙이 먼저 잔을 들어 술을 올리고 절을 두 번 한 후에 밥과 탕을 올렸다. 그리고 세 분이 나란히 서서 절을 두 번 하셨다. 숙부님은 절을 하실 때 옷깃을 여미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엎드리셨다. 그리고는 한참을 그대로 계셨다. 시숙과 남편이 일어나려고 고개를 들다가 계속 엎드려 있는 숙부님을 보고 놀라 다시 엎드리는 동작을 두어 번 한 후에야 숙부님은 천천히 일어나 허리를 굽혀 반 배를 하셨다. 그런 다음 반찬 위에 놓여있는 젓가락을 산적과 생선, 나물 등으로 옮기셨다. 조카들이 차례로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는 동안 숙부님은 조용히 서 계시다가 다시 젓가락을 다른 음식으로 옮기며 “형님, 골고루 많이 드시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카들에게 “고인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지 제사상 앞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일렀다. 숙부님은 그렇게 제사를 지도하면서 큰절을 한 자세로 돛자리에 두 손을 모으고 엎드려 계시다가 고인이 음식을 골고루 다 흠향했다고 생각이 될 때쯤에야 조용히 일어나 음복을 하신 후 제사를 마쳤다.

그 후로도 숙부님은 20년간 아버님 제사에 빠진 적이 없었다. 아침 일찍 집에서 버스를 타고 청도역으로 오셔서 기차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하면 시내버스를 타고 해운대역에 내리셔서 10여 분을 걸어야 제주인 시숙 집에 당도할 수 있었다. 45년 전의 교통 사정으로는 꽤나 먼 길이였다. 해마다 거르지 않고 다닌다는 것은 정성 그 자체였다. 그렇게 어렵게 오신 만큼 제사에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으셨다.

그런데 큰집의 유일한 아들인 조카가 결혼을 하고 제사에 합류하면서 웃지 못할 일이 생겼다. 워낙 천성이 밝고 부지런한 조카는 평소에도 항상 웃는 얼굴이다. 그런 성격 탓인지 엄숙한 제삿날 숙부님이 오랫동안 엎드려 있는 것을 인내하다 못해 살짝 고개를 들고 옆을 보다가 킁, 웃어버렸다. 웃음소리가 입 밖으로 터지기 전부터 조카는 검은 두루마기에 검은 건을 쓰고 계신 숙부님을 보고 웃음을 참느라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킁, 소리가 나와버렸고, 그건 조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다. 바로 옆에 있는 막내 삼촌(조카의)인 남편에게 전염이 되었고, 그 옆에 엎드린 시숙에게도 전염되었다. 남편과 시숙님도 웃음을 참느라 무척 애를 쓰고 있는 와중에 숙부님이 일어나면서 큰 기침을 했다. 제사가 다 끝난 후 숙부님은 엄한 표정으로 “곡을 해

야 하는 아버지 제사에 웃음이라니.”하면서 꾸중을 하셨다.

해마다 제사는 돌아왔고 해마다 숙부님도 오셨다. 그리고 조카는 해마다 웃음을 참지 못하고 여전히 킁킁대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남편도 시숙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유교적 전통을 고수하는 숙부님도 나중에는 엎드려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셨다.

숙부님은 그렇게 꼬박 20년을 다니셨고 아버님 제사는 엄숙하게 시작해서 웃음으로 끝이 났다. 그리고 숙부님도 연세가 드셨고 쇠약해지셨다. 몇 년 전 제주인 시숙이 돌아가시고 이어서 시숙의 유일한 아들인 조카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제사는 시숙의 손자에게 넘어갔다. 사실 우리 가정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데, 그동안 제사에 참석하여 절을 올린 것은 단 두 형제가 제사를 놓고 종교를 앞세워 부모님 제사에 불참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막내인 남편은 형님이 하는 대로 따랐었다.

그런데 지금은 시숙도 조카도 다 고인이 된 탓에 우리가 집안 어른이 되었고 결정은 우리가 하게 되었다. 우리는 질부와 손자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공원묘원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기로 했다.

이제 고인이 되신 숙부님은 만나 뵈 수 없지만 정성을 다한 제사에 대한 기억과 말씀들은 가슴속에 남아 있다. 남편과 나는 대구 장례식장에서 화장장으로 다시 대전 현충원까지 함께 하면서 숙부님의 마지막 길을 그리운 마음으로 배웅해 드렸다. 웃음이 번지

던 제사와 한데 어울려 먹던 나물 비빔밥의 기억은 이제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된 듯하다. 오늘을 사는 삶도 언젠가는 또 다른 추억으로 떠오르리라. 오늘을 산다는 것은 추억을 만드는 일이 아니고 무엇 이랴.

큰외숙모 김종필 권사님 외 1편

박희두

지난여름 긴 무더위로 고생을 많이 한 우리에게 계절은 정직하게 돌아와 우리는 선선한 가을을 맞이했다. 참 좋은 계절이다. 아침 6시경에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해운대 아텔리스 아파트 25층 바닷가에 멀리 동해바다에 해가 이미 붉게 물 위로 떠 오르고 있다.

방금 짐에서 깨었다. 나이가 드니 방광이 약해져 밤중에 잠이 깨어 소변을 보고 또다시 잠이 들어 새벽에 잠깐 잠을 잤다. 그리고 새벽에 잠을 자는데 이때 꿈이 잘 꾸인다. 오늘 아침에 나는 참 오랜만에 큰 외숙모님의 꿈을 꾸었다. 옛날 어린 시절에 내가 보던



| 박희두 |

- 1997.1 월간 《문예사조》 수필등단
- 대연교회 장로
- 부산성소병원장
- 수필집 『사과나무과수원과 아이들』

모습 그대로 서 계셨다.

수수한 옷을 입으시고 옆 모습으로 서 계시는데 어떤 표정도 보이지 않으시고 말없이 저쪽을 보고 계시는 모습을 꿈에서 잠깐 본 것이다. 참 이상하다. 갑자기 큰외숙모님께서 오늘 아침 오랜만에 나의 꿈에 보이시는 걸까.

그리고 나는 평상시와 같이 병원으로 출근을 하고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 퇴근을 했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하루종일 나의 마음속에 꿈속의 큰외숙모님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나에게 오신건 아닌지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는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하루가 지나갔다.

나는 외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릴 때 나를 키우신 분은 아버지 어머니와 큰외삼촌 외숙모께서 키우신 거나 다름없다고 늘 생각하며 살아왔다. 내가 어릴 때 외가에 가면 참 잘해 주셨다. 외가는 큰 기와집이 3채나 되었으며 들어가는 문이 3개였다. 외가에 가면 음식이 풍부했다. 광에 들어가면 미짚이 있었다. 70년 전 당시에 우리나라에 밀감은 없었고 극히 부유층에서만 일본에서 수입한 미짚을 먹곤 했다. 언젠가 한때에 우리집 과수원의 탕자나무 울타리 사이에서 잡은 장끼 꿩 한 마리를 외숙모님께서 요리를 하여 꿩고기 만두를 만들어 주셔서 온 식구들이 참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나기도 한다. 큰외숙모님의 장남이 옛날에 대구고보를 다니셨는데 내가 경북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그 후배가 되었으니 나를 더욱 좋아하신 지도 모르겠다.

많은 세월이 흘러 큰외숙모님이 이 세상일을 다하시고 하늘나

라로 가실 때 부산 대연동의 우리병원 7층에 입원하여 계시다가 조용히 천국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또 많은 세월이 지나 오늘 아침 나의 꿈에 나타나신 것이다.

큰외숙모님은 기독교 신앙인으로 믿음이 참 좋은 분이시다. 봉계교회에서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오셨으며 평생 새벽기도제단을 쌓으신 분이다. 항상 기뻐하시며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자녀들 모두 훌륭히 키우시고 헌신하시며 살아가신 믿음의 표본으로 살아오신 분이다.

큰외숙모님은 봉계동네 양반 가문이신 오한근 진사님의 큰 자부되시며 구한말기 경북 김천 금릉의 대지주이신 부호 가문이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 외가는 지역의 세도가이었으며 자녀들이 일본에서 그리고 경성에서 모두 공부들을 하셨다.

큰외삼촌께서는 일본 와세다대학을 졸업하셨고 작은 외삼촌께서도 일본대학을 나오셨다. 그리고 그 자녀들 후손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오늘 아침 나의 꿈에 나타나신 큰외숙모님 김종필권사님의 기도의 힘은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오늘 아침 꿈을 꾸 나지신도 큰외숙모님 김종필 권사님 기도의 후원으로 자라난 장본인이다. 내가 어릴 때 봉계교회의 뜰을 밟으며 자라나고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것도 외숙모님 기도의 영향이다. 작은 믿음이지만 나는 지금도 피묻은 예수님의 십자가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고 대연교회 원로장로로 교회 봉사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가.

이제 머지않아 나도 저세상에 올라가면 큰외숙모님 김종필권사
님 뵈게 될 텐데. 만나면 반갑게 인사드리고 얘기 나누며 어릴 때
평양고기 만두 얘기도 들려야겠다. 올해 가을 좋은 계절 오늘 아침에
잠간의 꿈속에서 큰 외숙모님을 뵈게 하시고 다시 옛날을 기억하
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린다.

학창 시절 축구와의 인연

경북 김천의 봉계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지금도 큰 나무가 한그루 서 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큰 나무였으니 아마 지금은 나무의 나이가 100년은 훨씬 넘었을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에 나는 운동장에서 뛰어 놀면서 볼을 차곤 했는데 내가 찬 볼이 나무의 높이 끝까지 올라가니 친구들이 보고 “와” 하고 놀라곤 했다.

내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체육시간에 조종욱 체육선생님께서 내가 공을 차는 모습을 보시더니 나에게 축구부에 들어오라 하시며 축구부 유니폼과 축구화를 제작하라 하신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뻐 쾌재를 부르며 좋아했다. 그런데 내가 성적이 좋아서인지 입학년 4반 반장으로 선출되니 축구부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나는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반장을 맡아야 했다. 중학교 3년 동안 공부를 잘하고 대구로 내려가 경북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원래 형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나도 서울로 올라가

려했으나 3학년때 5.16혁명으로 타 시도에 가지 못하게 되어 대구로 갈 수 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서는 나를 공부 잘하는 경북고에 입학하게 하시고 또 내가 좋아하는 축구도 하게 하셨다. 고교 반 편성을 하는데 한 반의 바로 앞번호 박태운이를 만나 한자리에 앉게 하셨다. 포항 출신인 태운은 나보다 공을 더 잘 차는 축구선수였다. 우리는 일학년때 학교 수업 7시간을 다 마치고 남는 시간에 넓은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볼을 쳤다.

볼 차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였다. 나와 태운을 중심으로 자연적으로 축구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내가 주장을 맡게 되었다. 당시 손호근 김유돈 박환규 세분의 체육선생님이 계셨는데 선생님들께서 모두 좋아하셨다.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여름 방학 때에 포항 태운이 집 고아원의 강당과 바로 옆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일 주간의 친목 합숙훈련을 하였다. 이때 김유돈 체육선생님도 학생들과 함께 합숙 생활을 하셨다. 당시에 찍은 사진이 생생한 기억들을 돌아보게 한다.

당시에 함께했던 축구선수들은 센터퍼드 이동욱, 그와 함께 뛰던 안창수 최석범 등이 참 잘 하였고 박태운은 양발이 가능하여 좌우 날개(윙)를 맡았으며 나는 링커로 센타 윙을 맡았고 최국현이 수비로 풀백을 맡았다. 윤창준과 최익환이 함께 잘 뛰었으며 전선봉 박동열 그리고 후배들도 몇 명 함께 했다. 골키퍼로 나채수 정상용 등이 함께 했으며 한 해 선배인 유순화 선배가 윙을 맡기도 하고 또 한 해 선배 경주의 정수성 선배(나중에 육군대장)가 수비

를 맡아 뛰기도 하였다. 이들이 경북고의 축구부 멤버들이었다.

경북고등 축구부가 공식적인 시합에 나가 경기를 하게 되면 앞에서 센타포드가 잘 몰고 나아가 상대방 골대에 골을 넣고 우승을 하곤 했다. 그래서 경북고는 머리가 좋아 머리로 축구를 한다는 얘기가 소곤소곤 들리기도 했다.

언젠가 우리는 경상북도 체육대회에 나가서 고등부 축구우승을 하였다. 손호근 체육선생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다. 우리 선수들은 선생님의 안내로 대구에서 제일 좋은 불고기 식당에서 실컷 먹게 해주셨다. 당시에 나는 불을 차고 운동을 많이 하였기에 하체근육이 발달하여 하체가 남달리 굵어 나의 별명이 “하체”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한평생을 살고난 지금도 나는 하체 근육이 좋다.

그런데 지금 그때 함께 운동했던 선수 친구들 가운데 이미 저세상으로 간 분이 다섯 명이나 된다.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운동했던 태운이도 벌써 하늘나라로 가신 지가 오래 되었다. 학창 시절에 운동을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세상에 흩어져 뿔뿔이 살았고 이제는 다들 만나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둘 하늘나라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날 수는 없지 않은가.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친구들 모여 축구시합을 할 수는 없을까.

나의 옛집

성 윤 자

마른 풀들의 세상이다.

봄과 여름 언제라도 이곳에 오면 아무렇게나 돌아나는 들풀을 보이는 대로 뽑았다. 한여름 무더위를 피하느라 시골에 오지 않은 동안 쭉쭉 자라난 들풀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옛집의 온 마당을 덮었다.

어머니 살던 옛집은 마을에서 가장 좋은 터에 자리한다. 시골에 있다는 이유로 발걸음이 뜸했던 게 미안해진다. 더구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로 기거하지 못했으니, 집이 말할 수 없이 외로워 보인다.



| 성윤자 |

- 경남 하동 출생
- 2003년 『한맥문학』 시 등단, 2016년 『문학도시』 소설 등단
- 2017년 『크리스천문학』 수필 등단
- 한국문인협회, 부산문인협회, 김해문인협회 회원,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
- 김해중앙교회 권사(현)
- 시집 : 『옛집에서의 하루』 외 4권

도시에서 나와 살면서 지나온 세월 동안 수만 번도 더 오갔다. 마음은 언제나 자유로이 옛집을 오가건만 실제로 몸이 방문하는 것은 일 년에 몇 번 정도다. 오순도순 살던 식구들이 하나 둘 집을 벗어나 뱀 허물 같이 되어버린 나의 옛집, 연락도 없이 찾아가면 언제나처럼 반갑게 맞아주셨던 어머니가 한평생 기거하시던 정겨운 집. 흘러버린 세월은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 뒤란을 돌며 아무리 찾아봐도 들플만 수북할 뿐, 내 어머니는 찾아볼 수 없고 손때 묻은 살림 도구만 먼지를 가득 덮고 변해가고 있다.

어머니 계실 때 사용하던 살림 도구도 모두 제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다. 방금 어머니가 만진 듯 온기가 남아 있을 것만 같다. 문짝이 덜커덩거리는 빗바랜 싱크대, 옆구리가 터져버린 대바구니, 흙먼지 한 잎 가득 머금은 돌절구통이 보인다. ‘福’이 새겨진 투박하고 큰 밥그릇은 방금 설거지를 마친 것처럼 차곡차곡 포개어 싱크대 안에 있다.

집 모퉁이 장독대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가 즐비했다. 그런데 차츰 개수가 줄어든다. 흙으로 빚은 항아리를 쓰지 않고 오래도록 텅텅 비워 놓으니 저절로 터져 사금파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집도 항아리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생명이 다해 흙으로 가는 항아리들은 아깝지만 버릴 수밖에 없다.

요즘 시골길은 어디나 깨끗한 포장길이라 자동차가 옛집 대문 앞까지 들어올 수 있다. 옛날에는 이곳에 오는 길은 매우 험했다. 흙먼지 휘날리는 비포장길을 달리는 버스를 오래도록 타야 했고, 버스정류장에 내리면 신발이 닳도록 좁고 먼 오솔길을 걸어야 했

다. 전화도 없던 그 시절부터 그렇게 멀고 거친 길이었지만 수만 번을 오고 가도 싫지 않은 고향길이다.

오늘 같은 어느 가을이었다. 마을 이장님 댁에만 전화가 설치되어 있었다. 전화를 직접 바꿀 수는 없었지만, 내가 어느 날 도착하겠다는 연락은 전할 수 있었다. 그날도 이장님 댁으로 내가 부산에서 출발한다는 연락을 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나섰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서너 번이나 갈아타고 좁고 먼 오솔길을 작은 아이는 업고 큰아이는 걸리고 옛집에 도착했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팔을 걷어붙이고 가스레인지 앞에 기대어서서 토란국을 끓이고 계셨다. 여러 가지 양념을 넣지 않고 개운하게 끓인 어머니표 토란국, 그날의 아련한 맛을 오늘까지 잊지 못한다.

어느 해 늦여름에는 부산에서 아침에 출발하여 오후가 되어서야 시골에 도착했다. 그날은 유달리 배가 고팠다. 손가락 크기만한 자잘한 보랏빛 옥수수를 한 바구니에 삶아 마루 끝에 놓고 어머니는 딸을 기다리고 계셨다. 배가 몹시 고팠던 나는 바구니에 수북한 옥수수를 보자마자 쉬지 않고 먹어댔다. 먹고 먹어도 입맛이 당겨 손을 놓을 수 없었다. 배부른 느낌도 모르고 원 없이 먹고 말았다. 그날 밤 배가 너무 불러 소화하느라 고생했다. 도시에서 느끼는 허기를 그렇게 옛집에서 채웠다.

한세월의 추억을 간직한 옛집! 나를 키워낸 옛집이라는 허물을 벗고 나는 도시의 삶을 이어간다. 들풀이 엉금엉금 제멋대로 기어 오르고 황토벽이 허물어져 가는 사랑채에는 옛 친구들이 도란거리는 얘기 소리도 들을 수 없다. 기웃거리는 들풀만 깨어진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제집처럼 자라고 있다. 들풀에게 옛집을 내어주고 나를 키운 옛집의 어머니와 파스한 지난날을 되새김한다. 잠시라도 도시를 떠나 쉼을 찾고 잊고 있던 나 자신도 찾을 수 있는 곳, 언제나 그리운 나의 옛집이다.

감정이란 날개

손정란

집 부근, 북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렸다. 30분 늦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기다리면서 눈에 띄는 몇 권의 책을 샀다. 1시간 늦게 도착한 친구는 “오늘 점심은 내가 살게. 우리 짜장면을 먹을까, 아님. 냉면 먹을까,” 기다림에 지친 나는 속으로 투덜거리며, 냉면 집으로 향했다. “우리, 함흥식으로 할까, 평양식으로 할까.” 선택의 갈림길에 서니, 선택하기조차 쉽지 않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택장애’란 용어가 있다. 선택을 해야 할 때 망설이기만 하고 어느 것



| 손정란 |

- 부산출생.
- 부산크리스천전문인협회 회원, 새부산시민협회 회원
- 그림나무시문학회 회원, 노마드문학회 동인
- 부산재능시낭송협회 회원

도 선택하지 못하는 일이다. 비슷한 용어로는 ‘결정 장애’이다. 결정 장애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지나치게 오래 생각하며 결정하는 행동이나 태도이다. 결정에 대해 두려워하며 불안을 느끼는 모습, 정작 정해야 할 때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일이다. 결정 장애는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정 장애’보다는 ‘선택 불가 증후군’이 더 나은 표현이다. 결정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정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비스듬히 해변이 보이는 우리 집 창가에 앉았다. 북 카페에서 산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을 펼쳐 들었다. 쉽고 흥미롭게 풀어나간 책이다. 감정 상담 전문가인 함규정 박사. 메릴랜드 대학교 비즈니스 경영대학원에서, 교환교수로 조직 내 감정 관리법을 연구한 분이다. 코칭이란 고객의 개인적, 전문적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감을 불어넣고, 사고를 자극하는 창의적인 프로세스이다. 그 과정 안에서 코치와 코치인(고객)이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수평적 파트너 쉽. 코치의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에 도달하도록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코칭이 붐을 일으킬 시점에, 나는 3년간 한국코칭센터에서 ‘비즈니스 코칭’ 전문가 코스와 연세대 신학 대학원 ‘목회자 코칭’ 코스를 거쳤다. 그 이후 전문가로서 입지를 다져, 다년간 기독교 코칭 분야에서 활약해 왔다.

코칭은 질문법이다. 감정 코칭에서 말한다.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여 감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내가 감정적이었다면, 모든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감정을 받아들이고 허용해 보라. 이성적인 사람은 의사 결정을 하거나 행동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해, 일을 그르치지 않는 합리적인 인간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감정과 이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쉽게 지친다. 마치 균형 잃은 두 쪽 날개 가진 새와 같다. 마찬가지로 감정이 이성적 판단을 지배하면, 우리 삶에서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사람의 감정은 다채롭다. 자신의 감정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인지해야 한다. 타인과 어울려 사는 사회 속에서 부대끼는 우리들. 우리는 기쁨, 슬픔, 분노, 불안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한다. 자라온 배경, 학식 등등, 각기 다른 특성이 있어 생각의 차이도 다르다. 우리 중에는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감성적인 사람, 냉소적인 사람, 예민한 사람도 있다. 가장 무난한 사람은 무뎠한 사람으로, 희망이 가득 찬 밝은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감정이 정서적으로 힘들게 만들어, 감정이 곤두박질쳐 깊은 바다로 빠지기도 한다. 누구나 예외는 없다.

최근에 접한 책은 ‘마음 건강 처방전’인 『상처 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와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이다. 저자는 정신과 의사이면서, 풀러 신대원에서 신학을 전공했다. 당시 그녀가 미국

에서 다니던 신학대학원에는 신학부, 선교학부, 심리학부가 있었다. 심리학부와 신학부 간의 긴장이 늘 팽팽했다. 심리학과 신학이 상담 현장에서 서로의 이론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치유의 핵심인 복음, 즉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새벽기도 시간,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들을 본다. 눈물로 부르짖을 때 깊은 기도가 시작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꺼내놓고도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을까.” “주님, 제가 하는 상담학에 주님의 보혈이 없습니다. 보혈이 그냥 버려지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공감이 되는 그녀의 고백이다.

그녀의 병원에 찾아온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은,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잠든 다음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어요.” “어딘가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표현한다. 그리고는 누워서 잔다. 우울증의 증상은, 잠이 안 오는 사람도 있지만 종일 잠만 자는 사람도 있다. 우울증이란, 신생아 같다. 먹고 자고 눕고 싸기를 반복한다. 이럴 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일단 내버려둬야 한다고. 지나친 감정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진다. 지금이 감정적 상태라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라. 한 발짝 뒤에서 내 감정을 지켜볼 수 있고, 감정적 사고를 잠시 멈출 수 있다. 만약 참을 수 없는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땐, 숨을 깊게 들이 마시며 조절하라. 그러면 긴장이 풀리고 감정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조언한다.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까. 감정적인 사고는 지나친 것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나 적정 수준이라면, 우리의 성격을 풍요롭게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감정이 힘들 때 눈물을 아끼지 말자. 하나님 자녀인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귀하다.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다. 눈물은 감정을 정화한다. 흘린 눈물만큼 상한 우리 마음은 치유를 가져오며, 독소도 빠져 나온다. 정체성을 찾기 위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본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변화와 성장이 시작된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고삐와 복숭아 회초리 의 1편

이 준 우

가을로 접어드는 9월의 첫날 새벽, 문득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그 시절 나는 아버지를 따라 농사를 도우며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황소와 함께했던 일화는 오래도록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다. 덩치가 나보다 열 배도 넘는 큰 황소는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소의 고삐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는 자기 뜻대로 움직였고 나는 그저 끌려 다니기만 했다.

콩밭을 지나칠 때면 황소는 어김없이 그곳으로 들어가 콩을 뜯어 먹었고, 마을 제방에 암소가 있으면 그쪽으로 나를 끌고 갔다. 그때 나는 황소에게 이끌려 다니는 내 모습이 마치 내가 아닌 황소



| 이준우 |

- 경남 함천 출생
- 2014 문예시대 시 부문 신인문학상
- 2023 상반기 크리스천문학 수필 부문 신인문학상

가 나를 길들이는 듯하다고 느꼈다.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어린 나는 속수무책이었다.

어느 날, 누나가 소에게 쌀 씻은 물을 주려고 다가갔다. 그런데 황소는 갑자기 누나를 밀어 넘어뜨리고 덤벼들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고삐를 단단히 당겨 상황을 제압하셨고, 곧바로 복숭아 회초리를 꺼내 누나에게 소의 주둥이를 때리라고 하셨다. 누나는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지시대로 소의 주둥이를 몇 번 때렸다. 그 이후로 황소는 누나의 말을 순순히 따르게 되었다.

이 사건은 나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다.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고삐를 바짝 잡고 복숭아 회초리로 주둥이를 때려라.” 아버지는 복숭아 회초리가 귀신도 쫓을 만큼 강력한 아픔을 준다고 하셨다. 복숭아 회초리는 그저 회초리가 아니라, 자연을 넘어 인간과 신을 잇는 도구와도 같았다.

얼마 후, 황소가 다시 콩밭으로 나를 끌고 갔다. 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고삐를 나무에 단단히 묶고, 복숭아 회초리로 소의 주둥이를 세차게 때렸다. 처음엔 눈을 희번덕이며 반항하던 소가 회초리를 몇 대 더 내리치자 이내 순순해졌다. 그때 나는 비로소 인간의 지혜와 도구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다.

황소는 자신의 힘을 믿고 나를 얽잡아 보았지만, 그 힘은 결국 한계를 가졌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인간이 단순히 힘으로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도구와 지혜를 통해 그 관계를 조율한다는 사실이었다. 이 경험은 자연스레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이집트의 바로 왕도 자신의 권력과 힘을 믿었지만, 그 역시 창조주

의 지혜 앞에서는 무력했다.

이집트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자연에 내린 재앙을, 단순한 자연 재해 현상으로만 여겼다. 신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그의 무지는 결국 자신과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신에 대한 그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끈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힘을 과신할 위험에 처해 있다. 하지만 그 힘은 결국 제한적이며, 겸손과 지혜가 없는 교만함은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

아버지의 복숭아 회초리는 단순히 소를 길들이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깨달음의 상징이었다. 그것은 자연을 다스리고자 했던 인간의 지혜를 상징하며, 동시에 인간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이기도 했다.

어린 시절 황소와의 일화는 단순히 힘을 겨루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며 맞닥뜨릴 수많은 도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 즉 지혜와 겸손을 상징한다. 우리도 창조주의 섭리를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몸과 마음의 대화

어느 날, 몸에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꼈다. 평소에는 당연히 여겼던 몸이 처음으로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왜 아프지?’라는 질문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의사를 찾아가 진단받고 치료를 해도 결과는 흡족하지 못했다. 병명은 나왔지만, 그 원인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을 줄은 몰랐다. 몸의 고통을 겪으면서 나는 비로소 몸과 마음의 밀접한 연결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의 몸은 하나의 시와도 같다. 그 시는 세포들이 협력해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건강한 몸의 세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수행하며 조화롭게 상호작용을 한다. 이들은 서로 돕고 존중하며 정돈된 질서를 유지한다. 하지만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면 이 시는 서서히 흐트러진다. 마치 암세포가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만을 위해 자라나는 것처럼, 마음의 혼란이 몸을 병들게 한다.

처음 자율신경실조증이란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단순한 신체적 문제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신경세포 간 협력과 질서가

깨진 결과였다. 마음의 뜻을 읽는 면역세포들이 몸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세포를 공격한 것이다. 의사는 외부 요인인 스트레스를 이야기했지만, 내면 깊숙이 숨겨진 마음의 혼란도 그 원인임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의 몸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고, 그 결과가 신체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최근에 와서 나는 몸과 마음의 연결성이 얼마나 깊은지 새롭게 깨달았다. 한때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유전자조차 우리의 생활 습관, 그리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마치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내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잃었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스트레스와 갈등에 지친 마음이 쌓여가면서 몸이 나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냈지만, 나는 그것을 무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큰 병을 진단받았다. 몸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혹독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병을 단순한 신체적 문제로만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병은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몸의 세포들처럼 인간관계도 협력과 조화가 필요하다. 세포들이 서로 배려하고 상호작용해야 건강이 유지되듯,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아야 한다. 그러나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나의 인간관계 역시 불균형을 보였다. 갈등과 오해가 생기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다. 나는 비로소 몸의 세포들이 혼란에 빠질 때, 그것이 단순한

신체적 이상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마음의 건강이 몸을 좌우하고, 또 그 몸이 내 삶을 만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내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용서와 사랑의 힘이다. 용서는 단지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 감정은 나의 몸에,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내가 내면의 갈등을 풀고 진정으로 나 자신과 타인을 용서했을 때, 내 몸 역시 반응했다. 나의 병은 단순히 물리적인 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 내가 마음을 치유했을 때, 몸도 치유되기 시작했다.

몸은 마음의 거울이다. 내면의 갈등이 쌓이면, 그것은 세포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반대도 성립한다. 마음을 평화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면, 몸도 그에 따라 회복된다. 실제로 태교의 중요성도 여기에 있다. 마음이 평온한 부모의 아이는 그 순간부터 건강하게 자라난다. 나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다. 과거에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이 아이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자주 자가면역 질환을 겪는다. 이는 우리의 몸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병이다. 나 역시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큰 스트레스가 나의 면역체계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병이 발병했다. 마음을 돌보지 않고 쌓아둔 스트레스가 결국 나의 몸을 망가뜨렸다. 그 과정에서 나는 병원에서 신체적 치료는 받을 수 있었지만, 진정한 치유는 내 마음을 바로잡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몸과 마음을 소중하게 다루려고 한다. 몸이 보내는 신

호를 단순히 무시하거나 넘기지 않는다. 몸의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그 원인을 마음에서 찾으려 한다. 몸은 더 이상 단순한 신체가 아니라, 나의 감정과 생각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몸과 마음이 대화를 나눌 때, 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선택한다.

이제 나는 몸과 자주 대화하려 한다. 몸이 아플 때, 나는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본다. 몸은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에, 내가 내면의 갈등을 풀고 사랑과 용서를 선택할 때, 몸도 그에 반응하며 건강을 되찾는다. 그렇게 나는 몸과 마음의 조화를 다시금 배워가고 있다.

내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

전진경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변해도 너무 변했다. 교육, 정치, 과학, 예술, 문학 등등 모든 것이 우리의 자녀 세대는 우리 세대와 너무 다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거침없이 다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형편이 되든 안 되든 다 할려고 덤빈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오십 년 육십 년 살았으니 변했겠지 생각 하면 그만이지만 기상천외하게 자기중심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살아가니 할 말이 없다. 요즘 세대는 이혼을 너무 쉽게 한다. 자기 생각과는 달리 시집이 마음에 안들거나 남편이 마음에 안들면 이혼한다. 부끄러움도 없다. 우리 때는 결혼 하면 시집에



| 전진경 |

- 2001년 《문학과이식》 등단
- 모시울회원, 부산수필회원, 부산문인협회원
- 부산진구청명예예술학교장, 새시대문학회원 부전교회 은퇴권사

대를 이으며 오직 그 가문을 위해 죽을 때 까지 참으며 그 참음 속에 인생을 배우며 익히며 자녀를 양육 하며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형식상 양가지만 둘만 결혼 하며 둘만 뜻이 맞으면 살고 안 맞으면 자식 양육권을 쉽게 포기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을 위해 어머니는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다르다. 아기를 낳고 이 아기를 서툰 남편에게 맡기는 것조차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요즘 백화점에 가 보면 젊은 엄마는 빈손에 자기 핸드백만 들고 젊은 아빠는 아기를 들쳐 매고 배에 거꾸로 매고 아기는 손 발을 흔들흔들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닌다. 우리때는 아기를 등에 착 붙여 업고 기저귀 가방을 들고 저만치 빈 몸으로 앞서가는 남편 뒤를 늦을 세라 따라 갔었는데, 그 뿐 인가. 젊은 여자들의 거리낌 없는 옷 차림이든가 반쯤은 벗은 채로 배꼽을 내놓고 거리를 활보하며 마음껏 보라는 별의별 동작으로 춤추는 것을 쉽게 본다. 쉽게 노출되니 그렇지 않은 아가씨도 많겠지만 추세가 쉬운 여자 도매 값으로 넘어간다. 신문에 살살이 보도되는 정치꾼들의 이야기는 혐오를 넘어선다. 교묘한 말 재주와 자기 자신이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조차 점점 안된 요상한 이야기만 난무한다. 무섭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라고 보기에 너무 멀고 오직 정당 싸움뿐 인 것 같다.

확실히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 살며 음식은 넘쳐 나는 것 같은데도 남루한 옷차림의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 의 새벽 리어카에는 종이 박스가 쌓여 있다. 리어카 하나 가득 채워 팔아도 만원이 안된단다. 음식 쓰레기는 몇십만톤씩 나온다는데 굶은 사람들은 무료

급식소에 몰려온다.

그렇게 친하다고 껴안고 웃으며 사진 찍을 땐 언제고 죽고 나니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 무섭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는 여러 과목을 배운다. 국어 산수 지리 역사 생물 외국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과목을 배우는데 도덕 과목도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십 육 칠년을 공부 하지만 그렇게 공부한 사람의 생활 태도는 오직 돈을 버는데 모든걸 바친다. 살아남고 처자식을 먹고 입히고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게 번듯하게 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자기를 점검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값있게 살아야겠다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땀을 흘려 돈을 벌어야겠다는 정직한 마음과 남들이 밥 먹을 때 나는 죽을 먹어서라도 떳떳하게 자립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과연 몇 사람에게 있을까, 온통 사기꾼이 설친다. 다시 말해 도둑이 멀쩡한 옷을 입고 달콤한 말로 사람을 속여 돈을 빼앗는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묘한 말로 법을 떠든다. 사회는 이렇게 혼탁한 것 같은데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발전은 눈부시다.

광복 칠십구 년 동안에 우리 생활의 변화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친구가 나에게 보낸 유튜브에 나는 너무 감격해 적어 본다.

일본 속국에서 해방된 나라가 되었다. 왕정 국가에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햇바지 버선의 나라에서 신사의 나라가 되었다. 짚신 나라에서 신발 수출 일위의 나라가 되었다. 사랑방 글방 나라에서 세계제일의 문맹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유엔 도움으로 지킨 나라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가 되었다. 외화벌이

노동 수출국 나라에서 노동 수입국이 되었다. 송농 나라에서 커피 왕국이 되었다. 짐 보따리 나라에서 재벌의 나라가 되었다. 가마의 나라에서 자동차 천국의 나라가 되었다. 한길 나라에서 고속도로 천국이 되었다. 거북선 나라에서 선박수출 세계제일의 나라가 되었다. 대장간 나라에서 제철 왕국이 되었다. 오일장 나라에서 백화점 대형 마켓의 나라가 되었다.

비행기 없던 나라에서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다. 활 쏘는 나라에서 전차 대포 전투기를 수출하는 무기 수출 팔위의 나라가 되었다. 달을 보며 계수나무 부르던 나라에서 달을 탐색하는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가 되었다. 천막극장 나라에서 세계적인 영화배우와 케이 팝 스타를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마라톤만 일등 하던 나라에서 태권도 수영 빙상 골프 양궁 배드민턴 탁구 펜싱 야구등에서 일등하는 국가가 되었고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되었다. 국민소득 육십불 나라에서 삼만 오천불 세계가 인정한 세계십위 경제 선진국이 되었다.

참으로 우리 국민이 이렇게 위대한 국민인줄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자유 국가가 되고 나서 국민이 활개를 치며 교육을 받으며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외쳐 지면서 지금의 멋진 나라가 됐다고 강하게 생각이 든다.

성경 출애굽기 이십장 삼절에서 십칠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일계명에서 사계명 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가르침이 지만 오계명 부터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하지 말라 간음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 대학원 박사까지 자기 전공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지만 다 마치고 사회에 나와 맨주먹으로 인생을 시작 할 때에 자칫 물질에 유혹을 받기 십상이다. 이때에 교회에 나가 목사님이 힘껏 외치는 십계명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번씩 들어도 일년이면 선두번을 들으며 자기를 돌아 보며 값진 인생을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사회에 활동 하는 사람치고 공부 부족한 사람은 드물다. 그런데 왜 썩는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이다. 살아보니 내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은 목사님들의 외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행 하는 목사님의 진정한 십계명 외침이 우리사회를 정화 시키리라 확신한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자. 생명을 선물로 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시간은 나외엔 살아 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더 나아가 속이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두려운 것은 없다. 주님을 알자. 그 앞에 나갈 때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만 보며 살았습니다. 고백하자 그렇게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자 주님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헤어질 결심

최 방 식

헤어진다는 말만 들어도 분위기가 가라앉고 우울해 진다.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멀리 이사를 가도 정이 들어 헤어지기 섭섭하고 애석한 마음이 남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면 아름다웠던 추억의 상처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남아 있다. 아끼고 애정을 주던 반려견 같은 동물과 이별할 때도 그 아픔 때문에 한 동안 슬픔에 잠기기도 한다.

호흡하는 동물뿐만 아니다. 물건도 간혹 눈길이 가는 것이 있다. 평소에 꼭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없으면 아쉬울 것 같은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처분하려고 하면 서운해진다. 책장에 보지 않는 오



| 최방식 |

- 부산 남구 용당동 출생
- 2017년 『부산크리스천문학』 등단
- 2018년 『문학도시』 등단

래된 책들과 헤어져야 하는데, 못내 애석하여 들었다 놔다 하며 또 구석에 쌓아 놓는다. 옷과 잡동사니 물건을 정리하려고 옷장 문을 열어 놓고, 버릴까? 아깝다. 하며 다시 걸어놓고, 다시 끌려고 두었다가 결국 버린 적이 한두 번 아니다.

하찮은 물건도 가까이 두고 자주 사용하다 보면 친근함이 생기고 손때가 묻어 왓지 버리기는 아까워진다. 그래서 집엔 오래된 골동품들이 있나보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낡고 퇴색되면 언젠가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

멀쩡한 옷을 버리지 못하고 애물단지가 된 옷이 한 벌 있다. 이십년 가량 된 무스탕 외투다. 당시 꽤나 비싼 걸 누나가 선물로 사주었다. 지금까지 열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입었다. 날씨가 따뜻한 부산에서는 별로 입을 날이 없었고, 가벼운 패딩을 입다보니 무겁고 활동하기가 불편하여 거의 입지 않고 옷장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몇 년 전에 아내가 버리자고 했을 때, 누나가 사준 선물이라 차마 헤어지지 못한 것이 애물단지가 되었다. 입지도 않고 버리지도 못하고 옷장을 열 때마다 제일 큰 면적을 차지하고 걸려있다. 작년부터 나의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씩 이별을 하고 있는 중이다. 아깝지만 잘 입지 않아 이제 미련 없이 이 옷과 헤어져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우리 집 식탁위에는 내가 이 십년 넘게 관리해온 작은 수족관(어항)이 있다. 수족관이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물속의 전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참 보기가 좋았고, 집안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꾸

어 놓았다. 크기가 60*23*27인데 밝은 조명이 비치는 어항 속에는 산소 발생기가 기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수초와 양증맞은 작은집과 구조물 사이로 평화롭게 놀고 있는 물고기를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힐링이 되었다. 참 신기한 것은 수중의 물고기들도 끼리끼리 어울리고 노는 모습이다.

처음 몇 년간은 귀찮아도 수돗물을 하루 전에 받아놓고 매달 한 두 번 청소도 열심히 했었다. 수초가 가득했고 물고기가 제법 많이 있었다. 엔젤피쉬, 네온테트라, 성질 사나운 베타, 어항을 청소한다는 입이 아귀같이 생겨 항상 있는 듯 없는 듯 숨어있는 물고기도 있었다. 구뎀은 번식력이 강해 포화상태가 되어 여러 번 분가를 했다.

손자들이 오면 보초병처럼 감시를 하지만, 우리가 시야에서 잠시 보이지 않으면 물고기 잡이를 한다. 신비하고 아름다움 때문에 물고기들이 수난을 당한다. 잠시 한 눈을 판 사이에 식탁위에 올라선 손자1은 수족관에 손을 넣어 무소불위의 손으로 헤집으며 고기가 잡히지 않자 두 손으로 쌍끌이 조업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 야단을 친 적도 있었다.

몇 년 후 손자2도 물그릇을 옆에 두고 국자를 들고 설치다가 식탁 유리를 깬 적이 있었다.

세월이 가고 여러 계절이 바뀌는 동안 점차로 어항속의 물고기 숫자도 해마다 줄어들고, 수족관에 대한 관심도 시들해져 어항의 청소도 한 달에 한번 또는 기간이 더 길어졌다.

여유가 있는 점심을 먹고 수족관을 보니 물은 우중충 하고, 유리

벽에는 여기저기 얼룩져 있고, 물 달팽이들이 붙어있었다. 바닥에는 구똥의 배설물 찌꺼기와 먹이의 잔해가 여기저기 남아있는 것이 보였다. 수족관을 훤히 비춰주던 전등은 오래전에 고장이 나 꺼져 있고 식탁위의 조명이 대신하고 있었다.

물을 갈아주고 수족관 청소를 해야 할 때가 한참 지났지만, 언제부터 힘이 든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수족관 안의 수초도 하나 둘 없어지더니 한 송이만 인공조형물과 함께 근근이 살아있다.

물고기를 잡아 작은 대야에 옮기고 수초와 돌들, 여과기까지 깨끗이 씻고 오염된 작은 돌을 여러 번 씻어낸 다음, 신선하고 깨끗한 물로 온도를 맞춰 셋팅 하기까지 한 시간 정도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매달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 귀찮아지고 게으른 나의 천성이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더운 날씨 때문이기도 하고 아침저녁으로 먹이 주는 일이 성가신 일로 여겨졌다. 이십 년 넘는 세월동안 물도 갈아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준 것을 이제 접고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다. 먹이통의 먹이가 끝날 때까지만 이라고 생각하니 나도 몰래 자꾸 눈길이 간다.

어제 마지막 수족관 청소를 했다. 남은 놈을 어떻게 해야 하나? 누가 키우고 싶은 사람 없을까? 차마 살아 있는 걸 던져 버릴 수도 없다. 아파트 건너편에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 지인에게 사정 이야기를 해 보아야겠다. 아니면 수족관 판매점에 갔다 드리던지.

경관이 좋은 집도 매일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예사이듯, 경치도

날마다 누리면 좋은걸 못 느끼고 산다. 그간 몇 번이나 수족관을 청소하고 씻었을까? 나의 많은 손때가 묻어있다. 동행이 참 길었던 것 같다. 사랑도 매력 없으면 시들해지고, 소중히 여기던 물건도 필요치 않으면 버려야하고, 사람도 이별할 때가 온다.

헤어질 결심을 하였다면 단번에 헤어지면 될 것을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이별 연습을 하는지, 마지막 정이라도 나눌 것이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감정에 번민을 하였다.

책이나 옷이나 아끼던 소품이 오래되고 싫증이 나서 헤어질 결심을 하였다면,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미적미적하면 또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만다.

애월 哀月 외 1편

한 인 환

“이 사장, 당신 그 젊은 직원 어때? 믿을만 해?”

“고군高君 말이야? 착실한 편이지, 근데 왜?”

“응, 수시로 우리 금방을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는데 기분 나빠.”

“하기야 나도 개 고향이 제주도라는 것 밖에 몰라. 그래도 심성은 착한 녀석이야”

우리 건축자재상 바로 건너편에 있는 순금당 김 사장이 고군에 대해 물어본다. 한창 IMF에 살기가 빠듯한데 ‘금 모우기 운동’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니, 누가 금방을 오래 쳐다보기만 해도 불안해지는 모양이다.



| 한인환 |

- 부산 땅끝교회 은퇴장로
- 부산 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

위태위태하더니만 기어이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대출까지 받아서 자재를 대주었던 K주택이 부도가 났다. 대전에 신축한 빌라 단지가 분양이 영 되지 않았다.

이리저리 메워 보려고 뛰어다녀 보았지만 덩달아 나도 부도를 내고 말았다. 좋을 때 좋더니만, 이십 년을 거래한 은행도 정작 급할 땐 피도 눈물도 없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 남은 건축자재에 압류딱지가 붙고, 집안의 냉장고에도 붙었다. 빚쟁이들이 밤낮 몰려와 들볶았다.

퐁줄이 탄다는 말이 속담이 아니라 실재임을 비로소 알았다. 죽는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싶다. 견디다 못한 아내는 외손주 봐준다는 구실로 서울 딸네 집에 가버렸다. 그러나 어찌 나까지 빌붙을 수 있을까.

“정말 면목 없네. 퇴직금도 다 못 주네.”

딸딸 굶어 밀린 급료를 내밀자, 김씨는 길길이 뛰었지만 고군은 말이 없다. 김씨가 씩씩거리며 문을 박차고 나가버려도 고군은 평소처럼 말없이 앉아 있다.

“자, 이 봉투 넣게. 미안하네. 앞으로 자네 퇴직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꼭 갚을게”

머뭇거리며 봉투를 집는 그의 손등에 화상 흉터가 크게 보인다.

“사장님은 어쩔 건데요? 다 털었잖아요?”

“허허, 어떻게 되겠지. 자네는 어디로 갈려나?”

“예, 서울 쪽에 군대 친구가 있어서요.”

사흘 동안 꼬박 빈 속에 소주만 퍼마셨다. 내일이면 이 집도 내 주어야 하는데, 정말 갈 데도 남은 돈도 없다. 솔직히 어떻게 죽을 까만 궁리했다. 그냥 이대로 밤새 스르르 가 버리면 제일 좋은데.

딸애의 얼굴이 떠오른다. 제 새끼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반찬 값이라도 벌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사위 녀석이 변변치 못하다. 방긋방긋 손주가 웃는다. ‘할비, 할비’ 할 때는 정말 예뻐 죽겠다.

그리고 요즘 부쩍 늙어버린 아내, 올가을에는 제주도라도 같이 가 보자 했더니, 막상 가을은 왔는데 이 꼴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제주도’ 하니 갑자기 고군이 하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언젠가 제 고향 애월^{涯月}의 밤바다 이야기를 했다. 그 밤바다에 뜨는 달은 언제나 슬퍼 보인다고 했지.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집 떠난 지 이십 년이 다 되었다고 했고, 이맘때면 밀감밭에 일손이 달린다는 것까지.

논산에 사는 누님에게 돈을 조금 얻어서 제주도로 왔다. 무작정 애월 바다가 보이는 곳에 데려다 달랬더니, 택시기사는 애월읍 하귀리 복지회관 앞에 나를 내려 주었다.

심호흡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옥빛 바다 갯내와 함께 밀감 익어가는 단내가 물씬 풍긴다. 분명 처음 온 곳인데도 어쩐지 낯설지가 않다.

애월 밤바다, 애잔한 달빛에 바다도 숨죽여 흐느끼고 있다. 이 달빛 속에서 내 삶도 미련 없이 끝을 내리라. 나는 바닷물에 성큼

발을 내디뎠다.

발끝이 침범 물을 헤집자 파릇파릇 형광이 인다. 발끝에서 시작된 형광은 파문을 타고 점차 먼 바다로 퍼져 나간다. 온 바다에 가득 찬 파란 형광, 수천수만 바다 요정의 군무일까.

이윽고 형광이 사그라지며 멀리 고깃배 불빛이 깜빡거린다. 이제 바닷물이 가슴팍까지 차오르고 숨이 답답해 온다. 그래, 이제 몇 걸음 안 남았다.

그때 정말 똥판지같이 ‘헤이케(平家物) 계’ 이야기가 생각났다.

1185년 4월 일본 근해(近海) 단노우라에서 해전이 벌어졌다. 헤이케(平家) 가문과 겐지(源氏) 가문 간의 오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마지막 결전이었다. 이 해전에서 헤이케 함대는 전멸했고, 겨우 살아남은 사무라이 병사들도 모두 바다에 몸을 던져 집단 자결했다.

전쟁에 참전한 헤이케 출신 천황은 안토쿠(安徳)라는 일곱 살 소년이었다. 천황의 할머니는 ‘우리의 황도(皇都)는 바다 저 깊은 곳에 있습니다’ 무서움에 떠는 어린 손자를 꼭 껴안은 채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다.

어부들 사이에 구전되는 전설에 따르면 헤이케 사무라이들은 계가 되어 지금도 단노우라의 바다 바닥을 헤매고 있다고 한다. 실제 이곳에서 발견되는 계의 등딱지에는 기이한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그 무늬는 섬뜩하리만큼 사무라이의 얼굴을 빼닮았다. 그래서 이곳의 어부들은 이런 계가 잡히면 다시 바다에 놓아 준다고 한다.

이제 나도 한 마리 검은 돌계가 되어 이 애월 바닷속, 깜깜한 모

래바닥을 하염없이 헤매게 될까?

아, 어머니. 나 하나 보고 평생을 홀로 사신 어머니.

그러나 나 땀에 죽을 때까지 속을 썩이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다. 재작년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며, ‘이제 그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 하셨지. 그러나 어머니의 임종 순간에도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어딴냐’고 항변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믿는다면 서도 사기 치는 저 가짜들을 이처럼 놔두실 수는 없다. 박장로, 그 니글거리는 작자에게 당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솟구친다.

그때 작은 파도가 일며 코로 입으로 왈각 바닷물이 넘어 들어온다. 덜컥 겁이 났다. 죽고 싶다고 아무나 죽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보다. 나는 정말 죽을 용기조차 없다.

때맞춰 내 귓전을 때리는 음성이 급박하게 나를 부른다. 살고 싶다고 본능이 외치는 소리의 환청일까?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설움도 지나면 아름다움이라든가. 애월의 밀감밭에서 세상을 잊고, 세월도 잊고, 나 자신까지도 잊은 채 훌쩍 한 해가 지났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나는 지금 지붕 보수나 개량 일을 하고 있다. 건축자재를 대주면서 지붕 공사하는 작업을 수시로 봐 왔는데, 애월은 온통 재래식 따개비 지붕이었다. 바람이 많은 곳이니 지붕은 낮고 납았다.

산죽 잎을 엮어 덮은 엉성한 지붕이나 납은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블록 두 장 정도로 지붕을 들어 올린다. 그다음 신제품

아스팔트 싱글판으로 교체하는 일이다. 마침 슬레이트 석면이 일급 발암물질이라 정부는 보조금까지 주면서 지붕 교체를 권장했다. 자연스럽게 일거리가 많아져서 얼마 전에는 일꾼을 세 명이나 고용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낡은 슬레이트 판을 걷어냈다. 슬레이트를 걷어내자 군데군데 구멍이 뚫린 합판 천장이 드러났다. 곰팡이 냄새가 물씬 난다. 덕지덕지 엉겨 붙은 먼지 덩이 속에 쥐똥이 소복하다.

위에서 천장 합판을 쳐내는데, 쥐똥 속에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가 보인다. 그냥 버리려다가 종이 뭉치를 집어 드니, 무엇을 썼는지 손끝에 잡히는 게 제법 묵직하다.

“젊은 양반, 어디서 옵디파?”

집주인 할멈은 회갑이 지난 날더러 젊은 양반이란다.

“예, 충청도에서 왔시유. 작년 이맘때유. 이젠 제주 도민이구만유”

할멈은 저녁까지 해 놓고는 일꾼들 저녁 먹고 가란다. 세월이 후비고 간 깊은 주름에 이빨이 다 빠져버린 할멈도 따져보면 내 나이 비슷할지 모른다.

“삼춘, 자제분은 어찌고 혼자 사시유?”

제주도에서는 남녀 막론하고 연세 드신 분에게 ‘삼춘’이라면 좋아한다.

“글쎄, 늣둥이가 하나 있었수다. 근데 그놈의 금반지 때문에.”

“금반지라니 뭐 일인데유”

“늦둥이가 가져가수께”

할멈은 금방 눈물이 핑 돌며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다. 나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한참 망설이다가 누런 종이 봉치를 꺼내 할멈 앞에 내놓았다.

“부엌 찬장 위에서 나왔시유”

할멈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면서 손까지 부들부들 떨다. 종이 속에서 누런 금반지 세 개가 나왔다. 할멈은 ‘억’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아이고, 늦둥아~ 에미가 이 죄를 어땡하면 좋을꼬~ 이 죄를 어땡하면 좋을꼬~”

한참을 통곡하던 할멈은 낮이 나간 채 자초지종을 얘기한다. 이십년 전 늦둥이가 중학교 1학년 때다. 할멈의 결혼반지에 별세한 영감의 반지와 늦둥이 돌 반지 등, 반지 세 개를 종이에 싸서 부엌 찬장 위에 숨겨 두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반지가 없어져 버렸다. 늦둥이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다. 늦둥이를 모질게 닦달했다. 너 애비 유품이라 어미 목숨과도 같은 반지다. 도로 가져오지 않으려면 아예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말라고 쫓아냈다. 그 길로 늦둥이는 정말로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그렇다고 어린 것이 그만한 일로 집을 영영 나가다니유”

할멈은 깊은 한숨을 쉰다.

“내가 죽일 년이여. 틈만 나면 너네 아방 잡아먹은 놈이라 구박했거든”

결혼 십 년 만에 임신을 했다. 금슬이 좋기로 유별났던 영감은 뿔 듯이 기뻐했지만, 할멈은 불안했다. 용하다는 점쟁이가 사내아이를 낳으면 영감이 일찍 죽을 거라고 했고, 정말 늦둥이가 첫돌이 겨우 지나자 영감이 급사하고 말았다. 영감이 그리울 때마다 늦둥이가 미웠다.

“아이고 늦둥아, 쥐새끼가 천장 위에다가 물어당 놓았구나. 아이고 내 새끼 영수야~”

“예? 방금 늦둥이 이름이 뭐라 했수?”

“우리 늦둥이, 영수요, 고-영-수”

“그 그럼, 혹시 영수 손등에 상처라도 있수?”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수까? 어릴 때 꿇는 국에 데었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속에서 무슨 불덩어리 같은 것이 치솟아 나는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다.

늦가을 밤바람에 귀 끝이 제법 시리다. 검은 구름에 반쯤 가려진 애월涯月의 달이 가슴 속을 헤집고 파고든다. 애잔스럽기만 하던 애월의 달이 오늘따라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다.

오늘 애월哀月은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바로 그 손이다.

별

- 프로방스지방 어느 목동의 이야기(알퐁스 도오데)

교도소 철문이 열리고 작달막한 노인이 나왔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자, 그는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 안으로 황급히 몸을 숨긴다. 초췌한 얼굴에 반쯤 얼이 빠져 있다.

그는 전임 ○○ 공기업 사장이다. 삼 년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를 하는 장면이 전국으로 방영되고 있다. 그 광경은 오늘 비록 출소는 하지만, 진짜 형을 다 마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죽을 때까지 거미줄처럼 찢든찢든하게 뒤엉킨 형기는 남아 있는 거라고.

칠순을 넘긴 양반이 사장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껴안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엄청난 지탄을 받았다. 지금이야 정죄를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회에서 다반사로 이루어지던 일이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한창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던 때라, 그는 그만 꼼짝없이 직격탄의 표적이 되었다.

그는 나와 중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다. 둘 다 키가 작았으므로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짝꿍도 했다. 그 당시에도 그는 행동이 굼뜨고, 말까지 더듬었다.

부잣집 아들답게 점심 도시락에 쇠고기 장조림을 종종 싸 왔다. 도시락을 펼치기가 무섭게 우르르 친구들이 달려들어 집어가기 바빴다. 생전 처음 나는 그 도시락에서 쇠고기 장조림을 맛봤다. 그는 장조림을 다 뺏기고도 ‘어,어’ 하다가 말고, 내 도시락의 김치를 먹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장조림을 싸 왔다.

아무도 예상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는 우리 동기들 가운데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다. 국회의원, 장관, 공기업 사장 등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시대의 변화는 읽지 못하였다.

무료한 나날, 타이핑을 하고 있는 젊은 여직원이 너무 예뻐 보였고, 그래서 그냥 어깨를 무심코 안아보았겠지.

뼈약이 신유빈 선수가 다섯 살 꼬마였을 때, 스타킹 예능 프로에 출연하여 탁구를 쳤다. 그 모습이 얼마나 양증스럽던지 딸도 손녀도 없는 나는 한번 살며시 깨물어보고 싶었다. 그렇다고 실제 깨물어 볼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그는 진짜 깨물어 버린 셈이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마태복음 5:28)’ 하셨으니, 그렇다면 이 땅의 남자라면 누가 돌을 들 수 있으랴. 더구나 여학교 선생으로 평생을 산 나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다.

다만 순박하기까지 하였던 이 친구의 여생이 거저 안타까울 뿐이다.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 N여고의 교복은 파격이었다. 다른 여학교는 풍성한 상의에 치마는 평퍼짐하고 길었다. 그러나 N여고의 하복은 아예 차원이 달랐다.

잘록한 허리의 선이며 볼록한 가슴의 볼륨이 잘 드러났다. 그리고 목이 깊숙이 파였고 스커트는 짧았다. 몸의 곡선이 최대한 드러나도록 디자인된 하얀 블라우스와 짙은 남색 스커트는 멀리서도 눈에 확 띄었다.

N여고가 소위 일류학교는 아니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동보’라는 민망한 별칭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로서 파격적으로 색시한 하복은 우리 남학생들에게 단연 인기였다. 버스에 타서 손잡이라도 잡고 있으면 보일 듯 말 듯 또 얼마나 애를 태웠나. 짓궂은 녀석들은 슬그머니 접근해서는 엉덩이를 밀든지, 가슴을 넘겨다보곤 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막상 N여고에 부임했을 때는, 평준화가 시작되어 부산의 여고들은 이 N여고의 교복을 모델로 삼아 다 비슷해졌다. 다만 파격적인 디자인은 후퇴해져 버렸고, 변형된 N여고의 교복도 마찬가지로였다.

7월 초순의 교실 안은 숨소리조차 멎은 듯 조용하다. 무거운 정적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열기가 가득 찼다. 이따금 사각사각 연필로 답안지에 글 쓰는 소리가 들릴 뿐이다. 1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될 것이다.

나는 교탁을 짚고 학생들을 왼쪽 줄부터 천천히 둘러본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문제를 푸느라고 몰두하고 있다. 새하얀 블라우스가 눈부시다. 까만 머리칼이 묘한 대조를 이루며 더욱 정갈하다.

“어머나! 그럼 별들도 결혼을 하니?”

“그럼요, 스테파네트 아가씨”

그리고 나서, 그 결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있을 무렵에, 나는 무엇인가 찌늘하고 보드라운 것이 살며시 내 어깨에 눌리는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가씨가 졸음에 겨워 무거운 머리를, 리본과 레이스와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양증스럽게 비벼대며, 가만히 기대온 것이었습니다.

구둑발 소리를 내며 수험생 사이를 지나다니기가 오히려 미안스러워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이윽고 교단을 내려섰다. 답안지에 감독교사의 확인 사인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가오는 나를 슬쩍 곁눈질하고는, 책상 위에 놓고 작성 하던 답안지를 내 쪽으로 조금 밀어낸다. 고개는 여전히 숙인 자세로 다른 문제 풀기에 여념이 없다. 나는 허리를 굽혀 내 쪽으로 조금 더 답안지를 당기고는 감독교사 확인란에 스탬프에서 잉크를 찍어 날인을 한다.

아가씨는 흰하게 먼동이 터 올라 별들이 해쓱하게 빛을 잃을 때까지 꿈쩍 않고 그대로 기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잠든 얼굴을

지켜보며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가슴이 설렘을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오직 아름다운 것만을 생각하게 해 주는 그 맑은 밤하늘의 비호를 받아, 어디까지나 성스럽고 순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총총한 별들이 마치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양 떼처럼 고분고분하게 고요히 그들의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불룩하게 솟은 젖 몽오리다. 새하얀 블라우스 틈을 비집고 수줍은 듯 고개를 내밀고 있다.

막 피기 직전 새벽이슬을 머금은 목련 꽃봉오리라고 할까, 새하얀 눈송이를 머리에 이고 쏘옥 내민 춘란 꽃봉오리라고 할까, 엷은 복숭아 빛으로 한눈에도 숨털같이 보드랍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가만히 숨죽이며, 세상을 향해 조그만 창을 열고, 뻐끔히 내다보고 있다.

범접할 수 없는 순백의 눈발 속에 작은 내 손바닥에도 포옥 싸일 것 같은 조그만 용기는 수줍은 미소로 오히려 맑고 경건하다.

그리고, 이따금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스치곤 했습니다.

-저 술한 별들 중에 가장 가냘프고 가장 빛나는 별님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내 어깨에 내려앉아 고이 잠들어 있노라고.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한없이 여리고 그러면서 또 강한 우리의 어머니, 그 성스러운

어머니가 지금 숨을 멎고 은밀하게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노
라고.

<사족蛇足>

사십 년 전 이야기지만, 그때 그 감동의 여진이 지금도 가끔 나
를 일깨운다고 말하면, 내가 지금 추하게 늙어가고 있는 걸까? 그
때 내 마음은 이 순박한 목동과 같았노라고 우긴다면, 세상 사람들
은 믿어 줄까?

분명한 것은 얼굴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학생이, 선생이
제 젖가슴을 엿보았노라고 SNS에 올렸다면, 나도 죽을 때까지 탈
옥하지 못한 채 말라져 갔으리라.

아동문학

〈동시〉

박경영 | 무지개 외 1편

〈동화〉

김복임 | 코딱지나물

남 순 | 양화진에 뜬 별

이호정 | 봄을 깨우는 작은 거인

정현옥 | 택배 아저씨

무지개 외 1편

박경영

번-쩍-우르릉 짱!
소낙비 우당탕탕
요란스레 지나간
광안대교 머리 위
불꽃보다 더 예쁜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일곱 빛깔 꽃 너울

천사가 손으로 짠
하늘명품 꽃 비단
살짝 한 폭 잘라
막내둥이 돌잔치
색동옷 만들어요

살~짝 한 폭 잘라
우리 동생 설 추석
때때옷 만들어요



| 박경영 |

문학21(시,1998), 공무원문학가협회(동시,2001)신인문학상으로 등단.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부산광역시문인협회, 창원문인협회 회원. 보국훈장 광복장 서훈(2009년). 대한민국예총회장상 수상. 부산광역시장 표창수상(2023년). 시집『사람과 세상과 하늘에』외 산문집 수기 등 다수

비 오는 날 유리창은

비 오는 날
유리창은

쭈르르 쭈르르
동요를 타고

올망졸망
요리조리

올챙이들
운동장

코딱지나물

김복임

작은 창문을 열면 오월의 보리밭처럼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있어요.

“승아, 봄 냄새가 솔솔 들어 오는 것 같재?”

“네, 할머니.”

“오리나무는 어미 오리가 새끼들을 데리고 소풍 가는 것 같재?”

“종종걸음을 걷는 오리 한 마리 안아올까예?”

우리 집은 동네 맨 꼭대기에 있어요. 창문을 열면 작은 집들이 어깨동무를 하듯 내려다보여요. 바라 보이는 넓은 바다는 배가 들어오기도 하고, 떠날 준비도 하는 부산항이 한눈에 보여요.



| 김복임 |

- 《문학도시》 수필 등단, 《수필과비평》 수필 등단, 《아동문예》 동화 등단
- 2019년 부산문화재단 창작금수혜, 2019년 목련나무가 있는 집 수필 발행
- 2023년 남원시 예술지원금 수혜, 2023년 아버지의 우물 수필 발행
- 황산문예 회장, 부산크리스천문학 회원, 부산문인협회 회원, 수필과 비평 회원

금방이라도 아빠가 배를 타고 돌아올 것 같아 하루에도 몇 번씩 바다를 바라보곤 해요.

잔잔한 바다를 보면 아빠를 붙잡아두고 있는 것 같아 큰 태풍이 부는 날을 기다리기도 해요. 요즘 내 마음은 아닌 척하지만, 음식을 먹고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요. 곧 올 거라는 아빠는 소식도 없고 시원한 대답을 해 주지 않는 할머니와 엄마가 무심하기만 해요. 늦게까지 일하고 셀 수도 없는 계단을 올라오는 엄마에게 아빠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할머니, 아빠는 왜 소식이 없노?”

먼바다를 바라보다 불쑥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니는, 또 그 소리고! 사내자식이 마음이 어려서.”

“.....”

“그놈의 돈이 뭔지, 승이 할아버지가 병원 신세를 오래지다 보니 승이 애비가 허리를 펼 수 없었재.”

“아빠는 글도 잘 쓰면서 왜 편지 한 장 없노!”

“니 애비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 올끼다.”

할머니 목소리가 쉼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괜히 할머니 마음을 건드렸나 싶어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4학년이 시작되고 새 담임선생님이 오셨어요. 전에 만난 적이 있는 얼굴처럼 다정하고 편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읽도록 해요.”

숙제를 많이 내주지 않는 대신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으라는 선생님은 아빠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을 보면 아빠가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은 학원을 가느라 함께 놀 친구도 없어요. 다른 동네 아파트로 이사 간 친구들도 많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빨강 우체통 옆에 서 있는 영미를 만났어요.

“영미야, 여기서 뭐해?”

“승미야, 우리 동네 우체통 생긴 거 몰랐재? 여기다 편지를 넣으면 일 년 후에 도착한대.”

바다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에서 있는 빨강 우체통은 내 키만 해요. 이곳에 오면 편지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승미야, 나는 엄마에게 편지 보내고 있어.”

“정말?”

“엄마가 내 편지를 읽으면, 꼭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영미처럼 아빠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주소는 알 수 없지만, 아빠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빠 이번 겨울은 제가 태어나서 제일 추웠어요. 4학년 담임선생님이 아빠를 많이 닮은 분이라 괜히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 같아요. 멀리 중앙도서관이 보이는 길에 서 있으면 ‘승미 우리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가져.’ 하던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발끝만 쳐다보며 걸었어요. 산밑에 허리를 숙이고 앉아 있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할머니 추운데 뭐하노?”

“우리 승이, 벌써 왔나.”

“할머니, 이거 길에 많이 나는 풀이네.”

“이거 코딱지 나물이다.”

“뭐라꼬? 코딱지 나물!”

“역수로 추운 겨울 지나고, 퍼런 속을 보이고 나온 거 보라. 춤다
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나물 이름이 와 그렇노. 추접구로!”

“이파리를 보라. 잎이 쪼글 쪼글한기 옛날 아들 코 밑에 말라붙
은 코딱지같이 생겼다 아이가.”

“할미는 승이가 코딱지 나물처럼 강하게 살면 원이 없겠다.”

“.....”

할머니는 나물이 귀한 겨울에 코딱지만 한 나물이 없다고 하시
며 귀한 물건 다루듯 하셨어요. 바다 빛을 닮은 나물은 반가운 손
님처럼 보였어요.

할머니는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냉이 나물을 살짝 데치고,
코딱지 나물도 데쳤어요. 냉이 나물은 된장국을 끓이고, 코딱지 나
물은 고추장, 된장,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 맛있게 무치셨어요.

할머니는 나물을 조물조물 무쳤어요.

“승아, 이거 한번 묵어보라.”

싫다고 고개를 돌릴 여가도 없이 입에 한입 넣어주셨어요.

“밥하고 먹으면 맛있겠다.”

“그래, 에미 오면 같이 저녁 먹자.”

“할머니, 오늘도 박스 주었나?”

“아이구, 승이가 웬일고. 할미 일하는 걸 다 묻고. 그래도 거기 운동이 되는가, 허리가 덜 아프다.”

“할머니, 너무 힘들게는 하지 마이소.”

“아이고 기특하데이!”

할머니는 유모차를 끌고 산복도로 위를 다니며 폐지나 박스 줍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운동 삼아 하는 일이라고 자랑삼아 말하는 할머니는 코딱지 나물을 닦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코딱지 나물에 구수한 된장국으로 저녁을 먹을 생각을 하니 입에 침이 고였어요.

“승아, 엄마 왔다.”

“엄마, 이제 오나. 할머니가 코딱지 나물 무쳐놨다.”

“코딱지 나물! 맛있겠다. 제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어머니께서 처음 해 주신 나물이에요.”

“그랬더니! 추운 겨울에, 제일 먼저 고개를 치켜들고 나오다 보니 손에 잡힌 나물이지.”

할머니는 밥순간에 나물을 얹어 몇 순갈 드시다, 옛날 생각이 나신 것 같았어요.

“그때 할미가, 승이 나이쯤 되었을까... 피난 온 첫째 부모님은 국제시장에 날품을 팔러 가고 저녁밥을 준비하는데 반찬 할기 없는 기라. 지금이야 세상이 좋아져서 취나물이나 썩도 나오고, 안 나오는기 없는 시상 아이가. 하지만 그때는 묵은김치 하나도 귀할 때였지. 이웃에 할머니가 소쿠리에 나물을 캐고 있길래 물었재. 묵어도 되는 나물이라고 하길래, 눈이 펄펄 떠지더라.”

“어머니는 승이 나이에 밥도 해 드셨어요?”

“밥만 해 먹었겠나……! 빨래도 하고.”

“승아, 지난번 네 엄마랑 영화 ‘국제시장’ 봤다. 아이가, 그 처음 장면이 바로 할머니가 피난 나오는 장면 인기라, 그보다 더하면 더했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남자들은 배 가장자리에 여자들은 그 안쪽에 아이들은 가운데 들어앉아 배 안은 견딜 만 했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추운 것도 아니다.”

“맞다! TV에서 본 북극 황제펭귄들이 ‘허들링’ 하면서 추위를 이기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맞다, 나도 그 장면을 보고 마음이 찡하더라! 누가 시켜서 그리 하겠노!”

엄마도 맞장구를 치며 할머니 손을 만지작거렸어요. 오랜만에 우리 집은 난로를 피운 것처럼 훈훈해지는 것 같았어요.

북극의 펭귄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극한의 추위를 견디듯 할머니가 탄 배도 모진 칼바람을 이기며 남쪽 거제도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감동이었지요. 그 일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들었어요.

“코딱지 나물은 마치 보초병 같은기라, 바위틈에도 나오고 담뱃배락에도 붙어서 억척같이 살아가는 모진 생명이라.”

“저는 어머님표 코딱지 나물이 제일 맛있어요.”

엄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도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코딱지 나물을 산복도로 최고의 나물로 추천합니다. 팡! 팡!”

“우리 승이가 웃으니 할미도 기분이 좋데이. 웃는 얼굴이 지 아 빠 판박이다. 우리 식구들이 견딜만한 힘이 있으니 힘든 일도 겪게

하는거 아니겠나.”

우리 집은 내 말에 따라서 봄바람이 되기도 하고 겨울바람이 되기도 해요.

맛있는 밥상을 보면 아빠가 생각나요. 이 자리에 아빠가 함께 한다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우리 집이에요. 할머니랑 엄마랑 ‘국제시장’ 영화를 보고 우리 동네가 영화에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빠에게 마음으로 쓰는 편지를 큰 숨을 쉬며 창문으로 날려 보냈어요.

어제 할머니가 말한 나물 이름이 맞을까 궁금해서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마침 화단에 코딱지 나물이 소복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작은 줄기 하나를 잘라서 선생님께 가져갔어요.

“선생님, 이 식물 이름이 궁금해요.”

“승이구나.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 걸, 나중에 알려주마.”

선생님께서서는 이른 봄에 우리 주위에 자라는 식물 이름을 알아오라는 숙제를 내주셨어요. 친구들은 식물도감을 찾아보며 우리 학교와 동네에 보이는 식물 이름을 발표했어요. 제비꽃, 민들레 꽃다지, 수선화 등 많은 식물을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 선생님이 코딱지 나물을 들고나오셨어요.

“여러분, 이 식물 이름 아는 사람 손들고 발표해보세요.”

아무도 얘기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내가 손들고 싶지만 아무리 그래도 코딱지 나물은 아닌 것 같았어요. 비염으로 누르스름한 코를 훌쩍이는 내가 그 이름을 말하면 친구들 놀림감이 될 것 같았어

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대답해볼까 망설이고 있는데 영미가
“선생님, 승이가 이름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는 바람에 엉겁결에

“코... 코딱지 나물!”

이라며 얼버무렸어요. 그 순간 와! 와! 하는 고함과 웃음소리가
나며 아이들이 책상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함께 웃던 선생님은 아
이들이 조용해지자 말씀하셨습니다.

“인제 보니 승이가 아는 게 많구나. 이 식물은 광대나물이라고
도 하고 지역에 따라 코딱지 나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 우리 학
교 화단에 자라고 있으니, 보랏빛 꽃이 피면 눈여겨보도록 해요.
광대들이 입는 옷 목 부분에 잡힌 주름 모양 같기도 하고, 보랏빛
꽃이 광대가 부는 나팔처럼 생겼다고 광대나물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불만이 많은 것 같이 말이 없던 내가 발표를 하고 난 후 나를 보
는 친구들이 나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는 것 같았어요.

_아빠 우체통 옆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멀리 중앙도
서관이 보여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
이 눈앞에 안개가 낀 것 같았어요. 머리가 어지러워지며 눈앞이 뿌
얘지기 시작했어요. 길옆에는 왕벚나무 꽃이 피어나고 멀리 보이
는 산에는 꽃들이 구름처럼 피고 있어요. 오늘은 아빠에게 쓸 말이
너무 많아 종이에 쓰지도 못할 것 같아요. 쓰고 싶은 말이 피어나

는 새순처럼 많아요.

중앙도서관을 향해 휘파람을 불 듯 마음에 편지를 날려 보냈어요.

망양로에 근위병처럼 서 있던 왕벚꽃 나무 한 그루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다른 왕벚나무들도 한그루씩 차례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나무들 사이로 아빠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나는 두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어요. 어느새 아빠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내 앞에 서 있었어요.

“아빠!”

책을 내 손에 들려주고는 아빠는 말없이 오던 길을 되돌아갔어요.

‘아빠, 가지 마세요. 그냥 우리랑 함께 살아요.’

멀어지는 아빠 모습 뒤로 왕벚나무가 차례로 걸어갔어요.

멍하게 앉아 있다. 책을 들고 아빠 뒤를 따라 달려갔어요.

방망이 치는 가슴을 진정시키는 일은 달리는 일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새 중앙도서관 앞까지 달려왔어요. 멀리 구봉산 밑에 충혼탑이 보이는 것을 보니 꿈은 아닌 것 같았어요. 손등을 아프게 꼬집어 보았어요.

아빠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빠, 잠깐만!”

“승아! 급하게 달려왔구나.”

“아... 선... 선생님.....”

“그래, 천천히 올라와라.”

“승아! 우체통 앞에서 생각을 깊이 하는 거 같아서...”

“...”

“승이가 읽으면 좋을 것 같아 책 한 권을 주고 왔는데.”

봄꽃향기 때문인지 정신이 멍한 것 같았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기를 마음으로 빌었어요.

선생님께 인사도 하는 등 마는 등 하고 도서관 계단을 내려와 망양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뱃나무들이 따라오고 눈 아래에는 넓은 바다가 하늘처럼 펼쳐지고 있어요.

“아빠! 우리 동네에서는 부산 시내 안 보이는 곳이 없구마. 내는 아파트 필요 없다. 우리 집이 제일 좋다.”

집 담벼락에 매달린 코닥지나물이 광대처럼 춤을 추고 있어요.

양화진에 뜬 별

남 순

“요한아, 널 서울 친척 결혼식 가니까 일찍 자그래이.”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또 게임하려고?”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와 책상에 앉았다. 책보다 게임이 잡혔다. 게임은 좀처럼 끝이 나지 않았다. 허리를 펴는 데 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시계바늘이 벌써 열 두 시를 넘었다.

할 수 없이 침대에 누웠다. 천장에 아까 하던 게임이 펼쳐졌다.



| 남순 |

- 2004년 《아동문예》 동화, 2013년 《문학예술》 시 등단
- 제6회 남재문학 작가상, 제21회 부산문학상 우수상 수상
- 동화집 『무지개나라 화가아저씨』, 『물고기 아파트』
- 동요 작사가 『해바라기 일기장』 외 다수
- 그림동화 공저 『빨강 연필』 외 다수

“요한아!”

엄마가 나를 깨웠다.

“주요한.”

이렇게 부를 땐 화가 났다는 뜻이다.

고양이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다.

“문디 자숙, 너 또 밤에 게임 했제?”

나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공부를 그렇게 했으며, 전교 일등 했것다.”

‘어디 게임만 하는 학교 없나?’

도망치듯 가방을 챙겨 나왔다.

아빠가 차에 시동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요한아, 빨리 온나.”

나는 느릿느릿 걸었다.

“니 때문에 늦겠다.”

엄마가 차에 타면서 잔소리를 했다.

나는 차에서 졸았다.

“밤새 게임하느라 주일마다 교회에 지각하고…….”

잠결에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차는 결혼식장에서 나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으로 향했다.

“집에 안 가세요?”

“으응, 잠시 둘러보고 가자.”

엄마는 말을 얼버무렸다.

“묘지에서 뭘 볼게 있다고?”

나는 투덜거렸다.

‘게임도 못하고 이게 뭐꼬!’

나는 차에서 게임을 하고 싶었다.

“성경에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제 할 일을 열심히 했는데,
니는 뭐꼬?”

엄마가 불멘소리를 했다.

“그럼 이름을 바꿔주세요.”

“저 녀석이?”

나는 이름이 부담스러웠다.

건물 안에 묘비 탁본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왔다.

뭉게구름이 뭉게뭉게 몰려왔다.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가고, 파
란잔디에 물방울이 보석처럼 맺혔다. 물방울을 만졌는데 마음이
촉촉해졌다.

“와, 무덤이 천지 빼까리네!”

“천지 빼가리가 뭐니?”

어디서 부드러운 서울말이 들렸다.

“그것도 모르나? 굉장히 많다는 뜻이지.”

“아!”

“니는 누꼬?”

“점동이야, 김점동.”

“머스마 이름 같네?”

“머스마가 뭐야?”

“그것도 모르나, 남자 아이란 뜻이지.”

“아!”

“근데, 여는 와 이리 무덤이 많노?”

“여기를 몰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조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얘, 이쪽으로 와 봐.”

단발머리 소녀가 나를 이끌고 어느 묘비 앞에 섰다.

[메리 스크랜턴]

“이 분이 나를 키웠어.”

“니, 엄마가 서양 사람이가?”

“그게 아니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이야.”

단발머리 소녀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딴노?”

“내가 살던 조선엔 있었어!”

“자꾸, 조선조선 할래?”

단발머리 소녀가 민들레처럼 노랗게 웃었다.

“여기, 비문을 읽어 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A, R, 아펜젤로]

“여기도 읽어 봐”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R, R, 켄드릭]

‘천의 생명?’

순간, 별을 쏘인 것처럼 마음이 뜨끔했다.

“여기 잠들어 계신 분들은 모두 우리를 사랑하신 엄마들이야.”

“저 쪽엔 남자 이름도 있는데 저분도 엄마가?”

“넓은 사랑이 그렇다는 뜻이지.”

단발머리 소녀를 자세히 보았다. 흰 저고리에 검정치마를 입고 있었다. 검정고무신엔 구멍이 나 있었다. 어느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내가 입은 옷과 신발은 모두 고급이었다. 단발머리 소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웬지 모르게 단발머리 소녀 앞에서 기가 죽었다.

“에스더!”

정자 쪽에서 하얀 한복에 갓을 쓴 사람이 단발머리 소녀를 불렀다.

“네, 가요!”

‘저분도 조선 사람인가?’

나는 단발머리 소녀가 사라질 때까지 낮을 잃고 있었다.

“요한아!”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덤 사이에서 꿈쩍할 수 없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요한아, 저기서 잠시 쉬었다가 가자!”

엄마가 다가오며 잔디를 가리켰다.

“거기 앉으면 안 돼요. 아까 소나기가 와서 잔디가 젖었어요.”

“애가, 언제 소나기가 왔다고 그래? 잠꼬대 하나?”

나는 더 이상 우길 수 없었다.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정신이 어떻게 되었다는 소리는 듣기 싫었기 때문이었다.

‘천의 생명?’

그 말이 내 마음에 꽂혔다.

“너, 어디 아프나?”

엄마가 이상한 눈으로 보았다.

“주요한, 정신 차려!”

엄마 말이 아득하게 들렸다.

“빨리 타라.”

멍청하게 묘지를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아빠가 말했다.

아빠 차가 양화대교를 지나고 있었다.

양화진 버드나무들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 것 같았다.

어디서 반딧불이들이 포르르 날아와 버드나무 위에 앉았다.

양화진에 단발머리 소녀의 눈빛 닮은 별들이 초롱초롱 떠오르고 있었다.

【에필로그】

“점동아!”

버들꽃 나무에서 선교사(아펜젤러)의 짐을 받아 사립문으로 들어선 아버지(김홍택)가 점동이를 불렀다. 아버지는 짐을 내려놓고 점동이를 안고 마당을 휘돌았다. 점동이는 딸 넷 중 막내였다.

“이거, 친구들과 나눠 먹어라!”

아버지는 양과자를 점동이 손에 쥐어주고 다시 양화진 나무로 나갔다.

“예들어~!”

골목에 친구들이 점동이 주위로 우르르 모여들었다.

마침 눈이 파랗고 코가 큰 사람이 지나갔다.

“안녕 하 세 요!”

아이들은 놀라 도망쳤다. 하지만 점동이는 도망치지 않았다. 아버지가 집으로 모시고 온 선교사님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었다.

“넌, 어디 삽 니 까?”

“저기요.”

점동이는 손가락으로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가리켰다.

코가 큰 사람이 점동이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리틀, 꼬마! 저기, 큰 기와집으로 놀러 오 세 요.”

점동이는 대답도 하지 않고 집으로 달렸다.

“엄마, 엄마. 아버지는요?”

“아직 안 들어오셨다.”

점동이는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지쳐 그만 사립문 앞에서 잠이 들었다.

“점동아!”

밤늦게 돌아오신 아버지는 사립문 옆에 졸고 있는 점동이를 안았다.

“아버지!”

“날 기다린 거니?”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해도 말을 들어야죠.”

어머니는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무슨 할 말이 있니?”

“아버지, 저기 기와집에 사는 코가 큰 사람이 놀러 오래요. 가도 돼요?”

“녀석, 그래라.”

점동이 아버지는 이미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점동이는 기와집 대문을 두드렸다.

“어서 오 세 요!”

코가 큰 사람은 반갑게 맞아주었다. 검정고무신에 난 구멍을 보고 점동이네 형편을 짐작하였다.

점동이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난, 스크랜턴 입 니 다.”

“전, 전, 김점동 입니다.”

“김, 점, 동?”

스크랜턴은 점동이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다.

“추운데 가까이 와서 앉 아 요!”

‘나를 난로에 집어넣으려고 하나?’

점동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괜찮아요.”

점동이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따뜻한 밀크 마 셔 요!”

점동이는 밀크가 무엇인지 몰랐다. 마시라고 하니까 먹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 따뜻한 밀크가 얼었던 몸을 녹여주었다.

점동이는 다음 날, 그 다음 날에도 기와집으로 놀러갔다.

“스크랜턴은 우유처럼 따뜻해!”

점동이는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다.

“코쟁이가?”

도망쳤던 아이들도 점동이를 따라 놀러 다녔다.

어느 날이었다.

“김점동, 간호 일을 배워 보 세 요.”

스크랜턴은 점동이가 총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영어도 배워 놓으면 쓰일 때가 있을 거 예 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성실해서 해 낼 수 있을 거 예요.”

그 후, 점동이는 스크랜틴의 추천으로 보구여관(1887년 한국 최초 여성병원)에서 통역과 간호보조 일을 했다. 그리고 1896년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의 최초 여의사가 되었다.

봄을 깨우는 작은 거인

이 효 정

“반짝반짝.”

나는 보드라운 흙 속에 묻힌 씨앗을 꺼냈다. 씨앗은 손바닥 위에서 아기별처럼 반짝거렸다.

“정말 멋진 곳이야.”

많은 생명들이 겨울잠을 자며 땅 속에 빛을 모으고 있었다. 땅 속은 별처럼 빛났다.

나는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빛나는 나무뿌리를 어루만졌다.

‘나도 아빠처럼 봄을 깨울 수 있을까?’

나는 걱정이 앞섰다.



| 이효정 |

- 2024년 아동문예 등단.
-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졸업.
- 자갈자갈 그림동화 회원.
- 『빨강 연필』, 『네가 딱이야』 공저.

아빠는 봄을 깨우는 거인이다. 겨울엔 땅 속에서 씨앗을 돌보다가 때가 되면 땅 위로 올라가 봄을 깨운다. 아빠가 봄을 깨우면 온 세상이 알록달록해진다.

‘이젠 내가 겨울바람을 몰아내고 봄을 깨우는 거인이 되어야 해.’
여태 아빠가 봄을 깨웠는데, 그런데 내가 봄을 깨워야 한다니.

“휴~.”

한숨이 나왔다.

아빠가 떠나기 전날이었다.

“온기야, 아빠가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

“안 돼요.”

나는 놀라 아빠를 붙잡았다. 아빠와 떨어지는 건 상상해본 적 없었다.

아빠는 내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었다.

“땅속에 빛이 없는 곳이 있어. 검은 연기가 땅위에 가득해. 내가 가서 빛을 모아 씨앗을 깨워야 돼.”

나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씨앗들을 생각했다. 마음이 아팠다.

“저도 따라 갈래요.”

“넌, 여기서 봄을 깨워야지.”

“하지만 저는 봄을 깨우는 방법을 몰라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넌, 이미 알고 있단다.”

“못해요.”

아빠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

“아빠,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나는 혼잣말을 하며 아빠가 떠난 곳을 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다. 고개를 숙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깜박, 깜박.”

“어?”

씨앗 하나에서 빛이 꺼져가고 있었다.

“내가 도와줄게.”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씨앗이 다시 빛나는 모습을 상상했다.

“다시 건강한 씨앗이 되어라. 후우~.”

주문을 걸듯 씨앗에게 입김을 후 불었다. 아빠가 했던 것처럼.

며칠 전 입김을 불어주었던 씨앗이 다시 살아났다.

나는 마음이 뿌듯했다.

“야, 예쁘다!”

나는 소리 나는 곳으로 등을 돌려보았다.

“깜짝이야. 그렇게 빨리 움직이면 어떡해.”

작은 날개가 급하게 움직였다. 작은 날개는 휘청거리다가 다시 날았다.

“너 누구니? 어떻게 들어왔어?”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작은 날개는 포르르 내 어깨에 앉았다.

“나도 몰라. 갑자기 바람에 날아왔어. 눈을 떠보니 이 곳이었지.”
나는 아빠가 떠난 곳을 보았다. 아마도 아빠가 가신 곳으로 길이 생긴 것 같았다.

“여긴 어디야? 별이 있는데, 나 죽은 거야?”

작은 날개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물었다.

“걱정하지 마.”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 쪽으로 날아가면 밖으로 다시 나갈 수 있을 거야.”

나는 조금 전 보고 있던 곳을 가리켰다.

“저 쪽이 어딘데?”

“네가 들어온 곳.”

“깜깜하잖아. 무서워 혼자 못 가.”

작은 날개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배고파 날 수가 없어.”

작은 날개는 불쌍한 표정으로 날개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다.

“잠시만.”

나는 먹을 것을 챙겨주었다.

작은 날개는 부지런히 쪼아 먹었다. 물도 꿀꺽 마셨다.

“히야. 이제 배부르다.”

작은 날개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고마워 친구.”

“난, 온기야. 넌?”

“나는 이름이 없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음…… 날개. 어때?”

“날개? 좋아!”

날개는 기분이 좋은지 제자리에서 날아올라 빙빙 돌았다.

파란 하늘 아래서 날아다니는 날개의 모습이 떠올랐다.

“봄이 오면 나가는 게 좋겠다. 지금쯤 겨울바람이 더 심해졌을 거야.”

나는 날개에게 말했다.

“봄은 언제 오는데?”

날개가 물었다.

“글썸?”

나는 말을 얼버무렸다. 자신 없는 모습을 들키기 싫었다.

시간이 지나 씨앗들은 곧 터질 것처럼 잔뜩 부풀어 올랐다.

“휴우.”

가슴이 답답했다. 아빠라면 벌써 봄을 깨웠을 텐데. 나는 아직 봄을 어떻게 깨워야할지 몰랐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

“응. 봄이 올 때가 된 것 같아!”

날개가 날아오며 대답했다. 그리고 내 어깨에 앉았다. 나는 손가락 끝으로 날개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봄이 빨리 오면 좋겠지?”

“당연하지.”

날개는 내 손가락에 머리를 비볐다.

“čit. 이제 여기를 떠나고 싶은 거야?”

나는 입술을 쪽 내밀고 말했다.

“난 새니까. 하늘을 날아야지.”

“그러다 또 떨어지면?”

날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날다가 떨어져도 날 수밖에 없어.”

“그게 뭐야.”

나는 투명스럽게 대꾸했다. 날개가 나를 떠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이번엔 봄이 아주 늦게 올지도 몰라.”

나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늦어도 괜찮아. 봄은 꼭 올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

날개는 가슴을 앞으로 힘껏 내밀고 날갯짓을 하며 말했다. 당장이라도 날아오를 것처럼 기쁜 얼굴이었다.

“봄이 오면 우리 같이 산책하자. 나는 하늘을 날고, 너는 달리는 거야. 빙글빙글 춤을 추는 건 어때?”

날개가 가볍게 날며 내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빠가 돌아오실 거야.’

마음이 초조해졌다.

어느 날, 날개가 큰 소리로 나를 불렀다.

“온기야! 이리 와 봐! 여기 씨앗들이 이상해!”

날개가 말한 것처럼 씨앗들의 빛이 꺼져가고 있었다. 쪼그라든

것도 있었다.

“아!”

눈물이 핑 돌았다. 봄을 기다리던 씨앗들이 시들어 버린 것이다.

“나 때문이야. 내가 봄을 깨우지 않아서. 흑흑흑.”

눈물이 똑똑 떨어졌다. 내가 봄을 깨웠다면 씨앗들이 새싹을 틔웠을 텐데.

나는 씨앗을 다시 살리려 애를 썼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다.

“봄을 빨리 깨워야 해. 하지만 나는 봄을 깨우는 법을 몰라.”

나는 씨앗들을 품에 안고 울었다.

날개는 늘 그랬듯이 내 어깨로 내려앉았다. 내 얼굴에 자기의 머리를 비비며 나를 위로했다.

“넌 할 수 있을 거야.”

‘넌 이미 알고 있단다.’

날개의 목소리에 아빠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온기야. 우리 봄을 깨워 보자.”

날개가 포르르 날아오르며 말했다. 처음 자신이 왔던 길로 조금씩 돌아가며 나를 돌아보았다. 따라오라는 것이다.

“그래. 이제 피하지 않을 거야.”

나는 눈물을 닦아내며 날개를 따라 밖으로 나아갔다.

밖은 생각보다 추웠다. 겨울바람 때문에 몸이 움츠러들었다.

“온기야.”

“날개야.”

나는 날개가 추울까봐 품에 꼭 안아주었다.

“온기야. 넌 봄을 깨울 수 있을 거야.”

날개의 마음이 가슴으로 느껴져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응.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따뜻한 봄바람을 상상했다. 언젠가 땅 속에 있던 씨앗을 살렸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을 담아 숨을 내뿜었다.

“후우우~~~~.”

따뜻한 숨이 흘러나왔다.

날개는 힘찬 날갯짓으로 땅 위에 온기의 따뜻한 숨을 퍼뜨렸다.

‘고마워 날개야!’

날개가 봄바람을 타고 날아다녔다.

“사뿐!”

나는 힘을 내어 걸었다.

겨울바람이 한 발 물러났다.

“사뿐, 사뿐!”

겨울바람이 두 발 물러났다.

“사뿐, 사뿐, 사뿐!”

겨울바람이 세 걸음 물러났다.

내가 걸을 때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온기야, 봄이 왔어!”

날개는 기뻐하며 하늘을 높이 날았다.

“내가 정말 봄을 깨운 거야?”

땅 속 새싹들이 얼굴을 속속 내밀었다.
나무에 연둣빛 새순이 점처럼 돋아났다. 물감처럼 번져가는 초록의 물결을 보며 나도 활짝 웃었다.
날개는 어느새 날고 있었다.
내 발소리가 사뿐사뿐 날 때마다 꽃이 피고 싹이 돋았다.
“쿵, 쿵, 쿵…….”
아빠가 돌아오셨다.
“우리 온기가 해냈구나!”
“아빠!”
아빠는 내 등을 오래도록 쓰다듬었다.
나는 봄 언덕에서 아빠의 긴 이야기를 들었다.
날개가 하늘 높이 날고 있었다.

택배 아저씨

정 현 옥

“아함~.”

“엄마, 아빠는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찬이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아빠를 찾았다.

“벌써 나가셨지.”

엄마 목소리가 부엌에서 흘러나왔다.

“오늘은 안 되겠네?”

찬이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다. 찬이는 서둘러 학교 갈 준비를 했다. 집을 나서자 옆집 현관문이 열렸다.



| 정현옥 |

- 교육대학교 졸업
- 2023 《아동문예》 동화 등단
- 자갈자갈 그림동화 회원
- 부산크리스천문학협회 회원
- 저서 『빨강 연필』(공저), 『네가 딱이야!』(공저), 『잡기 놀이』(공저)

“안녕하세요?”

때마침 찬이는 같은 반 빈이와 빈이 아빠를 문 앞에서 마주쳤다.

“그래, 찬이도 시간 맞춰 나왔네. 같이 가자.”

“네.”

빈이가 멋지게 차려입은 아빠와 같이 가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다.

“나도 아빠와 함께하면…….”

찬이는 혼잣말을 하며 아파트 계단을 뒤따라 내려갔다.

찬이가 사는 아파트는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다.

“헉, 헉억…….”

학교를 마치고 따가운 햇살을 맞으며 비탈길을 올라온 찬이는 아파트 나무 그늘 벤치에 앉았다.

택배차가 아파트 마당에 이제 막 도착한 것 같았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찬이는 낮익은 택배 아저씨께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그래. 인사성이 밝구나.”

차 문을 열고 내리는 아저씨가 찬이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치이익 쓰르륵.”

여윈 택배 아저씨가 트럭 짐칸의 문을 활짝 열었다.

“우와아!”

무심코 짐칸 안을 본 찬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밤새도록 해도 못 하겠는데…….”

걱정된 찬이는 혼잣말을 했다.

“이 많은 걸 어떻게! 꽤액 꽤…….”

집안 천정까지 빼곡히 들어찬 종이상자를 본 찬이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편리함에 물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빠 생각에 잠긴 찬이는 멍하게 하늘을 바라보았다.

파란 하늘에 하얀 꼬리를 단 비행기가 찬이의 눈에 들어왔다.

“위잉 위잉…….”

드론 쇼처럼 드론들이 분주하게 날아다녔다. 드론을 바라본 찬이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다. 순간 멀리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언가 찬이의 아파트 주위를 맴돌다 마당으로 서서히 내려앉았다.

“와아! 이게 뭐야?”

“혹시 우주선!”

생긴 게 킹크랩을 닮기도 한데 날개까지 달렸다. 찬이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짹 벌어졌다. 무서워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찬이는 과학 영화에 나오는 자율주행 비행기를 눈앞에서 보는 것 같았다. 찬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멀리서 본 내부에는 많은 버튼과 큰 모니터가 있었다. 한쪽에는 차곡차곡 쌓여 있는 종이상자와 AI들이 보였다. 모자를 쓴 아저씨는 연속 버튼을 누르며 AI와 계속 정보를 주고받았다. 꼭 아빠 같았다.

“모자를 쓴 아저씨가 혹시 우리 아빠?”

눈을 의심한 찬이는 눈을 비비면서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어어, 정말 아빠?”

찬이의 눈에는 아빠처럼 보였다.

“아빠! 찬이에요.”

우리 아빠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찬이는 손나팔을 하며 소리쳤다.

“.....”

아빠 닮은 아저씨는 말없이 재빨리 버튼을 찾아 눌렀다. AI들은 각자 택배 상자를 집집이 배달하느라 다리가 바쁘게 움직였다. 잠시 후 맡은 일을 끝낸 AI들이 타자 비행기는 천천히 움직였다.

“아빠, 멋져요!”

신세계를 본 찬이는 목청껏 응원을 보냈다.

“위잉잉.....”

찬이의 소리를 실은 비행기가 힘차게 날아올랐다.

‘언제 이런 날이.....’

찬이는 생각 속에서 생각했다.

멀어지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찬이는 두 손을 크게 흔들었다.

학원을 마치고 온 빈이가 언제 왔는지 찬이의 눈을 따라 한 곳을 바라보았다.

‘.....?’

빈이는 햇살 가득한 하늘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 여기서 뭘 해.”

빈이가 찬이의 어깨를 툭 쳤다.
“으응, 빈이구나. 땀을 식히고 있었어.”
찬이는 말을 얼버무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택배 아저씨만 물건을 들고 오르락거렸다.
“너, 아빠를 생각했구나.”
“아, 아니.”
반에서 모범을 보이는 빈이가 눈치를 쬐는 것이 알미웠다.
“이제 땀이 식었잖아. 들어가자.”
“너 먼저 가.”
찬이는 비행기에서 본 AI가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아빠와 AI가 함께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아빠 생각에 젖은 찬이의 마음이 무거웠다.
“이제 집에 가야지.”
찬이는 푹푹한 엉덩이를 툭툭 털며 일어섰다.
찬이의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5층 아파트다. 맨 위층에 사는 게 늘 불만이다.
“나도 힘든데 얼마나 힘드실까?”
무거운 물건까지 든 택배 아저씨를 생각하니 마음이 씩씩했다.
“타박타박…….”
찬이는 아파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다.
집집이 문 앞에 크고 작은 택배 물건을 놓여있었다.
“우리 집에는 택배 물건의 있을 리 없지.”

혼잣말하며 찬이가 5층에 다다랐다.

“아니! 이 무거운 걸!”

순간 찬이의 입이 짝 벌어지며 갑자기 얼굴이 빨강게 달아올랐다.

“엄마?”

현관문을 급히 열고 들어간 찬이는 엄마를 차갑게 불렀다.

“찬, 왜 그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영문을 모르는 엄마는 당황했다.

“우리 집 택배요!”

찬이는 택배 아저씨께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어, 어, 그제…….”

엄마는 머뭇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후 찬이는 택배 아저씨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었다.

학교를 마치자 근처 문구점에 들렀다.

‘그래, 예쁜 손편지가 좋겠지.’

찬이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평소 편지를 쓰지 않던 찬이가 연필을 꺾꺾 눌러가며 또박또박 손편지를 썼다. 평소 좋아하는 막대 사탕까지 넣었다.

택배 아저씨를 언제 만날지 몰라 책가방에 편지를 넣고 다녔다.

며칠 뒤, 그 택배차를 만났다.

찬이는 머리를 굽적이며 다가갔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찬이는 손수 쓴 감사의 편지를 아저씨 손에 얼른 전해 드렸다.

“허허, 고맙구나!”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는 택배 아저씨가 손을 흔들며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아저씨, 약속대로 우리 집 물건은 경비실에 두고 가세요.”

찬이의 목소리를 바람결에 실어 보내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저녁, 찬이는 유난히 아빠를 기다렸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유난을 떠는 찬이를 본 엄마가 말했다.

“그냥요.”

찬이는 일을 마치고 온 땀 냄새 나는 작업복을 입은 아빠를 반갑게 맞이했다.

평소와 달리 찬이는 아빠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냐?”

아빠는 겸연쩍은 듯 갈색빛 얼굴을 만지작거렸다.

“아니요.”

“아빠가 AI와 함께하면 좋을 텐데…….”

“……?”

영문을 모르는 아빠는 찬이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아빠, 멋져요!”

엄지 척을 한 찬이는 어느 아빠보다 열심히 사는 우리 아빠가 멋

지다고 생각했다.

피곤함이 묻어있는 아빠의 얼굴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환하게 빛났다.

소설

강신구 | 가빌라

Christian Literature 2024

가빌라

강 신 구

후끈한 모래바람이 불어도 견딜 만하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점점 일하기 편하다. 밤은 좀 쌀랑해도 일하는 낮은 좋다. 사막 바닥에 붉은 선을 그어놓으면 그를 따라 포클레인이 작업을 해 나간다. 폭 떈서 좌우로 쏘으면 불도저가 나란히 밀어 갈아준다. 그 위를 따라다니며 고르는 작업과 덩어리를 가장자리로 밀쳐 묻는 일을 도왔다.

사막 모래는 일하기 수월하다. 힘들게 팔 필요도 없다. 그냥 뜨면 한 삽 퍼진다. 네 길쭉 내려가면 딱딱한 땅이 나와 긁어 올린다. 곳곳을 그리하다 보면 나중은 줄이 맞아야 한다. 잇닿은 부분이 비



| 강신구 |

- 《문학도시》 215호 사랑방 등단
- 성파시조문학상, 부산수필문학상 수상,
- 시조집 『을숙도 갈대』, 『갑령의 하나님』
- 수필집 『아아산 기슭에서』, 『밀국수』, 『맹금머리』

뚜름하면 들어가 바르게 하는 작업을 한다. 곳곳의 작업반장이 일일이 지시해 가지런하게 만들어 놓는다. 제대로 안 되면 민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야, 기호야 저 벽 쪽을 더 깎고 바닥을 고르게 해라.”

측량기사의 도면과 맞아야 한다. 조금만 비틀려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모래언덕이 자꾸 생기니 수시로 재고 가늠해서 선을 이어간다. 거기 따라 반장들이 바빠 움직인다. 손바닥 잔금처럼 구불렁 구불렁한 광활 사막에 하늘에 비행기가 하얀 선을 긋고 가듯 쪽 바른 선을 만들어 나간다. 일하면서도 자로 잰 듯 어찌 이리 바를까. 자이 놀랄 뿐이다.

바닥을 고르게 평평히 해야 한다. 울퉁불퉁하면 다시 손봐야 한다. 수로관이 비틀리면 연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다 모래바람이 불어 고랑 아래로 사정없이 내리치면 덮어써서 얼굴과 온몸이 뿌옇다. 바글바글 인부들이 깊은 곳에서 복작거리며 일한다.

“엇저녁 바둑은 내가 이긴 거다.”

“화투 놀이로 돈을 땀으면 오늘 저녁 한턱 써라.”

이런저런 주고받는 얘기가 풍성하다. 리비아 아랍 노동자들은 말이 안 통해 눈치로 일한다. 내가 팽이와 삼으로 시늬를 보여야 따라 한다. 우리가 웃으면 내용도 모르면서 따라 깔깔댄다. 저들끼리도 무슨 말을 하곤 재밌다며 화들짝한다. 저게 우리 홍보는 건 아닐까. 뼈뚜름하다가도 재롱 피우고 비틀비틀 흔드는 게 우스꽝스러워 넘어간다.

“뚜---”

잠시 쉬는 시간이다. 땅바닥에 펴져 앉는다. 물과 간식 빵이 주어진다. 작업모 파이버를 벗어도 얼굴과 몸이 먼지로 뽀얗다. 잠시 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금싸라기인가 찹찹한 바닥에 드러눕는다. 시원함이 전신으로 스며든다. 그렇게 파내면서 이어 고르게 하는 작업으로 곧은 구멍이가 저 끝까지 똑바르다. 고되어도 일 한 것을 보면 보람 있다.

수로관 지름이 4미터이니 바닥은 차도만치나 넓다. 크레인으로 들어내려 바닥에 눕히고 물이 새지 않도록 이은 뒤 윗부분을 두 길 정도 흙으로 덮어씌운다. 바람이 불어와 송수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길이가 7미터이고 무게가 무려 70톤이 넘는다. 이 속에 물이 가득 차서 힘껏 밀어닥친다니 가히 놀라움이다.

우리나라 남북한보다 8배나 넓은 광활한 아프리카 북단 지중해 연안 리비아 땅이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허허벌판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인데다 봄철 사하라의 모래폭풍은 검은 먹구름처럼 천지를 휘덮는다. 이글이글 타들어 가는 여름 더위는 어떨까. 이런 속에 땅을 파고 수로관을 묻는 일이다. 그 길이가 엄청난 큰 공사다.

모래가 많이 쌓인 데는 파내도 무너져 내려 애먹인다. 드넓게 파야 7미터 깊이를 만들 수 있다. 사다리를 놓으면 비로소 땅 위로 올라온다. 온통 평평하게 하는 작업이 많다. 쌓인 모래를 걷어치워야 한다. 트레일러가 지나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르게 바로잡아줘야 한다. 시멘트 수로관이 얼마나 큰지 관 안에 사람 여럿이 들어가도 위아래가 넓다.

1, 2단계가 각각 2천 킬로 가까이나 된다. ‘가다괴’ 대령이 정권을 잡아 혈벗고 굶주리는 가난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때 어디 유전지대가 있을까 살살이 살펴 북부 수르트 지역을 발굴해 냈다. 축복이다. 오일 달러가 눈처럼 막 쏟아지고 굴러들어온다. 살판났다. 그중에 남쪽 사막 가운데에서 기름이 아닌 다량의 지하수가 매장된 것을 찾았다. 생명수이다. 주택지와 농경지가 있는 북쪽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다.

포장도로를 못 다니게 한다. 도로가 망가진단다. 30톤 전후여야 지 이견 배가 넘는다. 맨땅을 굴러야 하는데 굴곡지면 실린 커다란 관이 굴러떨어질 수 있다. 시키면 쇠붙이 수도관인데 여긴 너무 커서 인가 시멘트로 만들었다. 벙가지와 시르테 사이 브레가에서 만들어 1단계 공사장인 사리르로 싣고 온다. 그 길이 멀고 멀다. 중간 작업장까지 1천 킬로가 넘으니 밤낮으로 달려야 작업장에 이르게 된다.

참 황량한 사막이다. 광활하게 드넓다. 1개 조 60대 긴 트레일러가 500미터 간격으로 달리니 30킬로미터이다. 장관이다. 뽕얀 모래 먼지를 훑날리며 사하라 사막을 위아래로 질러가는 것이 위성에서도 보인다. 앞차의 먼지뿐만 아니라 돌개바람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며 일어나는 사막 모래폭풍이 무섭다. 에어컨을 쳐도 좁은 틈 사이로 들어온다. 여름 더울 땀 50도를 오르내린다. 푹푹 찌대고 사막이 푹푹푹 끓는 것 같이 보인다.

점심을 먹는데 꿀맛이다.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뽕얀 쌀밥과 국, 김치를 보니 고향에서 일하다가 눈독에 앉은 것 같다. 올

망졸망 산이 있고 개울물이 졸졸 흐르는 풍경은 여기선 꿈같은 애
기다. 무성한 풀과 숲나무도 볼 수 없고 부서진 돌산과 민둥산 모
래언덕이다. 나무 그늘이 어딤나. 어찌다 거센 모래폭풍이 불어 도
시락에 모래가 섞이면 엉망이다. 물에 씻어 먹어야 오후 일을 할
수 있다.

몇 달마다 바뀌가면서 작업 지시가 내려온다. 우리 반원들에게
도로 작업이 명해졌다. 차가 다니면서 파이거나 모래가 쌓인 길을
볼도저로 밀고 뒤따르면서 평탄하게 골라 줘야 한다. 모래를 걷어
맨땅을 다니는 게 좋다. 아니면 자갈을 깔아 좋게 만들어야 한다.
언덕에서 모래가 졸졸 내려오면 돌담을 쌓아주거나 판자로 막아
흐름을 멎게 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모래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된다.

몇 번 빠져 애를 먹었다. 꺼내려 움직이면 자꾸 들어간다. 시간
이 지체되고 밀고 당기고 심하게 움직이면 실린 거대한 수로관이
위험하다. 떨어져서 끌어올리는 일이 쉽지 않다. 기중기가 동원돼
야 하고 각처에 작업하는 인부들을 불러야 한다. 또 부서졌을 때
깨뜨려 버리는 일도 힘들다. 폭파해야 한다. 행하니 거리낌 없는
사막이 쉬울 것처럼 보여도 이럴 땐 어렵다 어려워. 겨울이어도 옷
이 젖어 흠뻑 땀범벅이다.

한 번씩 지나가면 망가져 고르게 다듬는 일이 반복된다. 겨울엔
가끔 비가 온다. 모래가 바퀴에 달라붙어 이리저리 흩어지니 길이
어지러워진다. 한곳에 쌓이거나 구덩이가 생긴다. 긴 행렬이 지나
간 뒤에 재빠르게 보수한다. 구간마다 작업반이 있어 자기 구역에

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한다.

봄날 모래폭풍이 불면 쌓여 길이 없어진다. 그 길 치우는 일이 난감하다. 퍼내도 끝이 없다. 바람에 날아온 모래가 이리 많은가 싶다. 그때 운전자는 편하다. 시원한 에어컨 차내에서 기다리다가 잠자기도 한다. 내려와 도와주는 기사도 있다. 저 덩그런 높은 곳에 앉아 봤으면 간절하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 계속 일해야만 한다.

길을 띄워 차들이 다 지나가면 허탈해서 털썩 주저앉는다. 그때 쉬는 시간이 주어진다. 물을 마시고 간식을 먹는 즐거운 시간이다.

“어 강기호 힘들었제. 이 물 좀 마셔 봐.”

“아니 이진 술이 아닌가.”

“어디서 났나.”

술을 못 먹게 하니 포도를 구해 담았다며 퀴퀴한 알코올 냄새를 풍기는 술을 한 모금 주었다. 이기호 반장은 의기양양한 듯 저녁에 먹자며 맛이 어떠냐 묻는다.

“군동내가 좀 나긴 해도 좋아 취할 것 같아”

기호는 충주에서 만나 같이 수로 공사에 들어온 동갑내기다. 반장 경험이 많아 여기 와서도 작업반장을 한다. 같은 고향 사람이어서 끔찍이 아끼고 좋아한다. 그가 있어서 지내기가 한결 편하다. 의지가 되고 할 얘기도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회포를 푼다.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은가 만나면 쉼쉼이 실타래 풀어낸다.

각자 숙소인 천막을 찾아가 목욕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뒤 저녁을 먹는다. 장기와 바둑, 화투 놀이뿐이다. 밖에 나와 하늘을 보며 별 무리와 고향 얘길 나눈다. 사하라 사막 북쪽 지중해 연안

으로 리비아 사막이 겹쳐 있다. 온 천지가 적막한 데 나다닐 곳이 없다. 그저 하늘만 쳐다볼 뿐이다. 은하수와 북두칠성 북극성이 반짝인다. 고향 충주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다.

“지구를 반 바퀴나 돌았는데 별자린 그 자리다.”

근교 도촌에서 농사지를 때 조부모 부모님을 모시고 처자식과 함께 옹기종기 형제, 친척, 이웃과 산 것이 모두 행복했다. 어릴 때 험벗고 고생하며 살아온 일들이 다 좋게 보인다. 밀보리가 익어가고 감자 고랑 북을 돌우다가 허리를 펴 오디를 따먹던 게 생각난다. 농주 한주밭을 들이키면 힘이 솟던 게 그리워라. 그 걸쭉하고 텁텁한 게 갑자기 킬킬해진다.

동생들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하던 일이 생각난다. 장가들고 시집가는 뒤흠다꺼리가 즐거웠다. 조부모 돌아가시고 부모 병간호에도 자식들 커 가니 큰 희망이다. 허리가 휘어져도 세상 사는 일이 점점 익숙해지며 눈을 크게 껌벅인다. 충주 시내로 갈거나. 아이들 상급학교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선산이 있는 대대로 정든 고향 땅을 두고 시내로 옮겼다. 각종 공사장에 나가 일하면서 도시의 높고 낮은 건물이 좋기만 하다. 지나가는 차량과 사람들 옷차림에서 새로운 활력이 생긴다. 농사짓기보다 낫다. 일당을 받으니 웬 돈이 이리 많나 싶다. 집에 갈 때 온갖 것이 널려있는 마트에서 이것저것 한 보따리 안고 갈 수 있다.

건축 공사장에서 각목 정리와 철근 옮기기 벽돌 저 나르기 등의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중참이고 점심이다. 새벽부터 땅거미 질 때

까지 하던 농사보단 훨씬 수월하다. 굶은날 쉬고 일 없을 때 놀아도 먹고 살기는 이게 편하다. 나오길 잘했지 거기 있었으면 아이들 시내 학교 뒤 대기가 힘들어 허리가 휘청한다. 찾으면 어디에고 일거리가 널렸다. 일꾼이 없어 애태우는 때이다.

“잘살아보세. 잘살아보세.”

청소차가 지날 때마다 울려 나오는 새마을 노래가 땀땀 돈다. 전국에 건설 붐이 일어 노동자가 살판났다. 자고 나면 임금이 오르고 여기저기서 오라고들 야단이다. 많이 주고 위험이 덜한 편한 데를 찾게 된다. 집에서 가까운 데일수록 좋다. 직장에는 월급도 적고 윗사람 눈치 보며 살아야 한다. 층층시하다. 같은 일의 반복이고 숨 막히게 갇혀 지내야 하니 데데해서 싫다.

“들로 산으로 훌훌 날아다니던 농사꾼에겐 막노동이 제일이다.”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오라 하니 다니면서 일당 받는 게 익숙하다. 농사짓는 것에 비하면 이걸 일도 아니다. 진작 나올 걸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자식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희멸끔한 얼굴로 주절주절 재잘재잘 얘기하는 게 한없이 즐겁다. 아내도 시장바구니 들고 납실 땀 마님 등장이다. 내가 힘이 안 나고 되겠다.

한발 더 나아가 해외에서도 오라 손짓한다. 사우디 향만 해외 노동자와 이라크 공사장 인부, 월남 파병, 독일 자르탄광 광부송출 등 돈 벌 일이 생겨난다. 여기보다 두 배 이상 벌 수 있다니 귀가 솔깃해진다. 지금보다 배로 나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날마다 꿈을 꾸게 된다. 거기 가면 의식주가 모두 해결되고 급료는 그대로 고스란히 집으로 보내지니 구렁이 알이다.

가자. 이렇게 해서 해외 근로 노동자 아니, 관광하면서 일하고 떼돈 버는 멋진 기회의 땅으로 말이다. 어디를 갈까 하다가 국내 굴지의 건설 회사에서 맡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장에 오게 됐다. 월남보다 먼 사우디아라비아, 더 먼 이라크, 거기서도 인도양을 지나고 아프리카 북단 황량한 사막 지중해 연안 리비아이다. 한참 가야만 하는 오지계 먼 나라다. 그런데 비행기로 오니 잠시 들뜬 사이에 온 것 같다. 이렇게 가깝나.

“이제 들어가 자자. 밤이 깊었다.”

주섬주섬 엉거주춤 잠자리로 들었다. 방글방글 학교 반 친구 애길 하던 새끼들은 잘 자나. 걸핏하면 얼굴과 머리를 쓰다듬는 아내 손길이다. 목까지 단추를 채우며 차 조심하라고 아이들에게처럼 타이르는 게 생각난다. 발 냄새 고약하다며 목욕하라고 다그치는 잔소리 안 들어 좋아도 웬지 허전하다. 그러면서 까라져 간다.

또 작업이 바뀌었다. 오늘은 관 매설작업장이다. 위험하니 조심하라며 민수가 일러준다. 발바리처럼 쏘다니며 들은 게 많아 회사 비밀스러운 것들도 다 말해준다. 우리가 일하는 이런 구간이 술하단다. 그래야 공사 기간을 땡길 수 있기 때문이다. 송수관 잇대는 것도 직선이 좋다. 어쩌다 휘어지는 곳은 완만해야 좋단다. 연결이 어긋나면 누수가 발생한다.

무거운 돌 흙을 가득 짊어지는 25톤 덤프트럭 3대의 무계이다. 그 송수관을 싣고 다니는 수송차가 브레가 공장에서 한번 움직이면 길이가 무려 수십 킬로미터이다. 먼지를 날리며 몇 며칠 사막을

꾸물꾸물 간다. 그 트레일러가 900여 대로 독일에서 들여왔단다. 10여 개 수송 차로 사막 곳곳을 누비고 달린다. 예정된 매설 길이가 모두 5천 킬로미터에 이른다.

부산에서 서울 경부고속도로 길이의 10배가 넘는다. 평양과 신의주, 만주를 거쳐 몽골리아까지 가는 긴 거리다. 5개 공사 계획 중 본부가 있는 트리폴리와 벵가지를 연결하는 1, 2차 구간이 활발하다. 3,500명이 투입되어 사막을 종단하는 작업이 우렁차다. 우리가 위치한 곳은 제2 수도 벵가지 1구간 중간쯤이다.

여기는 550만 대의 중장비와 연인원이 1,100만 명이다. 어마어마한 공사다. 귀로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공사 구간이 다섯 개 된다니 상상이나 하겠나. 이 수로를 가다피 대통령이 하나 더 붙여 8대 불가사의라 불렀다. 바닷물이 아니다. 강물도 아닌 땅속 축축한 지하수를 뽑아내는 일이 어디 쉽나. 기발한 생각으로 이 거대한 공사가 시작됐다.

700만 인구 중 주로 지중해 연안에서 모여 살아 그리로 식수와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연결해야 하는 작업이다. 수원지는 모두 1천 킬로미터가 넘는다. 그중 1구간이 가장 긴 2천에 가깝다. 티저보와 가다르데스, 하우나, 쿠프라로 리비아 저 남쪽 사하라 사막 중간쯤이다. 우리 작업 구간의 수원지는 사리르로 39억 달러 공사다. 총공사비가 150억 파운드인 우리 돈 25조 원이나 된다.

30년 공사 기간으로 하루 650만 톤 물을 북쪽 도시와 공장, 농장 등 각 곳으로 송수할 계획이다. 위로 성을 쌓는 만리장성이 있다면 이는 땅속으로 관을 묻는 ‘만리장관’이다. 길어도 비슷하다. 하도

거대해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 단일공사론 세계 최대라니 눈이 등그레진다. 아랍통합과 녹색혁명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지도자의 꿈과 용단이 대단하다. 이민수 반장은 어디서 들었는지 줄줄 한다. 저녁마다 그에게서 과외수업을 받는다.

실려 온 덩치 크고 둥글며 무거운 송수관을 움직이는데 크레인이 덜렁 들어 올려서 구덩이로 내린다. 가너린 긴 장대를 뽑아 올려 높이 세운다. 그 끝에 작은 줄이 그 무거운 관을 움직인다. 관을 밧줄로 묶어 끝을 걸어서 당겨 올렸다. 저게 들릴까 했는데 으라차차 들려지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지하 매설지로 살살 내리는데 사람들이 손으로 이리저리 밀어서 바르게 한다. 작은 장대가 휘어지지 않고 실 같은 줄이 그 무게를 지탱하는 게 신기도 해라.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 민수가 대단하다. 앞장서서 위험한 곳에 들랑날랑하면서 일한다. 저러다 관이 떨어지거나 사이에 끼이길라도 하면 어쩌나. 괜한 걱정을 태산같이 한다. 그런 나의 근심과는 관계없이 계속 내려 간다. 이음새에 사람들이 들어가 사다리를 놓고 연결한 뒤 단단하게 발라 잇는다. 물샐틈없이 만들어야 한다. 계속되는 내려 깔기 작업이고 한쪽 우리 조는 덮어씌우는 일이다. 관 내리는 데 저리 힘드니 어느 천년에 이 일을 마치나.

불도저가 밀어 두 길 정도를 덮으면 그 위에서 평탄 작업을 한다. 언제 여기 구렁텅이가 있었나 멀끔하다. 감쪽같다. 여전한 사막일 뿐이다. 지진 진동이나 전쟁 시 폭발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조이고 강력히 접합되도록 살핀다. 녹스는 쇠가 아니어서 오래 갈려나. 영성히 했다가 나라 망신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 많은 관을 하나하나 내리니 오늘 작업이 어느새 거의 끝나간다.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하여 기진맥진이다. 우리 기술이 이리 알뜰하게 뛰어나나 자랑스럽다. 하나같이 손발이 척척 맞는다. 오래된 곳은 모래 지평선 사막이지만 아직 덜 무너진 광야는 바위산이다. 그곳을 지날 때는 둘러서 돌아야 한다. 일이 복잡하게 많다.

모래 퍼내는 일이 그중에 쉽지. 바위 깨는 게 얼마나 어렵나. 착암기로 뚫어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 끄집어내야 한다. 시간이 몇 배나 걸린다. 크나큰 작업이다. 그런 지역이 간간이 나와 힘들어서 지척거린다. 관도 너무 커서 묻고 나면 평평하던 땅이 언덕이 된다. 나중에 어디다 묻었는지 알기나 할까. 곳곳에 깃발이라도 세워야 할까 보다.

올곧은 줄이 매일매일 슴벙스뽕 걸어가듯 달려간다. 이쪽저쪽 공사장과 가까워지면 연결이 딱 맞을 수 없다. 틈새가 생기기 마련이다. 관을 잘라 알맞게 해야 하는 작업이 기다린다. 모두 얼마나 잘하는지 그때마다 보고 배우기를 거듭한다. 싱거운 사람이 있어 웃겨야 덜 피곤하고 적적하지 않다. 함어나 아랍어는 무슨 랄랄랄 소리를 잘한다.

아랍 노동자도 여기 일하는 게 자랑스럽단다. 들어오기 어려운 곳이다. 잘못하다가 쫓겨나기라도 할까 조심하는 눈치다. 눈이 왕방울만치나 굵고 구레나룻이 텃수룩해서 잘 웃긴다. 말도 안 통하면서 저들끼리 뭐라 해 놓곤 자지러진다. 저것들이 우리 보고 저러는게 아닌가 의심이다. 그래그래 같이 일하고 먹고 자면서 정이 들어간다.

일이 많을 때는 점심과 저녁을 도시락으로 때운다. 중간에 그만 둘 수 없을 때가 있다. 늦게까지 하면 아스라이 넘어가는 해가 길게 붉은 석양 놀을 드리운다. 그 번득이고 이글거리며 휘황찬란하던 해가 가물가물 지평선으로 사라져갈 때는 애잔하다. 가족의 편지를 가슴에 넣고 쉴 때마다 읽어본다. 아낸 말끝마다 ‘보고 싶다’ 하는데 가깝나 냉큼 갈 수 없다. 애태우는 말이다. 아이 남매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 공부 잘한다니 듣기 좋아라.

여기 온 지 벌써 여러 해가 됐나 빠르다. 집도 아이들 학교 근처 아파트로 옮겨 근사하다. 냉장고와 에어컨, 커다란 텔레비전도 들여놓고 본다며 사진을 보내왔다. 컴퓨터를 사달라 졸라서 며칠 뒤엔 매장에 가기로 했다. 아버지 빨리 귀국해서 같이 살자고 바리바리 졸라댄다. 방마다 멋지게 꾸몄단다. 안방에 넓은 침대이고 남매 방도 따로따로 넣어 줘서 팔짝팔짝 뛰며 좋아한다. 즐겁게 사는 게 눈에 보인다.

“기호야 다음 달엔 시내 쪽으로 옮긴데”

브레가 수로관 공장 옆 사르테에서 일하라고 작업을 지시받았다. 트리폴리와 벵가지 중간 지역으로 주택지와 공장, 목축, 농장이 간간이 보인다. 담배도 하는가. 너풀너풀 잎이 무성하다. 감람 나무와 야자수가 늘어섰다. 밀과 보리가 익어가니 비도 농사지를 만치 내리는 것 같다. 대추와 포도밭이 크다. 무화과와 석류가 먹음직하게 익었다.

무엇이 많다. 천막을 걷고 잠자리 침상을 챙기며 이부자리 옷가지 소지품 등 간단한 것 같았는데 뒤척여 찾으니 허름한 것들이 자

꾸 나온다. 주방의 짐을 몇 차례나 실어 날라야 했다. 이민수 반장은 이런 일에 이끌이 났다. 공사장을 따라다니며 하도 옮겨서 일머리를 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이 평원 저 언덕으로 옮겨 다녔으니 말이다.

여기는 컨테이너가 늘어서 있다. 조금 나은 주거이다. 작아 보여도 들어가니 꽤 널찍하다. 식당도 큼직해서 모래별판에 살 때와는 달랐다. 조금 나가면 마을 사람 구경도 할 수 있다. 포도밭도 있는 걸 보니 민수가 여기서 구해온 거로구나 여겼다. 몇 며칠 이사한다고 먼 거리를 다녀서 멀민지 어질어질하다.

매점에서 시원한 청량음료가 있나 찾다가 위생실에 가서 약을 찾는데 민수가 불쑥 나타나

“어, 기호야 마을에 가 보자.”

마을이래도 몇 채뿐 더 멀리 나가야 좀 큰 마을이 있다. 공사장 인부들을 상대로 음식을 팔고 과일 가게 문을 연다. 음료수를 마시고 반원들과 나눠 먹으려 주섬주섬 샀다. 뭉툭한 무화과와 고향에서 즐겨 먹던 대추이다. 눈이 보름달만치나 커다란 아가씨가 많이 샀다며 덤으로 포도 한 송이를 쥐여준다. 먼지 덮어쓴 피죤직한 작업자만 보다가 일반인을 만나니 반갑다.

온통 덩치 큰 짐차와 흙 퍼담는 차들로 즐비하다. 이렇게 많은 중장비가 한꺼번에 일하는 걸 처음 본다. 드넓기는 끝이 어디쯤인지 아득하다. 운동장만 하다는 데 가당키나 하나. 수십 배 아니다. 몇백 배나 크나큰 호수다. 햇별을 쬐고 가라앉힌 뒤 정수한 맑은 물을 상수관으로 연결해 공급하려는 곳이다. 가운데 중장비들이

깊이 파내어 실어주면 어디론가 사방으로 달려 나간다. 복작거리는 게 개미들 이동하는 것 같다. 우린 가장자리를 다듬는 작업이다. 빙 둘러 주위를 녹지로 만드는 일이다. 이 나라를 우리가 새롭게 건설하고 있다.

매일 바닥은 낮아지고 깊어만 간다. 물을 담으면 모래로 다 스며들어갈 텐데 이게 저수지가 되겠다. 쓰잘머리 없는 걱정을 하면서 시키는 데로 꾸역꾸역 일했다. 아직은 물을 주면서 식물을 키워나가야 한다. 수천 리 남쪽의 물이 언제쯤 여기 들어차겠다. 그런 날이 오기나 할까. 하도 불별같이 목마른 곳이어서 푸념이 앞선다.

“기호, 가게에 나가자.”

음료수와 과일이 맛있다면 또 가잔다. 같은 작업과 식생활이 지켜오지 낫 설은 음식에 호기심이 가는가 보다. 저녁에 민수가 앞장서고 잠자리 친구들이 뒤따랐다. 마당 의자에 앉아 떠들썩하게 왁자지껄 술 마시듯 음료수를 벌컥벌컥 삼켜댄다. 술 파는 텐 없을까. 군침을 다신다. 먹을 걸 더 시키려 가게로 걸어갔다.

가져오라 하면 될 텐데 들어갔다. 모처럼 장사가 잘되고 흥청거리자 기분이 좋은가 방글방글 웃음이 넘치는 아가씨에게 ‘네임 네임’ 이름을 물으니 “키레나 키레나” 한다. 난 ‘강’이라고만 알려주고 한 상자 안고 나왔다. ‘알콜 알콜’ 하고 술이 있나 물었을 땐 무슨 말인지 몰라 웃기만 했다. 음료수도 취하는가 흥얼흥얼 노래가 나온다.

“아라비아 공주는 마법사 공주 오늘 밤도---.”

저녁 먹은 데다 달짝지근한 것을 자꾸 넣으니 배부르다. 두리두

리 싸서 가지고 갔다. 옆 컨테이너에 넣어 주니 이게 웬 떡이냐며 좋아한다. 이틀이 멀다고 사흘들이 나간다. 보아하니 눈 큰 여자에게 이끌려 엿보러 저절로 가지는 것 같다. 흥청망청했더니 좀 속지 근해져야 한다. 어디 한눈팔고 다닐 때인가 정신 차리지.

‘고향에서 처자가 목을 길게 타래밀고 기다리는데 이게 무슨 짓 걸인가.’

맨날 퍼 날라 대니, 자고 나면 쑥쑥 들어간다. 커다란 호수가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바위도 나오는가 폭파 진동에 몸이 부르르 떨린다. 땀 흘려 일하면서도 이런 공사장 일은 신명이 난다. 복작복작 부대끼는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파도가 느껴진다. 삽질하는 포클레인의 까딱까딱 작업 소리와 웅웅 거리는 덤프트럭의 힘찬 굉음이 저 아래서 용솟음친다.

“기호, 강을 찾아. 여기 강 씨는 너밖에 없잖아.”

몇 달 참고 안 갔더니 오늘 가자는 얘기다. 이 핑계 저 방패를 대며 빠졌다. 피곤하다 어디가 아프다며 내 빠졌다. 못 이기는 척하며 따를 수밖에 없다. 이곳에서 나에게 다시없는 친구 민수 반장이 아닌가. 지난해 없던 석류가 나오고 달콤한 부드러운 빵도 나왔다. 군내 풍기는 술도 따랐다. 또 담았는가 전보단 맛이 좋았다.

저들은 좋아하지만 난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쿵닥쿵닥 뛰어서 달갑지 않다. 모내기 때 괜찮다며 원하는 바람에 막걸리 한 잔을 마신 적 있는데 여태껏 가까이하지 않아 부담이다. 부모 앞에서 담배는 못 피워도 술을 배워 마신다는데 조부모 때부터 밀밭에도 못 가는 집안 내력이다. 거나하면 옆 사람에게 막 마시게 하는 주

정 등살에 몇 잔 받아마셨다.

어질어질해 비틀거리는 나를 키레나는 깔깔대며 웃는다. 날 보고 싶다 한 말이 고마워서 손목의 시계를 덜렁 벗어줬다. 예쁘장해서 덩치 큰 여자에게 맞을 것 같다. 팁이라며 주머니 속의 구겨진 디나르와 달러도 한주먹 안겨 주었다. 시아파처럼 차도르를 덮어 쓰지 않는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여자들이다. 수니파 아랍 여인으로 해맑은 모습이 이 밤에 더 예뻐만 보인다.

숙소에 돌아와서도 아직 술기운이 남았는가. 했던 말을 또 하며 구시렁댄다. 무화과와 올리브는 술이 될까. 반원들이 거나하게 취하니 기분 좋아 어쩔 줄 모르는 민수의 말이다. 나는 몸에 안 받는 술을 먹어 떨떠름하다. 얼굴에 화롯불을 쬐 듯 화끈거린다. 땅벌에 쏘인 것 같기도 하다. 물을 타 먹었으면 덜 할 걸 진한 술에 취해 쉬 깨지 않는다. 잠꼬대처럼 취한 반원이 외친다.

“어, 술 더 없나.”

그러면서 드렁드렁 코를 곤다. 술꾼은 잠도 잘 잔다. 못하는 난 잠은 고사하고 맨송맨송하다. 그나저나 저수지 물은 언제 들어차나. 여러 곳의 온갖 일을 해 봤지만 저 남쪽 수원지 작업은 해 보지 않았다. 거긴 어찌해서 물이 나올까 궁금하기만 하다. 애길 들었는가 민수가 한 말이다. 회사 돌아가는 사정에는 구석구석 빠삭하다. 삐쩍 파삭파삭한 마른 모래땅을 계속 파내면 축축한 흙이 나오고 자꾸 내려가면 물이 고인다. 그 물을 모아 퍼 올려 이곳으로 나른 다니 참 귀한 물이로구나.

수질 측정에서 35조 톤의 수량이 저장되었다니 대대로 혼전만

전 쓰고도 남을 양이다. 메마른 땅속에 그리 많은 물웅덩인가. 기
름도 많아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매장량이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진 땅이다. 저마다 타고난 복이라더니 정말 고른 세상이라는 생각
이다. 이 지하수를 긴 수로를 통해 가려면 8킬로미터마다 수압을
넣어야 한다. 그 먼 북쪽 벵가지까진 도랑물 흘러가듯 가지지 않는
다. 팍팍 밀어줘야 간다.

여러 곳의 웅덩이를 합쳐 큰 관에 물을 채운다. 마치 산골짜에서
한 방울 두 방울이 모여 여울이 되고 그것이 모여 시냇물을 이루어
간이 된다. 지중해에서 동남부와 서남부 각 1천 킬로미터가 넘는
지점에 1,300개가 넘는 지하 수원지를 만들었다. 땅 밑으로 500미
터씩을 파고 들어가야 물이 고인다. 깊이가 엄청나다. 이 물을 모
아서 나르는 공사 구간이 완공되면 총길이가 만 리를 넘는다. 30년
간 세월이 걸려 만들어지면 650만 톤 물을 공급하는 데 300억 달러
크나큰 비용이 든다.

1년 가까이 파낸 끝에 통수식을 하는 날이 다가온다. 서둘러야
한다는 감독관들의 말이 그렇다. 이게 정말 물이 나올까. 망부석처
럼 솟아오른 여러 개 아름드리 굽다란 관을 툭툭 쳐 본다. 역사적
인 날이 왔다. 정부 각료와 주위 기관장, 공사 관계자가 행사에 모
였다. 생명수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려 인근 각처에서 모였
다. 얼마나 기다린 목마른 물인가. 일찌감치 저수지 바닥으로 내려
와 기다리는 마을 사람들이다. 트리폴리로 보낼 물을 시험 통수하
면서 관이 하나하나 열리자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금세 물 폭포다. 마치 눈사태가 일어나듯 여러 개 관에서 흰 물

보라가 둘둘 말려 내려온다. 물에 휘말려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물속에 잠기고 만다. 사람들은 손으로 움켜쥐고 머리 위로 퍼붓는다. 8월 무더위가 가신다. 목욕 한번 시원하다. 쿵쿵 막 터져 나오는 물 폭탄이 거세다. 바지가 젖고 아랫도리가 잠기며 흠뻑 덮어 썼다.

물살에 미끄러졌다간 일어나 깔깔 웃고 뒤로 또 넘어진다. 휘청 휘청 뒤척이며 나오려는데 팔을 잡아당긴다. 보니 키레나이다. 함박웃음을 머금고 멀찌감치서 지켜보다가 옆으로 다가왔다. 물살에 쓸려 같이 떠내려가다가 안고 일으켜 세웠다. 강이나 호수에서 자주 해엄을 친 나는 물에서는 곧잘 나가는 물개다.

키레나는 처음이어서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허우적거린다. 그래도 좋아 어쩔 줄 모른다. 그때마다 손잡고 일으켜 세워줘야 했다. 오래 못 가 진기가 다 빠져 흐느적흐느적한다. 느닷없이 손등 시계를 보여주며 주뻗주뻗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 이 글이글 염천 더위에 소름이 돋으며 으스스 추워지자 더 거추장스러운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다.

식당에서 갖고 온 김치와 고기 안주로 술자리가 만들어졌다. 민수가 담근 술이 인기다. 모처럼 강물 목욕하고 나니 개운한 몸이다. 임시 통수식을 하고 몇 해 뒤 퍼붓는 물줄기가 호수를 채울 것을 생각하니 술맛이 절로 난다. 술꾼들은 입에 퍼 넣기라도 할 듯 마다하는 술잔을 권하는 버릇이 있다. 연거푸 들이키고 나니 가슴이 펄떡거리려 견딜 수 없다.

더위가 좀 가신 밤공기를 마시며 평상에 누웠다. 하늘의 별이 하

나하나 또렷했는데 영롱한 게 그만 엉겨서 얼룩덜룩하다. 시끌벅적 야단이다. 컨테이너가 우당탕거린다. 들어오라는 말을 뒤로 하고 지척지척 걸어 걸어간다. 노랫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가물가물 사그라든다. 키레나의 물 사태 속에 손짓 눈웃음이 어두운 밤길에 침범거리며 들린다.

옆에 모로 잠든 키레나가 나긋나긋 암 냄새를 풍기며 새근새근 굶아떨어졌다. 잠에서 깨 보니 험령한 아랍 여인의 두루마기 옷을 두른 채 벗겨진 몸을 감싸고 있다. 속옷까지 빨아 넣어놨다. 창 바람에 흔들린다. 살살 일어나 주섬주섬 입고 가족들 잠 깨기 전에 몰래 나가려 꿈틀거렸다. 새벽 희붐할 때 나서서 어슬렁어슬렁 가 재걸음을 걸으며 내뺐다.

늦게까지 놀았던가 여기저기 입은 채로 다들 곤드레만드레 제멋대로 뒹굴어 있다. 내가 들어오는 것도 모른다. 자리에 누워 천장을 쳐다보며 멍하니 생각하다 스르르 눈을 감았다. 온몸이 파김치다. 폭폭 삶기고 고아진 느낌이다. 열불이 터져 일어나니 아침 햇살에 컨테이너가 훗훗 달아올랐다. 땀에 젖어 찌들은 작업복들에서 쉬쉬한 냄새가 쿵쿵하게 나는데, 오래되니 달금하게 바뀌었다.

일이 터지고 말았다. 간밤 트리폴리와 벵가지가 공중폭격을 당하고 말았다. 독일 클럽 테러로 미군 수명의 사상자를 냈다. 그 배후로 리비아가 지목되면서 잔인하다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참 지나서 잊어버릴 만했는데 한밤중에 느닷없이 대통령 관저와 벵가지 군기지에 폭탄이 떨어졌다. 지중해 정박 미

군함에서 발진했다. 가다피는 겨우 목숨을 구했어도 가족이 피해를 봤다. 그때부터 막강했던 정부가 휘청거리기 시작한다.

뒤를 이어 우리 회사가 건설한 성수대교 붕괴로 함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 나라 금융위가 겹쳐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해외 건설지인 이곳 공사도 영향을 받아 날이 갈수록 어수선하기만 하다. 1단계 공사가 끝나가고 2단계 공사가 한창일 무렵이다. 저수지도 거의 만들어져서 천지개벽이 이뤄지는데, 모두 휘청거리게 됐다. 일을 할 수 있나 말아야 하나. 갈림길이 나타났다.

결국 불어닥친 IMF도 위협이었다. 어쩌나 얼굴마다 불안한 모습이다. 잘 나갈 땐 화색이 돌면서 오늘은 저쪽, 내일은 이쪽 공사에 구슬땀을 흘려댔다. 그만 모두 시들시들해져서 돌아가는 눈치만 살핀다.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만리장성 아니 장관의 토목공사가 끝이 없고 번창할 줄만 알았지. 그룹이 얼마나 건설한가. 이 큰 건설 회사가 기우똥기우똥 기울어져 갈 줄을 감히 생각이나 했겠나.

청주에 돌아온 지도 건 한 해가 다 돼 간다. 집에서 그만 오라. 오라 해서이기도 하지만 너무 오래 있어 지쳐갔다. 부도난 회사가 안타깝게 다른 회사와 병합되어 넘어간다는 말을 들으며 이민수와 같이 나왔다. 친구들과 모이면 아롱다롱 이국땅 얘기로 꽃을 피운다. 서글서글한 키레나와의 사랑 얘기도 눈치코치 없이 해댔다.

“강기호, 일자리가 생겼어. 가자.”

내륙 고속도로 공사장이다. 도로 닦는 일은 우리가 잘하잖나. 민

수가 이점 저점 알아보더니 찾아냈다. 산이 많아 험한 사막과는 달리 어렵다. 굴을 뚫어야 하고 다리도 놔줘야 한다. 리비아 사하라 모래땅과는 다르다. 조금만 파헤치면 바위가 나온다. 뚫어 폭파하면서 나가는 일이 쉽나. 작업반장 일을 맡았다. 이 반장, 강 반장이다.

사막에 길을 놓을 때는 즐거웠다. 허허벌판에 곧은 아스팔트 길을 내는 게 왠지 좋았다. 건너나 낙타를 타고 빠지면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심란해 보인다. 저 먼 지평선을 아득히 바라보는 아랍인들이 허망하고 측은했다. 그런 곳에다 곧은 길을 만들어주었으니 속이 다 시원하다. 거기다 동맥인 수로까지 깔았으니 할 일을 다 했다.

우린 산을 감아 넘고 굴을 뚫하니 지나간다. 고속도로 기준 수평을 만들기 위해 골짜기와 강은 긴 다리를 놓아 단숨에 건너간다. 터널은 저 끝이 보인다. 총을 쏘아 뺨 뚫린 기분이다. 이쪽저쪽을 같이 공사해 들어가 관통시킨다. 공기를 짧게 맞부딪치듯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좋다. 한참 돌아 휘어진 것도 있다. 맞닥뜨릴 수 있을까 걱정인데 수월하게 이어진다.

측량 기술이 대단하다. 보이지 않는 땅속을 어찌 그리 가름할 수 있나. 산을 오르는데 꾸불꾸불해도 조금씩 서서히 올라 정상에 다르니 신기하다. 그랬던 게 지금은 직선이나 곡선의 굴을 만들어 쉽게 달린다. 바람도 구름도 쉬어 넘는 추풍령 고개는 옛 얘기다. 굴이 깊어 교각이 되게 높다랗다. 척척 다 해내니 토목공사장은 즐겁다.

안 되는 게 없고 못 하는 것이 어디 있나. 그런데 논밭을 갈아엎

을 때가 서운하다. 대대로 먹고살던 땅을 넓게 길 내어 밟고 지나가는 일은 팔이 아리며 저렸다. 쌍방 4차선은 대단히 넓다. 차만 쌍쌍 달리면 먹을 게 나오나. 괴산과 문경, 단양의 칩칩산중이 어딴나. 호랑이 나올 만한 곳으로 흰하게 뿔러 길이 나고 말았다.

키레나는 아기를 낳고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뱅가지 근교에 방을 얻어 나가 산다. 조그만 가내공장에 일하면서 자기 닮은 사내아이를 키운다. 잘 알지도 못하는 뜨내기 남자는 잊어라. 아기를 당장 지우라는 가족의 말을 따르지 않고 집을 나와 떠돌다가 홀로 힘들게 낳았다. 얼마나 귀여운지 모른다. 엄마를 닮아 굵은 눈이 부리부리하다.

오동통한 주먹을 흔들며 방글방글 웃을 땀 고달픔과 그리움이 사라진다.

“가빌라야. 가빌라야 아빠 올 거야.”

은빛 캐논 시계에다 한 줌 움켜 준 리비아 돈과 달러를 고이 간직하고 있다. 아직도 태업을 감아주면 재깍재깍하고 간다. 그에게 받은 것 전부다. 통수관에서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물줄기에 서로 엉겨 뒤척이던 게 그를 잊지 못하게 했다. 응얼응얼 노래하면서 마당에 쓰러져 자는 그를 방으로 부축해 재워줬던 밤이 마냥 행복한 꿈이었다. 부도가 나 모두 떠날 줄 알았는데 다른 회사가 들어와 계속 공사를 이어 나갔다.

혹시 다시 찾아오려나 했지만 영 소식이 없다. 이름은 ‘강’이라는 것 외는 아는 게 없다. 허무맹랑한 짓이라고 부모가 나무라도

물에 넘어져 허우적거릴 때 안고 일으키는 그의 가슴이 따뜻했다. 이제 ‘가빌라’가 옆에 있어 세상을 다 가진 부자다. 무력무력 자라 초등학교에서 돌아올 때 골목 어귀에 나타나 엄마라 부르는 소리가 너무 좋다. 마치 ‘강’이 뛰어오는 것 같다.

“무심도 하지 갈 때 말없이 그리 떠나나.”

가빌라가 가끔 아빠는 언제 와 하고 물을 때 난감하다. 아무리 먼 공사장이라 해도 이렇게 컸는데 어찌 한 번도 안 오나. 이젠 다 그쳐 묻는다. 언제 오느냐 할 땐 말을 안 할 수 없다.

“아빠 외국 사람이다. 떨어져 못 온단다.”

“그럼 내가 가서 찾아올게.”

몹시 보고 싶은가 보다. 자주 묻는다. 어느 나라냐. 이름은 무엇인가. 모습과 키는 어떠한가며 꼬치꼬치 캐물었다. 대학을 다닐 때까지 같은 질문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난데없이 한국에 가겠다고 대사관을 들락날락한다. 용돈을 아끼고 틈틈이 잡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가겠다고. 그리잖아도 보고 싶고 그리움으로 가득한데 아들이 대신 나서니 고마웠다.

그래도 당황스럽다. 아는 것이라곤 강 씨이고 대수로 근로자였으며 한국에 산다는 것이 다다. 어느 곳에 사는지 알 수 있을까.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되겠나. 취중에 자고 간 줄 알지 야기 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을 것이다. 한 번도 안아주거나 쓰다듬어준 적도 없다. 본 적 없는 그런 아버지를 찾겠다고 나서니 핏줄은 끌리는가 보다.

서울 시내로 공항버스를 타고 가면서 두리번거린다. 리비아 수

로 공사를 맡은 한국이 더 잘 사는 것에 적이 놀랐다. 벵가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으리으리하다. 냄새나는 공방 화장실이 향긋하고 편안하다. 식수가 나와 아무나 그냥 마시는 데에 그만 눈이 등그레진다. 산천의 수목이 울창하고 울긋불긋 꽃들이 만발했다. 가로수가 줄지어 섰다. 길가엔 화분이 어디까지 놓여있다.

울퉁불퉁 모래땅의 밀, 보리밭만 보았는데 여긴 쪽쪽 칸칸이 줄 바른 논밭은 그림이다. 물 댄 논이 반짝반짝 빛난다. 도로의 매끈한 차량은 길이 매일 정도로 가득하다. 대사관의 도움으로 춘천 관광에 나섰다. 고속도로를 뱅하게 지나는데 얼마나 빠른지 찬찬히 좌우를 살필 수도 없다. 한강이 넘실대는 물이요 산기슭은 온통 굽이굽이 흐르는 물천지다.

황량한 사막은 찾아볼 수 없다. 늘 보던 움막이나 천막 등 허름한 집은 눈을 닦아도 보이지 않는다. 이곳저곳 여러 차례 관광을 다니면서 잠자고 먹는 것이며 자연과 도시, 시골 마을이 우리와는 다르다. 터번을 쓰고 사는 회교국 리비아와는 달리 교회 지붕의 붉은 십자가가 밤거리에 즐비하고 숲속에는 불교사찰이 웅장하다.

침실 방엔 목욕탕이 있고 틀면 마실 물이 막 쏟아진다. 넓은 식당에 뷔페가 화려하다. 온갖 토산 음식이 가득하다. 몇 번 먹으니 맵쌀한 게 맞는다. 산지가 많은데 소나무로 가득하고 꽃들로 수놓았다. 띄엄띄엄 떨어지지 않고 웅기종기 모인 따스한 시골집 풍경이 아름답다. 도시 아파트가 치솟아 고개를 짓혀 쳐다봐야 한다. 밤은 불빛으로 휘황찬란하다.

잘 때마다 아버지는 어디에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 매일 그려본

다. 대사관에서도 찾으려 노력했다. 연락이 오질 않는다. 건설 회사 리비아 직원 명단과 출입국자 명단을 찾아봐도 강이라는 성씨가 많다. 성만 가지고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다. 말이 통하지 않아 대사관 통역 직원의 도움을 받는다. 관광버스 안내원이 자기 회사 변호사를 소개하며 알아보란다.

강이라는 성씨와 1단계 공사 지역, 1차 통수식, 출입국 날짜를 기록해서 보여줬다. 그게 전부다. 막막한 일이다. 지도에는 작아도와 보니 넓다 넓어. 강 씨가 하나둘인가 수백만 명이다. 무슨 수로 찾아내겠나. 여러 달이 지나도 찾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가진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아득한 맘이 앞을 가릴 때다.

아이들도 다 커서 아들은 워커히 안 파라다이스에 직장을 얻어 서울 광진구 능동으로 신집살림을 나갔다. 딸은 결혼해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 탄천 곁으로 시집갔다. 늙어 힘부친 부부가 하릴없이 오도카니 살아간다. 역센 근력이 남아돌아 천지사방으로 쏘다니던 게 엇그제인데 언제 이리 늙어서 들앉았나. 어디가 안 좋은가 빌빌하는 민수와는 가끔 만나 늘 하던 시답잖은 사막 얘길 해댄다. 만나면 할 얘기가 그것뿐이다.

등기 편지가 날아오고 이내 전화도 걸려 왔다.

“여긴 한양여행사 안정훈 변호사입니다.”

사무실에서 뵈자는 전갈이다. 리비아 건설 수로 근로자 상담이 필요해서란다. 무슨 일일까 내심 걱정이 생긴다. 잘못된 일이라도 있는 걸까.

“리비아에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앗!, 아들이라니 무슨 말---.”

키레나 아들이라며 몇 달째 서울에 머물며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 말이 안 통해 애를 태웠다며 출입국 날짜와 해외 건설 직원 명단에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았다. 여러 같은 성 중에서 충주에 사는 강기호 씨를 찾아냈다. 가족에게 피해 없게 조심해서 연락을 취했다며 대뜸 만날 수 있겠나이다. 상봉을 주선해 주겠다며 물었다.

난데없는 아들이라니 어안이 병병하다. 아내와 자녀들이 알면 이 일을 어찌 감당하나. 난감하기 그지없어라. 이럴 줄 알고 이 변호사도 잠깐 용변 보고 오겠다며 자리를 떴다. 담배를 연신 피우곤 비벼 끄기를 거듭했다. 숨긴다고 될 일인가. 신문 방송에라도 나오면 큰일이다. 고향 도촌 친인척이 알면 난 죽은 목숨이다. 민수도 눈치채지 못한 김새다. 나도 감쪽같이 넘어갔다.

그날 취중이 흐릿하지만 조금 긴가민가해서 그러려니 하다가 귀국했다. 내 손을 꼭 잡고 잠든 키레나의 모습이 그러하다. 그나저나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빨리 결정해야 한다. 이런 낭패스러운 데가 어디 있나.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 오즘이 질금질금 나오려 한다. 성장할 때까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리 찾아올거나.

대사관 통역관과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찾을 수 없다는 말이 가슴을 찢른다. 그래도 돌아가지 않고 관광버스를 타고 전국을 둘러 보며 아버지 사는 땅을 살살이 살폈다니 강기호가 얼마나 무심한 사람이었겠나. 버스 기사와 안내원이 회사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리 만나게 됐다. 내일 정오 남산공원에서 만나기로 하고 사

무실을 나왔다.

헤어지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일렀다. 서로 잇고 살기로 매정한 약속을 변호사를 통해 전하니 목덜미가 쩡하다.

“오늘은 누굴 만났어요.”

“응 저 옛 친구가 좀 보재서.”

아내의 물음에 시큰둥한 대답으로 얼버무렸다. 한숨도 잠 못 잔 채 뜬눈으로 지새웠다. 혼자 여태껏 아들을 키우며 지냈을 키레나를 생각하니 섬찟하여 가슴을 짓눌러댔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키레나에게 안부를 어떻게 전하나. 생각했다가 흐지부지 지워지고 다시 떠올리기를 거듭하다가 날이 밝아온다. 부스럭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자

“간밤 왜 그리 잠을 못 자요.”

머리를 다듬고 매무새를 매만지는 등 몰래 하는 행동이 예사롭지 않자 아내가

“오늘도 누굴 만나나요.”

“어, 저 점심 약속이 있어서--.”

기호는 서둘러 공원으로 올라갔다. 그늘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다. 어떻게 생겼을까. 또 정말 나와와 사이에서 난 아들 맞나. 혼란스럽다. 둥글넓적한 덩치 큰 청년이 가까이 와서 넙죽 인사한다. 변호사와 통역이 안내했다.

“가벨라입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오! 반갑다.”

할 말을 많이도 모았는데 불쑥 그 말 밖에 생각이 안 난다. 한참

꼭 부둥켜안았다가 두 손을 모아 매만지며 토닥토닥 위로해줬다. 엄마 키레나는 잘 있다. 어떻게 지냈느냐. 서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며 한참을 말 잊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아들 가빌라는 그치지 않고 계속 울먹여서 어깨를 두드려 또 껴안아 줬다.

남산 아래 한정식당에서 점심을 들었다. 춘천과 강릉, 경주, 부산, 부여, 목포 등을 돌아봤는데 아름다운 산하이다. 곳곳에 물이 철철 넘쳐흘렀다. 리비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선진문물에 놀랐다는 말을 이어갔다. 살기 어려운 메마른 땅에 이탈리아 파시스트 무솔리니 침략으로 고통을 겪기도 했다. 대령 가다피가 들고 일어나 유전과 지하수 개발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

그 거대한 지하수 개발을 위해 만 리나 되는 배수로를 한국이 아니 아버지가 만들어줬다. 그런 고마운 나라의 아버지를 찾아왔다. 근동에 시오니즘이 일어나 옛 고향 땅에 유대 나라가 세워졌다. 난데없는 유럽을 휩쓴 나치즘에 이어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무단으로 드나든 파시즘이다. 이를 몰아내고 가난으로 허덕이던 나라를 일으켜 세운 애국자가 피살당하니 안 됐다는 말도 했다.

말끝에 어머니 키레나가 늘 아버지 보고 싶다는 말과 그리움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에 그만 넘기던 음식이 목에 걸렸다. 반반 그럴까 믿기도 했지만, 건네주는 시계와 돈을 챙겨주는 데에 숙연해지고 말았다.

“어머니가 갖다 드리렸어요.”

왈각 치밀어오르는 것을 억누르고 앞이 어룡거려도 가만가만 가빌라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쓰다듬어주었다.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만 이놈이 나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통역이 천연스레 말하니 더 감정을 자아내게 했다. 지중해 주위의 역사 얘기와 대수로 공사를 일으킨 나라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에는 감동이 북받쳤다. 고마운 키레나가 아들을 잘도 키웠구나. 생각이 든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었다. 헤어지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음을 느꼈다.

가까운 은행으로 갔다. 자녀 뒷바라지하고 따로 마련해 둔 노후 자금을 여러 다발 달러로 바꿨다. 가다가 먹으라고 미안하다는 뜻을 담은 사과 몇 개도 썼다. 배낭에 함께 넣어 안 받겠다는 가빌라 품에 억지로 안겨주었다. 키레나를 닮아 서글서글한 붉은 눈망울이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하다. 살며시 목덜미를 안아주며

“키레나 엄마한테 잘 있다고 안부 전해라.”

스르르 미끄러지듯 승용차가 골목을 빠져 큰길로 접어들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가빌라야, 잘 가거래이 잘 가---.”

2025년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신인상 공모

본 협회에서는 장차 미래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역량 있는 문학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인상 작품을 공모합니다.

1. 장르

- 시, 시조, 동시, 수필, 동화, 소설, 평론

2. 모집 내용

- 시, 시조, 동시: 각 5편 이상
- 수필: 2편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 동화: 1편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 단편소설: 1편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 평론: 1편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3. 응모 자격

- 기독교인으로 문학에 뜻을 둔 사람

4. 선정 내역

- 선정된 분에게는 당선패와 본 협회회원으로 영입하는 특전을 드립니다.

▣ 원고 보낼 곳 | 이메일 주소 yunhyung7@hanmail.net

우편접수: 부산 동구 중앙대로 514 (범일동한성기린프라자) A동1611호,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편집국

전화: 010-3851-4428

▣ 마감 | 상반기 / 하반기 / 수시접수

▣ 보내는 방법 | 이메일이나 우편접수 가능, 주소와 전화번호 필히 명기, 소속 교회 기재. 필명일 때 본명기재 바람. 선정자에게는 개별통지.

부 록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역대 회장 (1989~2023)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연혁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역대 회원 명단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칙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2023년 임원조직

부산크리스천문학 회원 주소록

2024년 회원 게시판 동정

편집후기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역대 회장 (1989~2023)

* 회장은 추대하며 임기는 2년

- 제 1 대 : 양왕용 (1989-1993) (시인, 부산대학교 교수 역임, 장로)
제 2 대 : 한영자 (1994-1995) (수필가, 문학박사, 권사)
제 3 대 : 정선기 (1996-1997) (시인, 부산일보 논설위원 역임, 장로)
제 4 대 : 김인환 (1998-1999) (시인, 복음신문 사장 역임)
제 5 대 : 남송우 (2000) (평론가, 부경대 교수)
제 6 대 : 허성욱 (2001-2002) (시조시인, 목사)
제 7 대 : 안유환 (2003-2004) (시인, 소설가, 목사)
제 8 대 : 류정희 (2005-2006) (시인, 권사)
제 9 대 : 하현식 (2007-2008) (시인, 평론가, 장로)
제10대 : 박정선 (2009-2010) (시인, 소설가, 평론가, 권사)
제11대 : 박춘덕 (2011~2012) (시인, 평론가, 고신대 명예교수)
제12대 : 공기화 (2013-2014) (수필가,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장로)
제13대 : 신 선 (2015-2016) (시인, 문학박사, 사모)
제14대 : 임종성 (2017-2018) (시인)
제15대 : 박춘덕 (2019-2020) (시인, 평론가, 고신대 명예교수)
제16대 : 김종현 (2021~2022) (시인, 음악가, 사진작가, 장로)
제17대 : 최귀례 (2022~2023) (시인)
제18대 : 송정우 (2024~현재) (시인, 장로)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연혁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창립취지와 활동 요지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문학적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1989년 창립하였다. 본회는 재부 크리스천문인들로 구성되었으며, 문학 장르는 시, 시조, 수필, 소설, 동시, 동화, 희곡, 평론 등 전 장르를 아우른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본회에서는 매년 연간집 『부산크리스천문학』을 발간하여 교회 및 학교와 각 도서관과 교도소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면서 지역사회의 정서함양과 지적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문학을 통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있다. 1992년 『소금의 나라』출판, 1993년 『빛의 나라』를 출판했다. 1994년부터 『부산크리스천문학』으로 제호를 바꾸어 출판하였다.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역사 요지

1980년 장성만 목사, 심군식 목사, 하현식 장로 등이 중심이 되어 『부산기독교문인협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기 시작하다.

1986년 8월 김홍규 목사, 허성욱 시인이 『어린양문학회』로 명명했다가 다시 『생명강문학』으로 개칭하다. 『열린 노래들』,

「눈으로 보는 소리」, 「침묵 속의 아가」 등의 문학지를 발간하다.

1989년 7월 부산대학교 교정에서 민주교사협의회 모임 개최, 허성욱 시인과 박윤기 시인과 부산대학교 양왕용 교수가 회동하여 기독교문인협회에 대해 논의하다.

1989년 8월 심근식, 양왕용, 하현식, 박윤기가 가칭 『부산크리스천문학가협회』를 발기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다.

1989년 9월 4일 오후 6시 30분에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 소재 소정교회 교육관에서 『부산크리스천문학가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 취지문 :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순수문학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회원자격은 기성문단에 데뷔한 문인과 기독교계통 문학지, 신문의 문학상 수상 또는 신인상을 받은 세례교인으로 한다.
- 임원 : 고문 심근식(용호제일교회 목사:고신총회교육위원회)
회장 양왕용(소정교회 장로:부산대교수)
부회장 하현식(석포교회 장로:브니엘고교 교사)
총무 허성욱(삼일교회 집사:성지공고)
서기 구모룡(소정교회 출석:부산대 사대)
- 임원보장 : 부회장 한영자(동래온천감리교회 권사:한가족의원)
감사 임춘남(사상제일침례교회 목사)

1989년 10월 16일 오후6시30분 온천동 소재 소정교회 교육관에서

부산크리스천문학가협회의 모임을 갖고 회칙을 제정하고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와 별개의 단체임을 확인하다.

1990년 1월 8일 오후 6시 30분 조방 앞 석화그릴 5층에서 월례회를
개최하여 문집 발간에 대해 논의했다. 백성규, 김흥규를 회
원으로 영입하다.

1990년 3월 6일 오후 6시 30분 문현동 교회복음신문사에서 월례회
를 개최하여 문집발간, 교회복음신문 독자문예란 심사, 월
례회 시 작품 평가회와 문제작 토론회를 갖기로 하고 4월 30
일 회칙수정을 위해 임시총회를 열기로 하다.

1990년 4월 30일 교회복음신문사에서 임시총회로 모여 회계를 두
기로 하였고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문학과 지성사)에 대해 양
왕용의 주제 발표 후 토론 시간을 가지다

1990년 5월 28일 오후 6시 30분 교회복음신문사에서 월례회를 열
고 월례회를 홀수 달 마지막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교회복
음신문사에서 열기로 하고, 작품집 발간, 해변기독교문학교
실운영에 대해 논의하다.

1990년 7월 19일 교회복음신문사에서 7월 월례회로 모여 해변문학
교실 점검하다

1990년 7월 30일-8월 1일 2박 3일간 강서구 천가동 소양보육원에서
해변기독교문학교실을 열다.

- 내용 : 이방사상을 바탕으로 한 문화만이 문화대접을 받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독교문화를 꽃 피우게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독교문화 인구의 저변 확대와 기독교문
화 작가 양성을 목적으로 개최하다.

· 참가자 : 심군식, 양왕용, 하현식, 한영자, 구모룡, 김인환, 김홍규, 남송우, 박윤기, 박춘덕, 백성호, 임춘남, 허성욱 등이 강사로 활동했다. 남송우 교수가 『한국기독교 문학의 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후 시, 소설, 수필, 동화, 콩트, 시조 등의 강의로 이어졌다. 25명의 독자 참가자들에게 각각 저서를 모아 10권씩 나누어 준다.

백일장을 개최하여 3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시-최미경(섬), 정은숙(가덕도), 산문-이태숙(가덕도, 나사리와 가덕도의 만남), 교회복음신문사에서 타올 100장, 본회에서 볼펜 100개를 기념품으로 나누어준다.

1990년 9월 24일 오후 6시 30분 교회복음신문사에서 월례회를 열고 최장길, 김동재를 회원으로 영입했다. 정대훈, 안유환, 김석규를 영입하기로 했다. 작품집은 다음해 봄에 출판하기로 결의했다.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문학과 기독교의 만남』 행사를 열기로 하다.

1990년 10월 22일 오후 7시 교회복음신문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그 동안 사업을 보고하고, 재정과 해변문학교실 결산을 보고하다.

1990년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7시 삼일교회 소예배실에서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어린양문학회와 해변문학회가 함께 모여 <추수감사절 기념 문학의 밤> 행사를 열다.

1991년 1월 28일 교회복음신문사에서 1월 월례회로 모여 작품집 원고 모집의 일과 91년도 해변문학교실에 대해 논의하다.

1991년 4월 1일, 29일 교회복음신문사에 모여 해변문학과 작품집

과 회원명부를 정리하고 신입회원을 인준하다.

이금옥, 최장길: 부산아동문학 작가상 수상.

심군식: 주일학교 교육론 출간하다.

1991년 5월 27일 교회복음신문사에 모여 작품집 발간을 위한 재정
충당 방법, 제2회 해변기독교문학교실에 관해 논의하다.

참석자: 정선기, 구모룡, 송길원, 이금옥, 한영자, 최장길,
김동재, 이영애, 김인환, 허성욱

1991년 7월 29일 월례회를 열고 작품집 원고를 8월 말로 마감하
기로 하고 제2회 해변문학교실 강사와 준비위원을 선정하고
11월 2일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크리스천주부백일장’을 열
기로 하다.

1991년 9월 30일 교회복음신문사에 모여 작품집에 사진, 프로필을
심기로 하다. 임춘남 『절반의 기독교』, 백성호 『성지여행기
거룩한 발자취를 찾아서』를 출간하다.

1991년 10월 기독여성백일장(부산기독문화회와 공동 주최) 개최하다.

장소: 유엔모지

1991년 11월 4일 교회복음신문사에서 작품집 교정하다.

1992년 1월 10일 첫 작품집 『소금의 나라』 발간하다

1992년 2월 15일 오후 4시 20분 해운대 크리스탈 비치오피스텔에서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고문 심군식, 회장 양왕용, 부회장
정선기, 한영자, 총무 허성욱, 서기 구모룡, 회계 이영애, 감사
임춘남을 각각 선임하다.

1992년 3월 9일 교회복음신문사에서 월례회를 열고 작품집 배부를
하고 제2집 준비와 <제3회 해변문학교실>, <주부백일장>.

- <추수감사절 기념 문학의 밤>, 초량에 있는 <기독교문화센터>에서 월례회를 하기로 하다. 문학 강좌 개최 등을 논의하다. 5월부터 월례회를 기독교문화센터에서 열기로 결의하다.
- 1992년 4월 20일 정선기 회원 시집(경부선 그리고 호남선) 출판기념회를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개최하다.
- 1992년 5월 18일 초량동 소재 기독교문화센터에서 5월 월례회, 작품집 발간, 제3호, 해변기독교문학교실에 관해 논의하다.
- 1992년 7월 14일 초량동 소재 기독교문화센터에서 7월 월례회, 작품집 발간 제3회 해변기독교문학교실에 관해 논의, 첫 작품집 발간비 문제로 힘들었던 일을 논의하다.
- 1992년 9월 9일 월례회를 개최하다.
- 1992년 10월 기독여성백일장(부산문화회관)을 개최하다.
- 1992년 11월 16일 오후 6시 30분 초량동 광장호텔 2층에서 월례회를 열고 송길원의 <기독교 가정사역의 중요성> 특강을 들었다. 문협회보 <크리스천문학>계간 20페이지 분량을 발간하기로 하다.
- (편집실무/김동재, 이영재, 류정희, 김정후)창간호 발간비 교회복음신문사가 지원, 제2호, 박영희 장로 지원키로 하다.
- 1993년 12월 15일 두번째 작품집 『빛의 나라』 발간하다.
- 1993년 12월 16일 부산기독교문화회와 공동으로 제5회 기독교문화축제를 개최, 이상규 교수(고신대, 교회사학자)의 ‘부산 - 부산 기독교문화’ 주제의 강의를 듣고 토론회를 가진 후 93부산기독인 수상집(제5집) 『또 하나의 작은 결실』 부산크리스천문학가협회 작품집 『빛의 나라』 출판기념회를 가지다.

1994년 1월 27일 정기총회(2대회장/한영자선출) 부산일보사 10층에서 개최하다.

1994년 4월 1일 크리스천문학 세미나를 영광도서에서 개최하다.

1994년 6월 27일 크리스천문학 세미나를 부일소강당에서 개최하다.

1994년 8월15일(월)-16일(화) 송정해수욕장 동성리서치타운(동성유스호스텔)에서 ‘문학에 비친 속죄와 구원’이란 주제로 “94해변문학교실”(대회장 : 한영자 회장)개최하다. 이창목사(시인, 남부순복음교회 담임)의 인도로 개회 예배드리다. 박춘덕 교수의 <속죄양의 시>, 남송우 교수의 <현대문명의 위기와 구원의 탐색> 제목의 주제 특강, 양왕용 교수의 <한국현대문학사에 나타난 기독교문인> 제목의 특강이 있었다. 임춘남, 한영자, 이창희, 허성욱의 <나의창작 이론과 실제> 강의와 회원들의 자작시 낭송이 있었고, 독자와의 대화 시간, 신인 발굴을 위한 해변 백일장을 가지다.

1994년 10년 13일 책 모아서 보내기 프로젝트 시행으로 벨엘요양원으로 책을 보내다.

1994년 12년 29일 연산동 뉴그랜드 한식뷔페에서 크리스천문학 제3호(1994.12.20.발행) 출판기념회를 가지다.

1995년 2월 18일 모아호텔에서 199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조직을 개편하다.

- 1부 예배: 사회/ 한영자 회장, 기도/ 양왕용 고문, 설교 “나라가 임하기를 너희는 매일 기도하라”(마6:10) 이창희 목사
- 조직개편 : 회장/한영자, 부회장/ 조남순, 정선기, 허성욱, 감사/ 임춘남, 박춘덕, 총무/ 이창희, 부총무/ 하란사, 서기/류

정희, 부서기/유신자, 회계/이영애, 부회계/남현자,
 이사:시분과/김인환, 배상호, 이창, 이채곤, 임종성
 수필분과/박영희, 아동문학분과/최장길
 소설분과/임춘남, 시조분과/박정선, 평론분과/남송우

- 1995년도 사업계획 : 크리스천문학 세미나 2회(춘,추), 해변문학교실 1회(8월중), ‘95크리스천문학지 발간(11월중), 출판기념회 및 송년의 밤(12월중), 시화전, 정기모임(3개월에 1회) 및 임원회(비정기적)

1995년 8월 15일(화)-16일(수) 송정해수욕장 동성리서치타운(동성유스호스텔)에서 ‘성경 속에 나타난 미래문학’이란 주제로 “95해변문학교실”(대회장: 한영자 회장) 개최하다.

- 15일, 해수욕장 송림에서 오전11시에 해변문학 백일장을 가지고, 오후에 박남훈 교수(문학평론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말의식”, 양왕용 교수(시인)의 “시와 신앙-김현승의 경우”, 박춘덕 교수(문학평론가)의 “예언자적 낙관주의 박두진”을 주제로 특강을 가진 후 심야(23시)에 남송우 교수(문학평론가) 인도로 총편 및 독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지다. 16일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하다.

발제자: 한영자, 이창희

1996년 1월 29일(월) 서면 엔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선기 시인을 제3대 회장으로 선출하다.

고문: 심군식, 양왕용, 한영자

부회장: 이창희, 조남순, 허성욱, 사무국장: 하승무

사무차장: 손영희, 분과위원장: 임종성, 박정선, 임춘남,

남송우, 박영희, 최장길, 하창길

서기 : 이영애, 회계 : 류정희, 간사 : 남현자

감사 : 박춘덕, 백성호

1996년. 6월 10일(월)-12일(수) 부산일보사 1층 전시실과 10층 소강
당에서 “시인 예수 그리고 사랑”을 주제로 <크리스천문학
축제>를 개최하다.

- 취지와 목적 : 문학의 해를 기념하여 기독교 문학을 통해 하
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다.
- 전시 참가 작가 : 권수연, 김인환, 김정미, 김정후, 남현자, 류
정희, 박춘덕, 백정자, 손영희, 송유미, 신선, 심군식, 양왕용,
이창희, 임유영, 임종성, 임춘남, 정선기, 조남순, 최장길, 하
승무, 한영자, 허성욱
- 공연 : 6월10일 오후7시에 정선기 회장의 개회 인사로 시작,
동시 행위전, 연주회, 중창, 시낭송, 수필낭송, 구연동화, 독
창, 드라마, 연합찬양 등이 진행되었고 아동문학가 심군식
목사의 축도로 폐회하다.

1997년 1월 28일(화) 서면 엔젤 호텔에서 97정기총회를 열고 문학
기행, 해변문학축제, 연간집 발간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다.

1997년 8월15일-16일 송정해수욕장 동성 유스호스텔에서 “자연,
환경, 생태 그리고 기독교문화”란 주제로 해변문학교실을
개최하다. 남송우 교수의 발제 강연 : “생태계 파괴와 생명
의식의 형상화”, 최원철 교수 : “생명, 그 기독교적 접근”, 박
춘덕 교수의 “박두진 시에 나타난 자연관과 기독교” 등의
일반 특강이 있었다. 한영자 수필가의 “수필에 나타난 자

연”, 허성욱 시조시인의 “시조에 나타난 자연”, 최장길 아동 문학가의 “아동문학에 나타난 자연”, 임춘남 소설가의 “소설에 나타난 자연”이란 창작 이론 강의와 문인 및 독자의 작품 낭송 등을 개최하다.

2001년 8월 6일(월) - 7일(화) 거제 유스호스텔에서 해변문학교실을 개최하다.

- 주제특강: 『생태학적 세계관과 생명문학』 남송우 교수, 『독도의 역사적 의미』 박정선 시인.
- 남송우 회장의 사의표명(캐나다 교환교수)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허성욱 시조시인을 6대 회장으로 선출하다.

2002년 1월 29일 서면 영광도서 앞 골드라인(한미은행 20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다.

2002. 8. 5.(월)-6(화)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에서 한국크리스천 문학가협회와 공동주최로 2002년도 여름문학세미나를 개최하다. 주제: “멀티미디어 시대와 기독교문학”

- (주제발표: 허성욱 시조 시인, 오인문 소설가). 부산대학교 박재운 총장 만찬/기념사가 있었고, 작품상 시상식, 작품 낭송, “나의 작품 나의 인생”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고, 한국크리스천문학 회원들과 함께 송정 관광 시간을 가지다.

2003년 2월 3일 대연동 채식뷔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안유환 시인을 7대 회장으로 선출하다. 부회장: 류정희, 이영애, 류일렬 사무국장: 박정선 회계: 남현자 간사: 손영희, 김정미, 신선, 조금순

2003년 4월 25일 서면 영광도서 문화사랑방(4층)에서 『크리스천문

학』 제11집 출판기념회를 갖다.

2003년 5월 13일 부산시청 동백홀(26층 스카이라운지)에서 『부산크리스천문학』 제11집 합평회 및 2003 해변문학교실 개최를 논의하다.

2003년 6월 9일 오후 6:30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월례회를 갖고 금년 해변문학교실을 거제도에서 개최키로 하고 주제는 ‘바다’로 결의하다.

2003년 8월 4일 - 5일 거제 문화관광농원에서 『바다, 그 실존과 허무를 넘어』 주제로 해변문학교실을 개최하다.

- 주요순서 : 1) 주제강의= 정선기 시인.
- 2) 캐나다 이야기= 남송우 교수.
- 3)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의 발전을 위한 모색= 조별토의.
- 박춘덕 교수(고신대)= 미 남가주대학 교환 교수를 마치고 귀국.
- 전기웅 교수(부산대)= 『부산시인』 편집주간으로 취임하다.

2004년 4월 22일 연산로터리 해암뷔페에서 『부산크리스천 문학』 제12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다. 1부 예배(박용주 목사 인도)에 이어 시낭송= 류정희, 최원철, 서평= 구모룡 교수(해양대학교), 축사= 강인수 부산문인협회장 격려사= 임수생 부산시인협회장, 축가= 사직동교회 중창단 순으로 이어지다.

2004년 10월 25~26일(1박2일) 가을문학기행을 실시하다
코스=악양 평사리 - 화개장터 - 지리산온천(숙박) - 선암사 - 낙안읍성 - 보성차밭 - 강진등

2006년 12월 서면 롯데 백화점 9층 한정식 <가원>에서 총회를 열고 박정선을 제9대 회장 선임하다.

2007년 1월 14일 박정선 신임회장이 개인사정으로 사의를 표명, 6개월간 회장 공석.

2007년 9월 20일 부전동 적십자회관 옆 식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하현식 장로를 회장으로 추대하다.

2007년 12월 27일 크리스천문학 제15집 출판기념회 및 문학강연을 개최하다. 강사: 한영자 박사(일제강점기 한국기독교 詩 연구)

2008년 1월 15일 서면 베아트리체에서 월례회 개최하다.

- 특강: 하현식 문학강좌(표현과 의미)
- 신입회원: 김부상(소설), 김정자(시조), 월례회는 격월제로 넷째 화요일마다 열기로 하다. 문학강좌는 계속하기로 하다. 부산크리스천문학상 제정하기로 하다. 해변문학교실 부활. 문학기행하기로 하다.

2008년 4월 9일 문학기행. 장소: 밀양 베테스다 복지센터

2008년 8월 21일~22일 해변문학교실개최, 문학지망생 13명 참가 / 거제 둔덕 유치환 생가 청마기념관, 청마묘소, 패왕성, 산방산, 방하교회, 거제수목원 방문

2008년 12월 2일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부설 문예대학 개강식을 하다.

- 학장: 양왕용 박사, 학감: 김종화, 교무처장: 김종현, 교무부처장: 양운형
- 책임교수: 하현식, 양왕용, 임종성, 남송우
- 특강교수: 박춘덕 시인, 허성욱 시조시인, 박시교 시조시인, 강은교 시인, 박정선 소설가, 김하기 소설가, 정목일 수필가, 김시백 시조시인, 권대근 수필가

- 2008년 12월 총회를 열고 박정선을 제10대 회장으로 추대하다.
- 2009년 6월 문학기행 경남 사천시 박재삼 문학관 기행, 하동 이병주 문학관 기행을 하다.
- 2009년 8월 하계세미나 및 문학기행(경북 칠곡 구상 문학관, 다부동전투지, 안동 이육사 문학관, 도산서원 답사)을 하다.
- 2009년 8월 크리스천 한여름 백일장 개최(경성대학교 신학대학)하다.
- 2010년 봄 문학기행 박경리 토지문학관 및 홍쌍리 매실농원을 기행하다.
- 2010년 8월 크리스천 한여름 백일장 개최(모두모두 농원)하다.
- 2010년 10월 제2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백일장 개최하여 장원 명인숙(수필) 수상하다.
- 2010년 12월 총회를 열고 박춘덕 시인을 제11대 회장으로 추대하다.
- 2011년 4월 거제도 일원 문학기행을 하다.
- 2011년 10월 제3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백일장 개최하여(부경대학교) 장원 권갑숙(수필) 수상하다.
- 2011년 12월 총회 겸 부산크리스천문학 19집 출판기념회를 하다.
- 2012년 4월 봄 문학기행, 경주 동리목월문학관, 대구 동산의료원 의료선교박물관, 대구제일교회, 계산 성당, 영천 자천교회 방문하다.
- 2012년 10월 13일 제4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백일장 개최(부경대학교)하여 장원 권영숙(시) 수상하다.
- 2012년 12월 20일 총회 및 부산크리스천문학 20집 출판기념회,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시와 음악의 밤(대청동 프라미스랜드) 공기화 수필가를 제12대 회장으로 추대하다.

- 2013년 5월 4일~24일 『가족과 함께 시의 세계로』 가정의 달 시화
전 개최(해운대 동백섬)
- 2013년 10월 9일 제5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백일장 개최(부경대학
교), 장원 임지연(산문) 수상하다.
- 2013년 12월 7일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시 낭송회를 남포동 <까페
브릿지> 2호점에서 개최하다.
- 2014년 10월 3일 제6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백일장 개최(부경대학
교)하여 장원 안정숙(수필) 수상하다.
- 2015년 8월 17일~18일 여름문학세미나 밀양소명수련원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제목으로 개최하다.(참석:14명)
- 2015년 12월 14일 총회 및 문학의 밤 부전교회 부전카페에서
신선 제13대 회장 추대하다.
- 2016년 4월 29일 통영 문학기행(청마 유치환 생가, 박경리문학관, 김춘수 생가,
이순신공원 등)을 하다.
- 2016년 6월 17일 해암뷔페에서 부산크리스천문학 25회 출판기념
회를 개최하다.
- 2016년 8월 26일 해운대문화회관에서 2016년 하계 문학 세미나 개
최하다. 주제 : 김현승의 시세계 발표자:박정선(교문)
- 2016년 12월 13일 해암뷔페에서 부산크리스천문학 26회 출판기념
회 및 총회 개최하다. 제14대 임종성 회장 추대하다.
- 2017년 4월 21일 소록도외 순천만 문학기행하다,
- 2017년 6월 30일 상반기 출판기념회(서면아이온뷔페)를 하다.
- 2017년 8월 18일 하기 문학세미나 주제 ‘1919년과 대한민국 그리고
문학’를 개최하다.(장소:해운대문화회관)

- 2017년 8월 18일 신입사무국장으로 김종헌 임명하다.
- 2017년 12월 23일 부산크리스천문학 28호 출판기념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다. 신인상:최방식(수필)
제1회 부산크리스천문학상으로 양왕용 수상하다.
- 2018년 4월 16일 월례회 개최하여 임종성 회장 병가로 인해 최귀례 회장대행 선임하다.(장소:서면 남대문)
- 2018년 7월 19일 부산크리스천문학 29호 출판기념회(장소:서면 남대문 식당)를 하다.
- 2018년 8월 16일~17일 지리산 청학펜션에서 문학수양회 개최하다.
- 2018년 8월 21일 임종성 회장 소천하다.
- 2018년 12월 26일 부산크리스천문학 30호 출판기념회 및 정기총회를 하다.(장소:대연교회)제15대 박춘덕회장 추대하다.
- 2019년 2월 제 2회 부산 크리스천 문학상 시상식(수상자:안유환) 및 월례회(장소:부전교회)를 개최하다.
- 2019년 6월 24일 봄 문학기행(안동일원)을 실시하다.
- 2019년 6월 27일 부산크리스천문학 31호 출판기념회(장소:부전교회)를 개최하다.
- 2019년 12월 19일 부산크리스천문학 32호 출판 기념회 및 제3회 부산크리스천문학상 시상식(수상자:박정선, 수상작:유산) 개최하다. (장소:부전교회)
- 2020년 6월 25일 부산 크리스천문학 33호 출판기념회 및 월례회 (장소:해암뷔페) 신인상: 최유미, 이승훈(시)
- 2021년 1월 29일 부산 크리스천문학 34호 출판기념회 및 정기총회 개최하다. 제4회 부산 크리스천문학상 시상식(수상자:신선)

과 신인상 손정란, 이귀미(시), 김숙희(수필) 수상하다.

제16대 김종현 회장 추대하다 (장소: 해운대 천지연)

2021년 12월 허성욱 제5회 부산크리스천문학상 수상하다.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오후 4시 영광도서 9층 무궁화홀 35명 참석

2022년 2월 김종현 회장 소천하다.

2022년 2월 최귀례 회장 취임하다. (17대)

2022년 3월 3일 임원회의 오전 11시 남천동 성산교회 회장 외 5명
참석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11시 물운대 걷기대회 회장 외 12명 참석

2022년 4월 14일 12시 월례회 남천동 성산교회

2022년 5월 3일 오전 11시 30분 해운대 장지년 식당

1차 편집회의 양유희 편집장 외 6명

2022년 6월 9일 솔내음에서 상반기 37회 출판기념식을 가지다.

기도 안유환 목사님

2022년 7월 2일 토요일 부크문 임원회의

2022년 8월 25일 월례회 남천동 성산교회 소회의실 회장 외 12명
참석

2022년 10월 25일 회동수원지 가을걷기대회를 가지다.

2022년 11월 임원회의

2022년 12월 27일 오후 5시 서면 솔내음 3층

제38호 정기총회 및 38호 출판기념회 서면 솔내음

기도 안유환 목사님

*유정희 고문 문학상 시상

*최방식 사무국장 사임

- 2023년 1월 26일 부크문 임원 및 이사회를 개최 임원 및 이사회
 시간: 2023. 1. 26. 목요일 12시
 장소: 식사 한우 참사랑 식육식당
 회의: 산성교회 *공석 중인 사무국장을 감윤옥 선생님 임명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식 개정에 대해 자유토론, 문학과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 2023년 2월 월례회 및 편집위원 회의 출간 책 소개
- 2023년 3월 봄 문학기행 성지곡 수원지 및 재능기부 나눔
- 2023년 4월 월례회 출간 책 소개 및 은혜 나눔
- 2023년 6월 29일 월례회 및 출판기념회
- 2023년 7월 1일 제2회 부크문 시화전 개막식. 시화 45점 전시
 기도: 윤춘식 목사
 축사: 부산극동방송 성영호 목사
 고신대명예교수 이상규 목사
- 2023년 7월 27일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칙개정안 통과
-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1차 편집위원회 회의
- 2023년 11월 9일 성지곡 가을기행
- 2023년 11월 16일 1차 편집회의
- 2023년 12월 하반기 출판기념회(40호)
- 2024년 1월 26일 임원회의
- 2024년 2월 5일 일원 및 고문단 회의
- 2024년 2월 22일 임시총회
 • 감사선출: 권갑숙, 명인숙
 • 2024년 사업계획 승인건

- 2024년 예산 승인건
- 재정확충 방안 토의
- 문학 기행 등 행사 토비

2024년 3월 18일 이사회

- 신입회원 인준: 구애순, 이둘자
- 문학 세미나 등 토의

2024년 4월 22일 월례회

- 문학 기행 안내 및 부크문 발전방안 토의

2024년 5월 25일 문학기행

- 전남 담양 가시문학관 등
- 문학의 발자취를 답사하고 회원간의 친목도모

2024년 6월 20일 출판기념회 (부크문 제41호)

- 기념식 및 신입 회원 소개 등

2024년 7월 11일 문학세미나

-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강당
- 근대 부산문학예술에 영향을 끼친 선각자와 작가의 시대적 역할.

2024년 8월 3일 부크문 시화전 개막식

- 동백섬 (8월 3일~8월 31일 전시)
- ‘바다 사람에게 놀들다’ 주제로 개막식 및 축하 행사

2024년 9월 30일 부크문 임원 및 이사회

- 부산크리스천문협 현판식
- 신입회원 인준건: 이기연, 김은희, 조의홍, 박상복
- 3/4분기 행사안 토의

2024년 10월 24일 월례회

- 부크분 42호 책값 분담건
- 부크분 재정 확충 및 발전 방안 토의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역대 회원 명단

1989년 9월 4일 창립

1989년 : 심군식, 양왕용, 허성욱, 하현식, 임종성, 한영자, 정선기,
김인환, 박춘덕 외

1992년 : 구모룡, 김동재, 김세윤, 김인환, 김향숙, 김홍규, 남송우,
박남훈, 박윤기, 박인과, 박춘덕, 백성호, 송길원, 송유미,
심군식, 안유환, 양왕용, 이금옥, 이영애, 이창, 이창희,
이채곤, 임춘남, 정대훈, 정선기, 조남순, 주태균, 최장길,
하현식, 한영자, 허성욱, 류정희

1993년 : 김정미, 김정후, 박영희, 박재수, 박정선, 배상호, 손영희,
신 선, 유신자, 한정옥, 최훈조

1994년 : 권수현, 남현자, 이채곤, 하난사

1995년 : 김명옥, 박훈덕, 백성호, 백정자, 오학렬, 이종태, 하승무

1996년 : 김상희, 조금순, 정수자, 하창길, 허성수

1997년 : 김 훈, 박희두, 엄명자

1998년 : 김귀숙, 김지경, 유일열, 이창태, 주정하, 최상룡, 최원철

1999년 : 전수연, 김복남, 박선희, 배혜숙, 손미희, 원무현,
조영욱(경남 창원)

2000년 : 서정열, 최홍식

2001년 : 김달현

2002년 : 서종미, 신정자, 안중덕, 이견숙, 이민화, 이은화, 전기웅,

- 김홍식, 나연숙(서울), 권신애(김천), 곽철근(경기 용인), 이광주,
 이미숙(충남 아산) (타 지역 회원은 지상 백일장을 통하여 가입, 이하 동일)
- 2003년 : 김만용, 이은주, 지왕근(충남 공주), 서창수, 하선옥(서울),
 김정겸, 김옥기(경남 사천), 이한숙, 박용주, 최경희
- 2004년 : 공기화, 김은주(대구), 남순, 민형기
- 2005년 : 전상순(충남 영동), 최귀례
- 2006년 : 김금아, 김종화, 나동광, 이옥진, 조범산, 조병옥, 한창옥,
 양윤형
- 2008년 : 김부상, 김종현, 진왕현
- 2009년 : 고혜은, 김대식, 김은우, 유병기, 이효준, 최기덕(재가입)
- 2010년 : 강연조, 명인숙, 모정희, 박영, 오영애, 이석문, 박경영,
 정천수, 최정인, 감윤옥
- 2011년 : 박삼철, 오병상, 장문, 최명, 권갑숙
- 2012년 : 원문선, 권영숙
- 2013년 : 김해룡, 박영곤, 백성기, 정재출
- 2014년 : 강신구, 김민주, 임지연, 진용호, 최경숙
- 2015년 : 안정숙, 이재경, 임규택, 윤춘식, 황은
- 2016년 : 팽병길, 강위석, 김수자, 김형석, 변도우, 정연원
- 2017년 : 김혜영, 성윤자, 송정우, 정영체, 최만공, 최방식
- 2018년 : 이선화, 조현숙
- 2019년 : 임병주, 윤평원
- 2020년 : 이귀선, 이승훈, 최유미, 전섭태
- 2021년 : 김숙희, 이귀미, 이영숙, 손정란, 김경희, 유병기(재가입)
- 2022년(신입회원) 신현숙, 이옥순, 정명진
- 2023년(신입회원) 오윤형, 정현옥, 남순(재가입)

2024년(신입회원) 구애순, 이가연, 이돌자, 김은희, 조의홍, 김진기,
박상복, 김숙자

2024년(현재회원) 감윤옥, 강신구, 강연조, 강위석, 공기화, 곽병길,
권갑숙, 권영숙, 김경희, 김금아, 김민주, 김복임, 김숙희,
김인환, 김정자, 김정후, 김해용, 김혜영, 김형석, 노장현,
류정희, 명인숙, 모정희, 박경영, 박정선, 박춘덕, 박희두,
배상호, 배혜숙, 백성기, 변도우, 성윤자, 손정란, 송순임,
송정우, 신 선, 신정자, 안유환, 양왕용, 양윤희, 원문선,
유병기, 윤춘식, 윤평원, 윤현수, 이귀미, 이귀선, 이선화,
이수일, 이승훈, 이영숙, 이옥순, 이용수, 임병주, 이창희,
전섭태, 전진경, 정말숙, 정연원, 조현숙, 최경희, 최귀례,
최만공, 최방식, 최유미, 최훈조, 한인환, 허성욱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라 한다.

(영문명 : The Busan Christian Writers Association)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문학창작 의욕을 고취하며, 기독교문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부산크리스천문학 발행
2. 백일장 개최 및 신인상 공모
3. 문학 강좌와 세미나 개최
4. 부산크리스천문학상 시상
5. 월례회 및 각종 모임
6.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건전한 개신교 교단의 기독교인으

로서 기성 문단에 등단한 자, 잡지와 신문에 등단한 자, 작품집을 발행한 자, 본회의 신인상에 수상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문학인을 회원으로 한다. 단 신규로 입회하는 회원은 본회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각종 행사 참여 및 각종 수혜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본회 회칙, 제 규정 및 결의 사항 등을 준수한다.
2. 본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각종 회비 납입 및 공동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제명 및 활동 정지) 아래와 같은 사람은 본회의 회원 제명 및 활동 정지를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1. 본인이 탈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때
2. 2년 이상 연락이 불명일 때
3.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할 때
4. 본회의 명예를 실추했을 때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수석부회장 1인 외 4명
3. 사무국장, 차장 : 각 1인

4. 재무국장, 차장: 각 1인
5. 서기: 1인
6. 감사: 2인
7. 이사: 20명 이내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등단 7년 이상, 본회 입회 5년 이상인 자로 고문단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연석회의 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회장의 지시하에 본회의 회무 일체를 집행한다.
4. 재무국장: 본회 제반 재정 업무를 수행한다.
5. 서기: 본회 행정 업무와 기록, 문서 보관을 수행한다.
6. 감사: 본회의 회기 중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 차장, 재무국, 차장, 서기로 구성한다.

제4장 총회

제14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 연 1회,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 이사회의 결의나 임원회의 요청, 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회장과 감사의 선출 및 인준
3. 사업 계획안, 각종 연말 보고 및 예산, 결산의 승인
4. 임시총회의 소집 안건
5. 기타 회장이 제의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성원은 출석회원으로 하고, 회칙 개정, 명칭 변경은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기타 안건은 다수 결에 의한다.

제5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 구성) 본회의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이사회 소집)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이사회 임무)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 논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의 예비 심의
4. 회원의 제명 및 활동 정지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안 결산 및 차기 예산안 심의
6. 기타 본회 운영에 관계된 사항

제20조(정족수 및 의결) 이사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안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임원 및 고문단 연석회의

제21조(고문단)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고문단을 구성한다.

제22조(연석회의) 본회는 제반 계획과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에 임원 및 고문단 연석회의를 가진다.

제23조(회의) 본 연석회의는 임원회 및 이사회에 부의한 안건들을 자문한다.

제7장 위원회

제24조(위원회) 본회는 필요시에 편집위원회, 부산크리스천문학상 심사위원회 등 위원회를 둔다.

제25조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따로 둔다.

제8장 재정 및 경조사

제26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수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한다.

1. 회원의 연회비
2. 신입회원의 입회비
3. 보조금
4. 찬조금, 후원금
5. 특별회비
6. 기타

제28조(회계감사) 본회의 재정은 연 1회 정기 회계감사를 받으며, 감사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회원 경조사

- (1) 회원 본인의 경조사(결혼, 사망)-10만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화환으로 한다.
- (2) 회원 본인의 입원(2주 이상)시는 5만원이나 그에 상응하는 꽃다발로 한다.
- (3) 회원 문학상 수상, 출판기념회 등에는 5만원이나 그에 상응하는 꽃다발을 보내되 연1회로 한다.

제9장 각종 위원회

제30조 문학상 심사위원회

1. (문학상 심사위원회) 문학상 심사위원은 7명(고문단 4명, 회원 3명)이며, 회원 심사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당회 연도로 한다.
2. (수상자 대상) 문학상 수상자는 등단 10년 이상, 작품집 3권이 상 발간한 사람으로, 부산지역의 기독교 문학과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한다.

3. (수상자 제출자료) 수상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개인 약력과 사진
 - 2) 개인 작품집 및 저서
 - 3) 문단 및 교계 활동 사항
 - 4) 대표 작품

제31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 본회는 부산크리스천문학 작품집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을 두며 주간은 회장이 임명하고 주간은 편집국장과 편집위원을 임명한다.
 - 1) 편집장 1명
 - 2) 편집위원 5명
 - 3) 편집실무위원 약간 명
2. (편집위원의 업무) 본회 편집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주간 : 부산크리스천문학 작품집의 발간업무를 주관한다.
 - 2) 편집장: 부산크리스천문학 작품집의 편집업무를 담당한다.
 - 3) 편집위원 : 편집장을 도와 편집 활동을 한다.
3. 사무국장은 편집회원으로 한다.
4. 신인상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임기는 임원에 준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회칙 개정) 본회 회칙은 이사회에서 회칙 개정을 협의하여 임

원 및 고문단연석회의에서 심의한 후 총회에 결의한다.
제2조 본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회칙제정 1989년 10월 16일
회칙제정 1996년 12월 29일
회칙제정 1998년 01월 13일
회칙제정 2000년 01월 24일
회칙제정 2002년 01월 29일
회칙제정 2004년 01월 26일
회칙제정 2012년 12월 20일
회칙제정 2019년 02월 28일
회칙제정 2023년 07월 27일
회칙제정 2024년 05월 31일

■ 연회비 안내

회 장 50만원
부 회 장 20만원
고 문 10만원
재무, 편집장, 이사, 감사 10만원
회 원 5만원

■ 신입회원 입회비 안내

가입비 15만원

■ 납부계좌 안내

부산은행 101-2042-4502-05 부크문 모정희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2024년 임원조직

■ 임원조직

회 장 송정우

부 회 장 권영숙, 김혜영, 김경희, 조현숙, 최방식

사무국장 감윤옥

재 무 모정희

서 기 이승훈

고 문 양왕용, 안유환, 박춘덕, 류정희, 허성욱, 박정선, 신선
공기화, 최귀례

명예고문 한영자, 김인환, 남송우, 하현식

상임고문 양왕용, 안유환, 류정희, 박정선

감 사 권갑숙, 명인숙

이 사 김해용, 노장현, 백성기, 변도우, 성윤자, 송순임, 윤현수
이창희, 전진경, 최만공, 한인환, 감윤옥, 전섭태, 모정희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편집부

주 간 박정선

편 집 장 양윤희

교열기자 모정희

편집위원 공기화, 권갑숙, 명인숙, 송정우, 조현숙, 최방식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주소록

성명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김윤옥	48089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28, 104동 1303호 (동부올림픽타운)	mother88888@hanmail.net	010-9876-2954
강대중	46221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709 번길 15 가동 401호(서울 빌라)	lobby@daum.net	010-9815-9191
강신구	78765 부산강서구 명지오션시티 11로 22 113동 1306(명지 두산위브포세이돈)	k1945819@hanmail.net	010-9932-4810
강연조	49116 부산시 영도구 중리로 32 (국제마미뉴비치타운)106동801호		405-8336 010-2265-8336
강위석	46994 부산 사상구 양지로 3,3-310호 (대성아파트)	kws3661@daum.net	010-3868-3399
공기화	48505 부산 남구 용소로 64번길 138, 201호(삼정그린타운)	salomkong@naver.com	010-4580-2930
곽병길	46044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해송1로33 비스타동원2차 209동 701호	bkkwak8420@hanmail.net	010-6769-8420
구애순	50920 김해시 분성로 288번길 29-5	tjs20010@daum.net	010-4666-0045
권갑숙	46061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326번길 22 3층	kkabin2000@hanmail.net	010-8553-3947
권영숙	48436 부산시 남구 못골번영로 56번길 4 (대연5동)	youngsukorea@hanmail.net	010-4093-6120
김경희	47747 부산시 동래구 문화로 15, 101동 902호 (명륜동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1차)	wj2778@korea.com	010-3568-6250
김금아	49360 부산 사하구오작로 138 (과정동 동아파크맨션)706호	hinsere@hanmail.net	010-5455-2565
김민주	51124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주남로 514 106동 502호 엔에이치에프@ 창원대산1단지	goldkim1575@hanmail.net	010-6886-1838

성명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김복단	47571 부산 연제구 고분로270 센텀 수영강 푸르지오 101동 904호	bdkim0105 @naver.com	010-2823-9747
김복임	55714 전북 남원시 인월면 상우윗길 147	maim3938 @naver.com	010-2544-3938
김속희	49325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 3번길 64호 1동 209호		010-4547-9974
김은희	46605 부산시 북구 덕천로 234번길 47, 502동 1207호	maeum5454 @naver.com	010-5695-1638
김 정	47141 부산진구 동평로 173 현성휴포레 시티즌파크 103동 803호	jjkim8 @hanmail.net	010-2836-4542
김정후	11453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200, 104동1101호 (중흥s클레스)	ccahookim @hanmail.net	010-6397-0577
김지수	47813 부산시 동래구 총렬대로 245번길 31		010-9150-4626
김진기	48103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순환로468번 나길 49	Jinkekim @naver.com	010-5550-8308
김해용	46214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2076-1	Duri0208 @hanmail.net	010-5499-7740
김혜영	48424 부산시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142, 105동 308호 (삼익그린타운)	khy2121 @hanmail.net	010-2670-2188
김형석	48222 부산 수영구 수영로 741번길 20. 105동 1505호 (수영동, 현대)	hs24gold @hanmail.net	010-2559-9417
남 순	48110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80, 101동 2303호 (좌동 한라이파트)	nssky99 @naver.com	010-9875-0087
남순백	47575 부산시 연제구 과정로 74번길 103동 402호 (선경아파트)	9912608 @hanmail.net	010-3480-9707
노장현	48157 부산 부산진구 당감1동 백양관문로104 (국제백양아파트8동503호)	roh1934 @hanmail.net	010-2832-2973
류정희	47865 부산 동래구 사직로56 (사직동)	poet5042 @hanmail.net	010-5042-5906
명인숙	48097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41 (중동롯데케슬비지)101-807	aud0113 @hanmail.net	010-4719-2012

성명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모정희	48047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382 (재송동 센텀피오래) 105-2005	sns mama@hanmail.net	010-2309-9348
박경영	48044 부산시 해운대구 삼어로 207 104동1904호(대우금아시아파트)	parkky0212@hanmail.net	010-3356-7360
박상복	48091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117 대우 마리나107동 401호	dasann7@hanmail.net	010-3797-0559
박인자	47613 부산시 연제구 봉수로 15, 2동 205호 (연산동 한독아파트)	mama1009@daum.net	010-9969-3593
박정선	48080 부산 해운대구 좌동 순환로117 (좌동롯데2차아파트)201동1904호	2050jsp@hanmail.net	010-2561-1221
박춘덕	48272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754 103동 1803호 센텀비스타동원1차	cdparks@daum.net	010-3596-9339
박희두	48453 부산 남구 수영로 175 부산성소병원	parkhd46@hanmail.net	010-4554-5181
배상호	49232 부산시 서구 까치고개로 160번길 37 (아미동2가 몽포배상호문학기념관)	munye-bsh@hanmail.net	010-5511-6707
배해숙	48516 부산 남구 분포로111, LG메트로시티113동1601호	poet0691@Daum.net	010-3862-0691
백성기	49430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신번영로233 가락타운211동704호	skbaek20@nate.com	010-3597-0169
변도우	48805 부산시 동구 초량로94-1 (췌제에코)	dowbyun@gmail.ent	010-6747-7727
성윤자	50898 경남 김해시 삼계로 239 205동 306호 (삼계동 부영아파트)	yjseong@hanmail.net	010-2810-2136
손정란	48304 부산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141, 102동 506호 (협진태양아파트)	sjj0212@hanmail.net	010-2441-3393
송순임	48507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47번길 125 (대연동)대전유차원	56ssi@hanmail.net	010-3557-5622
송정우	48059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60, 707호	jwsongtass@gmail.com	010-3051-1094
신 선	48086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 88, 1-101 (신동비치맨션)	sinsun0512@hanmail.net	010-3836-5273

성명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신정자	46518 부산 북구 양달로 9번길21 벽산강변아파트 112동 701호	s000920 @hanmail.net	010-9481-1153
신현숙	47868 부산시 동래구 쇠미로 129번길 62-12, 105동 1606호 (화신동영아파트)	shsook57 @hanmail.net	010-3243-8029
안유환	46296 부산 금정구 식물원로 64 (금정산에스케이뷰아파트)112동 1404호	ayh0715 @korea.com	010-3801-2305
양왕용	48104 부산시 해운대구 양운로37번길11, 106동 1301호 (현대아파트)	poyong43 @naver.com	010-3563-2604
양윤형	48726 부산 동구 중앙대로 514 (범일동한성기린프라자)A동1611호	yunhyung7 @hanmail.net	010-3851-4428
오윤형	48035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로 133, 102동 1402호 (센텀롯데캐슬)	oyoonh2020 @hanmail.net	010-8519-8331
원문선	48065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483번길 10 (우동롯데아파트)9동 1204호	wms142 @hanmail.net	010-9222-9626
유병기	47101 부산시 부산진구 성자곡로 67, 103동 1103호 (삼함아파트)	yubk111 @hanmail.net	010-8239-6630
윤춘식	46945 부산시 사상구 삼덕로 71길 (덕포동 404-8) 브니엘신학대학	latintimes @hanmail.net	010-4225-1664
윤평원	47707 부산시 동래구 우장춘로 108번지 12	sandolyoon @naver.com	010-9661-3208
윤현수	48577 부산시 남구 이기대공원로 26번길45-3 101동 210호 용호동 대광타워	yhs201 @hanmail.net	010-6562-2411
이가연	49207 부산시 서구 꽃마음로 57 금호어울림아파트 101동 1003호	gelee @dau.ac.kr	010-2560-3498
이경옥	49316 부산시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11, 당리동 반도보라아파트 102동 806호	ky1159 @hanmail.net	010-4571-5259
이귀미	49430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하신번영로233 가락타운 211동 704호	skbaek20 @nate.com	010-3597-0169
이귀선	46228 부산시 금정구 두실로41 로얄캐슬 902호	l-jundosa @hanmail.net	010-7550-1193
이들자	48532 부산시 남구 흥곡로 360 대연파크 푸르지오 112동 1640호	ree6997 @hanmail.net	010-9312-6997

성명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이선화	49079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126 (영선동3가)	a01045548926 @daum.net	010-4554-8926
이수일	49326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 391번길 5, 나동204호	sui306 @naver.com	010-5526-3651
이승훈	47338 부산시 부산진구 엄광로 238번길5 삼정그린코아 102동 1502호	qa0691 @naver.com	010-4853-7074
이영숙	46058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배산로 8번길51 이진테마빌 101동 211호	dldudtnr0626@ naver.com	010-5230-0433
이옥순	49393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109 5동 203호 (신평한성임호아파트)	oksnlee@hanm ail.net	010-3860-7180
이옥진	48064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469번가길 91 센텀마리나 101-1003	soup3927 @hanmail.net	010-2527-8445
이용수	46308 부산시 금정구 서동로 15 A동105호 (부곡동 협진태양아파트)	yongsu.0521 @hanmal.net	010-6387-5537
이준우	49520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473, 110동 2301호 (다대동 현대 아파트)	Photojun0077 @hanmail.net	010-8507-0077
이창희	46044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1길5-6일광아파트 305호	w2820691 @naver.com	010-4858-1550
이효정	48075 부산시 해운대구대천로 103번길47, 119동 303호	milktea2021 @naver.com	010-6240-3447
임병주	48078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 103번길 29 대동타운 514동 1801호	newlife3217 @naver.com	010-3425-3217
전진경	47257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96번길 11	pfjeon @hanmail.net	010-3594-5516
전섭태	48430 부산시 남구 대연5동 1489-8 효원빌라 402호	setajeon @naver.com	010-2470-0766
정말숙	48081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 67번길 18, 408동 1804호 (뜨란채아파트)		
정명진	48936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32번길 7 대림빌딩 503호	sora1868 @hanmail.net	010-9332-6250
정연원	49088 부산 영도구 태종로 428 한라아파트 2007	mysky999 @hanmail.net	010-8510-5378

성명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정현욱	48091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99, 105동 1106호 (우동 경남마리나)	hoj5491@hanmail.net	010-9326-5491
조의홍	48221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741번길 46 202동 2405호		010-2812-7397
조현숙	48080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99번길 22(경남 아너스빌) 110동 902호	shiree98@hanmail.net	010-3853-9091
최경희	48113 부산 해운대구 좌동 순환로 299번길 22 삼환아파트 101-803	ckh7325@hanmail.net	010-2836-7325
최귀례	48090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30 (해운대엑소디움)102-3002호	countrycha@naver.com	010-4283-4456
최만공	47571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 280 부산센텀푸르지오 103동 402호	cmg2027@hanmail.net	010-4260-7409
최방식	48559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 26 현대아이파크아파트 103동 2304호	yddchoi@hanmail.net	010-5041-7380
최유미	46016 부산시 기장군 정관4로24 동일스위트1차110동102호	you3182@naner.com	010-8684-9039
최훈조	48057 부산시 해운대구 재반로30번길 135 재송동 안성타워맨션 407호	veryhappy0502@hanmail.net	010-5553-6046
한인환	48432 부산시 남구 수영로 345 (대연동 대연힐스테이트 푸르지오) 113동 1503호	linwhan09@hanmail.net	010-2635-1427
허성욱	47529 부산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39, 310동 2502호(거제동, 레이크اون티)	heoswook@naver.com	010-3562-0149

2024년 회원 게시판 동정

❖ 회원 동정

- 송순임 : 「부산여성상」 수상, 2024년 9월 2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 김경희 : 부산문학상 대상 수상, 2024년 9월 6일 부산예술회관에서
- 조현숙 : 부산문학 우수상 수상, 2024년 9월 6일 부산예술회관에서
- 이영숙 : 포도나무문학방송을 운영하고 있음

❖ 신간 안내

- 송순임 : 『능소화가 피는 골목』 (작가마을)
- 권영숙 : 『흘러가는 구름처럼 살고 싶다』 (세종출판사)
- 김혜영 : 『춤추는 목각인형』 (제임엠 프린트)
- 최방식 : 『함께 뜨는 손가락』 (세종출판사)



편집후기

- 2024년 하반기호에는 하계세미나 발제 원고(이상규, 박정선) 2편을 특집으로 게재했다. 두 분 발제자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해운대 동백섬 시 전시회와 월례회 행사를 화보로 실었다.
- 우리 협회 현판을 송정우 회장님 사무실 현관에 건 현판식 사진을 게재했다. 회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 올해도 변함없이 운문 작품평을 써주신 양왕용 고문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기획특집 원고를 주신 안유환 고문님께 감사드립니다.
- 원고를 내주신 모든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참고사항

- 부산크리스천문학이 격조 높은 문학지가 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회비와 후원금 입금계좌는 맨 아래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부산크리스천문학 제42호

등록번호 [부산, 사01034]

인쇄일 | 2024년 12월 15일

발행일 | 2024년 12월 20일

발행처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발행인 | 송정우

주간 | 박정선

편집장 | 양윤형

편집위원 | 공기화, 권갑숙, 명인숙, 송정우, 조현숙, 최방식

인쇄처 | 세종문화사

출판등록 제02-01-96

주소 | 48964 부산시 중구 흑교로 71번길 12 (보수동2가)

전화 | (051) 463-5898, 253-2213~5 | FAX (051) 248-4880

이메일 | sjpl5898@daum.net(세종출판사)

ISSN 2384-3780

※ 이 책의 무단 전재 및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값 15,000원

정기구독료 및 회비 입금계좌

부산은행 101-2042-4502-05 부크문 모정희

《부산 크리스천문학》



부산 크리스천문인협회 회 원 모 집

크리스천 문인은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로 오세요

부산 크리스천문인협회는 예수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문학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회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학과 지성을 추구합니다. 우리회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항상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진실한 문학정신을 추구합니다.

주님의 말씀마다 문학이며 신앙 세계는 곧 문학의 원천입니다.

오늘도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문학의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작가님을 기다립니다. 기성 문인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작가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 **연락 주실 곳** _ 부산크리스천문학 편집실

▪ **이 메 일** _ 2050jsp@hanmail.net

▪ **연 락 처** _ 주간 : 010-2561-1221 / 편집장 : 010-3851-4428

▪ 신인상 원고 모집

부산 크리스천문인협회에서 신인을 선발하는 작품을 공모합니다.

당선된 분은 작가로 활동할 수 있으며 우리회 회원으로 영입합니다.

응모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장르를 응모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 · 시조 - 각 5편씩

• 동화 - 1편(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 동시 - 5편

• 소설 - 1편(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 수필 - 2편(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 평론 - 1편(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원고 보낼 곳** _ 부산크리스천문학 편집실

• **주 간 이메일** _ 2050jsp@hanmail.net / **연락처** _ 010-2561-1221

• **편집장 이메일** _ yunhyung7@hanmail.net / **연락처** _ 010-3851-4428

송순임 시집

능소화가 피는 골목



- 서울출생
- 숙명여자대학 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 1997년 《시와 시론》 등단
- 저서 동시집 『봄비와 은행나무』
- 칼럼집 『터놓고 하는 세상이야기』
- 현재 부산대원유치원 설립자이며 소극장 “다솜아트홀”경영

송순임 시인 작품의 두드러진 특징은 장소사랑을 기반으로 한 일상에 대한 서정적 소회와 그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적 신앙고백 이라 볼 수 있다.

삶에있어 현대인은 정주적 이기보다 유랑적 이라한다.

그러나 송시인은 평생을 대현동에서 살고 있다 한 곳에 뿌리내리고 싶은 장소사랑이라 보고자한다.

— 양왕용 (전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 부산대 명예교수)



9 772384 378006
ISSN 2384-3780